

THE MISSILE

1962年 8月 25日 印  
1962年 8月 31日 發

月刊

# 미사일

# 1962

# 9

編輯係



特輯

## 우리들의 實踐을 沮止하는 것

나의 初年兵時節

유니폼 周邊

座談會

## 중이브이키 명량한 생활

第 17 號

# 七代參謀總長에 張盛煥中將就任

지난 八月一日 신임참모총장에 張盛煥中將이 취임하였다.  
 전참모총장 金信장군은 임기만으로 퇴임전역하였다.

그리고 참모차장에는 朴元錫준장(八月二일부) 삼도부장에  
 는 張志良준장(八月六일부)이 각각 취임하였다.



參謀總長 空軍中將 張 盛 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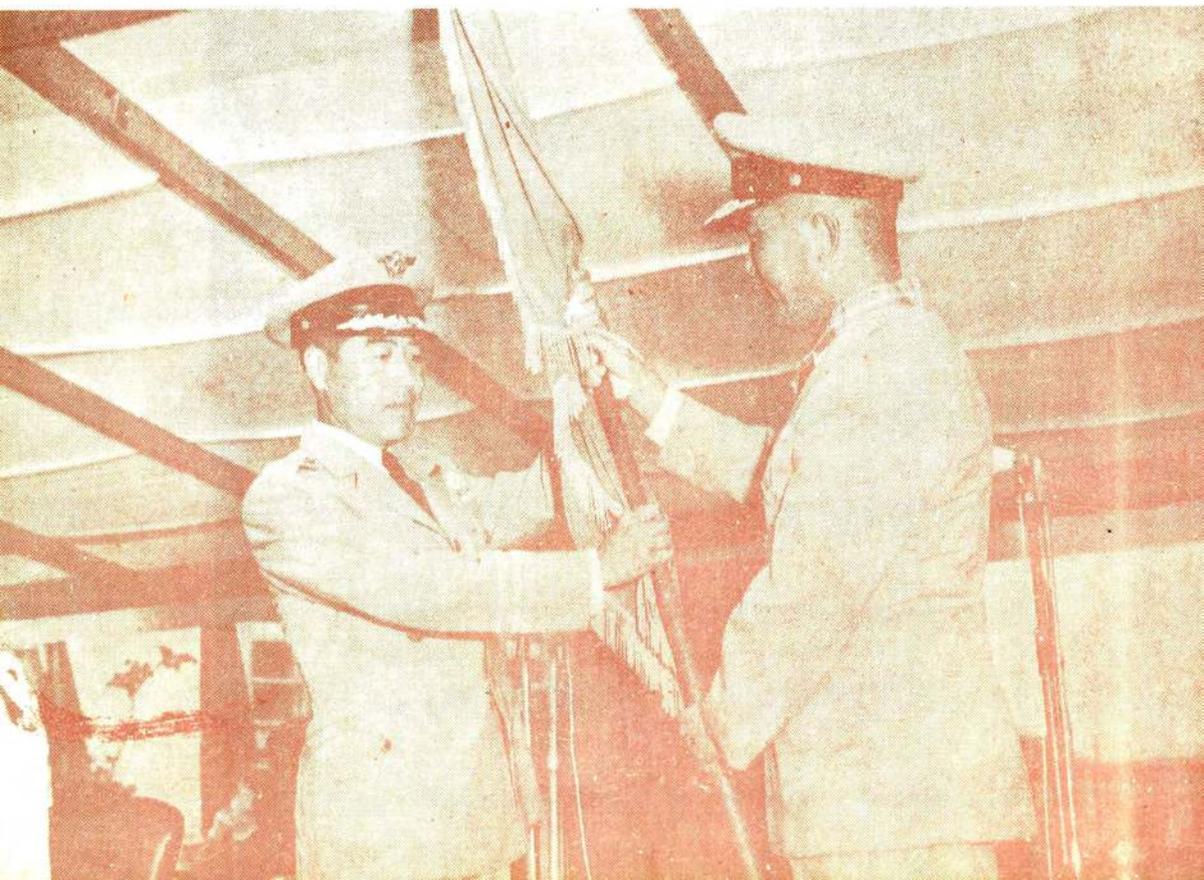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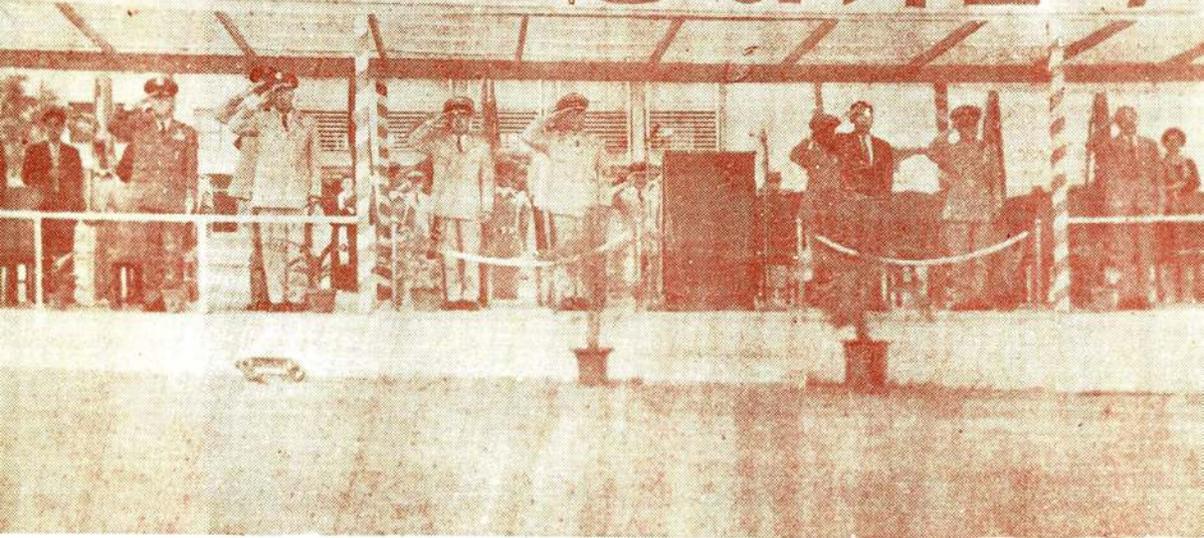


參謀次長 空軍准將 朴 元 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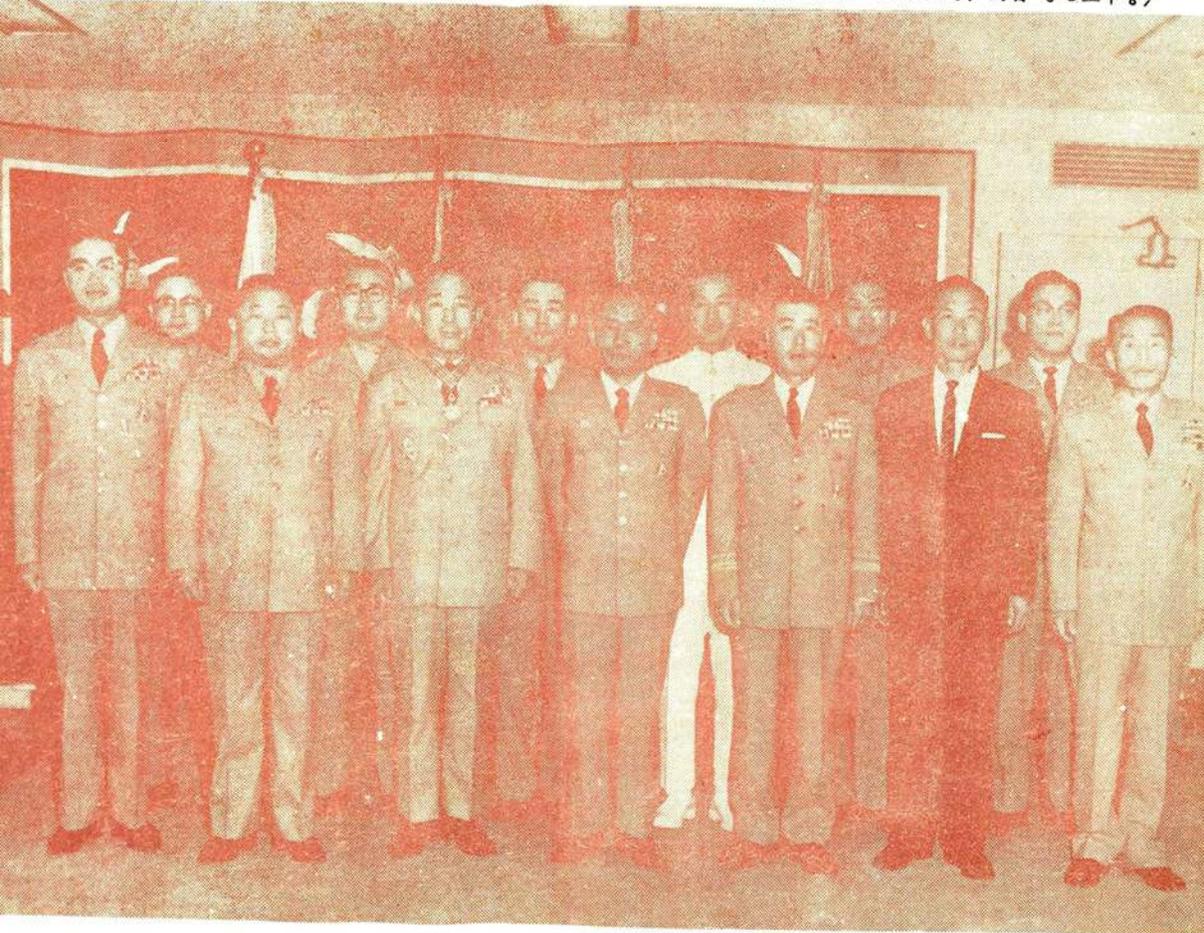
參謀副長 空軍准將 張 志 良

# 참모총장이취임식



上 박의장과의 기념촬영(신고후)

下 내외 기자 회견 광경(8월 22일)  
〈中央;장삼모총장, 向左 박삼모차장, 向右 장삼모부장〉



表紙 그림·문하진  
窓 컷·우경회  
目次 컷·우경회  
內容 컷·백영수  
이순재  
이희세

<畫 報>  
◇ 參謀總長 離就任式  
◇ 金內閣首班 空本巡視  
◇ 內務班 生活의 點描

就任辭  
離任辭

空軍中將 張盛煥 (二)  
空軍中將 金信 (四)

卷頭  
論文

### 民主主義의 歷程

金基錫 (六)

民族의 平等 主權의 平等 大陸間의 平等 人種의 平等 이것이  
참되고 새로운 民主主義의 目標가 되어야 한다고 說破!

### 美國核戰略의 基本構想 (核戰略書의 解說)

外誌에서 朴炳 日譯 (三三)

☆ 軍縮을 위한 現實的인 路 (下)

P·부라렛트 (四八)

### 輯 || 우리들의 實踐을 沮止하는 것

特 非實踐的인 思考에 關하여

孫明鉉 (一一)

- ☆ 隋性과 實踐 .....
  - ☆ 優柔不斷의 性格 .....
  - ☆ 判斷의 誤謬와 實踐 .....
  - ☆ 理論과 計畫의 缺陷 .....
  - ☆ 無計畫에서 오는 것 .....
  - ☆ 意志薄弱에서 오는 것 .....
- 柳德天 (一一)  
裴洪 (一九)  
盧憲鎬 (一八)  
金石桓 (一六)  
金德寶 (一五)  
朴術音 (一三)

### 越南戰의 性格과 課題

C E 리베이 (三四)

☆ 主聯診斷 .....

座談會 내무반 운영을 말하는

林煥燮 (七八)

### 〈장병페이지〉 新兵生活 點景

司會 大尉 閔載翼 (二三)

☆ 모스크마와 行列 .....

☆ 世界를 움직인 事件 ⑤

外誌에서 (三六)  
外誌에서 (三六)  
外誌에서 (三六)  
外誌에서 (三六)  
外誌에서 (三六)

### 우리部隊의 姊妹部落을 말한다

航空本廠 (七二)

#### 나의 初年兵 時節

후라이 보이 郭圭錫 (八一)

☆ 「카짓지름」의 病弊와 그 解消策 (軍內懸賞 佳作論文)

少領 金秉老 (八八)

☆ 「루·포」白炯寅氏의 경우

권 錫 新 (四一)

유니폼周辺 趙豐衍 馮秋菊 姬

김나봉 (五五)  
이동현 (六二)  
최호진 (五九)  
이종진 (六六)

민주주의 原理제 미나  
共産主義제 미나  
生活經濟 A·B·C  
포도酒 이야기

△공산주의△  
△생화경제△  
△생화과학△

☆ 映畫紙上鑑賞 音樂베르그裁判

K·나이트 (八九)

☆ 린드버그의 成功 (航空發達史 ⑥)

朴榮溶 (九八)

선량한 사람들 (내과장관 吳壽宇 將軍)

朴喜柱 (九九)

헬레비존과 헬스타 通信衛星

金基漸 (五二)

나를 救해준 「짜라투스트라」  
나를 救해준 「李舜臣全書」

權寧大 (四四)  
閔丙台 (四五)  
宋大淳 (四六)  
高廷基 (七四)  
異河潤 (七五)  
李軒求 (七六)  
金榮注 (八二)  
朴南秀 (七九)  
高南銀 (九〇)  
金利錫 (一〇一)

花草이야기

柳起英譯 (一〇五)

創作友 情 少女像

權植 (二七)  
孫聲 (二九)  
洪泉 (三〇)

現代의 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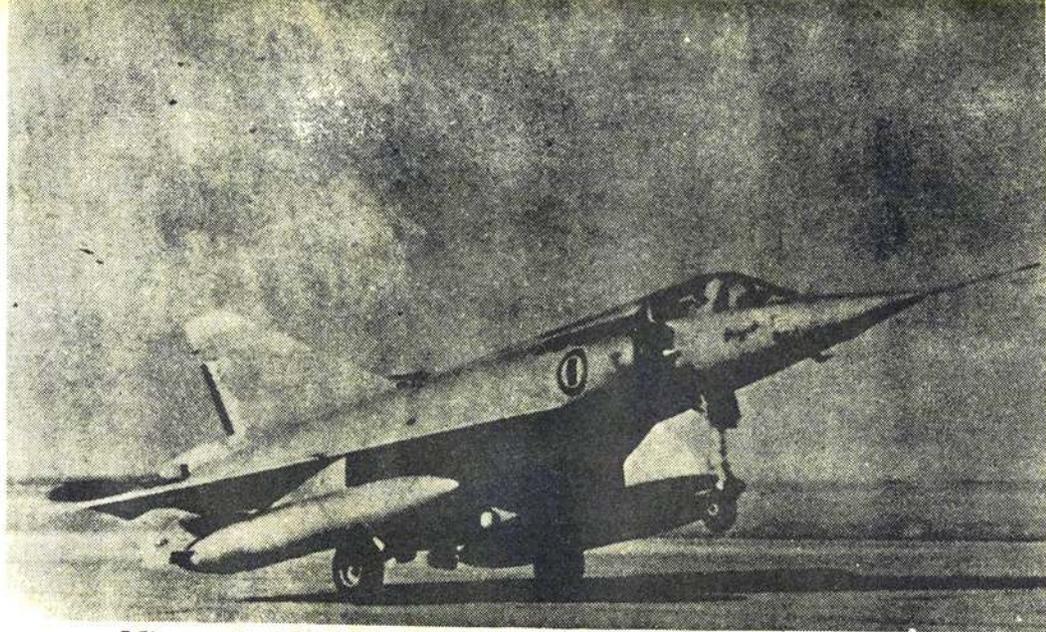
戰略 (二七)  
戰略 (二九)  
戰略 (三〇)

조용한 殺人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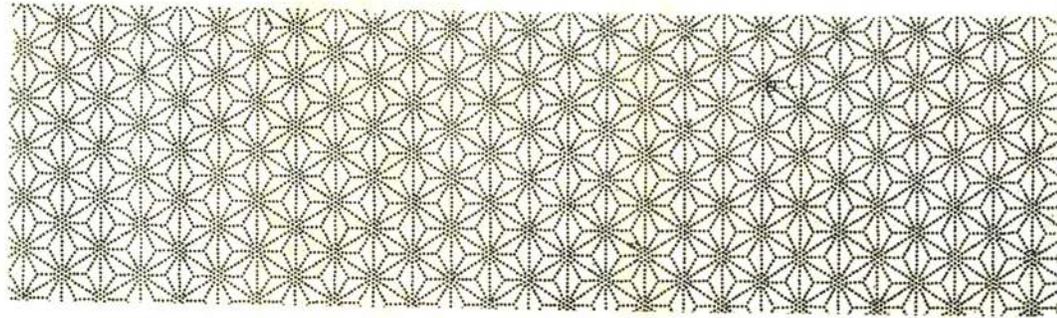
柳起英譯 (一〇五)

現代의 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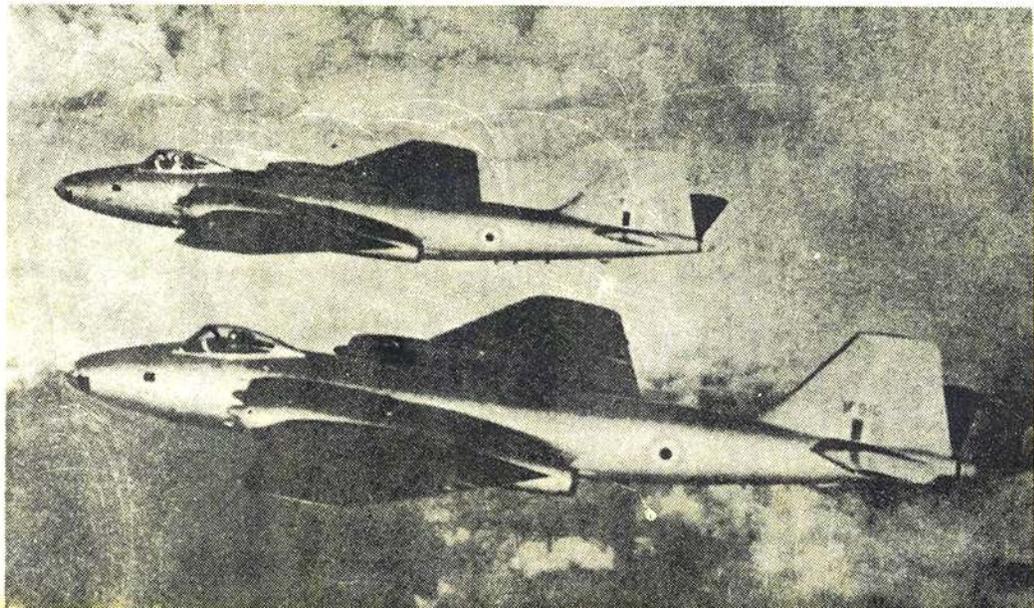
戰略 (二七)  
戰略 (二九)  
戰略 (三〇)



Migage III A全天候戰鬥機(佛) — 佛蘭西의 前衛的인 遊擊機로 1958年 5月 12日 就航. 最大速度 마하 2.05, 作戰上昇限度 82,000 ft, 航續거리 1,850 마일.



Canberra B 輕爆擊機(英) — 1949年 5月 13日 就航한 英國공군의 中樞的 輕戰術爆擊機. 最大速度: 40,000 ft 상공에서 44,000 파운드의 重量으로 470 노트. 航속거리 3,155 마일. 實用上昇限度 48,000 ft.



## 公務員倫理綱領

### <目的>

本綱領은 公務員의 道德的義務를 強調하고 公務員으로서의 德性을 涵養하여 國家와 國民에 대하여 忠實히 服務하게 하는데 있다.

### <倫理綱領>

1. 公務員은 愛國精神으로 勤勉誠實하게 奉仕하고 國家와 國民의 發展에 最大限의 忠誠心을 發揮한다.
2. 公務員은 國法遵守에 率先하고 秩序를 尊重하여 맡은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한다.
3. 公務員은 賢明한 判斷과 高尚한 人格으로서 能率的이고 經濟的인 方案을 摸索하여 迅速正確하고 슬기롭게 職務를 處理한다.
4. 公務員은 公과 私를 明白히 分別하고 人權을 尊重하여 公正하게 職務를 遂行한다.
5.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로서 國民의 信任을 獲得하기에 努力하고 職務上의 秘密을 嚴守한다.
6. 公務員은 和睦團結하여 職場의 勞働氣를 明朗하고 平和롭게 造成한다.
7. 公務員은 素朴하고 儉素한 生活를 營爲하며 頹廢的인 風潮를 물리치고 模範的인 家庭을 이룩한다.

## 혁 명 공 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여기 청정한 겉음과 주른 꿈을 조국의 하늘에 불살으며 보람있는 나날을 즐거움으로 누비는 생활의 보금자리「공군내무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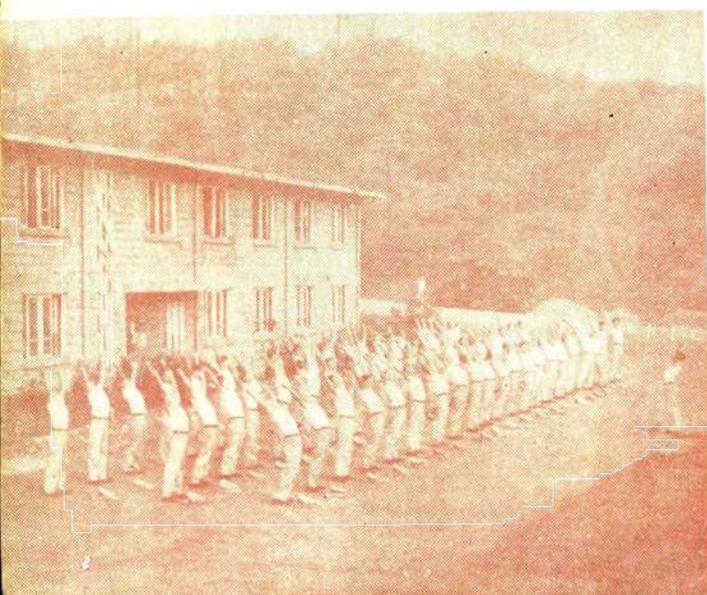
上敬下愛, 人和團結, 엄정한 군기를 오히려 자랑스러운 생활원리로 실천하고 있는 이들 내무반원들은 언제나 고락을 같이하는 한 가족이요 믿음직스런 전우다.

# 젊은이들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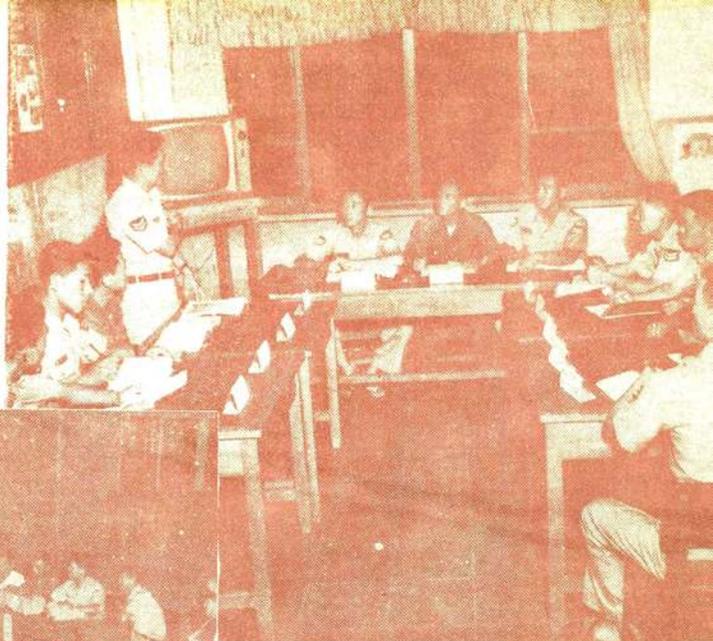
## 내무생활의 모습

작진 : 下士  
글 : 上兵

李 韓  
錫 相  
煥 七



# 문화생활 인사이드



↑ 6. 내무반장 회의

가동 현대적 시설을 구비한 우리들의 내무반은 우리들 한층 명량하게 해준다. 그중에도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기 위한 회의실이나, 끊임없는 지식의 샘이 되고 있는 도서실, 텔레비전, 파독, 장기 등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오락실, 항상 시원한 물을 뽑어주는 샤워장 등은 훌륭한 우리내무반의 캐비닛, 침대 등과 함께 우리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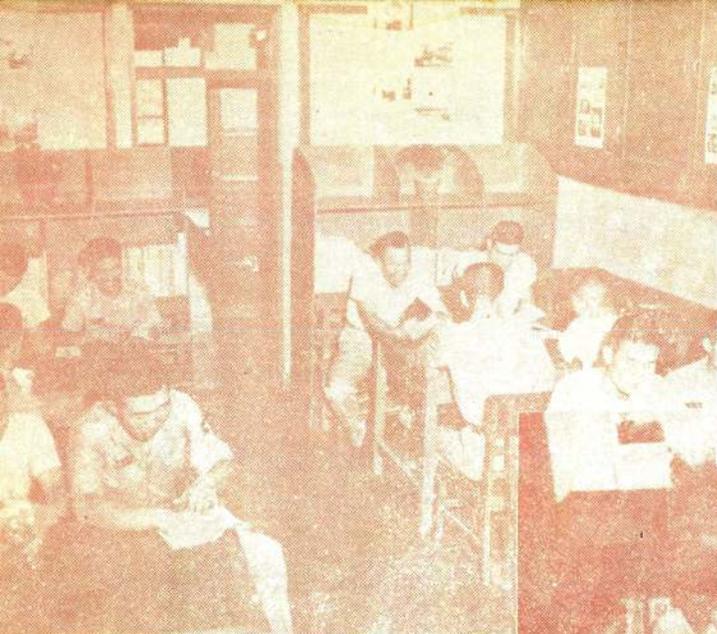


↑ 7. 레크레이션

↓ 3. 세면장과 샤워장



# 좋은 분위기



↑ 8. 도서실



↑ 9. 오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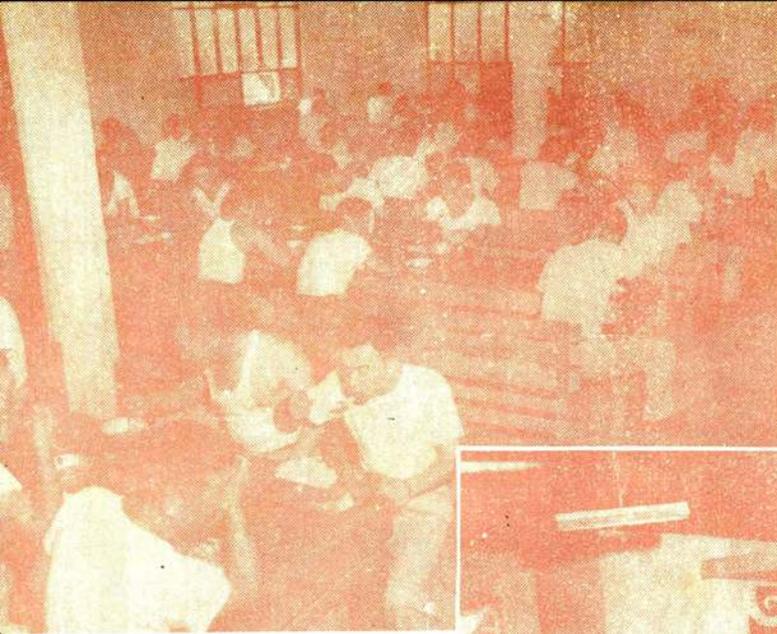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그 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과업을 준비한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지식에의 갈  
증을 해결키 위해 독서도 하고 토론도  
한다. 때로는 텔레비전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K병장과 박두의 승부를 겨루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의 신변을 정리하기  
위해 바느질(?)도 하고 집에 편지도 쓴  
다.

↓ 5. 신변정리



↓ 4. 배구시합





↑ 10.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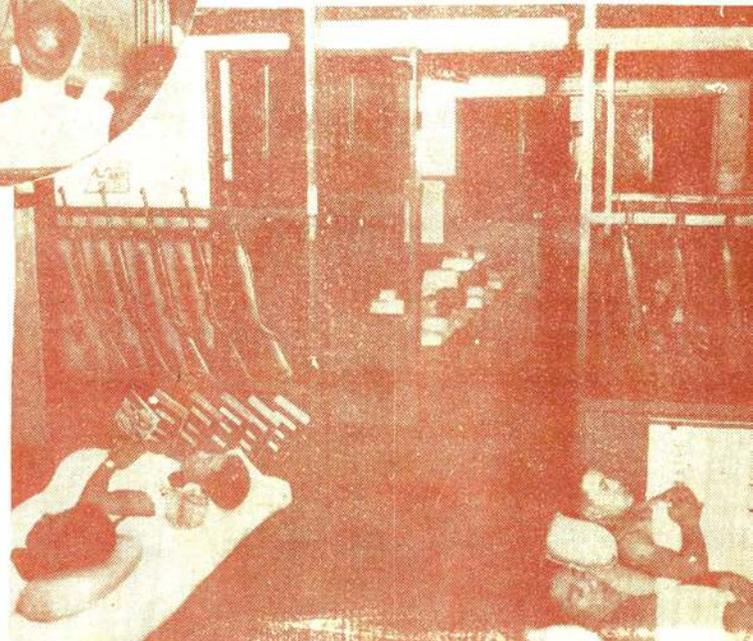
↓ 11. 면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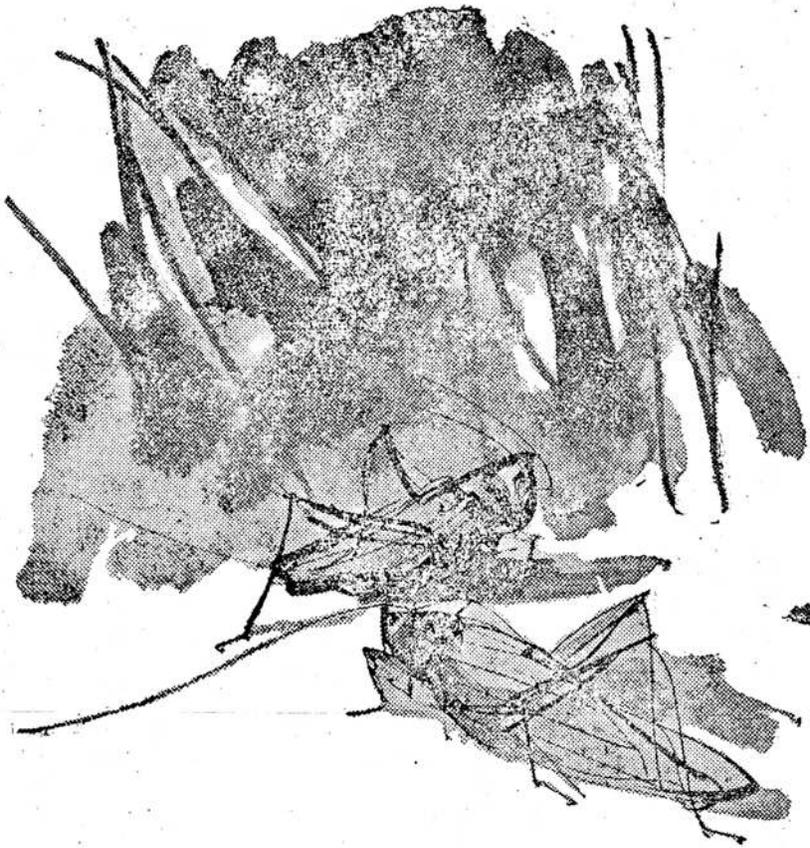
13. 텔레비존 관람



그러나 명량한 내무생활의  
 으뜸가는 요건은 아무래도 인  
 화와 단결이다. 격의없이 주고  
 받는 다정한 말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  
 생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음을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



↑ 12. 취침



결...우 경 회

미 사 일

제 17 호

1962

發 行 處·空軍本部 政訓監室  
發 行 兼 編 輯 人·空軍大領 朱 貞 鎔  
印 刷 處·空 軍 教 材 廠  
印 刷 人·空軍大領 金 石 桓

# 就任辭

空軍參謀總長  
空軍中將 張盛煥

外務國防委員長閣下 國防部長官閣下 UN軍司令官 「멜로이」將軍 그리고 內外貴賓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式典에 臨席하시어 빛나는 자리를 베풀어 주심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無限히 感謝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보건대 昨年에 成就한 五·一六革命은 國際正義와 民族的 良心에 立脚한 歷史的 轉換點으로 國家安全保障과 自立經濟建設이라는 莫重한 使命을 遂行하기 爲한 舉族의 進軍의 契機를 마련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國民이 이 使命을 完遂하려고邁進하고있는 此際에 金信將軍과 惜別의 情을 나누게 됨을 將兵과 더불어 深切하게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 禁할길 없읍니다.



金將軍께서는 空軍創設以來 熱烈한 愛國心과 透徹한 航空精神으로 우리 空軍의 育成發展에 全力을 傾注하여 燦爛한 業績을 이룩하시었으며 더욱이 總長任期中에는 作戰指揮權의 一元化를 爲하여 作戰司令部를 設置하는 한편 全天候邀擊機大隊의 創設로 戰力增強을 꾀하고 東洋屈指의 航空整備補給廠을 竣工하시었으며 反共思想의 鼓吹와 精神武裝의 強化로 臨戰態勢를 鞏固히 하시는 등 革命隊列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눈부신 活躍은 全將兵의 尊敬과 國內外 要路의 많은 稱頌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비록 金將軍께서 空軍을 떠나신다 할 지라도 그 業績과 高邁한 人格은 우리의 龜鑑으로 길이 빛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의 重責遂行에 成功과 幸福과 榮光이 있을것을 全將兵과 더불어 祈願하는 바입니다.

우리 空軍은 建軍以來 歷代參謀總長任 및 全將兵의 愛國愛族하는 奉仕와 犧牲으로 祖國蒼空을 防衛하며 長足の 發展을 거듭하여 現代化된 空軍으로서의 面貌를 갖추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제 金將軍의 뒤를 이어 不德한 小官이 空軍參謀總長의 職에 就任하게 됨을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나 한편 現時局의 重要性을 생각할때 參謀總長의 任務와 責任이 莫重함을 再三 느끼며 微力이나마 將兵들의 愛國心の 뒷받침을 받아 自身の 熱과 誠意를 다하려고 決心하는 바입니다.

現今 國際情勢는 自由와 平和를 守護하여 人類의 無限한 繁榮을 이룩하려는 自由陣營의 굳은 決意에 挑戰하여 世界를 赤化 하려는 共產陣營의 橫暴로 緊張이 조금도 緩和되지 못하고 있으며 北韓傀儡는 至今도 끊임없이 戰力을 強化하고 再侵의 機會를 노리고 있습니다. 國內的으로는 國家再建이란 民族의 課業이 遂行되고 있는 가운데 一便 國防 一便 經濟再建이라는 至上目標는 우리 世代가 完遂해야 할 最高의 使命으로 생각하며 여기 國防의 一翼을 擔當한 空軍의 任務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現代 科學이 急速히 發達된 오늘날 航空分野의 科學 또한 加速度的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技術 및 裝備上의 優劣은 現代戰을 勝利로 이끄는 關鍵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는 北韓에 對한 相對的 優越性을 堅持하며 우리의 任務을 達成하기 爲하여 民主友邦과의 緊密한 紐帶와 積極的 協調를 꾀하는 한편 어느때든지 賦荷된 任務을 遂行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야 하겠읍니다.

親愛하는 將兵여러분!

여기에 本官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統率方針을 指示하면서 이에 積極呼應하여 空軍發展을 成就하고 나아가서는 國家와 個人에 榮光을 가져오도록 힘써 주기를 要望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協同團結해야 하겠읍니다. 勝利를 爲하여 힘을 合하여야 한다는 原理는 지금까지 내려온 空軍의 오랜 傳統으로서 諸官이 物質面에 앞서 갖추어야 할 要素는 精神과 態度라는 것을 銘心하고 恒常人和團結하여 總力量을 우리가 願하는 方向으로 傾注하도록 努力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職務에 對한 獻身으로 愛國心을 發揮해야 하겠읍니다. 職業的 奉仕를 通하여 職務에 獻身함으로써 國家의 發展과 繁榮을 期待할 수 있으며 이 奉仕精神만이 우리의 主權과 自由를 守護하고 우리의 統一된 目標에 到達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와같은 精神을 民반점으로 技術 및 行政의 科學的 管理 運營을 通하여 戰鬥力을 培養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機械文明의 發達에 따라 이를 綜合하고 運用하는 最終的인 核心體는 人間임을 깊이 깨닫고 諸分野의 管理運用 方式을 研究發展 시키도록 힘써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오늘 榮光된 이 자리에서서 우리 空軍의 發展과 國家를 爲하여 一身을 바친 하늘의 勇士께 最高의 敬意를 表하며 오늘날까지 始終一貫 우리 空軍의 育成發展에 聲援을 아끼지 않으신 國民앞에 그리고 國防部를 爲始한 陸海軍 海兵隊 및 美空軍 UN軍司令部의 獻身的인 支援과 協助에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고 將兵들의 보나 나는 奮發로써 空軍의 傳統과 精神을 받들어 神聖한 國防使命과 國家再建課業을 完遂할 수 있도록 앞으로 끊임없는 여러분의 指導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一九六二年 八月一日

# 離任辭

前參謀總長  
空軍中將 金 信



外務國防委員長閣下 國防部長官閣下 「펠로이」將軍 그리고 內外貴賓 여러분을 모시고 親愛하는 空軍將兵과 더불어 오늘 이 式典을 가지게 됨을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本人이 淺學非才의 몸으로서 空軍參謀總長으로 就任한 以來 上司 先輩 內外親知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指導鞭撻과 將兵여러분의 積極的인 補佐와 獻身的인 努力으로 在任期間中 重責을 다하기에 盡力할 수 있었음을 무엇보다 感謝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本人이 二〇個星霜에 걸친 軍門에서의 操縱士生活을 끝마치게 된 것을 도리켜 보니 其間 全將兵과 같이한 死活線上의 苦樂이 이 瞬間에도 生生하게 本人의 머리속을 스쳐가고 있어 깊은 感懷를 禁할길 없습니다.

回顧하건대 共產敵의 不法南侵으로 六·二五戰亂이 勃發하여 가진 民族受難의 逆境속에서도 無에서 有를 創造하고 비록 짧은 歷史속에서나마 歷代總長의 獻身的인 功獻으로 우리 空軍은 오늘날 祖國防衛의 一翼을 擔當할 수 있는 現代的 戰術空軍으로서 그 기틀을 굳건히 하여 왔음을 마음 든든히 여기는 바입니다.

더구나 四·一九革命後 腐敗와 混亂한 國家民族 存亡의 危機에서 五·一六革命으로 救國濟民의 民族的 轉期가 마련된 歷史 創造의 革命隊列에서 全將兵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굳은 團結과 人和로써 確固不動한 軍本然의 使命을 다하고 國家再建의 民族的 課業遂行에 多少나마 이바지할 수 있었음을 생각하여 그 榮譽을 길이 간직하려 하지만 한편 本人의 能力과 努力이 未洽하여 보다 훌륭하게 業務를 遂行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責任을 다하기에 萬遺憾없었는가가 다만 念慮될 뿐입니다.

우리 空軍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戰術空軍으로서의 戰鬥力을 培養하고 自由守護를 爲해 反共戰線의 最尖端에 서서 如何한 敵侵에도 對處할 수 있는 防空態勢에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게 된 것은 오로지 親愛하는 將兵 여러분들의 불타는 愛國心과 不屈의

國志가 그 바탕이 되었음은 勿論 國防當局을 비롯해 陸軍、海軍、海兵隊의 뜨거운 指導 및 協助 그리고 美國을 爲始한 友邦 空軍의 아낌없는 物心兩面에 걸친 絶對的인 聲援의 힘이 뒷받침하여 왔음을 再三 느끼며 本人이 在任期間中 여러분이 보내주신 끊임없는 協助와 聲援에 對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또하나 기쁘고 믿어은 事實은 本人의 後任으로서 莫逆한 戰友이며 全將兵의 尊敬과 信望을 한몸에 지닌 張盛煥將軍이 就任하게 된것입니다.

張將軍은 六·二五戰亂中 防空 救國戰線에서 生死苦樂을 같이 나는 戰友일뿐 아니라 空軍初創期부터 우리空軍의 重鎮幹部로서 中樞的 役割을 다하여 왔으며 最近에는 參謀次長으로 空軍의 運命을 本人과 더불어 지니기에 盡力하여 왔읍니다.

앞으로 張將軍의 이러한 卓越한 指揮統率力과 濃厚한 德性아래 全將兵이 全心團結하여 보다 劃期的이고 훌륭한 來日의 空軍發展이 이룩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또한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空軍將兵 여러분!  
本人이 이 자리를 빌어 몇마디 付託드리고저 하는것은 現今의 國內外情勢를 正視하고 共產傀儡가 侵略의 野慾밑에 空軍力을 繼續 增強하기에 狂奔하고 있다는것을 銘心하여 敵의 空中奇襲에 對備할 수 있도록 戰鬪作戰用兵을 비롯한 各分野의 戰技를 加一層 練磨하므로써 一騎當百當千의 불보다 質的인 戰鬪力強化에 邁進하여 줄것과 또하나는 軍은 國家民族의 永遠한 安寧福社와 國土防衛의 聖스러운 大業을 爲해서만이 存在하며 軍을 爲해서는 個個人의 犧牲을 甘受할 수 있는 大義를 爲하여는 毅然히 小我를 버릴 수 있는 犧牲精神의 主人公이 되어 줄것을 懇切히 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將兵여러분은 五·一六革命으로 우리國家와 民族이 새로운 삶의 보람찬 歷史的인 時點에서 있다는 自負心과 覺悟를 堅持하고 여러분들에게 賦課된 軍의 使命과 國家再建이라는 一身兩役의 莫重한 任務를 暫時도 잊지말고 渾然히 空地一體가 되어 이제까지 살아올린 값지고 훌륭한 業績을 더욱 닦고 빛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平素」 訓練에서 담을 많이 흘린 軍隊는 戰鬪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옛말을 되새겨 平素에 實戰과 같은 訓練을 거듭 해 國家의 부름에 언제나 對備할 수 있는 強力한 役軍이 되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本人은 이제 情드린 軍門을 떠나 將兵여러분과 몸은 헤어질지언정 마음은 恒常 太極標識의 銀翼에 몸을 실고 祖國의 하늘을 지키기 爲하여 힘차게 나르는 젊은 보라매들과 같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微力이나마 將兵여러분과 더불어 革命課業完遂에 粉骨碎身 盡力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人은 戰鬪와 訓練을 通하여 生死苦樂을 같이하다 哀惜하게도 殉國散華하신 先輩戰友의 남기신 功을 높이 기리어 그들의 冥福을 빌며 遺家族의 앞날에 하나님의 恩寵과 將兵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같이 하시기를 祝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本人이 떠난 後에도 內外貴賓여러분께서 우리空軍의 育成發展을 爲하여 倍前의 配慮와 끊임없는 協助로써 聲援하여 주시기를 懇切히 付託드리고 空軍將兵여러분의 健闘와 여러분 家庭에 福된 앞날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人事에 代하는 바입니다.

一九六二年八月一日

# 民主主義의 歷程

— 民主主義의 새로운 段階를 위하여 —

이 달 의  
卷頭論文

金 基 錫

★ 學術院會員

西洋의 中世는 교회정치, 제사정치(祭祀政治)의 시대였다. 로마 교회가 놀라운 권위로 현세의 세력 위에 군림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관심을 한결같이 내세(來世)에 향하게 했다. 현세가 아니고 내세, 지상(地上)이 아니고 천상(天上), 정치가 아니고 종교, 세속이 아니고 금욕(禁慾)……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현세의 생활을 이방의 표랑(漂浪)으로, 내세의 생활을 고향에 돌아간 생활로 생각하여 오로지 마음을 사후(死後)의 세계에만 두었다.

그랬는데, 교회의 권위와 기만이 흔들리고, 새로 일어나는 도시들이 생활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학부흥(古學復興)과 지리상 발전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눈앞에는 지상생활의 새로운 수평이 열렸다. 오랜동안 위로부터의 권위에 놀려 오던 개인은 비로소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여 자기의 느껴온 감정과 생생한 맥박에 돌아왔다. 부풀어 오른 가슴, 시원한 대기(大氣), 검은 대지(大地), 봄빛을 가득 안은 아지랑이와 푸른 하늘…… 중세의 오랜 구속에서 풀린 새로운 개인은 여기에서 한없는 힘과 희망과 꿈을 발견했던 것

이다.

이렇게 하여 생명의 크나큰 용솟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권위와 구속을 박차고 산줄기 줄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푸른 계곡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가지고 놀라운 기세로 내달기 시작했다. 산언덕을 돌고, 돌을 꿰뚫고 바다로 향하여 내달고, 시냇물 하나 하나가 여기에 합세하고, 물과 나무가 푸른 빛을 여기에 던져 줄기찬 형세가 대지를 흔들고, 장한 물소리가 하늘에 찬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이같은 근세적 생명의 대분류(大奔流)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개인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을 존중한다. 개인과 인격과 평등…… 이 세가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신조(基本信條)나.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신조는 一五七七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서 그 영명(英明)한 싹을 받아 가졌다. 지금와서는 민주주의가 정치상 또는 사회상의 하나의 체제(體制)처럼 되어 있거니와, 본래는 정신의 하나의 방향 또는 태도인 것이니, 여기에 체제와 태도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영현(英玄)함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길이 역사에 연결되고, 또 그 자신 하나의 역사적인 과감한 행위이다.

역사를 뜯어고치고 역사를 바로 영도하는 것이 아닌 한, 자기를 민주주의 또는 그 운동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근세의 민주주의는 중세에 대한 반항, 그 부정(否定)으로 출발했다. 서양중세를 이끈 정신이 내세주의(來世主義)였다고 하면, 여기에 바뀐 것은 현세주의(現世主義), 거기에 군림(君臨)한 것이 로마교회, 봉건제도였다고 하면 새로운 세력은 어떤 왕실과 신교주의 교회, 그리고 상업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많은 왕실(王室) 신교주의와 신파(新敎主義新派), 근대 도시들이 생겨서 이것들이 자라나 민족 국가, 작국 국교회(國教會), 산업주의(產業主義), 문명(文明)에로 전개(展開)되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먼저 권력을 잡은 것이 왕실 또는 왕권으로 해서 오랜 동안의 지긋지긋한 교권에 눌렸던 백성들의 가슴이 채 풀리기도 전에, 영란(英蘭)의 왕실을 위시한 여러 나라의 왕실들이 절대 왕권을 휘둘러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一六四二년 영국에서는 국왕 찰스 一세의 전제에 항거하여 크롬웰이 지도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찰스 一세가 처형되고 공화정(共和政)이 실시되었다가 다시 왕정이 복구되었다. 一七七五년 미 식민지에서 영국 본토에 대한 독립전쟁(獨立戰爭)이 일어나 七六년 七月 독립을 선언, 七七年 독립군의 승리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미 독립전쟁에 참가했던 불란서 군대가 본국에 돌아와 신대륙(新大陸)의 소식을 전함에 따라 一七八九년 불란서 혁명의 폭발을 보아 혁명의 커다란 기운이 전구라파에 번져나갔다.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과 불란서 혁명……이 세가지 역사적 사건은 근세 민주주의의 불멸의 탐으로써 특히 미국 독립선언과 불란서의 혁명당시의 인권선언(人權宣言)은 민주주의의 근본신조(根本信條)가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동서의 인심에 많은 영향을 끼쳐 오고 있는 것이다.

불란서 혁명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共和政)이 수립되었으며, 자유와 평등과 우애(友愛)를 존중하는 정신과 풍

조(風潮)가 놀라운 형세로 오르기 시작했다. 유럽의 여러 왕실들이 왕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귀족이나 승려(僧侶)를 누르면 누를수록이 왕권에 연계된 상업주의, 서민주의(庶民主義)는 놀라운 발달을 이루어 여기에 근대과학을 그 총포(銃砲)와 함대건조(艦隊建造)에 이용한 유럽 열강의 융창(隆昌)을 보기에 이르렀다. 一八세기 이후의 서구사(西歐史)는 이 유럽 열강(列強)의 경쟁(爭霸)의 역사로서, 다른 한편 유럽대륙이 다른 대륙을 누른 유럽 팽창사(膨脹史)이기도 한 것이다.

이 유럽 열강(列強)의 융창은 그 때 많은 그늘을 가져왔다. 피압박민족(被壓迫民族), 농노(農奴), 공장노무자(工場勞務者), 빈민(貧民窟), 백인에게 팔리고 혹사되는 흑인 노예……이들을 누르는 강대국이나 자본계급(資本階級)이나 백인종(白人種)은 그 조직된 권력과 법체제(法體制)를 가지고도 이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나는 놀리는 자의 반항을 마구 꺾어 버릴 수는 없었다. 민족 해방운동, 노동운동, 노예 해방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衡平運動)이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 一九세기는 분명히 혁명, 반항, 해방, 투쟁의 출기찬 계속이었다. 민주주의는 불란서 혁명이 그 완성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초였던 것이다. 불란서 혁명의 표어인 자유와 평등과 우애가 그대로 민주주의의 정신으로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심령 속에 나타나지 못함대 민주주의의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二

근세 자연과학(自然科學)의 발달에 따르는 기계의 발달과 공장제(工場制度)와 생산(生産)을 증가(增加)시키는 과학적 기술은 아닌 게 아니라 생활 수준의 놀라운 향상을 가져왔다. 빈곤이 지상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이 희망은 각 개인이 자기의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신조에 의하여 한층 더 제고(提高)되었다.

그러나, 공장가(工場街)의 광경은 이 희망을 완전히 부서버렸다. 공장가의 광경(光景)은 한층 더 심한 비참과 궁핍을 노정(露呈)할뿐이었다. 빈농(貧農)들의 곤경(困境)은 과학과 기계의 힘에 의하여는 해결되리라는 신념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바로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았다. 가난은 번창(繁昌)의 한 부산을 골라 가면서 끼리는양 싶었다. 빈화로운 대도시인 런던, 베를린, 파리, 뉴욕같은 불야성(不夜城)에 빈민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운하와 철도부설(鐵道敷設)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 수부(水夫), 항만노동자(港灣勞役者), 농부들 중의 품팔이꾼들은 그 받는 보수가 극히 적었다. 거기에 몇해씩만에 돌아오는 불경기가 휩쓸어 소시민(小市民), 중농(中農)들이 파산되면서 이들이 모두 빈민 계급에 굴러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하여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는 공포속에 휩쓸려 그날 그날의 가족의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기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공장 노동자와 광산 노동자들의 생활이 자꾸만 비참 속에 굴러떨어지고 대도시에 빈민굴이 전염균의 무더기처럼 번져 나가는때도 정 부에서는 공장입법(工場立法)을 통과(通過)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불란서에 一八四八年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때에 파리의 노동자들이 자유주의자들과 동맹하여 국왕(國王)을 내어 몰고 불란서 제이공화국(第二共和國)을 세웠다. 이 제이공화국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투표하는 권리 이외의 것을 얻으려고 했다. 그들은 이 투표권(投票權)을 사용하여 항구한 일자리를 얻고 사회주의 프로그램에 의한 더욱 개선된 노동 조건을 쟁취(爭取)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一八四八年 파리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지도자는 젊은 변호사 루이 블랑(Louis Blanc)이었다. 그는 정부가 먼저 공장과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것을 나중에 노동자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각하기를 노동자 자신이 마땅히 공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을 노동자들이끼리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통 선거권이 보장(保

障)되기만 하면 여기에 의하여 자기의 프로그램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 노동조합(勞動組合)들은 사회주의에 전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보다 나은 임금과 보다 개선된 노동 조건을 원했다. 불란서에서는 노동조합이 산디칼리즘(Syndicalism)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운동은 혁명에 의하여 자본계급의 전복을 바랐으나 정당이나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고 노동자들의 사보타지나 총동맹 파업에 의해서 이것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에서는 一八七五年 독일 사회민주당이 결성되었는데, 그들은 무력혁명(武力革命)에 의한 방법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 독일에 있어서의 황제의 권력을 부정하면서 이들 사회민주당의 자들은 사회개혁을 서둘렀다. 그들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의회의 대다수를 점령하고 공장을 자본가로부터 몰수(沒收)하고, 이것을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과 온건파 사회주의자(健派社會主義者)들이 연합하여 一九〇二년 노동당이 결성되었는데 그 귀이것이 점점 자라나 제일차 대전후에는 자유당에 대신하여 사회 개혁의 전위대가 되었고, 제이차 대전후에는 의회를 통하여 사회주의 프로그램 추진시키는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근세 구주문명(近世歐洲文明)이 낳고 그 자신 해방하지 못한 것이 있다. 구제노동운동과 민족해방 운동과……이 두가지 운동은 근세 유럽 문명이 낳은 것이면서 실상 거기에 의하여 스스로의 목이 졸리는 노끈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피압박 민족(被壓迫民族)의 문제는 서력동점(西力東漸)의 거센 바람과 함께 생긴 것이거니와, 유럽이 근대국가 형성과 산업 혁명에 의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을 길렀을때 이미 구라파안에 그 종자(種子)를 뿌린 것이었다. 피압박 민족은 이것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니, 구주열강(歐洲列強)에 불리는 구주(歐洲)와 그밖의 피압박 민족일 것이다. 전자를 늘린 대륙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애란(愛蘭)과 체코와 폴란드의 경우는 전자(前者)에 속하고, 아프리카

카와 아시아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피압박 민족 또는 지역으로 우리들은 애란, 체코, 폴란드, 인도, 중국, 한국,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동, 동남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여러 민족들이 불란서, 영국, 화란을 위시한 구주열강에 눌리어 그들의 종이 되고 지장이 된 것이었다.

애란(愛蘭)이 七·八백년에 걸쳐, 인도(印度)가 三백년에 걸쳐 영국(英蘭)의 기반(編紮)을 벗어나기에 힘썼다. 중국은 구주열강(歐洲列強)의 합세(合勢)된 힘으로부터, 한국은 일제(日帝)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혹은 백년, 혹은 四〇년을 출기차게 싸워 내러 왔다. 제이차대전 종전(終戰)과 함께 많은 신생 국가들이 생겼다. 인도, 파키스탄, 실론, 월남(越南), 한국,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스, 말레이, 라오스 그밖에 아프리카의 수많은 신생 독립국가(新獨立國家)들.....세계지도는 역사있는 이후로 처음으로 여러 모양의 빛깔로 칠해진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증가(增加)된 국명(國名)과 그 지도상(地圖相)에 나타난 빛깔만으로 피압박 민족의 해방이 성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리어 강대국의 형태, 피압박 민족의 양상(樣相)이 바뀌진대 지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歐洲)안의 애란(愛蘭)과 구주(歐洲)밖의 중국과 한국이 침략자의 강압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랜 동안의 피투성이 싸움을 한 것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정신을 굳건히 지켰고, 또 이것을 전진시킨 귀중한 기록이 되는 것이다. 구주 열강의 제왕주의(王權)의 항진(抗進)이 그들에게 불리는 많은 피압박 민족 및 지역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들의 제왕주의는 결국 저들의 탐욕, 이기주의(利己主義), 우월감(優越感)의 국가적 형태인 것이니, 그 인간성, 그 인성관이 근본적으로 개변(改變)되기 전에 민족과 민족사이, 국가와 국가사이, 심지어 대륙과 대륙사이의 참된 평등이 있기 어려울 것이다. 민족의 평등, 주권의 평등, 대륙의 평등, 인종의 평등.....이것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어가 되어

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인종으로 눌리고 대륙으로 눌리던 유색인종과 그들의 대륙이 일어섰다. 아시아사람의 아시아, 아프리카사람의 아프리카가 되면서 여기에 침략자로서가 아니고 어진 이웃으로서의 구라파 사람을 섞었을 때 현세기의 민주주의가 그 올바른 유상(流床)을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三

민주주의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들은 자기의 권리와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는 개인과 개인사이에만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개인의 경우고 민족의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과 봉사.....: 자유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평등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봉사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개체의 자유와 개체 사이의 평등과, 그리고 전체에 대한 봉사와.....:민주주의의 이 빛나는 정신이 오늘에 이르러 다 시 고양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명(現明)은 이같은 참된 민주주의를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 그리고 널리 세계에 퍼기 위한 최고 최종의 현명인 것이다.

## 뒤 덮어 진 우리 생활

## 과학으로 재건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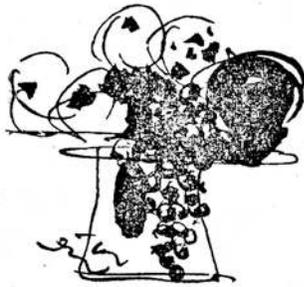
△제 8회 과학전람회 표어▽

# 우리들의實踐을

# 沮止하는것

特

輯



- ◇ 惰性和 實踐
  - ◇ 優柔不斷의 性格
  - ◇ 判斷의 誤謬와 實踐
  - ◇ 理論과 計畫의 缺陷
  - ◇ 無計畫性에서 오는것
  - ◇ 意志薄弱에서 오는것
- 非現實的인 思考에 관하여



# 非實踐的思考에 關하여

孫 明 鉉

☆ 高大教授

주어진題目「非實踐的思考」라는 말에 依하여 나는「現實에 맞지 않는 思考」, 따라서「實効를 나타내지 못하는 思考」를 意味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以下多少의 所見을 진술하여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宇宙의 根源의 事實로서 生을 無視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歷史上에 生을 기피·저주하는 厭世主義라든지, 或은 虛無主義같은 思想이 一部 人士들에 依하여 唱道된 일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思想은 「生」이라는 宇宙의 大 事實의 사이 사이에 一時的으로 나타난 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聖者「슈바이셔」가 「生」에 對한 畏敬을 道德과 宗教를 비롯한 모든 人間營爲의 大原則으로 내세우고 있음은 當然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生을 維持하고 그 發展과 繁榮을 圖謀하는 것— 이것이 모든 人間營爲의 根本動機요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生은 眞空속에서나 一個人만의 生으로서 可能한 것이 아니라 他物 或은 他我와의 相互關係 或은 交涉에 依해서만 可能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主體와 環境— 이 環境은 自然環境일 수도 있고 社會環境일 수도 있다—과의 相互關係, 相互交涉에 依해서만 우리의 生은 營爲되고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史家「토인비」가 그의 歷史觀의 原則으로서 環境으로부터의 挑戰(Challenge)과 이에 對한 主體의 應答(Response)을 말하고, 이 挑戰과 應答의 相異性에 따라 相異한 民族文化 乃至 文化圈이 形成된다고 하고 있음은 올바른 見解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點을 具體的으로 例說하여 보자, 普通 東洋文化와 西洋文化는 各其特徵을 달리한다고 한다. 前者는 直觀의 이고 後者는 論理的, 前者는 綜合的이고 後者는 分析的, 前者는 靜의 이고 後者는 動的 等等. 또 같은 東洋文化라

하더라도 印度, 中國, 韓國, 日本을 比較하면 서로 다른 點이 있고, 西洋文化 역시 그렇다. 왜 그렇게 달라진 것인가. 環境의 挑戰과 主體의 이에 對한 應答이 다르기 때문이다. 例컨대 東洋 或은 亞細亞의 社會와 西洋社會의 中心인 歐羅巴, 特히 그 文化의 發祥地인 地中海 地域을 比較하여 볼 때, 前者는 大陸性 氣候이고, 後者는 海洋性 氣候이다. 大陸性 氣候에 있어서는 雨量이 고르지 못하여 旱魃이나 洪水가 일어나기가 일수다. 이에 反하여 海洋性 氣候에 있어서는 雨量이 고르고 따라서 큰 旱魃이나 洪水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 結果 前者에 있어서는 農耕에 必要한 治水作業이 國家의 規模의 大事業이 되고 이 事業의 指揮權을 掌握한 者— 그것이 專制君主이다—의 權力이 絕對的이다. 이에 反하여 海洋性 氣候의 地域에 있어서는 農耕을 함에 있어서 支配者의 權力에 依存함이 없다. 따라서 前者에 있어서와 같이 그 權力이 絕對的이 아니다. 그 結果 前者에 있어서는 專制君主下에서 國民의 權利와 自由가 無視되고, 後者에 있어서는 그것이 伸長되어 民主主義의 合理主義의 思考方式이 發達된다. 所謂 亞細亞의 社會의 停滯性의 根本原因도 이러한 點에 있다 하겠고, 위에서 列舉한 東洋文化와 西洋文化의 相異한 諸特徵도 根源의 點에 依하여 發生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같은 東洋民族 중에서 特히 우리의 民族性의 한 缺陷으로指摘되는 事大主義의 根性도 民族의 生命을 維持하기 爲하여 取하여진 事勢不得已한 處事에서 由來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大陸의 巨大한 侵略의 勢力에 隣接하고 있는 弱小國家가 그 生命을 維持하기 爲해서는 事大는 하기 싫어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以上 우리는 「토인비」에 따라 人間의 生과 文化가 環境의 挑戰에 對한 主體의 應答에 依하여 營爲·形成됨을 過去를 基礎로 하여 밝힌 바이지만 過

去는 이미 주어진 事實로 좋은 그르든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요, 重要한 것은 이때 이 곳의 現實이요, 이 現實을 通하여 더 좋은 未來를 創造하는 데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過去 및 이 過去에서 由來한 現在, 現實은 多様多種한 問題를 提示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主體에게 挑戰한다. 이 問題, 挑戰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그를 解決하려고 努力할 때 우리의 思考는 實踐的, 生産的인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現實과 遊離된 것이며 따라서 非生産的이라 할 수 있다.

이 點에 關해서 몇가지 例를 들어 說明하여 보기로 하자, 解放後 우리는 自由를 謳歌하였고, 政治를 비롯하여 各部門에 있어서 民主主義를 指導原理로 삼았다. 自由와 民主主義란 形式的으로 實施되면 先進國의 隊列에 끼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事實은 이와 反對로 解放後 얼마 가지 않아 심지어 「日帝時代」만 못하다.

「解放을 도로 물렸으면 좋겠다」等等의 말이 나오게 되고, 自由와 民主主義는 放縱과 無秩序와 專制와 抑壓으로 轉化하고, 모든 面에 있어서 올바른 경우와 道理가 通하지 않게 되고, 邪惡과 暴力만이 跳梁하여 國家의 運命이 危期에 處하게 되었다. 왜 이러한 現象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自身의 非現實的, 非科學的 思考方式에 緣由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指摘한 바와 같이 西歐人에 있어서는 自由와 民主主義的 思考方式이 數千年 동안 그들의 血肉化하고 있는데 反하여, (Democracy라는 말 自體가 元來 希臘語이고 Demo는 民衆이요, Cracy는 支配한다는 뜻인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이라도 기만 없이 하게 된 것은 解放後의 일인 것이다. 이렇게 日淺하기 때문에 自由는 即 自律이요, 스스로 自覺하여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며, 自覺, 自律의 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嚴格한 自己責任을 相伴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든 自己 마음대로 재 멋대로 하는 것으로 그릇 생각하였던 것이다. 大路를 來往하는 것은 各人의 自由다. 그러나 이 自由를 享受하려면 交通道德을 遵守하여야 한다. 이를 遵守함이 없으면 各人의 自便대로 無秩序하게 來往한다면 左衝右突, 事故가 빈번할 것이고 自由는 自己 自身의 墓穴을 파는 結果밖에는 招來치 않을 것이다. 다음 民主主義를 反省하여 보자 招特徵은 무엇보다도 多數決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問題는 이 多數의 教養과 良識이 어느 程度의 것인가 하는 點에 民主主義 成敗의 關鍵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現實은 이

미한가 아직도 文盲이 相當한 數에 達하고, 新聞도 읽는 사람보다 읽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程度가 아닌가. 이런 民衆에게 一定한 年齡以上은 一對一로 選舉權을 賦與한 結果 어떤 사람에게 投票해야 할지 분간을 못한 程度이고, 그저 班長이나 洞長 或은 警察의 指示대로 하거나, 或은 金品에 買收되거나, 或은 氏族觀念에 左右되어, 權謀術策과 金力과 權力이 跳梁하는 地진이 되었을 따름이고, 이렇게 하여 當選된 者의 眼中에는 國家民族의 繁榮과 運命보다도 一身一家의 榮達이 더 重要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者들이 무슨 立法을 하고, 무슨 政治를 한단 말인가. 이미 數千年前 「孔子家語」에도 惡毒한 政治는 호랑이나 이리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의 現實에 있어서 共產侵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內部的 腐敗와 無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原因의 一部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自由와 民主主義에 對한 그릇된 見解, 우리의 現實을 科學的으로 分析, 直視함이 없기 그쳐 덮어 놓고 外來의 民主主義를 形式的으로 適用하면 萬事가 잘 되려니 하는 安易한 생각이 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現實, 環境의 問題, 挑戰에 對한 主體의 應答, 解決이 適當치 못하고, 우리의 思考方式이 非實踐的, 非科學的, 非生産的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쓰라린 經驗을 通하여 비로서 「指導的 民主主義」니 或은 「行政的 民主主義」니 하여 後進國의 實情에 맞는 民主主義가 論議되게 되고, 選舉에 있어서도 腐敗와 不正을 防止하기 위하여 立候補者의 資格審査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고, 國家公營制가 計畫되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如何問 우리는 우리 나라, 우리 民族이 아무런 불품 없고 許多한 缺陷과 後進性을 內包하고 있다 하더라도, 許多한 國土 許多한 民族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國土, 이 民族의 一人으로 태어난 以上, 「잘났어도 내 郎君, 못났어도 내 郎君」이라는 意識에 투철하여, 이 나라 이 民族의 生을 一步라도 向上시키는 데 各其 맡은 바 職場에 있어서 全力을 다하는 外에 우리의 眞正한 生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自覺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自覺下에서만 眞正한 意味의 實踐的인 思考, 生産的인 思考가 싹들 것이며, 이에 依하여 民族, 國家의 當面한 問題解決에 努力할 때, 固有한 民族文化가 形成되고, 이를 媒介로 하여 나아가서는 世界文化에 공헌하고, 宇宙的 生의 發展에 寄與하는 바가 될 것이다.

# 情性と實踐

朴 術 音



☆ 徵文中 高校長

## 一、理論과 實踐에 관하여

우리들의 日常生活과 하는 일에는 兩面이 있다. 즉, 理論의 面과 實踐의 面이다. 理論이라 하면 다만 經驗이나 個個의 事實에 관한 抽象的知識이 아니고, 그것들을 法則的, 統一的으로 理解시키는 整合的인 原理的인 認識의 體系를 말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實踐의, 妥當性의 檢證을 떠나 純粹理性에 依하여 純概念的으로 차어진 論理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實踐이라 하면 日常生活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 目的의 具現을 위하여, 實際로 行爲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들의 日常生活과 하는 일에는 理論과 實踐의 面이 있다. 이것은 마치 事物에 現象과 實在의 面이 있고 現實과 理想의 兩面이 있는 것과도 같다. 그렇다면 理論과 實踐은 그 어느 것이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까? 그러나 이것은 그 어느 것이 優位라고도 速斷을 내리기

는 어렵울 것이다. 왜냐하면 各人の 見解에 따라, 하는 일의 自體의 性格에 따라 各各 다르겠기 때문이다. 例컨대 科學의 成功이라는 分野에서는 올바른 理論의 根據 밑에서만 그 成就가 가능한 것이요 萬若, 理論에 誤謬가 있다면 아무리 實驗과 그 成功에 爲한 努力과 實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成功되기 어렵울 것이다. 이에 비하여 道德의 分野에는 前者와 그性質에 좀 다른 바가 있다. 道德이란 元來 個人의 自覺에서 出發하여 自己의 意志로서 行爲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道德의 本意는 決코 理論에 있는 것이 아니라, 實踐에 있는 것이다. 理論이 必要하다면 그것은 오직 實踐을 爲하여서만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高尚한 理論이라 할지라도 實踐에不過한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한 進대 理論과 實踐의 兩者中 決定的인 優位如何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는 한 일의 成就를 爲하여서는 理論과 實踐의 兩全이 必要하다는 것을 再三 認識하여야 하겠다.

## 二、實踐을 沮止하는 여러가지의 要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理論과 實踐이 兩全하여야만 하는 일은 成就될 것이다. 이제 理論의 面은 제쳐놓고 實踐의 面만을 보기로 한다. 實踐의 面에서도 우리들의 實踐을 沮止하는 要因에 局限하기로 한다. 實踐이란 目的을 具現하기 爲한 實際的인 行動을 말하는 것이겠으나 우리의 實現化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 實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이것은 우리들의 實踐을 沮止하는 要因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 (一) 經驗과 能力의 不足

人間生活에 있어서 經驗같이 緊急한 것은 없다. 즉, 사람과 사람이 에 或은 사람과 外界와의 相互作用의 過程을 意味하는 것이다. 사람의 온갖 社會的 實踐이 經驗속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이 外界를 變革함과 동시에 또 自己自身을 變化시키는 것도 이 經驗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重要한 經驗이 不足하다는 것은 우리의 實踐을 沮止하는 큰 要因이 된다. 우리는 青少年들에게 知能檢査라든가 適性與味檢査, 人性檢査와 같은 各種 標準化檢査를 實施한 다. 그 目的은 勿論 被檢査의 各種의 能力, 適性의 傾向性, 興味の 方向, 人性如何등을 測定하여 그로하여금, 自己自身에 대한 公正한 客觀的 評價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라 하겠다. 세계를 뒤흔는 稀代의 戰爭英雄, 나폴레

온은 「不可能이라는 말은 바보들의 辭典속에서만 볼수 있는 한낱의 어휘에 不過하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그러나 사람이든가든 能力的 限界가 있고, 不可能한 것이 많다. 따라서 우리의 能力으로 보아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實踐하지 못할 것이 있다. 즉 無能力은 또한 우리의 實踐을 沮止하는 要因이 된다.

### (二) 自律性(自由意志)의 抑壓

自律性(自由意志)이 抑壓된다는 것은 우리의 實踐이 沮害되는 것이다. 自律性이라 함은 各人の 意志自由에 根據한다. 自由의 根源은 어디까지나 自己의 意志에 있고, 意志는 自己原因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自己原因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말은 즉 自己意志에 依하여 行한다는 말이다. 이와같이 우리의 意志는 自由로워야 하고 우리의 實踐理性이 命令하는 바를 그대로 구김살없이 實踐해야 한다. 萬若 多少라도 實踐理性의 命令의 權威가 損傷되든 第三者의 壓力이 加해진다 하면 自律性이 抑壓을 당하고 이것이 우리의 實踐을 沮止하는 바甚한 것이다.

### (三) 좋지 않은 環境

이 좋지 못한 環境이라는 것이 우리의 實踐을 沮止한다. 大體 우리의 生活環境은 이를 構成하는 要因에 따라 몇가지 類型으로 나눌수 있겠다. 두개의 重要한 要因은 物的因子와 心的因子다. 이에 依하여 自然的 環境과 精神的 環境으로 나누어지고 精神的 環境은 다시 社會的 環境과 文化的 環

境 등으로 分類된다. 이와 같은 모든 環境들 속에 좋은 環境들은 우리의 實踐을 도와서 成就하게 하는 것이다. 自然的 環境이나 社會的, 또는 文化的 環境을 莫論하고, 좋지 못한 것들은 우리의 實踐을 沮止한다. 人間의 文化的 活動을 營爲하는데 不適當한 自然的 環境과 더불어 落後性을 띤 文化的 社會的, 環境이 얼마나 우리의 의을 바른 實踐을 沮止하고 있는 것인가는 너네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事實上 우리의 實踐을 沮止하는 要因들 속에는 自律性的의 抑壓, 經驗과 能力的의 不足, 좋지 못한 環境 등 외에 또 하나 看過할 수 없는 要因이 있으니 그것이 情性이라는 것이다.

### 三、특히 實踐을 沮止하는 情性에 關하여

#### (一) 情性의 性格

情性이란 오랫동안에 굳어진 버릇이다. 이것을 慣性이라고도 한다. 情性을 한층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物理學에서 쓰는 慣性(情性)의 定義를 引用하여 보자면 慣性은 『物體가 그 運動狀態를 持續하려는 性質이다. 作用하지 않을 때 靜止하고 있는 物體는 언제까지나 靜止하며 運動하고 있는 物體는 등速度運動을 繼續하는 性質이 있다』(뉴턴의 第一法則 또는 慣性의 法則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情性은 物理에서의 뜻과는若干 다르나 根本을 따지고 보면 差異가 없다. 이 글에서 말하는 情性도 오

랫동안 同一한 行爲를 反復함으로서 서 굳어져 몸에 박이고 만 버릇 즉 習性을 意味한다. 그러고 하나 留意해야 할 것은 慣性的으로 좋은 行爲를 하여 몸에 붙은 좋은 慣習은 意味하지 않고 大體로 좋지 않은 行爲의 反復으로서 몸에 붙은 좋지 않은 게으른 버릇을 뜻한다는 것이다. 自古로 習性은 第二의 天性이라고도 한다. 좋은 習性을 몸에 지니는 福된 일이고, 惡한 習性을 가진 者는 不幸한 것이다. 惡하고 게으른 버릇(情性)은 우리의 進取性과 行動力을 減하고 앞날의 發展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情性은 어떻게 하여 形成되었을까?

#### (二) 情性이 形成되는 原因

1. 欲求不滿에 대한 適應機制(適應力)을 못가질 때에 自暴自棄에서 情性은 形成된다.

사람은 모두 어떤 困難한 問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問題는 欲求에 대한 不滿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問題에 대한 直接的인 解決이 困難한 때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適應機制(適應力)을 가져야 할 것이다. 適應機制에는 여러가지 種類와 程度의 差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利用하는 것은 正常的인 것이다. 이 適應機制는 情緒의 緊張의 緩和나 除去를 위한 保護策이 되는 것이며, 物理的 環境이나, 他人이나 自身과 對處하는 方法인 것이다. 環境의 狀況에서 오는 外部的인 것과 個人的 精神의 狀態에서 오는 內部的인 두 가지

있다. 그 중의 外部的인 것에 대한 欲求不滿은 不可避한 것이요, 內部的인 欲求不滿은 欲求充足에 對한 無能에서 오는 것이나 個人的 性格에 따라서는 外部的인 欲求不滿보다도 더 深刻한 打擊을 준다. 이것이 甚한 境遇에서 行動異常과 同時에 情緒的 緊張이 深刻하여지고 이 狀態가 오랫동안 繼續됨에 따라 深刻하였던 緊張狀態는 漸次로 弛緩되고 緊張과는 反對로 無感動狀態로 되고 나아가서는 自暴自棄의 狀態로 이것이 長期間繼續되는 동안에 드디어 情性이 되고 마는 것이다.

2. 自我意識과 自己目的意識의 不足 내지 不明에서 情性은 생긴다.

古代, 그리이스의 哲人, 소크라테스는 아레네市民들에게 「나 自身을 알라」고 의했다. 참으로 古今을 通한 金言이다. 우리가 自己自身을 안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이다. 나 自身을 스스로가 잘 모를 때 나는 남을 알 수 없고 나와 남을 同時에 다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無爲無能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를 莫論하고 나 自身에 대한 意識과 나 自身의 存在目的과 存在價值를 分明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自己意識과 自己目的의 不明한 사람에게 自己안일에 대한 指標가 서 있으리라도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에게 自己生活態度에 대한 反省이나, 改善이 있을 理 없다. 이와같이 無反省한 生活態度 속에서 는 오직 좋지 못한 情性이 생긴 따름이다.

3. 意志薄弱한 곳에 情性은 짓는다.

「健康한 身體에 健全한 精神이 깃든다」라는 말도 있거니와 體力이 弱하거나 消耗되던 病菌의 侵入을 받고 身體에 病이 생기면 意志力은 弱화되고, 不健全한 精神狀態로 된다. 勿論 先天的으로 意志薄弱한 者도 있다. 이러한 때에 情性은 짓는다.

#### (三) 情性을 克服하는 法

情性을 克服하는 길은 情性이 이루어지는 그 原因을 除去하는 것이다. 1. 欲求不滿에 適應機制를 마련하도록 할 것.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이 가지는 缺乏한 狀態를 充足시킬 수는 없는 것이나

對外的인 것에서 오는 것이거나 對內的인 것에서 오는 것이거나 間に 完全한 欲求充足은 있을 수 없는 것인 우리는 欲求不滿을 適切히 處理할 수 있는 그것에 對處할 수 있는 適應力을 가져야 하겠다. 이는 勿論 各사람마다 同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能力에 따라 또 經驗과 處하고 있는 環境과 條件에 따라 差異가 생긴 것이다. 파스칼은 말하였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天賦의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그 不滿한 欲求를 充足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充足시키지 못한 欲求는 適當한 適應機制를 마련하여 이를 處理하여야 할 것이다.

2. 自我意識과 自己目的意識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身心을 鍛鍊하고 強力한 意志를 기른다.

# 優柔不斷의 性格

金 德 寶

☆ 公報部 企劃 宗 貞 撰



優柔不斷은 失敗의 根源이다

(Indecision and delay are parents of failure)

—— 卷 一 (Canning) ——

우리들이 生活하고 있는 周邊에서 흔히 「優柔不斷한 性格」으로 因하여 損失을 보는 現象이 發見되곤 한다.

그러면 「優柔不斷한 性格」은 어떠한 性格을 뜻하는 것인가.

語彙 그대로 解釋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마음이 부드럽기(柔) 때문에 內心の 決斷을 내리지 못하는 性格을 말한다. 即 어떠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의 實現可能한 方案을 想像하고 그 하나하나의 方案에 對하여 長點과 短點을 比較 檢討하여 가면서 最終의 結論(內心の 決斷)을 誘導하는 것이 決斷의 過程이다. 한다면 그 決斷의 過程에 있어서도 처음 結論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躊躇하고 망서리는 性格을 指稱한다. 그런데 우리가 「優柔不斷」이라는 말을 使用할 때에는 좀더 넓게 解釋하여

特 輯 · 우리들의 實踐言 沮止하는 것

決斷의 過程을 거쳐서 內心の 決斷을 誘導하는데에 成功하였으나 그 內心の 決斷을 外的인 行爲로서 具體化시키지 못하고 망서리는 境遇도 指稱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決斷의 過程에는 一般的으로 個性의 差異에서 오는 두가지의 形態가 있을 수 있는바 그 첫째는 思索을 중지하는 理論的인 現想論者(思索人)의 型으로서 論理的이고 微密한 思考의 過程을 통하여 마음의 決斷을 얻는 型이며 그 둘째는 깊은 思索을 즐겨하지 않는 現實的인 世俗的인 類型(行動人)으로서 어떠한 事態에 直面하여 事物에 對한 直觀으로 內心の 決斷을 얻는 境遇이다. 「優柔不斷한 性格」은 前者의 型에서 많이 發見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優柔不斷한 性格」은 어떠한 結果를 우리들에게 가져

지다 주는 것인가.

孫吳兵書에도 「用兵할 때에 가장 큰害는 猶豫하는 것이고 三軍의 災殃은 孤疑에서 온다(用兵之害 猶豫最大, 三軍之災 生於孤疑)」라고 한 것과 같이, 一般社會에서는 勿論이고 特別 軍社會에서는 「優柔不斷한 性格」은 가장 避하여야 할 性格임을 말한 必要조차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優柔不斷」과 對立的인 概念인 「勇斷」만이 必要하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부드러운(柔)과 단단함(剛)을 兼하여 갖추는 것이 重要な 것이며 柔하되 弱하지 않고 剛하되 暴하지 않으면 可히 有能한 指揮官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勿論 「優柔不斷한 性格」이 恒常 損失을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다. 優柔不斷하기 때문에 오히려 利得을 보거나 災殃을免하는 例도 볼 수 있다. 即 販賣하기 위하여 購入한 物品을 現時勢로 處分할 것인가? 或은 더 기다려 보았다가 物價가 오르면 處分할 것인가? 앞으로 時勢가 暴落하거나 暴騰할까? 하고 망서리고 處分을 猶豫하고 있을 때에 物價가 暴騰하였다면 「망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利得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同一한 方向으로 가는 두대의 배一艘가 停車하고 있는데 어느 배一艘를 利用한 것인가를 決意하는 동안에 한臺는 出發하고 나머지 한臺에 不得已로 出發할 수 없게 되었는바 먼저 出發하였던 배一艘가 途中에 沈沒하였다고 하면 優柔不斷한 性格으로 因하여 意外로 災殃을 免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象은 極히 偶然한 것이며 投機的인 行爲를 否認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行爲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反射的인 利益의 하나이지 決로 意圖하는 바의 目的이 達成하였거나 目的 達成을爲한 어떠한 行爲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以上과같은 몇가지의 反射的인 利益을 얻는 境遇를 除하면 恒常 우리들에게 損失을 갖어오는 것이 「優柔不斷한 性格」이다.

첫째로 「優柔不斷한 性格의 所有者」는 他人으로부터 信賴를 받기 어렵다. 「사람은 社會的인 動物」이며 「人間과人間과의 結合속에서 生活하는 것이기 때문에 對人關係는 絕對的인 것이며 매우 重要的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對人關係에 있어 恒常不透明한 사람, 半인지 혹은 半인지 분간을 못하는 不透明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信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理由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이 生活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明白한 態度를 取하는 사람은 좋은 處世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로 「優柔不斷한 生活」은 簡單한 事件을 더욱 複雜化시키고 收拾할 수 없는 事態에 까지 이끌어 나가는 境遇가 많다. 그 代表的인 例로 哈爾濱(Harbin)의 性格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先親의 복수를 하려는 內心の 決定은 쉽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即時로 作動化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自身은 勿論 王인「클라디우스」王妃「게르트루드」를 비롯하여 七名의 死亡者

를 낸 悲劇을 招來하였다는 것은 비단 作品에서만 볼수 있는 現象은 아니며 우리들의 周圍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優柔不斷한 性格을 지니고 있는 限은 成功할수 없다. 사람이 社會生活를 營爲하여 나가는 데는 반드시 決斷性을 必要로 하는 경우가 많다. 勿論 群山으로의 上陸을 勸誘하는 諸 副將들의 意見을 一蹴하고 「我軍이 不可能하고 認定되는 場所에 敵의 생각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信念으로 仁川上陸作戰을 敢行한 「백아대」將軍의 경우이다.

一九一五年八月 三萬의 大軍으로 佛蘭西에 侵入하는 途中 疾病으로 兵力의 三分의 一을 잃었고 五倍의 兵力을 가진 佛蘭西軍과 衝突하였을 때 兵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軍의 士氣를 衡天시키 戰爭을 大勝으로 이끈 「렌리」五세와 경우처럼 勇斷이 가져오는 힘은 測量할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反面에 民族의인 感情으로 因하여 一九一四年 六月 二八日 보스니아州의 首都 세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가리의 皇太子 「프란츠-펠터나드」의 夫妻를 狙擊함으로써 世界第一次 大戰이라는 어마어마한 人類의 悲劇을 招來케한 셀비아의 青年 「가브릴로 프린친」의 決斷과 같이 惡影響을 끼쳐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또는 순전히 感情의인 決斷에 依하여 部下를의 忠고를 無視하고 有利한 陸戰을 避하고 海戰을 擇한 「안토니오」가 有名한 「악티움海戰」에서 政敵인 「시자」에게 大敗한 史例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自己의 判斷으로

어떠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決斷을 내리고 곧 行動을 取하게 되면 人間으로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였다고 할수 있으며 果然 그것의 目的을 達成하였는나의 問題는 能力 以上の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意味의 「優柔不斷한 性格」即 失敗의 根源이 되는 人間의 이러한 性格은 如何히 克服할수 있겠는가?

첫째로 內心の 決定을 쉽고 簡明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不必要한 雜念이나 思索으로서 內心の 決定을 遲延시키고 混亂을惹起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行動을 取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內心の 決定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임을 認識하고 되도록 簡潔하게 그 過程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內心の 決定을 行動에 옮길수 있는 意志力을 길러야 할 것이다. 自己가 直觀의으로 判斷하였거나 或은 論理的인 過程을 거쳐 判斷하였거나 間에 自己의 判斷을 行動으로 옮길수 있는 強한 意志가 있어야 한다. 勿論 正當한 일을 아는 것 보다 實現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古今의 哲理이기는 하지만 亦是 人間의 意志이기 때문에 人間 스스로가 調整할수 있는 問題이다. 이와같은 굳은 意志力의 培養은 꾸준한 努力이 있어야 하며 마음의 修養이 必要한 것이다.

셋째로 自己의 行動을 明確하게 取

行動人으로써 思索하라」는 말은 깊은 뜻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自己의 行動을 明確하게 取

하는 習慣이 必要하다. 即 일을 할 때 에는 熱心히 하고 놀 때는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스스로의 몸짓임을 明確하게 하는 習慣을 들리면 自然히 優柔不斷한 性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判斷의 誤謬와 實踐



習慣은 第二의 天性이기에 우리들은 스스로의 行動을 꾸준한 努力으로 서 習慣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優柔不斷한 性格」도 이러한 過程을 通하여 고칠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金 石 桓

☆ 空軍大領·敎材廠長

(一) 具現하고, 豫見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獨創力.

우리들의 周圍環境에는 起床에서 就寢時까지 初年時代에서 死亡할 때까지 언제나 批判과 判斷의 練習과 必要에 쫓기고 있다.

## 判斷이란 무엇인가?

브렌타노(Brentano)는 말했다.

「判斷은 判斷받는 事態가 事實이며 眞實인가에 對한 承認 또는 拒否이다. 斷定이다. 主張이다. 이것에는 判斷者의 確信 또는 信念이 包含되어 있다. 判斷에 있어서의 確信은 單純한 感情에 依하지 않고 他人에게 主張하는 意志의 要素를 包含하고 있다.」

心理學에서

「어느 일을 조각조각 分解하고 이것을 比較하고, 取舍選擇하고 그 結果에서 얻은 것을 하나로 綜合해서 結論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定義한다.

## 判斷力

이들을 더 간추려 보면 二가지로 나눌수 있다.

(一) 分析하고 比較하고 選擇하는 判斷力.

사람의 精神機能은 現在(知覺), 過去(記憶)만에 限定되지 않고 將來(想像)도 豫想하고 現在의 事實을 넘어 서서 그보다 앞으로 나아가 事實을 變作하고 構造를 바꾸어 곧 創作을 한다.

우리들의 精神力을 機能的 觀點에서 크게 나누면 大體로 四가지로 나눌수 있다.

一、吸收力—觀察하고 注意를 集中시키는 能力.

二、推進力—記憶하고 想起하는 能力.

三、推進力—分析하고 判斷하는 能力.

四、獨創力—아이디어를 具現하고, 豫見하고, 生長시키는 能力.

判斷이란 過去의 經驗에 立脚하여 比較及 識別로서 價値를 公式化하는 것이니 또는 事實을 分析하고 그것의 重要度를 計量하며 比較하고 어느 것을 버리고 남은 要素를 모아서 結論을 내는 것이다.

우리들이 自己가 더욱 精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 完全히 判斷할 수 있는 狀態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를 選擇할 수 있다는 것은 判斷을 表示하는 것이다.

좋고 나쁜 것의 判斷에는 그 對象에 對하여 깊은 知識이 必要하며 判斷力은 當신이 얼마만큼 이에 對한 知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制限을 받게 된다.

指揮官의 正確한 行爲決定은 正確한 決心에서 우리나 오고 正確한 決心은 判斷에서 나오며 正確한 判斷은 周到한 適時適切한 偵察에서 各種 情報을 綜合하는 思索에서 生起한다. 情報을 綜合하는 思索에서 正確한 判斷이 生起될려면 情報의 綜合은 豫測을 可能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批判的 努力과 獨創的 努力은 分析과 綜合을 必要로 하는 點에서 비슷하며 判斷은 想像力을 軌道에 올려 놓는 데 도움이 되며 想像力은 判斷을 啓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判斷의 要素는?

希望의 觀測, 잘못을 알면서 自己意 志로만 固執하는 것, 잘못된 先入觀, 偏見, 獨斷, 感情에 사로잡힌 態度, 恐怖, 貪慾, 지나친 優越感, 黨派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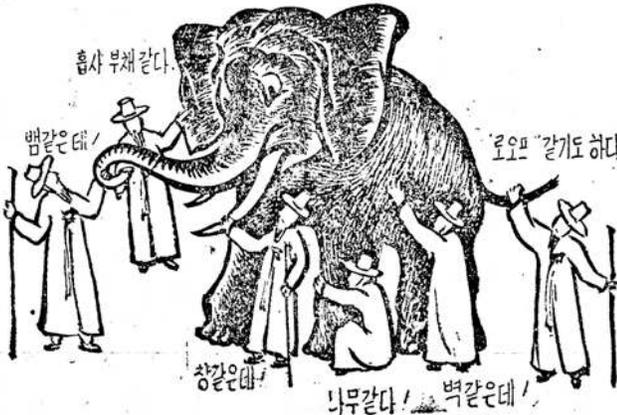
特輯 · 우리들의 實踐을 沮止하는 것

인 忠誠心, 人種의 또는 階級的의 偏見, 論理的 誤謬, 이들은 公正한 判斷을 妨害하는 要素인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缺點에 對해 感情을 만들고 憎惡는 미운 사람의 缺陷을 事實以上으로 過大視하게 하는 바쁜 把握과 判斷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은 感情의 動物이라고 말한다. 事物의 判斷을 七〇%以上 感情으로 判斷하는 사람도 있다. 둥근 원을 볼 때 어느 사람은 달로 본다. 어느 사람

여섯장님과 코끼리



어느 事物에 對하여 思考하고 判斷하는데 先入感, 偏見, 昏亂된 感情, 偏重한 主觀은 우리들의 마음의 障문을 막아 장님을 만들고 五官機能에서 視覺을 빼앗긴 장님이 되어 손으로 더듬어 觸覺으로만 事物判定의 資料를 蒐集하게 되므로 結果는 事實을 全般적으로 把握하게 된다.

장님이 된 自身을 깨닫지 못하고 如何히 思考하더라도 判斷은 그릇되며 그릇된 判斷에서 세워진 行爲決定은 더욱 큰 잘못된 結果를 가져와 實踐을 沮止케 할 것이다.

은 銅錢으로 본다. 어느 사람은 試驗 答案紙의 〇點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사소한 것만 보더라도 自己의 過去 經驗이나 現在 있는 狀況에 感情을 投影하여 생각하게 된다. 感情이 激하면 合理性을 驅逐되고 높아지면 理性은 低下된다는 것을 더욱 銘心하여야 한다.

論理的 誤謬를 犯하는 가장 主要原因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觀察의 잘못  
둘째.. 證據의 選擇方法의 不適當, 多數한 事例中에서 正當한 見本을 採

擇치 못한 것. 前兆, 解夢, 豫感이 맞는 것만 마음에 記憶하고 맞지 않는 것을看過해 버리는 것들이다.

셋째.. 어느 하나의 說明만을 批判 없이 받아들리는 것. 그러나 外의 같은 有力한 또는 더 그러나 說明이 있는 것을 考慮치 않는 것들이다.

偏見과 先入觀은 너무나 日常生活에 近接하고 있으므로 자칫하면 看過하기 쉽다. 마음속의 偏見이나 先入觀은 말로 表現할 때보다 明白치 않다.

마치 色盲이 色을 鑑別하지 못하는 것 같다. 偏見과 先入觀은 다만 그 形態를 바꾸었을 뿐 近代科學과 科學的 論理的 發達에도 不拘하고 人間關係에 있어서는 依然히 猛威를 發揮하고 있다.

普通 보는 바와 같이 感情이 理性보다 強하게 作動하는 限 이를 根絶할 수는 없다.

感情이 理性속에 들어박히거나 希望이나 理想이나 恐怖感의 影響을 받고 結論을 내리게 되면 그만큼 思考는 歪曲된다. 이것이 곧 偏見이며 어느 種類의 論理的(보다는 非論理的)의 所産을 同伴하는 獨特한 心理이다. 또한 미리서 決論을 갖는 것이라도 또 볼 수 있다.

그 作用으로 보면 思考하는데 있어 어느 種類의 證據를 無視하고 一部分만을 過大評價하거나 最初부터 一定한 結論으로 이끌려고 하는 強烈한 意向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바르게 判斷하려면

바른 判斷을 내리는 方案으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事項을 들 수 있다.  
 一、① 目標、方針、② 原理原則、③ 經驗、④ 感覺이 四가지를 健全한 決定을 하기 위한 判斷의 要素로 活用할 것.

二、論理의 방식에 熟達케 할 것.

이렇게 하면 어떠한 問題의 急所를 把握하게 되며 確實한 論理는 確實한 決定을 意味한다.

判斷에 있어 強力한 「지배대」의 役割을 하는 것은 論理方式이다. 直觀이든가 어느 다른 非論理의 方式으로 判斷을 하였으면 論理의 手段으로 擁護하여야 한다.

三、判斷하려는 事態를 診斷할 것.

診斷은 因제나 事實과 造作된 虛偽를 區別하는 것이다. 事實을 取扱하는 데 正確하여야 하는 것은 科學의 精神의 最上價値의 하나이다. 바로가 診斷할 때 「말」이나 어느 다른 象徴을 써서 表現하는 것이 絕對 必要하다.

四、判斷하려는 事態를 分類하고 分析할 것.

包含되고 있는 主要한 要素—複雜한 여러가지 條件을 分明한 簡潔한 것이든가 저것인가의 問題로 還元시켜 준다. 目標을 더욱 具體化한 段階에서 없어서는 아니된 活動이다. 分析을 하게 되면 觀念連合의 活動을 促進시키고 따라서 想像力을 培養하는 契機를 만들 수 있다.

五、論證을 試驗한 다음에 判斷을 할 것.

判斷에 第一重要한 것은 이 段階에서 自己批判, 他人, 先輩의 批判 어느 것도 좋으나 사람은 누구나 偏

見이 있고 主觀的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가장 正確한 것은 論證의 試驗이다.  
 六、될 수 있는 대로 討論한 機會를 가질 것.

우리들은 討論하는 사이에 偏見을 修正하고 또는 強調하기도 하고 또는 先入觀을 自覺하거나 더욱 主張하기도 한다. 議論하며 다루고 論證을 試驗하는 사이에 効果의 인 思考가 培養되고 偏見이나 先入觀이 自覺된다.



# 理論과 計畫의 缺陷

盧 憲 鎬

☆ 內閣事務處企劃調整官

七、『디렘마』에 부딪혔을 때 먼저 이것이 정말 『디렘마』인가 確認할 것. 二개의 內容이 다른가 잘 檢討하거나 한번 白紙로 돌려놓고 다른 좋은 解決策은 없는가 檢討하라.  
 八、判斷에 必要한 여러 事項을 列記할 것.

『노오트』를 하면 우리들의 思考는 明確하게 되고 여러가지 要素를 秩序있게 配列할 수 있다. 이렇게 하므로서 判斷은 主觀的인 것에서 客觀的인 것으로 變할 수 있다. (끝)

排斥되어야 하는 것이다.

個人的인 私生活에 있어서는 或은 各

自의 特異한 個性에 따라서 또는 根本的으로 現代의 合理主義思潮가 間的인 尊嚴性을 抹殺하고 있다는 見地에서 排擊하므로써 計畫性인 實踐을 妨礙하고 感情의 影響에 左右되어 臨機應變의 인 生活을 擇하는 경우도 있어서는 이것은 各自의 生活觀이 決定하는 것이니 個人的으로 時間的으로 나 經濟的으로 損失을 自招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論外로 할 수 있지만 公的인 位置에서 公務를 遂行하는 사람이 自己的인 責任下에 있는 事務를 理論的 基礎나 計畫의 構想이 없이 各自의 性

格대로 恣行한다면 이의 結果는 單只 實踐事務者의 個人的인 損失에 그치지 않고 公共機關全體에 損害를 加할 것이며 더구나 그것이 公務員인 경우에는 國家的인 損失을 가져올 뿐 아니라 納稅者인 國民에게 까지 害를 끼치는 結果가 될 것이다.  
 理論的인 뒷받침이라 함은 理論은 어디까지나 實現의 妥當性이 있고 널리 支持를 받고 있는 通說의 인 것을 말하며 部分的인 支持를 받고 있는 데 그치는 偏頗의 理論이나 主觀的인 立場에서 採擇支持하는 理論을 내세울 때는 이것 亦是 危險한 것이 라 하겠다.  
 公務를 執行하는 사람으로서 외부 같은 理論上의 混亂에 陷入되었을 때는 거기에 關해서 明白히 確立된 定說이 없는 以上 世界 專門家의 諮問을 求하거나 委員會를 構成하여 論爭을 거친 후 主流의 理論을 採擇함이 妥當할 것이고 決로 個人的인 主觀的인 價値判斷에 支配되어 曲論을 取하는 愚를 犯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 것은 理論的인 背景을 求함에 있어서 純粹히 學術的으로 오리지날한 理論이 實際의 實踐段階에서는 저어 되는 수가 往往이 있을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現實의 인 政治的인 經濟的인 諸現象에는 純粹學術理論과 一致될 수 없는 데리케이트한 問題들이 許多하다.  
 國家的인 立場에서 볼 때 政治나 經濟政策은 窮格의 으로는 어디까지나 國家利益을 目標로 展開되는 만큼 이 러한 境遇 單純히 理論의 奴隸가 되 기보다는 現實의 國家利益追求를 爲 한 融通性있는 措置가 希求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現實的 要請에 符合하도록 理論의 部分的으로 修正된다 하더라도 그 理論의 本質的體系를 損傷하지 않을 때는 理論自體의 修正을 加할 수 있겠으나 現實的인 國家의 要請과 理論上의 問題가 互히 相剋될 때에 는 理論의 操作보다는 現實的인 國家利益을 果敢히 追求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確立된 理論을 度外視할 程度의 重大한 國家利益은 果然가 判斷의 決定할 것인가. 이것은 執權者의 私心없는 愛國心과 健全한 判斷力 그리고 그와 같은 判斷을 支持 呼應해 주는 國民의 輿論이 決定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獨裁的인 執權者가 理論을 無視한 執行을 執行할 때 言必稱 國家利益을 大義名分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理論의 恣意로운 蹂躪도 또한 警戒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適當한 例擧가 될지 모르나 現下 活潑히 進行되고 있는 第三共和國의 憲法審議 途上에 發表되는 各種 論爭은 學術的인 理論에 固執되어 現實的인 國家利益에 損傷을 가져오는 內容도 往往發見된다. 이러한 경우는 國民의 輿論을 誤導하기 쉽고 國際的으로 疑惑을 사게 되어 實踐過程에 缺陷을 가져올 수 있겠다.

다음에 實踐과 計畫과의 關係는 設計圖와 建築物의 關係와 같이 原因結果가 密接한 것으로 計畫이 實踐에 미치는 影響은 前述한 理論과 實踐의 關係를 超越할만큼 至大한 것이다.

特 輯 · 우리들의 實踐을 沮止하는 것

實踐을 爲한 計畫은 徹頭徹尾 完全無缺해야 하며 嚴密한 配慮를 要한다. 計畫은 實踐過程의 最後段階까지 樹立되어 있어야 하며 一部 未確定狀態의 部分은 實踐途中 補充키로 하고 計畫은 未完成狀態에 停체 實踐에 着手한다는 것은 極히 危險하고 疎忽한 思考態度이다.

이러한 경우 實踐過程에서 補充키로 한 計畫部分이 諸般條件의 變動으로 因하여 남지 部分과 一貫性있는 計畫을 樹立할 수 없을 때 總體的인 實踐에 重大한 蹉跌을 招來하게 마련이다. 또한 計畫은 實踐過程의 實情을 完全히 把握한 然後에 樹立되어야 하며 實踐過程의 細部的인 部分까지 그 實情을 理解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華麗한 計畫도 實踐過程에서는 適用될 수 없는 「용에 맞지 않는 옷」에 不過한 것이다.

計畫이 卓上公論에 그치는 경우는 例를 들 必要도 없이 許多하다. 따라서 實情에 符合하는 計畫을 樹立하기 爲하여는 주어진 諸條件에 對한 充分한 情報을 蒐集하고 이것을 分析하여 計畫樹立에 利用해야 한다.

다음에 計畫은 融通性 있게 樹立되어야 한다. 即 計畫時期와 實踐時期는 時間적으로 다르나 計畫 計畫事項이 그대로 實踐되기는 어려움으로若干의 事情變更은 計畫을 部分的으로 修正하여 最初計畫을 繼續維持할 수 있도록 融通性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融通性의 範圍를 지나치게 擴大시키 놓으면 計畫의 本質이 變更될 수

있으나 만큼 融通性의 範圍는 되도록 縮少함이 妥當하다고 하겠다.

勿論 計畫者와 實踐者가 同一人인 때에는 融通性의 範圍를 多少 擴大시키도 計畫者의 意圖가 一貫하여 反映될 수 있으므로 全體의인 事業의 成果에 는 支障이 없겠으나 計畫機關과 實踐機關이 相異한 때에는 可及的인 融通性의 範圍를 좁히고 執行機關에게 裁量을 주지 않음이 事業에 一貫性을 維持하는데 有利한 것이다.

執行機關에서는 計畫機關에서 融通性이 賦與된 部分에 對하여 變更된 事情에 따라서 修正을 加할 때는 執行者의 主觀的 意圖에 左右됨에 앞서서 事業自體의 終局的인 目標을 向하여 計畫者와 實踐者가 共通的인 理念의 支配下에 설 때 兩者間의 見解의 差異가

調節될 것이다. 우리들의 實踐을 沮止하는 要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實踐者의 能力 意志 實踐을 爲한 經濟的 物質의 時間的等 諸要素가 다 輕視될 수 없고 重要性을 지니고 있으나 本題가 말하는 理論과 計畫의 缺陷은 그 中에서도 始原的이고 本質的인 要素인 것이다.

時代가 進展되어 科學이 高度로 發達한 今日 우리 周邊의 公的인 私的인 모든 事業은 科學의 公的인 私的인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科學的인 思考方式은 무엇보다도 事業의 基礎를 이루는 理論形成과 精密한 計畫性을 要求한다고 하겠다.

無計畫性에서 오는 것



裴 玖 洪

☆ 產業銀行 調查部長

設定된 目的을 가장 效率的으로 實現하기 爲한 具體的인 行動體系의 豫定을 計畫이라고 概念지을 때면 目的의 實現을 爲한 行動에는 반드시 計畫이 先行되어야 하며 그 計畫이 合

理的인 것이 라면 計畫에 立脚한 行動이야말로 目的의 具顯을 爲한 가장 합리적인 方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理解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一個人이든 或은 어떤 組織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目的을 가지고 存在하는 것이 라면 그에

는 그目的의實現을爲한計畫이 있는 것이며 그目的은計畫에依하여合目的의性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하여過言이 아닐을 안다.

말하자면存在하는天엔 반드시目的이 있고目的이 있는곳엔計畫이 있으며 하나의「타아겐」은計畫에依하여서合目的의性을 지니는 것이라 하고命題할 수 있을 것이다.

計畫은 반드시一定한形式을 갖추며量的으로表現된것만을指稱하는 것이 아니다. 몇個年計畫이라든지或은○○計畫이라고形式化되지 않고그리고計數로表示된 것이 아니라도一定目的을 우리의行爲에는 그目的을 가장合理的으로達成코자하는欲望을 뒷받침하는計畫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그計畫은表式化되지 않은概念的이며對象의인計畫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現在經濟開發五個年計畫의完遂를爲하여國家의總力을傾注하고 있다. 이五個年計畫은 우리의不足한資源을最大限으로動員하고그것을 가장效率의으로動員, 配分하여念願하는바의自主經濟의確立과經濟力의增強을 迅速히 達成코자하는데 그目的이 있음은 누구나가理解하고 있는 바와 같다. 제나라經濟의繁榮과國民生活水準의向上을企圖하는 이와같은經濟計畫은 오늘날世界各國의 거의 共通의으로採擇하고 있는實情으로서 이른바 東南北地域은勿論 中進國이라고 일컬어지는伊太利나 日本에 있어서, 그리고先進國인 佛蘭西, 和蘭, 캐나다 등의諸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實情을爲하여 온갖精力을 傾注하고 있어 이

들 여러나라의經濟政策은 이經濟計畫에依據하여樹立되고實行되고 있는 것이다.

勿論經濟計畫은 그나라의經濟的基礎이라든지文化水準地理的條件社會制度等に依하여特異한바가 있는 것이지만將來에 있어서所望되는經濟的姿態를目標로서設定하고그에到達하기爲하여하지 않으면 안되는政府·企業·國民의努力과手段을計量化한經濟政策의總體로서認識하는點에 있어서는差異가 없다. 企業 스스로의責任과計畫에依하여運行되는經濟狀態를最善의 것으로 보고政府는「하게하라」그리고가게하라, 그러면經濟는 스스로調和를取하면서 커갈 것이니「하는自由放任主義의立場에서는經濟哲學으로서는오늘날의經濟를나를 수 없게 된데서經濟의計畫化와그에依한成長施策이要請된 때문이다.

우리는政府豫算을一定期間의國家의收入과支出의豫定計畫表라고規定하는데 이와같은財政收入과支出의計畫化로서國家살림을 가장合理化할 수 있는 데서 이와같은豫定計畫表가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오늘날各種企業에 있어서의運輸의計畫化는『출·마베이먼트』의 가장重要한業務가 되고 있으며生産計畫, 販賣計畫, 購買計畫或은資材計畫等 企業管理의各部門마다計畫化의努力이集中되고 있으며 이를爲한 Operation Research 理論, Feedback 系理論, Servo mechanism 理論, Simulation 理論等, 多角的인自然科學的手法의積極的導入에依한計畫의精密化가要請되고 있는實情

이다. 相對的인市場의狹隘化, 新製品的의繼續的인出現, 企業間的그리고國際間的熾烈한競爭이란重疊하는隘路에서企業의發展을爲해서는 이와같은精密化한計畫에依한企業活動의計畫化가緊要한 때문이다. 이처럼計畫이重要視되고計畫化가目的達成을爲하여緊切히要請되는原則임에도不拘하고 새삼스러이 이것이問題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우리의思考樣式과行爲와그리고管理가無計畫의이라고指摘되고 스스로自認하지 않을 수 없는理由는 무엇인가.

西歐人の思考態度나行爲를가리켜功利主義라고하는데對해서東洋人の 그것이非合理的이고西歐人の 그것이具體的인對해서 우리의 그것이抽象的인對해서 우리의 스스로自認하는바다. 이와같은 우리의生活態度는우리를 둘러싼歷史的, 社會的條件下에서釀成되고그러한風土속에서 우리의生活態度의無計畫性이培養되고習性化되어온 것은自明한 理致다.

目的을가지고있으면서도그目的을合理的으로具體化시킨 어떠한原則에 따른計畫性의欠如는目的達成過程에 있어서許多한損失과濫費를結果할뿐만 아니라計畫그自體의成就조차도挫折시키는結果가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곧우리韓國的氣質의非合理性·抽象性에서緣由되는 것이며 이와같은計畫에 있어서非合理性和抽象性은그計畫을한나概念的인思念의領域에 머물게하며實利를隨伴하지 않는計畫이되며 이것은結局

無計畫과同一義가되는 것이다. 計畫으로서의具體性和實踐性이結付되지 않은計畫은우리가 말하는計畫이 아니며 泡探처럼 그저 이르렀다가는 저저는計畫은無計畫과같은 것이다. 計畫은實踐에 있어서의經濟性을 말하는 것인만큼無計畫은浪費를 낳는다. 目標을向한實踐過程의完全히計畫化되고그計畫에따라進行되었을때우리는여기에서그目標의具顯에 있어서의經濟性을發見하는 것이다. 最少의費用에依한最大의效果라는經濟原則은經濟事象에만適用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모든生活規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既往에 높은理念을지닌許多한計畫들에接하여왔다. 經濟復興五個年計畫이니, 財政安定計畫이니, 電源開發五個年 그리고十個年計畫, 或은山林綠化 몇個年計畫이니이루헤아릴 수 없으니만큼 많은計畫들을보아왔다. 마치點綴하는計畫속에서도 살아온感조차 없지 않다. 그렇데도不拘하고其間與件의激變이 잇기는 하였으나山林은 아직도 험벗은 채로 있어 採材用材의不足은當場新開用紙의生産을괴롭히며國民의叡智와總力을 기울여서五個年經濟計畫이着手되는 이때에 있어서 새삼電力의不足이生産活動을阻害하는 큰原因이 되고 있지 아니한다.

計畫이 지나야 할一貫性和그實踐程序度外視한計畫은그計畫目標가 아무리高尚한 것이라 하여도計畫으로서의價値를喪失하는 것이며 때로는無計畫보다 못한計畫일 경우조차 없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나라를 이루려려는  
崇高한 새아침에 서있다. 우리가 하  
여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으며 그 일  
또한 비찬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個  
個人的 生活와 思考에서부터 크게는  
施政에 이르기까지 모든 面에 걸쳐 計  
畫化와 計畫에 立脚한 行動이 어는 때

# 意志의 박약에서 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말은 우  
리의 意思를 行動으로 옮기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行動에는 반  
드시 어떠한 目的이 있고 그 目的에  
到達하는 데는 行動의 계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行動의 계속은 努  
力없이 될 수 없는데 이 努力은 時間  
의 長短이나 強弱에不拘하고 우리의  
 처음 뜻을 굽히지 않고 나가는데 장에  
가 되는 일이다.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百折不屈이라는 말로 우리의 決心을  
계속하고 그 目的에 到達한 決意을 表  
明한다. 이것을 우리는 意志가 굳진  
한 것이라고 말한다. 뜻이 좋은 것도  
貴한 일이지마는 萬難을 排除하고 그  
뜻을 成事할 수 있는 意志없이 한

特 輯 · 우리들의 實踐을 沮止하는 것

보다도 所重하고 緊要하게 要請되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機關의 最高管理層으로부터 市井의  
一個人에 이르기까지 모든 行動이 計  
畫化되고 그것이 어김없이 達成되는  
計畫化된 思考와 行動이 要請되는 것  
이다.

柳 德 天

☆ 再建國民運動本部指導部長

남 空想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굳은  
意志는 단련없이 있을 수 없다. 쇠가  
온데는 鋼鐵이 가장 굳고 좋은 쇠다.  
그러나 보통쇠가 鋼鐵이 되기까지는  
무수한 련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  
는다. 몇 번이나 불부에서 녹히고 또  
두들기우고 한 結果가 鋼鐵인 것이  
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境地  
에서 괴물을 삼키고 이기고 한 境況을  
쌍지 않고는 意志力이 생기지 않는다.  
짐중중의 王인 獅子는 새끼를 낳으  
면 높은 山에 걸벽에서 떨어뜨려 다시  
어미를 찾아올라와야만 것을 먹여 기  
른다고 한다. 意志力은 鬪爭의 經歷을  
쌍지 않고는 意志力은 생기기 않는다.  
다. 우리는 어린아기를 기르는 데 어미  
의 것이 너무 充足해서 배고픈 經驗  
이 없이 자란 아이는 成長한 뒤 意志  
力이 박약하다고 한다. 사람은 出生

하는 그날부터 生存을 爲한 鬪爭이 必  
要한 것이다. 이 鬪爭이 곧 사람의 生  
存의 힘을 길러내는 試鍊이다. 오늘  
의 鬪爭없이 는 來日의 勝利와 幸福이  
있을 수 없다. 보라. 富裕한 家庭이  
서 태어나서 호화스럽게 成長한 사람  
들의 大多數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  
면 견디어 내지를 못하는 법이다. 마  
치 溫室속에서 가꾸어낸 花草와도 같  
이 따가운 햇빛이나 強한 바람을 만  
나면 별나게도 잘 서들어진다. 우리  
의 발은 教育中에 가장 必要한 것이  
體鍊이다. 일부러 難境을 만들이기  
면서 또는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訓練을 받는 것이다. 三伏  
더위에 그늘에 앉어 있는 것만해도 견  
딜 수 없는 데 高山준령을 찾어서 登山  
하는 것은 忍耐力을 기르고 意志를 強  
하게 하는 鍊鍛이다. 그러한 肉體의 鍊  
鍊에서 오는 副產物로서 精神의 鍊  
鍊을 받게 되는 것도 貴한 教育이 되  
겠지마는 그보다도 自然環境이 適當  
한 鍊鍊을 쌍기 좋은 程度의 成長環  
境이 되면 가장 理想적이겠으나 그런  
理想의 環境은 있기가 어려운 것이다.  
난데부터 貧困에 시달리면서 刻苦勉  
勵하여 出世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  
리의 歷史에는 豪華스러운 家庭에서  
生長하여 歷史를 攻造한 사람보다  
는 貧困과 相遇와 싸워서 이긴 나머지  
지 偉大한 사람이 된 분이 더 많다.  
逆境과 싸워서 얻은 것보다 훌륭한 知  
識은 없다. 나는 늘 말하기를 돈을 아  
무리 많이 주어도 가난이라는 그 貴  
한 經驗만은 상수 없는 것이라고 말  
한다. 이 試鍊을 견디고 이기면 人生

은 無難하게 突破하는 것이다. 強한  
軍士를 말한데 百戰老卒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鬪爭의 經歷없는 強兵은  
있을 수 없다. 鬪爭의 經驗에서 軍人  
은 鬪志가 길러지는 것이다. 人生의  
行路는 늘 평탄할 수만 없는 법이다.  
起伏이 있고 深山幽谷과 泰山준령도  
있다. 그 어느 障壁을 뚫지 못해도 人  
生은 막히우고 마는 것이다. 이 障壁  
은 우리의 意志力을 길러내는 좋은  
材料가 된다.  
人類史의 첫 페이지에 실려 있으면  
서 民族의 史로 가장 큰 受難者인 猶  
太人들을 보라. 紀元前 五千年의 歷  
史를 가졌고 二千年의 亡國의 歷史를  
가졌다. 그 亡國의 歷史는 世界의 各  
處를 流浪과 逼迫으로 엮어 놓았다.  
그들의 祖上의 땅에서는 送放을 當하  
고 民族은 있으면서 國土와 主權이 없  
기 때문에 人間이 當할 수 없는 처  
한 迫害을 당하고도 아직도 남아서 그  
들의 國家를 이루고야 말았다. 그들  
의 受難史를 다 그럴 수는 없어도 二  
次戰中에 獨逸의 히틀러는 猶太人의  
滅種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진 最  
大의 科學力을 다 利用하여 大量殺害  
를 했다. 歐羅巴에 있는 六百萬中에  
서 二十五萬이 남고다. 殺害를 當했  
다면 그들의 受難이 무엇인가 알 수 있  
는 일이다. 殺害가 絶頂에達했는 처  
에는 그들의 同族이 二十五萬이 남았  
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宗教인 하나님님의 聖書  
에 말한 것과같이 그들의 祖上 아브  
라함의 子孫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  
늘의 별과 같이 繁殖하고 繁榮했기 때

문에 그들은 滅種을 當하지 않고 살  
아 남은 者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遺  
業인 팔레스타인의 福地를 찾아오며  
서 그들의 나라를 세웠다. 二千年以  
前에도 그랬지만 그들의 二千年史  
는 의의 歷史였다. 그들의 의의는 中央  
亞細亞와 歐羅巴의 全域에 波及하여  
고 二代價로 祖國을 찾았다. 나는 그  
들의 受難記를 읽을 때 人間이란 那樣  
게도 모질고 잔인한 것인가 또는 그  
들 猶太人들에게만 있는 強靱性인가  
하는 疑心조차 난다. 우리 韓國사람  
들은 日帝의 三十六年의 逼迫도 견디  
기 어려웠지만 知識人中에는 日本人  
에게 同化되고 甚至於 오늘에 와서는  
日本에 殘留하는 사람 중에 祖國도 있  
은 양 歸化를 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데 二千年의 流浪生活와 迫害에도 아  
직 그들의 머릿속에 祖國이 남아 있어  
機會를 만나 그것을 再建했다고 하면  
그들의 意志力이란 어떤 것인가. 우  
리는 오늘 우리 民族의 生活歷史에는  
일찌거 없었고 民族의 生理에는 맞지  
않은 共產主義를 우리의 主義인 權者  
政宗을 하고 共產主義의 宗主權者  
가진 蘇聯邦을 그들의 祖國인양 생각  
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  
니 우리가 지는 너무도 甚한 差異를 가  
진 對照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強한 猶太人의 意志를 진리였  
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紀元前에 그를 猶太民族의 周邊에  
는 全部가 多神敎를 信奉하고 있는데  
反하여 오직 猶太民族만이 一敎敎인  
하나님을 崇拜해 온 것이 그 民族受難  
의 原因이 있었다. 四面에 있는 雜多  
種族들이 다 猶太民族만을 攻擊했

기 때문에 그들은 四面楚歌였었고 따  
라서 獨立을 維持하기조차 困難했던  
것이다. 그리스도 當時에도 로마帝國  
의 領土였었고 그 뒤 回教徒들에 依하  
여 유린당하고 英國의 植民地로 變하  
고 하여 第二次戰이 끝날 때까지 그  
들은 나라 없는 民族으로 世界의 가는  
곳마다 迫害과 反對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團結하여 싸웠다. 그  
들은 하나님의 德한 百姓으로 自處하  
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臨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二次戰後에 그들의 祖  
國은 二千年만에 光復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意志力에 앞서야 하는  
것이 信念이다. 어떠한 일든지 決  
意에 앞서 充分한 研究, 觀察, 檢討  
批判을 한 다음에 事理의 判定을 正  
確하게 하고 반드시 해야 할 正當性을  
느끼면 信念으로 意志를 굳게 하여야  
한다. 信念이 없는 人生의 行路는 羅  
針盤이 없는 航海와 같은 것이다. 信  
念은 人生의 方向을 定하고 그 個性  
을 살피고 活動의 糧食이 되어 意志  
를 強하게 함으로 成功의 實踐을 보  
게 된다. 實踐은 人生의 記錄이다. 생  
각과 그 생각을 나타내는 말만으로는  
자취가 남지 않고 人生은 空虛한 것이  
되고 만다. 이 實踐이 人生을 現實化  
할 수 있고 人類의 歷史는 實踐의 記  
錄인 것이다. 實踐이 적은 期間의 人  
類의 歷史는 價値 없는 것이었고 그 生  
活은 苟且했었다. 오늘날 우리 民族  
의 生活이 빛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實踐이 적었고 民族이 指向하  
는 目標가 正確하지 못하여 信念과 意  
志의 缺乏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安逸한 것을 즐긴다. 그리

나 安逸의 繼續은 安逸를 느낄 수 없  
을 만큼 無感覺해지게 되고 또 安逸  
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努力과 手  
가 있는 다음에 오는 安息이야말로 安  
逸을 맞고 되고 心身의 休息을 가  
져오게 된다. 安逸는 精神의 緊張을  
풀어 버리고 人生의 目標을 흐리게 한  
다. 그러므로 安逸한 사람은 意志가  
박약하여 努力을 迴避하고 實踐을 꺼  
리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젊은이  
들을 情弱하게 하는 原因이 되기도 한  
다. 마치 阿片과도 같은 作用을 하게  
되어 無爲無策한 사람을 만드므로 만  
다. 또 우리는 젊은이로서의 健全하면  
서도 큰 希望을 가져야 한다. 希望이  
없는 사람이란 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人生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世上  
에는 젊은이들이 希望을 잃고 그들 自  
身이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처럼 自  
暴自棄한 生活을 하는 青年들이 많다.  
우리의 眼目을 넓고 넓게 돌려보게 되  
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기



다리고 있는 데도 아까운 젊음을 虛無  
하게 보내는 분들이 相當히 많다. 希  
望이 우리를 찾아오는 法은 있을 수  
없고 우리 自身들이 내가 必要한 자  
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곧 自我  
의 創造요 能動的으로 社會에 보내는  
協調인 것이다. 내가 居한 곳내가 마  
련해야 한다. 내 居處를 남이 마련해  
놓고 나를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幸  
運만을 바라는 사람이 살길은 없는 법  
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希望은 우리  
自身들이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의 젊  
은 努力은 이 希望을 만드는 데 있어  
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希  
望에 나를 싣고 가는 것이 우리의 信  
念이 되고 意志가 되어 實踐에 옮기  
는 것이 곧 우리의 生活이라야 우리  
의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 努力  
이 크면 큰수록 우리는 偉大해지고 偉  
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人生은 기쁜  
것이 될 것이다. 信念은 努力을 努力  
은 鍛鍊을 鍛鍊은 意志를 意志는 自  
我를 創造하게 되는 것이다.

座

談

會

# 종이 판위기 명칭의 생활

## 내무반 운영을 말한다

日時……八月六日 十四時

場所……本部政訓監室

**司會** 오늘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서 내무반 운영에 관한 얘기를 들어볼까합니다. 보다 더 진전하고 명량한 내무반 생활의 운영,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내무반 생활의 상황등——기탄없이 얘기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서 떠들석했던 최일병 사건은 내무반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느낀 점도 없지 않았는데——

**이준표** 최고학부를 다닌 사람치고는…… 좀 실망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당자의 인간성에 있겠지만 내무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 점도 자연 생각해보게 되

었습니다.

**박홍상** 소속상관을 통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봅니다. 또 어쨌든 그러한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은 내무반에도 책임이 전연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박연** 공사교에서는 그러한 사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司會** 어디, 여러분들은 내무반 생활의 명랑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때라고 있는지요?

**이준표** 저이들은 신병이 오면 그들의 신상조사를 세밀히 합니다. 가정환경 사회생활의 경향을 조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습성이며 개성을 알아 거기에 기초해서 내무반 공기에 알리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군에 오면 군대사회에 따라야 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도 최일병의 경우는 그가 가진 지식의 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司會**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자기개성에 맞지 않더라도 이에 적응코자 노력하는 것이 참다운 지성인이 아닐까요. 인간은 사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자유일 테지만 그러나 사회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가 가진 바 지성이 사회에의 적응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옳은 지성이라 할 수 없겠조.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정래진** 본부라고 생각하면 모든 규정 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공포감을 가집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 편이지만 그래서 신병이 오면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가며, 二개월 동안은 먼저 내무반의 분위기에 젖도록 하는 데 힘을 씁니다.

**박세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가

명세면장을 사용하는 방법등 내무 생활의 초보적인 규정같은 것을 설명해서 익히도록 하구요……

**김준규** 十一전비단에서도 신병에게는 우선 분위기에 젖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행단의 편제와 창설이래의 전통등을 아르게 합니다. 편제와 같은 것은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이겠지만 전통같은 것은 우선 비행단 전체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司會** 내무반 생활에 잘 못 짓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예를 몇가지……

**김종규** 그건 그 사람의 습성, 개성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김기홍**十日 내지五日 만에 반원회를 열어서 영내자 끼리의 문제는 영내자 끼리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반원회에는 회장, 회장도문을 두어 의문해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저이들은 개인 기업을 피하고 한 사람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參 席 者

- 下士 김 준 규 (11 전 비)
  - 〃 김 기 홍 ( " )
  - 下士 박 연 현 (공사교)
  - 〃 한 내 현 ( " )
  - 下士 이 준 교 (106 전대)
  - 〃 박 훈 상 ( " )
  - 下士 정 태 진 (공군본부)
  - 〃 박 세 철 ( " )
- 司 會 민 재 의 대위

뜻에서 단제적으로 주저요. 신병에게는 군대생활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주기 위하여 처음 일개월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의출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司 會 제방법은?

김기홍 짧은 시간, 반에 필요한 일을 시킵니다.

박준삼 군용기관계통계를 보면 가장 위관자가 많은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단속도 철저합니다.

司 會 그런데 너무 단속하거나 제제가 강하면 영내자의 정신생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니까.

김기홍 저이들은 문화책이 없을 때를 가져서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데 동시입니다. 또 한달에 한두번씩 코를대회를 가져서 긴장된 분위기를 자유롭고 명랑하게 합니다.

한대현 내부반장은 군대에 있어서 조

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나 출신수법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열이나 작업에 있어서도 출신수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먼저 민중주의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억압적인 수단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이 내부반 분위기를 우물하게 하고 여러가지 사그를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정신적인 부담을 크게 하니까요.

박준삼 꼭 의결해야 할 경우 등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반장이 의출을 상신하여 줍니다. 그리고 위관자에게는 대대 전원 앞에서 벌을 줍니다. 제조작업이나 청소를 시키지요.

한대현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이해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냐를 생각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복종, 이런 것이 이해심 없이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의 최일병 사정도 이해한다는 후련의 부족이 빛은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司 會 그러한 방법의 구체적인 예는?

한대현 처음 신병으로 전입되면 처음은 두터워 하니깐 먼저 그러한 공포감을 제거해 주는 방향을 취합니다. 부드럽게 대해서 내부생활을 설명해주고 이제부터 군대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해줍니다. 그리고 2, 3주일간은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고 견학을 시켜 우선 내부반 생활에 융합되기를 기다립니다.

박세철 군대사회도 사람이 모여 있는 특수한 집단이란 것 외에는 일반사회와 다름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군대사회는 일반사회의 연장이며 군대안 다른 사회에서도 그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으며 누구나 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만이 그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대사회에서는 군대의 규정을 충실히 지켜나가면 된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내부반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곤 합니다.

이준교 저는 매월 한달동안의 내부계획표를 미리 작성합니다. 가령 오락회, 토론회, 독서회 등을 만들어 전진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시키니까요.

한대현 신병이 오면 신병환영회를 엮습니다. 약간의 술도 마시고, 그래서 상호간의 인간성을 이해하며 상호



한대현 하사



박 연 하사



김기호 하사



김준규 하사



간의 독특한 기질을 자라면서 아  
는 동시에 이해하도록 합니다. 또  
흥미를 떨어놓고 애기를 합니다. 이  
런 것이 상호 이해증진에 도움이 됩  
니다.

**정태진** 인간적인 상호관계에 있어서  
군대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가  
평 반장이 대신으로 일을 하고 그를  
의혹시켜 준다는가 하면 누누나고  
말게 생각할 것이며 서로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내부생활이 명랑해 질  
것입니다.

**박훈상** 같은 내부반원끼리의 금전거  
래는 절대 금물이겠어요. 그것도 하  
급자가 상급자한테 빚을 진다는 것  
은 더욱 조건이 나빠요. 그런 것이  
도망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을테니  
가요.

**박연** 먼저 젊은 사람으로서의 패  
기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  
다. 빚을 진다 도망을 한다 그밖에  
불미한 일이 있다는 것은 젊은 사람  
으로서의 패기가 없기 때문에, 말하  
자면 마음의 뜻대가 없다는 것을 증  
명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의욕적  
인 사상을 가졌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패  
기와 의욕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각  
자 책임관계를 설정해서 그 책임완  
수에 노력하도록 유도 합니다.

**정태진** 아까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너무 긴장시키고 정신적 부담을 과  
중하게 해서는 별로 득될 것이 없  
다고 봅니다. 일 할 때 하고 놀 때 는 다  
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시간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과후의 계획을 시  
간적으로 정해서 六시 반까지 정는



박세철 하사



정태진 하사



박훈상 하사



이준교 하사

八시반까지 운동, 그 후는 취침시간까지 자유시간을 줍니다. 텔레비존을 구경하든, 독서를 하든, 자자의 자유입니다.

**한대현** 그 점에 있어서는 자랑을 하나 합니다. 우리 사관학교에서는 아무도 간섭을 할 수 없는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6시에서 8시까지의 완전 자유입니다. 이것은 권태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표** 그것도 참 좋습니다. 단절정신을 양양하는 데는 내무반 대항 운동경기가 매우 효과적이더군요.

**김기홍** 그런데 저이들은 현재 다섯시에 일과가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일곱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용을 못하고 있지만 점호후 완전 휴무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존 푸로에 재미난다는 것이 많아서 모두들 즐기고 있지요. 내무반장은 9시반에 인원을 확인해서 보고합니다.

**司 會** 자유시간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길 때는 자칫하면 혼자의 생각에 잠기기 쉽고 고독에 빠지기 쉬운데 개인투기를 살리고 또는 단체적인 뜻이 있고 재미있는 모임같은 것이 없을까요?

**이준표**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 이를테면 노래자랑 같은 모임을 가지지요.

**박세철** 영동반, 운동반, 문예반, 여예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반에서는 가령 양동, 양계동 자라소질에 따라서 일회합니다. 또 자라반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지도가 있습니다.

**정대진** 본부에는 내무반 자치회도

있어 있습니다. 굳기척, 운영처를 두고 다음으로 영동반, 체육반, 정훈반 등을 둡니다. 자부에는 자자의 소질에 따르는 전문반을 둡니다. 가령 영동반에는 축산반, 양잠반을 두는 등, 정훈반에는 음악반, 연예반 문예반을 두는 등, 또는 체육반에는 농구반, 축구반, 정구반, 배구반 등을 둡니다. 특히 영동반은 제대를 앞둔 형제에게는 무척으로 입회시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영동에 관한 지식은 누구나 다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매부락과 연락해서 실습을 하기도 하고...:

**박 甸** 제 생각으로는 자매부락을 좀 가까운 부락과 맺었으면, 영동실습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대진** 그렇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매부락을 실제로 활용하기는 곤란합니다.

**司 會** 자매부락을 맺는 목적은 빈한한 벽촌을 돕자는 것이므로 부대근처는 곤란하지요. 이제 말한 본부의 조직제 같은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서도 효과적이겠고 정서적으로도 유익하고...:

**한대현** 본부와 비슷한 조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이들도 영동교육을 위해서 자매부락을 실제로 담당할 일이 있습니다.

**司 會** 그런 활동을 할 때는 경비 문제가 상당한 애로를 가져오겠지요?  
**정대진** 애로가 많습디다. 용저같은 소모품의 원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비문제는 운영처 재정반이 노력하고 본부 사정반도 협조도 확

약 받을 것입니다.

내무반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지식을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예반에는 영어를 숙달한 자도 있는데 이를테면 그 사람한테서 영어를 배우고...:

**司 會** 장병들이 만든 도서는 없나요?  
**박세철** 본부에는 2년전부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책을 장교단 등에서 좀 회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대현** 자료를 얻기위한 독서는 부대 도서관이 있어서 불편이 없지만 문제는 독서하는 시간이죠. 일정한 책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진** 순회문고에는 참 좋은 책들이 많더군요. 그것을 어떻게 재순회해 주면 좋겠읍니다.

**司 會**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순회문고가 폐지되었읍니다. 다시 한번 상신해보지요. 그밖에 내무반 생활의 명랑화를 위해서 의견이 있으면...:  
**박 甸** 저휘관과 내무반의 접촉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유리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대진** 지휘관 직접교육을 제외하고는 기회가 적읍니다.

**박세철** 내무반장에게는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지휘관에게는 그렇지 못하지요.  
**정대진** 여러가지 본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명랑화하는 방법을 생각

해 봅니다. 가령 저는 18명의 반장입니다만 그들에게 '내가 만일 반장이라면' 하는 입장에서 내무반 생활의 계획을 작성시켜 그것으로 그들의 의견을 살려주곤 합니다.

**司 會** 여러가지 좋은 얘기가 많았읍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P 31에서)

反共口號中에서 白眉의 것이 라고 보아 집니다.  
大概가 公式의인 「스토-강」만 보아 오고 의외오다가 이 「스토-강」이 나왔을 때 그냥 입골으로 의위버릴 수 없는 底意와 含蓄性이 心算을 치고올리는 바가 있었읍니다.

몰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면 反共口號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을 때 意味만을 찾는 一般大衆에게는 生疎納得이 안갈런지 모읍니다만 生疎하여 오려려 그들의 反共意識을 새삼스레 되살릴 수 있었고 「인테리」의 「브레이크」를 刺戟할만 마다가 있었다는 것, 癖好感이 가는 「스토-강」이 있었읍니다. 間接 P R로서 成功한例證입니다 하겠읍니다.

이밖에 또 P R에 關해서는 그 要件이라든가 方法, 効用에 대해서 研究檢討되어야 할 分野가 處女地로서 남아 있는 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P R에 直接, 間接으로 從事하는 이들의 宿題로 들릴 수 밖에 없읍니다.

要는 오늘날과 같은 宣傳의 時代에 는 P R의 方法論 如何에 따라서 現代人의 生活와 感情이 左右되니까 나아가서는 一國의 政策에 成敗를 結果지우는 커다란 要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解時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公務員 全員이 P R 要員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 戰 略

權 禎 植  
★國防大教授

一  
現代의 戰略의 方向을 摸索해 보라  
는 것이 編輯者의 要請이다. 이것은  
現代人들은 어떠한 戰略思想을 發展  
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뜻과도 相通하  
는 것이라고 보며 表現을 달리 한다  
던 現代人들은 戰爭과의 關係에 있어  
서 그 自身의 將來를 어떻게 期約해  
야 할 것인가 라는 말이 될 것이다.

戰爭의 道具인 武器가 急進의 으로  
發達함에 따라 戰爭의 樣相이 變遷하  
고 世界의 秩序와 情勢의 變遷으로 戰  
爭의 性格도 變化하였기 때문에 現代  
의 戰略은 한 國家의 政治, 經濟, 社  
會 및 軍事의 諸要素를 總網羅한 全  
國力을 敵對의 相對的인 關係 위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은 勿論 나아가서는  
友邦 同盟國의 關係要素도 包含시키  
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本  
稿에서 現代의 深刻性을 強調하는  
意味에서 問題의 武器體系와의 關係  
에 서만 考察하는 局限된 立場을 取하  
기로 한다.

自古로 戰略思想은 戰略의 方向을

## 現 代 的 方 向

提示했으며, 恒常 武器體系와 相互作  
用하는 關係를 維持해 왔다. 即 戰略  
思想에 따라 武器體系가 發展 되기도  
했고, 새로운 武器의 出現으로 戰略  
思想이 變遷하기도 했다. 海戰에서  
의 大艦巨砲의 思想이 十萬屯級의 軍  
艦을 設計하게 했고 航空機의 急進  
的인 發達이 航空母艦至上主義의 思  
想을 남긴 事實이 좋은 實證이라 하  
겠다.

### 二

現代의 武器體系를 한마디로 說明한  
다면 「可恐」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羣의 戰略爆  
擊機 또는 一基의 「미사일」이 運搬할  
수 있는 核武器의 威力이 第二次大戰  
에서 全參戰國이 使用한 爆彈의 全量  
보다도 크고, 有史以來로 人類가 使  
用한 全에 걸쳐 量 보다도 크거나,  
「미사일」은 이러한 超大威力의 彈頭를  
실고 三〇分以內에 大陸을 橫斷할 수  
있다는 것 등은 이미 常識化한 陳腐  
한 이야기이며 美國과 소聯 두나라는  
各各 全世界를 破壞하고도 남는 絕對  
量 以上の 核彈頭를 保有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公開된 事實이다.

이러한 狀態이기 때문에 美國과 소  
聯이 所有한 全力을 無制限으로 使用  
해서 싸우는 全面戰爭에서는 美, 소

할 것 없이 全滅할 것이라는 데서 「恐  
怖의 均衡」이라는 概念이 생겨났다.  
이것은 美, 소가 戰略的인 核武器를  
無制限 使用하는 戰爭이 發勃하면 世  
界의 消滅이 아니면 相互의 自殺을 招  
來한다. 이 境遇에 임는 被害는 攻擊  
側이나 守勢側에 大差가 있을 수 없  
음은 勿論, 交戰國, 中立國의 差異도  
北半球 南半球의 差異도 있을 수 없  
다. 따라서 兩國의 指導者가 「히틀러」  
와 같은 미친 늑이 아닌 이상 雙方은  
共히 自殺行爲을 避하기 위하여 全面  
戰爭은 이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다.

通稱 窮極武器라고 불리어 온 熱核  
彈頭와 「미사일」의 結合體는 이른바  
「恐怖의 均衡」을 가져왔으며 이 「恐怖  
의 均衡」은 抑制戰略을 誕生 시켰다.

抑制戰略 또는 抑制戰略이라고 불리  
우는 이 戰略論은 「먼저 攻擊하지 않  
는다」는 思想을 條件으로 하고 「現狀  
維持의 意思와 能力」을 前提로 한다.  
現狀維持의 意思와 能力이 問題視 되  
는 理由는 現狀의 變革은 戰爭의 危險  
을 隨伴하기 때문에 現狀維持의 意思  
가 必要하며 現狀을 堅持하려는 意思  
가 充分하다. 이 能力이 缺如되어 있  
다면 外部와 內部로부터 加해지는 壓  
力 때문에 變異이 不可避한 境遇가 考  
慮되기 때문이다. 先制攻擊은, 抑制  
의 現狀維持를 根本의 으로 否認하고  
破壞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必須  
條件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抑制論은 戰爭의 抑制에 失敗했  
을 境遇에 對한 具體的인 檢討를 加  
하지 않고 있다. 終末 漠然하게 人類  
의 絶滅, 歷史의 終末이라는 樣相으  
로만 說明하고 비록 生存者가 있다하

드라도 오히려 죽은 사람을 羨望할 狀  
態일 것이라는 式의 自暴自棄의 이며  
諦念의 見解를 取하고 있다.

抑制論은 戰爭의 抑制에 失敗했  
을 境遇를 생각하면 極히 悲觀的이 어  
서 未治한 感이 없지 않지만, 人間이  
「恐怖의 均衡」속에서 살고 있다는 事  
實上의 重壓 때문에 많은 支持와 共鳴  
을 받고 있는데 이 抑制戰略의 問題  
點은 어떻게 抑制하느냐의 方法論에  
있다. 어떤 사람은 相對方 보다 無條  
件 強力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相對的으로 強力해지려는 努  
力이 緊張과 對立을 激化 시키는 要  
인이 되니 平衡點을 찾아야 한다고 反  
駁하기도 하고 一部에서는 對立과 緊  
張의 原因이 相互間的의 不信에 있으  
니 어느 한 쪽이 「잔디」와 같이 無抵抗  
主義를 發揮하여 信義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力說하기도 한다.

그런데 近來에 이르러 繼續的으로  
開發되어 가는 武器體系로 인하여 「自  
殺戰略」 또는 「絶滅戰爭」이라는 生과  
이 漸次히 미해져 감에 따라 「恐怖의  
均衡」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即ち 이  
때까지는 防禦한 方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의 諦念狀態에 있었던 「미  
사일」의 防禦 可能性이 옛보임에 따  
라 全面戰爭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  
한 사람이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라  
는 것을 計算하면서 美, 소兩國은 새  
로운 軍事的인 優位를 獲得하기 爲한  
激烈한 競爭을 展開하게 되었다. 소  
聯이 昨年 九月一日에 一方의 으로 大  
氣圈內 核實驗을 再開한 것이 새로운  
競爭時代에 突入하는 信號였다.

그後 「마리노프스키」 소聯 國防相  
은 昨年 十一月의 小聯 革命記念일에

# 現代의 方向

· 제우스(Nike Zeus) Anti missile missile를 實驗한 것이다. 「미사일」 濫擊武器를 먼저 가진으로써 새로운 霸者가 되려는 데 그 意圖와 目的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소련은 「미사일」 濫擊問題를 解決했다』고 豪言 하였고, 「후르시초프」가 今年三月十六日에 『濫擊이 不可能한 無敵의 「로켓」을 完成했다』고 자랑스럽게 發表하면서 마치 소련이 새로운 競爭에 있어서 壓倒의 人 優位에 있다고 선전처럼 主張했다. 소련의 腦髓의 이와같은 主張은 그것을 實驗할 수 있는 아무런 具體的이며 實際的인 事實의 提示가 없었고, 또 抑制

하는 것이 多分히 心理的인 것이기 때문에 이의 効果를 나타내기 爲해서는 事實以上の 것을 相對方에게 誇示하는 것이 戰術로 되어 있는 나. 마치 소련의 宣傳을 類面 그대로 받아 드린 것은 못 되지만, 萬若에 어느 쪽이든 間에 100%의 確率을 保障할 수 있는 「미사일」 濫擊武器를 만들었다면 自國은 조금도 傷하지 않고 相對方을 攻擊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壓倒의 人 優位에 설 수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리고 또 雙方이 共히 「미사일」 防禦 武器를 完成했다든 치더라도 이것의 妨害를 받지 않고 攻擊할 수 있는 武器를 가진 수 있다면 軍事적으로 決定的인 優위에 설 수 있으리라는 것도 明白하다.

美國이 지난 四月二十五일부터 再開大氣圈內 核實驗에서 「미사일」을 進入路上에서 炸함으로써 만드려 버리는 「이 가스」 効果를 確證하기 爲한 超高空實驗을 實施한 것이나 「나이크

제우스」(Nike Zeus) Anti missile missile를 實驗한 것이다. 「미사일」 濫擊武器를 먼저 가진으로써 새로운 霸者가 되려는 데 그 意圖와 目的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새로운 軍事的 優位를 獲得하려는 意欲上 및 事實上的 流動狀態는 「허만 칸」(Herman Kahn)의 俗稱「水爆戰爭可能論」에 刺戟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허만 칸」博士는 中間 RAND Cooperation(美國)의 研究員로서 있다. 現在 Hudson 研究所의 所長으로 있는 戰略研究家인데 그는 昨年에 「熱核戰爭의 關하여」(On thermonuclear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라는 著書를 發表하였다.

그는 이 著書에서 『核戰爭이 自殺行爲이라고 해서 狂氣의 指導者만이 이것을 일으킨 것인가?』라는 疑問을提起시킨 다음, 最近의 科學은 「한나라의 指導者가 狂氣 아닌 正氣로서 取할 수 있는 여러가지 手段中에서 核戰爭이 最上의 것이라는 決定을 내릴 수 있는 狀況을 만들지 못한다』고 前提하고, 『核戰爭의 結果는 一般의 抽象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適切한 事前對策만 되어 있다면 戰後의 環境은 予措 짧은 時間 동안에 戰前의 水準에까지 復歸시킬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는 다시 「核戰爭은 核武器의 威力이 絶대하기 때문에 第一 擊을 가하는 側이 當하는 側보다 比較할 수 없을 만치 有利하다』고 하면서 그 理由로서 『第一 擊을 가하는 側은 自己가 選定한 時間에 自己가 選擇한 方法과 戰術으로써 相對方을 攻擊할 수가 있지만 守勢側은 第一 擊에서 받은 被害의 殘存攻擊力을

가지고 反擊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先制攻擊側은 充分한 警戒態勢 下에서 第二 擊을 防禦할 수 있어 一般市民들에 對해서도 어느 程度 餘裕 있는 時間을 주어서 待避을 命令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即 先制攻擊은 反擊으로 부터의 被害를 減少시킬 수도 있고 破害의 復舊도 不可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狂氣의 指導者가 아니라도 先制攻擊을 가할 수 지 못한다는 것이다.

抑制論이 戰爭否定에 가까운 思想이라든 水爆戰爭可能論은 틀림 없는 戰爭肯定의 思想이라고 말할 수 있다. 武器體系의 急激한 發達이 「恐怖의 均衡」이라는 抽象的인 概念을 날게 하여 자의 戰爭의 意味가 喪失되어 가려던 段階에서 다시 戰爭의 意味를 蘇生시키는 思想의 擡頭로 只今이 現實은 流動狀態에서 低迷하고 있다고 하겠다. 換言하면 戰爭의 意味가 喪失되었다는 事實이 戰爭의 要因을 拔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 라 하겠다.

### 三

以上으로 「抑」의 絶對化가 이것을 使用하는 戰爭行爲은 그 自體가 戰爭目的을 否認乃至는 阻害 한다는 데서 軍事力의 價値를 戰爭의 遂行力이 아니고 戰爭 그 自體를 抑制하는 方向에서 찾으려는 「抑制論」과, 核戰爭이 絶滅戰爭도 自殺行爲도 아니므로 必要한 때는 先制攻擊을 加함으로써 限定된 犠牲으로 戰爭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水爆戰爭可能論」의 骨子를 總介한 것으로 하겠는데 이것이 現代

戰略의 方向을 示唆하는 主要 理論이며 代表的인 思想이다. 一部人士들 間에는 美國은 「케네디」 行政府가 登場한 以後에 民防衛에 關心과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는 事實과 지난 三月三十一日 「산데이·이브링·포스트」紙에 發表된 바 「美國이 對소 先制攻擊을 加할 것인지도 모른다」는 印象을 주는 美國評論家 「올스프」氏의 「케네디」大統領 會見記事 등으로 美國의 戰略이 後者 即 「水爆戰爭可能論」의 方向으로 修正된 것이나 아닌가 하는 疑問이 감돌고 있는 것 같다. 이 記事內容에 關해서는 白聖縮公報秘書사린저氏의 解明도 있었으니 여기에서 評論할 必要는 없고 美國이 어떠한 戰略을 選擇했느냐는 것은 더 두고 보기로 하되 戰略의 選擇은 國際情勢의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만은 確實히 해 둘 必要가 있을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世界制霸의 慾望과 努力을 拋棄하지 않고 自由世界 또한 이들의 努力을 阻止하려 는 決意에 變動이 없는 現下의 情勢가 繼續되거나 激化되고, 東, 西兩陣營은 다 같이 自國과 自己陣營의 有史以來의 破壞를 防止하려는 萬般의 態勢를 갖추는 過程에 있어서 그 어떠한 戰略思想과 戰略이 이러한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인가는 經率한 判斷을 내릴 수 없는 重大事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人間의 立場에서 어느 方向을 選擇해야 할 것인가에 關係서만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허만 칸」博士의 計算에 依하면 美國이 何等의 民防衛對策이 없는 狀態에서 核戰爭을 맞게 되면 一億六千萬

명이 주고, 여기에서 받는 經濟的破壞의回復에는百年이 걸리지만, 萬若에 事前對備만 充分하다면 犧牲者의數를 一千萬名까지 減少시킬 수 있고, 經濟的인 回復도 五年이면 可能하다고 한다. 우리는 다 같이 戰爭의 要因을 消滅시킬 수 있는 動機를 잡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길망정 戰爭의 被害가 크니 못하겠고 저으니 할 수 있다는 式으로 安易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事前準備가 없으니 戰爭은 하지 말자, 또는 對策이 充分히 講究 되었으니 戰爭을 하자는 式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百步를 讓步해서 全世界가 充分한 事前對策이 樹立 되었다고 하더라도 全世界의 數千萬

의 生靈이 죽어가고 人類의 文明이 百年前으로 後退하는 것을 알면서 戰爭을 일으킨 程度로 人間은 殘忍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人間이 앞으로 繼續해서 「恐怖의 均衡」이라는 殺風景한 雰圍氣 속에서 戰爭에 對한 恐怖에 戰慄을 느껴야 할 것인지, 核戰爭이 絶滅戰爭도 自殺戰爭도 아니니 必要하면 核戰爭도 不辭한다는 變勇을 堅持하고 軍備의 擴張과 競爭에 狂奔해야 할 것인지, 或은 今 將來를 展望하면서 明智하고 賢明한 敎智를 發揮하여 새로운 戰略과 政策을 發展시켜야 할 것인지의 判斷은 諸君 諸位에게 一任할 수밖에 없다. 이들 戰略의 眞價는 歷史만이 評價할 것이다.

# 信 仰

孫 宇 聲  
★ 成均大教授

信仰의 세계는 現實生活의 世界속에 浸透하여 人間의 정신생활 속에 생명의 雰圍氣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 信者, 無信者, 無神論者 그리고 信者 속에도 종교 또는 宗파에 따라서 信仰에 관한 해석은 서로

# 現代의 方向

다르다. 그러나 人間 전체에 공통되는 점은 사람은 現實만으로 살아가질 수 없다는 것이며, 그 現實을 떠나서의 人間에 必要한 무엇이 信仰의 領域이다. 나는 形式上的 信仰을 갖지 않았으며 前에는 無神論者로서 神의 存在를 駁함에 快感을 느껴본 적도 있었다. 지금이라고 나는 神의 存在를 肯定한 것이 아니다. 勿論 어느 宗教의 信者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神을 그대로 肯定하다고 한다면 나는 大部分의 경우에 그것을 拒否할 것이다. 그러나 神

은 사람이 만들어 붙인 이름이며 사람이 생각하는 神은 언제나 人間이把握할 수 있는 現實界 神의 存在라는 말로도 그 屬性을 說明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人間으로서 어느 방법으로도 說明이 아니되는 存在인 바에 神의 存在를 否認한다는 것도 意味가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人間이 神을 파악하였다면 그 파악한 정도에서 人間이 神을 지배함을 의미하니 그것은 神이라는 概念에 反한다. 그리고 人間은 직접 파악되는 현실 너머에까지 생각이 미쳐서 현실밖에서 현실을 보아서 조절하여 어느 정도 지배할 능력을 가졌으니, 人間 자신이 그 정도에서 그 神性을 자기에게 가지고 있다. 神性이라는 것은 인간의 精神이 보통의 思考方式으로 보아서 그 이치가 解明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안 것과 같이 취급해서 거기 實質의 인 효과를 내는 능력을 말한다.

信仰은 항상 迷信과 結付된다. 迷信이란 理性으로 判斷해서 事實인 것이 아닌 迷信인 일을 事實이라고 믿으며 그 그릇된 確信 위에 다른 行動을 律하는 行爲를 말한다. 그러므로 迷信인 境遇에는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生을 營爲하기에 過多한 勞力이 必要한 人生에 不必要한 勞苦와 制約을 添加하여 社會의 生活 全般을 沈滯속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나 人生의 現象은 이러한 單純한 理致로 풀이되지 않는다. 아무리 明白한 迷信이라도 자기 信仰精神의 바탕이 있으면 迷信 자체에 深奧한 의미를 부쳐서 여기 強烈한 信念으로 植植한 生命力이 일어나

서 生活自體를 아름답고 보람있게 만들며 卓越한 文化까지 創造해 낸다. 信念의 힘은 무섭다. 信仰은 人生의 앞길에 希望의 끈을 붙여준다. 勿論 生命 자체의 힘을 붙여준다. 勿論 迷信과 信仰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實踐에서 이 두 가지는 分難가 불가능할 정도로 결합되어 있으며 俗衆의 輕信性은 되려 形式的 理解가 용이한 迷信의 중개로 신앙의 굳은 信念을 일으켜 文化의 實質의 向上에 利한 침한다. 韓國의 文化는 古代 寺刹이 그 遺蹟을 제하면 거의 보잘 것이 없다. 그런데 僧侶들의 生命을 들으면 대부분이 迷信의 人說話에 그치고 그 속에 깊은 意義를 찾아 볼 수가 없다. 佛敎는 迷信이 거의 主體를 이루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韓國의 가장 오랜 文獻이라는 三國遺事부터가 迷信의 人說話로 充滿한 것을 보면 어찌는 佛敎는 古代부터 迷信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그 迷信이 文化形成에 큰 役割을 맡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迷信이 文化를 創造한다고 믿어서는 아니된다. 藝術의 價値는 文化의 尺度를 정한다고 볼 것이지만 韓國의 佛敎文化는 新羅 이후에 하나의 前進이 있었고 漸次的 頹落으로 내려질만을 밟아온 것은 結局 信仰의 本質이 迷信으로 기울어져서 眞摯한 思考의 努力이 鈍化한 까닭이라고 보아야 할 일이다. 韓國의 大寺刹은 全部가 新羅時代의 創建에 依하며 그것도 人力을 움직이지 않게 힘드는 深山幽谷에 築造되어 있다. 科學知識이 貧弱하면 古代에 그만한 物資를 움직일 능력이 가졌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 발달된 科學知識을

# 現代의 方向

누렸음을 의미하며 人間에게 그만  
한 思考와 實踐能力이 있었다면 그  
방이 되는 判斷能力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면 新羅時代의 聰明하던 僧侶들  
이 尙당한 迷信을 그대로 믿으며 그  
을 信仰의 本體로 삼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들은 볼 것은 보고 있었다. 佛  
敎의 深奧한 思想에 法悅을 누리며  
解力이 薄弱한 俗衆에게는 迷信의 効  
果를 利用하여서 自己들의 깊은 기  
의 竭대기나마 大衆에게 논아 주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 뒤의 僧侶들은 信  
仰의 思想과 방편의 迷信을 분간할 思  
考力이 없어서 불교사상 자체에 退化  
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  
로 信仰은 迷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  
으나 迷信이 결코 信仰은 아니다.

中世 基督教에도 迷信의 要素가 豊  
富하니 그 바탕의 深奧한 사상이 信  
仰의 正眼을 이르게서 燦爛한 宗教文  
化를 이루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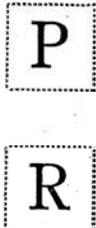
哲學思想이 말하는 바, 人間이 파  
악하는 現世라는 것은 不確實한 人間  
의 感官이 느껴서 받는 허황한 構造  
인 現象界라고 보며 신자의 存在界는  
파악할 길이 없다고 解釋하는 것은 宗  
敎思想이 現世를 無視하며 超越界를  
찾는 思想과 符合된다. 그것은 우리  
가 보는 現世가 허황한 것이 아니면 거  
만로 꾸며낸 迷信도 現世의 事象만한  
眞實性은 가진 셈이니 거짓말이 거짓

말도 아니되며 信仰家의 思想의 本質  
은 항상 超越界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러므로 現世에 관한 일은 진실이건 거  
짓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人間은 現實 即 現在에 만족하지 못  
하는 존재이다. 人間은 生의 安逸을  
要求한다. 그러나 生命의 維持에는 恒  
常相當한 勞苦가 隨伴되며 設使 相  
對의 安逸을 얻어도 人間의 欲求는  
한이 없으므로 現在은 人間에게는 언  
제나 苦痛으로 머무른다. 이 苦痛을  
덜하려는 意欲은 未來에 希望을 두게  
되며 思索의 探求로 現世의 幸福의 達  
成을 不可能한 것으로 確認하게 되자  
자연 現世는 不完全한 世上이니 不完  
全에 對해서 當然이 있어야 할 完全한  
世上을 來世에 두게 되며 직접 感官  
으로 파악하는 물질적 세계의 너머에  
精神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해  
석하고 싶다.

好意를 가지고 解釋하면 信仰은 人  
間精神의 必然의 要求이다. 왜냐하면 人  
生의 모든 일은 相對의이며 斷片的의 으  
로는 어느 곳이나 法이나 길이 보이  
는 듯 실은 法과 法과 法과 法 사이에는  
그 전체를 일컫는 規範이 보이지  
않는다. 人生의 일도 確實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러러 宇宙  
를 살피보면 晝夜 四時의 變遷이나 星  
辰의 運行이 一絲不亂의 엄격한 규율  
이 있다. 그러면 이 우주의 규율을 세  
워놓은 創造者가 당연히 想定되며 따  
라서 모든 일이 혼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現象에도 일관한 법이 있  
어야 한다. 人生은 苦海다. 고통은懲  
罰이다. 징벌을 받는 것은 인간이 저  
커야 할 어느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 전체를 율하는 어느 超越

者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우기 자연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빈  
약하던 古代人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  
는 일만이 충만하여 있으니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超越者의 存在를 직접느  
꼈다. 이것은 原始의 人素한 思想  
方式이다. 따라서 人智가 發達됨에 따  
라서 信仰의 迎力이 弱화된을, 막을  
수 없는 現象이지만 그렇다고 人智가  
信仰을 拂拭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  
는 일이다. 왜냐하면 人生의 모든 現象  
은 영원히 相對의이다. 相對가 있으  
면 絕對가 있어야 한다. 絕對가 없으  
면 相對란 말부터 의미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信仰思想  
은 이스라엘民族에 의해서 세워졌다  
고 본다. 그들은 직접 絕對者를 찾아  
서 그의 제비를 받았다. 猶太敎나 基  
督敎나 回敎나 唯一神의 觀念은 古  
代人의 直觀이 얻은 인간으로서 생각  
해낼 수 있는 가장 偉大하고 深奧한



★ 洪 泉  
公報部 文化宣傳局長

近來에 와서 傳達이니 宣傳이니 또  
는 公報로 불리우는 말들은 마치 일  
상 女性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원피  
스니」 「투피스니」 혹은 「타이트  
니」 하는 말만큼이나 流行되어 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特히 P R이라는 말은

思想이다. 神은 絕對요 善이요 眞이요  
完璧이며 모든 것이 不完全한 이 現世  
의 對極이다. 다시 말하면 神은 人  
類의 精神이 調和로 향하여 統一되어  
야 할 焦點이다. 이 焦點의 憧憬이  
바로 信仰이며 그것은 동시에 倫理  
思想의 要求와 合致된다. 基督教國家  
의 信者들이 敬神思想과 道德을 混同  
함은 이 때문이다. 다만 信仰이 宗教  
의 形式으로 抽象에 의한 固定된  
思想을 이룰 때에는 思想과 思想들사  
이의 磨擦로 되려 人間의 길을 벗어  
나서 여러 弊端을 이르게 왔다. 그대  
문에 無神論者들의 非難이 일어났다.  
相對의 存在인 人間은 絕對로 絕對者  
인 神에 連結을 취할 수 없으니 結果  
的으로 神은 없다고 하여도 無妨한 일  
이다. 그러나 그들은 無神論 자체가  
一種의 信仰임을 잊고 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사람의 길을 찾는다. 그  
것은 사람이면 어느 形式으로건 信仰  
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現代의 方向

PR에 關係하지 않는 사람들의 關心  
 끼리이기도 합니다. 흔히 政府에서는  
 「PR活動을 展開한다」나 「農漁村에  
 對한 PR을 強化한다」 혹은 「PR에  
 對한 養成이 時急하다」는 命題를 내  
 려고 實施地로 方面에 心血을 기울이  
 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 世代를 가리켜  
 宣傳의 時代라고 稱하고 있습니다. 一  
 國의 國家政策으로부터 個人的 些少  
 한 意思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케이쥬」  
 機構를 통한 宣傳이 아닌 것이 없습니  
 다. 특히 民主國家社會에 있어서는 더  
 우 그러합니다.  
 일찍이 東洋社會는 숨기는 美德(?)  
 呼訴를 모르는 병어리의 냉가슴 때문  
 에 開發보다는 沈滯, 發展보다는 落  
 後를 가져왔다.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政治에의 無關心이나 爲政者의 橫暴  
 가 發生케 된 原因이기도 합니다. 政  
 府가 하는 일을 國民이 모르고 國民  
 의 意思가 國家施策에 反映되지 않는  
 다면 그것은 分明 中世의 封建社會나  
 近世의 絕對君主國家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共產國家가 일  
 상는 宣傳은 甘言利說과 誇張虛勢로  
 가득차 있어서 宣傳의 眞意를 餘地없  
 이 損傷시키고 있진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날의 宣傳은 現代人的 生活과 感  
 情을 거의 支配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宣傳時代에 있어서  
 는 民主國家의 市民들은 그들의 判斷  
 에 呼訴하여 오는 無數한(國家的, 社  
 會的, 個人的) 呼訴를 自身이 判斷, 評  
 價하는 責任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인  
 것입니다.  
 무릇 宣傳을 받아들이는 態度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하고 宣傳을 拒否하면, 가  
 고스란히 믿어버리는가, 스스로의 銳  
 敏한 判斷에 의해서 評價할 줄 아는 態  
 度를 띠는가.

우리社會에는 흔히 무조건하고 宣  
 傳을 嫌惡하거나, 反對로 속속드러 믿  
 어버리는 傾向이 濃厚합니다. 가령 權  
 威主義 體制下에서 살아온 이들은 一  
 時에 믿어다친 오늘날의 自由民主主義  
 風潮가 미치고 있는 開放의 이고도 進  
 取的인 影響을 敬遠하고 꺼려하기 때  
 문에 自由思想에 대한 啓蒙이나 宣傳  
 을 全的으로 不信하는 態度를 취합니  
 다. 이와는 反對로 自然인 그대로의  
 이를테면 思想의 輪廻를 모르는 사람  
 들은 宣傳에 아무런 批判도 加하지 않  
 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가령 여기에 어떤 가혹한 行爲가 있  
 었다고 합시다. 우선 寫眞班이 달려  
 오고 「라디오가 放送을 하고」 「新  
 聞이 報道하고」 「讚辭가 높아지고」 「  
 一映畫化가 되었을 때, 이 사실은 分  
 明 全國 坊坊谷谷에 傳波되어서 萬人  
 을 感動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와같은 가혹한 行爲가 「메스·메디아」  
 를 통해서 알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  
 를 가혹한 行爲로 보지 않으려 드는 宣  
 傳否定者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혹  
 한 行爲가 宣傳이 없기 때문에 不淨이나  
 단정처럼 錯覺하는 固陋한 思考方式,

이러한 思考方式은 「가혹한 行爲」는  
 숨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認  
 識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와 反面에 이따금 「저나  
 리즘」이 犯하는 事實의 歪曲이나 誇  
 張마저도 아무런 批判없이 그냥 받아  
 들이는 一般大衆이 있다는 것을 생각  
 할 때 우리는 必然的으로 宣傳의 多樣  
 性과 伸縮性을 配慮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PR의 使命이 發生하는 緣  
 由이기도 합니다.

美國에서 一般意味論의 한 權威者  
 인 「S. I. 하야카와」씨는 人類大  
 部分의 共通의인 弱點으로서 無意味  
 한 말에서 影響을 받기 쉬운 것, 雄  
 辯的으로 熱을 넣어서 말한 것을 믿  
 기 쉬운 傾向, 事實에 依하여 생각하  
 는 것보다 標語에 依하여 생각하기 쉬  
 운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實들은 人類的 弱點인 同  
 時에 PR의 發生與件이기도 합니다.  
 萬人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新聞의 大量購讀, 「텔레비죤」과 「라  
 디오」 등은 現代의 「컴퓨터 케이쥬」 技  
 術의 影響을 받은 나머지 있어서 때  
 로는 無意味한 말을 가라앉고 몇百萬이  
 란 사람들이 一舉에 動搖시킬 수도 있  
 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 때, 現代社會  
 에 있어서의 PR活動은 自然, 意味를  
 強調하는 直接 PR方式과 無意味한  
 말을 가지고 「애필」할 수 있는 間接  
 方式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  
 게 됩니다.  
 가령 熱辯이나 標語 「포스타」같은  
 것은 比較的 感受性이 敏感치 못한 大  
 衆을 일깨우는 데 퍼 效果가 있어 보  
 입니다. 그러나 「인테리」層에 있어서

는 그런 熱이냐 強調만으로는 達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宣傳의 逆  
 效果를 나타내기 일수입니다. 다만 이  
 들에게는 「유·모리스」한 「아레고리」  
 나 論理의인 確證만이 그네들을 納得  
 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萬事에 批判  
 의이고 「아이로니」나 「싸타이어」만이  
 그들의 關心을 刺戟시킬 수 있다는 것  
 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都市에 있어서는 宣傳은 絕  
 對로 間接 PR에 依存할 수 밖에 없  
 습니다.

앞서 筆者는 大衆에게 無意味한 것  
 이 때로는 엄청난 影響力을 갖는다는  
 말을 했읍니다만 單純한 면서도 「윗트」  
 가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條件  
 附입니다. 大衆이 그 속에서 제멋대  
 로의 意味를 찾을 수 있고 心像을 搖  
 動시킬만한 言語感覺의 번뜩임이 있  
 어야 합니다.  
 例를 들어 봅시다. 六·二五 動亂時  
 에 背水の 地리 釜山市 一帶에 이런  
 「포스타」가 나붙은 적이 있습니다. 老  
 人이 手巾을 이마에 걸고 동여메고 正  
 面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이 전쟁에서 무엇이 하였느냐」는 표  
 어가 붙은 그림이었읍니다.

언뜻 보기엔 單純해 보였읍니다  
 만 피어린 戰亂을 겪고 있는 受難의  
 民族에겐 肺腑를 찌르고 肝臟을 서늘  
 케 하는 바가 있었읍니다. 이 「포스타」  
 앞에서는 누구나 反省과 苛責과 憤發  
 을 促求하지 않고서는 못 배겠으리라  
 생각됩니다.  
 「間接侵略을 粉碎하자」는 「스토·강」  
 만 허더라도 지금까지 許多히 나붙은

說解

# 美國의 核戰略의 基本構想

— 그 배경과 몇가지 戰略書籍 —



## 核戰略論의 背景

작년 5월, 케네디 대통령이 강력한 새로운 민간방위계획(民間防衛計畫)을 실시할 때 전국민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미국민은 자기가 처자를 위해서 「셀터」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하면서 무서운 열핵전쟁(熱核戰爭) 原水爆戰爭)에 대비해서 각 가정단위로 방위할 것을 경고하자 전 미국에는 셀터(待避壕) 소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셀터라는 것은 원·수폭의 직접 피해를 방지하는 「브라스트·셀터」(爆風待避壕)가 아니고 폭심(爆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폭발 뒤에 오는 무서운 방사성 재하물(放射性降下物) 즉 죽음의 재를 방지하는 방사능 대피호를 말하는 것이다.

폭풍 대피호는 중요도시에서 미국정부의 보조금으로 주정부나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특정한 것이

고 케네디 대통령이 말한 방사능 대피호는 각 가정의 지하실이며 뒷동산에 간편하게 만드는 가족 대피호인 것이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빌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거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대피호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국인들의 실리적인 사고방식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고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가능한 방법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쁜 생각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군인들의 이와같은 실리적 현실적인 사고는 미국의 유력한 전략가들에게도 반영되어 핵전쟁 전략수립의 기본방칙과도 관련이 깊다.

사실상 미국의 유력한 전략가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핵전략」에 관해서 예의 조사하고 연구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 「장래의 핵전쟁에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을 것이며 전면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인류의 전멸은 아니며 반드시 승·패가 있는 것이니 우리들은 만전의 대책을 강구

하여 모든 노력으로써 이겨야 하며 살아 남아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견해를 세웠던 것이다.

## 核戰略의 基本的構想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미국의 핵전략 이론은 소련에서도 거의 같은 의견을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다각적으로 그 전략태세를 연구하고 있다. 이 소련의 핵전략 이론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정평이 있는 소련 군사연구가 「레이몬드·가르토프 박사(美國防總)의 저작 「핵시대의 소련전략」(一九五八年)이 이미 4년전에 다음과 같은 중대교고를 함으로써 식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소련은 원·수폭 전쟁에서도 필승을 기하여 가령, 그 군사력과 인구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경우라 할지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과 그들이 믿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최선식의 제트 폭격기(戰略空軍)와 대륙간 유도탄(ICBM)과 중거리로켓트(IRBM)과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 등에 의한 초기의 전략적 공격은 대소양구과 양진영의 중요 동맹국인 화평화할 것이다. 그러나 상호적(相互)의 인대 파괴는 결코 양자가 함께 방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핵전쟁의 파국적 단계에서 약한 나라는, 또는 준비가 없는 나라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적인 사고 방식은 미국 정부와 군부의 「핵전략」의 기본구상이 되었다. 이 기본구상은 지난 1, 2년 동안에 발전되고 강화되어 신문이나 세문을 크게 움직여 마침내는 작년의 대피호 소동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이다. 미국에서 각 가정의 대피호 소동을 일으키자 어느 공산주의자는 아이젠하워 정부보다 더 보수적인 케네디 정부보다 욕질을 하면서 진보적임을 자처하는 케네디 정부가 대피호를 장려한 「어떠한 국가도 그 최고의 목표는 살아서 보다 잘 살겠다는 것이다. 소련의 병력은 소련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무기다」라고 실파한 「가르토프」박사의 소련전략론에 관심을 가진다면 케네디 정부의 그와같은 대비는 당연하고도 남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하바드 대학의 「헨리·키티저」교수의 유명한 저서 「핵병기와 외교정책」(一九五七年)도 또한 학자다운 신중한 이론으로써 「한정전쟁에 한해서 핵병기를 전술적(戰術的)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시인하였던 것이다.

## 새로운 戰略論의 展開

지금으로부터 3년전(一九五九年) 6월, 미국 국회의 上下합동

원자력 위원회의 방사능 분과위원회에서 「만약, 전면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건 공청회(公聽會)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미국의 「금과학자,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내의 주요도시 七〇과 군사시설 一三三과 원자력 시설 二一, 합계 二四四개소」에 대하여 일한 一메가톤 내지 五〇메가톤의 수소폭탄 一발 내지 二발, 합계 二六三발이 한꺼번에 투하 명중된다면—」이라는 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여 미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순잠박한사이에 전 미국인구(一億七千萬)의 三분의 一 이상에 해당하는 五千萬이 사망, 二千萬이 폭풍과 화재와 부상(輻射熱)에 의해서 중경상을 입을 것이며 전 미국 가옥의 반수에 해당하는 二二五〇萬호가 완소(完燒) 또는 파괴할 것이다.

그로부터 三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위기도 근본적으로 개선된 바 없고 미국군부의 핵무장파 미·소의 핵 미사일 경쟁은 더욱 더 심해졌을 뿐 완화된 징조는 조금도 없다. 이와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최근 미국에는 권위있는 전략서적이 다수 출판되고 있으며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워서 우리나라와 같은 전문가나 임을 책임진대도 미국에서는 일반 국민이 이러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의 하나의 예로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학 출판부인 프린스턴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몇권을 여기에 소개해 보기로 한다. 프린스턴대학은 군사문제와 국제문제의 연구로서 유명하며 미국에서 몇몇의 오랜 대학이고 동 출판부는 五十年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주로 시국적인 전문서적의 출판에는 일민간출판사와 다른 없는 유력한 존재이다.

1, 하만·카안著 『熱核戰爭論』 (一九六一年)

이 책은 켈리노아 공과대학 출신의 저자(物理學者)가 미국의 저명한 란드총합(總合) 연구소에 서 十二년동안이나 원·수폭전쟁의 본질과 양상과 그 대책을 연구한 귀한 저작이다. 미국 군부의 간부를 위한 특별연속 강의의 집대성(集大成)이다. 전권 六五〇페이지의 무게있는 서적이다. 이 저서 속에서 그는 제 一차 세계대전에서 제 八차대전까지 소상히 기술하였고 一九六〇년 후반의 대위기와 一九五七年까지의 미·소의 군사력과 전략태세를 면밀히 추론하여 해석대에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과 자오를 밝히고 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전 미국에 걸친 五〇도시를 기습공격 받을 경우 민간방위기 전연 없을 경우 우는 사상자 九千만, 만약 방사능 강하물을 최소한도로 예방하고 전

인구의 七〇퍼센트의 전략소개가 완료되어 있다면 사상자는 五百萬—二千五百萬으로 추산하고 있다. 『鬪爭의 戰略』 (一九六〇年刊)을 저작한 하바드 대학 교수 토오마스·쉐링거는 그를 「미국 제일의 통렬한 군사전략가」라 하며 탄복하고 있다.

2, 버이나드·부로디이著 『미사일 時代의 戰略』 (一九五九刊)

이 저자는 「에인」대학 교수(國際問題에서 一九四六년에 미국 국립 군사대학의 창립위원이 되고 현재, 육·해·공군 각 대학의 교문장 장사의 요직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란드 연구소의 주임 연구원이다. 一九六〇년의 핵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이 가져야 할 전략의 전모를 四五〇페이지 속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권위있는 해설서이다. 그에게는 이 밖에 미국 해병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海軍戰略入門』 『絕對武器』 등의 저서가 있다.

3, 그린·H·스티디아著 『抑止와 防衛』 (一九六一年刊)

이 저자는 덴버 대학 사회과 연구소의 객원(客員) 교수로서 이 때까지 미국 전략의 디렉터였던 「抑止냐? 防衛냐?」의 대응책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국방정책의 최고 목표는 우선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만약 공격이 일어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령있게 방위

한다는 새로운 전략론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론을 전개하고 있다.

四, 포울·하르드著 『國防策—二十世紀의 美軍部論』 (一九六一年刊)

이 저자는 「에인」대학 정치학 교수이며 전후, 다년간에 걸쳐 하바드 대학원, 미해병학교, 컬럼비아 대학 평화연구소 등에서 군사문제를 조사연구 하였다. 이 저서는 미국 군부의 공정한 조직과 미사일 시대의 국방의 방향을 짚어적으로 구명한 四百페이지의 책이다. 아무리 핵시대에 적합한 대전략을 수립하여도 이를 행사하는 군부의 체질개선이 수반하지 않고는 소용이 없다는 통렬한 제안은 군부의 두 존재적 독립적 행위를 경고하는, 귀를 기울여야 할 가치있는 책이며 민주적 국방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 소개한 것은 프린스턴대학 출판물(他社 刊行)의 戰略書도 많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한국같은 고립상태 이외에는 읽지 않을 군사전략서가 미국에서는 일반 상연간행물로서 널리 정취가나 실업가, 신문인물에 읽히고 있다는 점, 특히 저자가 직업군인이 아니고 훌륭한 학자라는 점, 어린이로서는 존경심을 금할 수 없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필경 전국민이 그 만큼 국가안전에 대해 관심이 깊다는 것과 고급군인들이 학자의 의견에 그만큼 귀를 기울여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外誌에서 박병일연)

# 越南戰의 性格과 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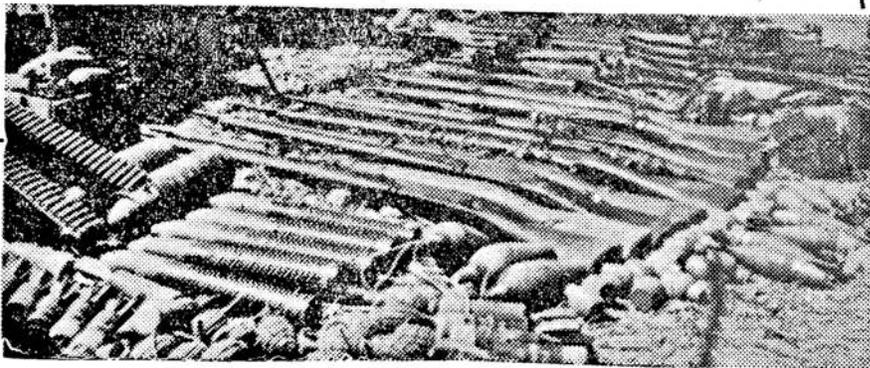
東南亞의 울창한 밀밭지대와 험악한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기습과 도주」의 게릴라戰法을 전매투하처럼 사용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처하는 자유진영의 군사력은 기계화된 화력과 기동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머지 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듯 하였다.

이제 베트남에서 자유월남군을 지원하고 있는 美軍은 여러가지 現代의인 裝備과 새로운 戰術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對게릴라戰法을 發展시키고 있으며 그 成果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글은 美空軍參謀總長 C. E. 리메이 將軍이 美空軍의 Air man 誌 7月號에 기고한 글을 옮긴 것이다. (사진은 노획한 越盟軍의 武器)

美空軍參謀總長

C. E. 리메이



오

늘날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軍事問題는 폭도소탕전인 것이다. 폭도소탕전이라 는 것은 즉 共產勢力을 침투시켜서 암살, 납치 및 게릴라戰等을 통하여 合法的인 政府를 번복하려는 侵略을 분쇄하는 것이다. 베트남이 이의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베트남이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의 일면은 베트남의 국가적 성격 및 국민에 관한 오래되고 뿌리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면은 第二次 世界大戰中 公산주의자들이 이러한 베트남의 오래되고 뿌리깊은 문제들을 이용하여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기록된 二千年이 다는 장구한 歷史를 통하여 多數의 少數民族을 만들어 냈다. 그것이 오늘날 베트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일면인 것이다. 이러한 少數民族들은 宗教, 慣習, 理想 등을 달리하여 서로 反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少數民族들은 그들의 在來 慣習社會의 獨立을 希求하여 왔으며 共產主義者들은 獨立이 이들의 오래된 希求를 利用하여 왔던 것이다. 베트남의 地形은 전국토를 좁은 해안평야지대와 높은 산악지대로 잘라 놓았으며 北에는 베트남 三角地帶의 산產地가 있고 南에는 메콩江 三角地帶의 산產地가 있다. 產業을 뒷받침하는 石炭 및 鑛山資源은 北部에 집중되어 있다. 국토의 절반 가량이 울창한 밀밭으로 덮여 있으며 교통기관은 보잘것없이 빈약하다. 대부분의 교통기관은 운하와 연안의 海路를 利用하는 것이다.

불란서가 인도차나 반도를 통치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불란서는 이곳을 一九五四年까지 일백여년간이나 지배했으나 이곳의 주민을 통치하지는 못했다. 불란서에 대한 베트남인의 反抗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으며 그들의 이러한 反抗은 成功하지는 못했으나 베트남인들의 獨立意慾을 크게 북돋우어 주었던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第二次 世界大戰中 베트남에서 이러한 오래된 문제들을 利用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第二次 世界大戰 末期에 共產主義者들이 武力을 가지고서 군림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나치독일이 불란서를 점령하자 불란서의 비정치權은 樞軸國에 協力했으며 인도차나의 불란서政權도 비정치權에 步調를 맞추었고 비정치權의 힘으로 樞軸國의 하나인 日本이 베트남을 점령했다. 日本에 依한 五年間的 점령기간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日本에게 叛旗를 든 주요단체는 共產主義者인 胡志明이 영도하는 越盟集團이었던 것이다. 抗日運動을 통해서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그들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했으며 독립을 희구하던 베트남 민중의 지지를 획득했던 것이다.

戰爭의 末期에 다가들면서 불란서가 제차 연합군에 의하여 탈환되자 日本은 베트남의 불란서政權을 해체하고 소베트남을 지배하는 그들의 괴뢰 정부를 세우고는 독립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日本에 反抗하면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所謂 「베트남 民主

共和國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후 日本이 敗戰하자 그들이 세운 괴뢰정부도 무너졌으며 共產主義者들이 영도하는 자치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一九四六年初 불란서가 인도차이나에 되돌아오던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던 것이며 오늘날의 결과를 남게한 원인중 그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는 단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

것은 다름아니라 第二次世界大戰 終戰當時 公산주의자들이 전쟁 장비 및 물자를 인수한 것이다. 그 당시 베트남人, 비지佛政權, 自由佛政權 및 國府中國 등 통치자가 연달아 바뀌었던 것이다.

포츠담會談에서는 北部베트남에서 國府軍이 日本軍의 降服을 점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國府軍은 日本軍의 降服을 점수했으며 佛政權이 귀환한 뒤 몇달 지나서 점수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간에 상당량에 달하는 무기 및 전쟁물자가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며 이것이 후에 불란서와의 전쟁에 이용된 것이다. 베트남으로 되돌아온 불란서 정권은



<리메이 장군>

공산주의자들과 베트남에 있어서의 두 정권의 위치 및 권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러한 협상은 一九四六年까지 계속되었다가 完全히 決裂되었으며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불란서와의 광범위한 계밀라戰을 展開할 수 있는 장비와 경험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一九五四年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北베트남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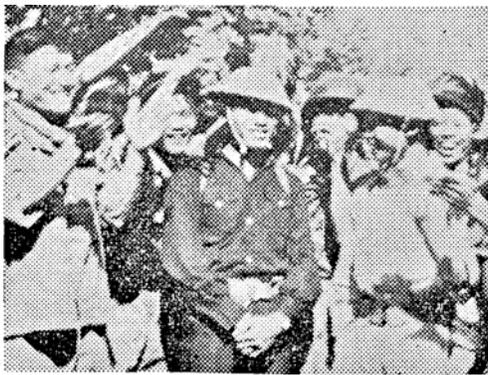
베트남에서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자들은 그로부터 五年間을 그들의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소비했다. 공산주의자들이 계밀라戰을 계속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주력은 전투원의 모집과 훈련 및 작전과 보급의 근거지를 확보하는데 두었던 것이다. 그들의 주요 작전지역은 북부 베트남의 산악지대였다. 그러던중 一九四九年 베트남의 북부국경까지 中共軍이 지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中共에 안전한 피난처와 보급근거지를 갖게 된 것이다.

처음에 불란서는 要塞作戰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란서의 기도는 요새주위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므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불란서의 요새작전은 적으로 하여금 기동 및 매복의 전술을 사용케 하였으며 따라서 불란서도 이동작전으로서 이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불란서군의 우월성은 기계화된 화력 및 기동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이 불란서군을 도로, 운하 및 평야에서만 우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조차 적은 도로로 밀림을 횡단하여 목표물 찾고 밀림을 배경으로 공격하며 밀림속으로 후퇴하여 사라질 수 있었다. 불란서군은 작기간에 걸친 소모전과 보급의 곤란으로 약화되었으며 그들은 대규모로 전세를 정식으로 갖춘 적과 대적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불란서군은 적을 철저히

(사진은 歸順한 越盟軍을 환영하는 越南軍)



처부실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한 불란서군의 소원은 一九五四年에 「디엔 비엔 푸」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세는 불란서군의 확신과는 정반대로 불란서군이 패배했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불란서군이 패배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의 옳고 그름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한가지 특기할만한 중요한 사항은 다름아니라 불란서군을 패배시킨 것은 계밀라 전술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전투는 훈련된 정규군으로 된 적과 싸웠던 것이며 적은 실질적인 포병 및 대공포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 문적인 보병전술로서 공격했던 것이다. 전투는 몇달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공산군은 우수한 후방지원체제에 의한 지원을 받으면서 싸웠던 것이다.

「디엔 비엔 푸」전투에서 불란서군은 공중업종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불란서군의 항공기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기지에서 출격하였으므로 전선에서의 체공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다. 불란서군이 포병의 후위를 빼앗기고 나서는 불란서군의 항공기들은 전선에서 훌륭하게 차폐되고 위장된 적군의 개별적인 목표물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며 불란서군의 要塞를 공중지원하는 수송기들이 앞은 고도에서 보급물자를 투하하도록 하기 위해 적군의 대공포대 공격에 주력하였다. 불란서군의 要塞는 전적으로 공중보급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에는 항공기에 의한 화력지원이 거의 없었으며 분쇄되어 버린 불란서군의 포대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항공기도 없었다.

군

사적으로 보아서 「디엔 비엔 푸」의 함락이 그다지 결정적인 것은 못된다. 그러나 「디엔 비엔 푸」의 함락은 불란서가 네바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는 순간에 된 것이다. 「비엔 디엔 푸」가 함락되므로써 불란서는 정치적으로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란서는 협상을 통해서 베

트남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할 것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북베트남을 지배하고 베트남 정부가 남베트남을 통치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베트남은 대략 一七度線에서 분할된 것이다.

이 때까지의 戰爭의 주요한 政治的인 문제는 베트남의 독립이었으며 공산주의자를 지지하던 자들은 자기네들이 진정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의 의해서 베트남의 독립은 허용되었으며 베트남 진정의 주요한 정치적 문제는 어느 쪽 政府가 독립된 베트남을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UN 감시하에 一九五六年 베트남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선거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배** 트남이 분할되고 나서 약 백만 명이 共產主義 支配를 피해 남으로 이동했음에 反하여 北 소수의 사람이 共產主義支配에 살고져 北으로 갔다. 또한 南쪽에 있는 모든 共產軍이 철수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중 일부는 사실상 철수했다. 그러나 철수하면서 六萬名에 달하는 자유베트남의 젊은이를 남치하여 갔으며 또한 五천여명에 달하는 열성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자유베트남에 잔류시켰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장차 조직한 공산세력의 핵심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자유베트남에서 오늘날 존중하는 공산주의의 상당수는 그들이 철수하던 당시에 북으로 남치하여 갔던 젊은이들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의하면

북으로 남치되었던 젊은이들은 선전원이나 선동원, 또는 게릴라로서 세워지고 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훈련을 받은 이들 젊은이들은 자유베트남에 잔류한 열성적인 공산분자의 지시에 움직이도록 자유베트남으로 밀려와 있었다.

자유베트남에 대한 오늘날의 치열한 선전은 一九五五年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一九五七年 중엽부터는 공산주의자들의 의한 무력활동이 점차 증가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그들이 점권을 장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의 일단인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자유베트남에서 공산주의자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구를 파괴하는 것이다. 때로는 그들 활동의 수단인 것이며 기본전술은 공산주의자에 대항하는 권력기구에 민중이 반기를 들도록 하는 것이다. 각종의 반부음도 및 반란행위는 보다 많은 수효의 민중이 그들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기구에 반기를 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단계는 민중을 정권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디엔 비엔 푸」에 있어서처럼 公開의 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보다 더나 앞장들의 행동으로부터 대규모 군사행동까지에 이르는 공산주의자들의 의한 폭동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친여명의 教師에게 테로를 가하고 학교 건물들을 파괴하므로써 사백여개에 달하는 학교를 폐쇄하였다.

의 이익식량 생산국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쌀의 수송을 방해하므로 쌀이 남아 수출이 삼분지 일로 줄어들었다.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술로서는 지독한 고문을 가한 후 학살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정부관리나 학교 교사를 학살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아내와 어린애까지도 학살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수백을 헤아리는 마을의 지도자를 학살하여 공산주의의 위력을 민중에게 과시하려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또 하나의 전술은 남치인 것이다. 일단 남치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고 가끔 몸값을 치루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설득으로서 공산군을 모집하는 것이 실패할 경우 남치 전술을 쓰기도 한다.

정부시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서 병원 및 진료소등을 습격하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所謂 「稅」라는 名目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활동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흔** 히 地主들은 그들의 수확을 파괴하지 아니한대 대한 대가를 물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운송의 자원은 보호하는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들의 회사와 뼈쓰나 배가 습격 당하는 것이다. 뼈쓰는 강탈하는 것은 흔한 것이다. 때때 부분의 경우 공산주의자들은 무방비의 민중이나 고립된 관서나 방비가 빈약한 전초진지를 습격하는 것이

### 蘇聯 最高會議의 選舉

蘇聯에서 最高會議의 選舉가 一九五〇年三月十二日, 一九五四年三月十四日, 一九五八年三月十六日, 一九六二年三月十八日 이렇게 滿四週年 「플라스」二日마다 圖章적 正確하게 施行되었다.

議會解散이 없으니 議員은 四年間의 任期가 完全保證된다.

野黨이 없는 議會이나 解散의 必要도 없다. 어느程度 新陳代謝가 있지만, 그들의 常套의 말인 「우회와 같은 拍手로서 滿場一致」한 權利밖에는 없는 議員의 質은 何等變化가 없다.

왜? 無意味한 選舉를 四年마다 施行하며 缺員이 생기면 補充하는가 그것은 總選舉를 한다는 民主的 衣服으로 共產獨裁의 本質을 偽裝하기 爲한 計뿐이다.

美國의 上院議員 「그린」氏가 『蘇聯에서 選舉를 어떻게 하는가 共產黨만 立候補하고 各選舉區에서는 一名만 出馬한다니 事實인가?』

고 하니 「후르시코프」는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 議會議員의 四〇%는 非黨員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一個의 黨이 있는 것은 事實이다. 이것은 全勤勞者의 利益을 共產黨이 代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候補者 選出은 먼저 勤勞者의 各團體가 各各 立候補者를 내세우고 各團體代表者가 最適切한 者를 一名 選出해서 選舉人

# 「모스코바」와 行列

어느 外交官 夫人이 본 소련



▲이 記錄은 蘇聯 首都 「모스코바」에 駐在했던 一 外交官 夫人의 手記이다.

나의 모스코바 생활은 一年八個月, 一九六〇年에서 六二年初까지였다.

처음 到着했을 때부터 무연가 생활의 不安을 느꼈지만 主人이 外交官이라 本國에 돌아간다면 二重 생활을 하게 되니 그대도 참는 수밖에 없었다.

露語는 「스코리코(일마나)」라는 말과 一에서 百까지의 數字밖에는 몰랐다. 우리들이 처음 살던 곳은 市の南面 「레닌스키이·푸로스펙트」라는 큰 거리의 新開地의 「아파르트」였는데 極히 普通日用品을 사려고 해도 「빠스」로 出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뒤에 「쿠프조프키이」街로 옮겨져 少 便利해졌지만 亦是 本國같이 가까운 店舖가 없었다.

醬, 肉類, 蔬菜, 湯조림等 良料 品店은 幾만 距離에 있었고 그것도 언젠지 살 수도 없었다. 蔬菜 果實은 北國이니까 할 수 없지

만 肉類나 鷄卵等이 絶無일때가 많았다.

미리 店員에게 付託해두어도 別物 果가 없었고 不得已 每日 몇번이고 나가 보아야 했고 다른 불길로 나갈 때도 언제나 보자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틀림없이 若干의 상품이 들어온 개개 矣이었다.

蘇聯人도 外出때나 出退勤때인 際나 보자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習性化되어 있었고 이 보자기代用의 網袋를 蘇聯人들은 「아브시카」요령을 바라는 것라고 하니 그 實情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首都의 일이나 다른 都市는 想像할 수 있었다.

商店은 「아파르트」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物件사는데 不便하기 짝이 없었다. 이것은 現金은 商店에 주지 않고 「카사」(現金受拂口)에 가서 品目과 量을 말하고 傳票를 받아서 다시 量을 서야 하는 것이다. 그 原因은 計算이 느리고 「서비스」精神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行列을 세워놓고도 雜談을 하는 商人 물건들의 有無를 물으면 「니엣트」(없다)라는 말 한마디 뿐이다. 되물어도 귀찮다는 듯 「니엣트」

다. 흔히 그들이 습격하는 대상으로서는 경찰서나 조그마한 군의 분견대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들 경찰서나 군의 분견대를 우세한 병력으로 서기 습격하므로서 무기 및 탄약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의료기관을 습격하여 필요한 약품을 확보하며 농민을 습격하여 「稅」의 명목으로 식량을 약탈하고는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폭동을 주도하는 것은 열성적인 전투원의 핵심분자인 것이다. 전투부대의 정수는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잘 조직된 게릴라부대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핵심적인 전투부대를 보충하는 것으로서는 수시 전투에 참가하는 전투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지구별로 정규장교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요원, 선동원, 연락원 및 의 보조원들이 있다.

이들 전원은 물론 일반적인 공산조직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이다. 정치기구, 정보기구 및 군사기구는 모두 당에 의하여 지배된다. 공산당은 적색분자를 침투시키고 선전물을 제공하며 군사요원을 처치하고 통신을 하며 금전 및 물자들을 공급한다.

민중속에 파고드는 이러한 분자들은 라오스를 통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지로 공습받기도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하는 라오스는 대규모의 정규적인 공산군을 형성하기에 매우 안전관 지역이다.

규모가 큰 정규군 및 민병대는 비교적 소수의 폭도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폭도들은 민중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投票한다. 貴國에서는 어떤 選舉를 하는지 모르지만 各이 그 나라의 傳統과 自己가 좋다고 생각하는 體制를 펴하면 된다.』

「후르시초프」도 一黨의 存在를 認定했고, 一名의 候補者를 是認했다. 그런데 四〇% 非黨員의 立候補者도 事實은 共產黨員이 選擇한 것이다.

共產黨은 「캄파라위」하기 爲해서 議員의 四〇%를 非黨員으로 하고 男女 同權을 主張하기 爲해서 議員의 四〇%를 女性으로 하고 있을뿐인데 故意로 黨員을 내세우고 싶지만 非黨員을 내세우고 男子代身 女性을 세운다. 그러나 各地區에서는 이 割當이 끝나기 前에는 候補者가 나설 수 없다.

그들은 먼저 「후르시초프」, 「미코얀」, 「코즈로프」等 黨最高幹部의 누수 「포노마로프」나 「스피리도노프」等 黨中央委員會 書記中에서 一人을 골라 候補로 내세우고 選舉宣傳을 시작한다.

그들이 처음부터 議員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 일이지만 割當이 끝날 때까지 黨의 忠誠表明을 爲한 것이다.

「후르시초프」나 「미코얀」은 聯邦內 數中個所에서 候補가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現象이다.

勿論이것을 一時的 現象으로 割當이 끝나면 共同聲明을 낸다. 『各 選舉區에서 우리들을 聯邦最高會議議員候補로 推舉한 것은 우리들에게 信賴의 表明으로 感謝하니 우리는 一選舉區만 擇하여야 하므로 黨의 指示에 따라 左記選舉區에서 出馬云云.』

그런 反面에는 사기 많은 物件도 없어진다고 強制로 따마가는 능을 갖은 商人이 있다.

價格은 一이 記錄할 수 없으므로 그 印象만 적겠다.

一般的으로 그 種類가 極히 低劣 榮養價도 없으며 冬節에 新鮮한 것은 거의 求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값을 말한다면 商品自體가 粗雜한데 비싸기 限이 없었 特別히 鷄卵은 이기도 보기만 할 정도로 本國의 및 倍가 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百貨店은 國營으로 몇몇 있는 데 그 建物만은 雄大하나 商品은 보잘 것 없는 을 賣하기 작이 없어 親近味가 나지 않았다.

住宅은 一般 蘇聯人의 것은 보잘 것 없었으나 「아파트」만은 若干 便利하였지만 特殊層이 아니면 얻어 들 수가 없을 程度이며 집세도 月六十七「루블」(八千九百圓)이나 물게 되었다(방 셋 부엌 便所).

學校는 敎室不足이 深刻해서 義務教育이면서 二部制로 되어 있었고 先生은 義務的으로 가르치고 時間만 되면 退勤해 버리고 宿題만 한 아를 시 내어 주어 아이들은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런데 資本主義나라에서 온 아이들은 「카타리스트」라고 하여 敵視하는 傾向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여러서 그 程度는 알 수 없었다.

話題 한가지 그곳서 어느 女醫가 著述한 記錄에 依하면 唯物論의 徹底한 捕虜인 그들이 精神科醫에 있어서만은 信仰心을 強調하는 것을 보았는데 무엇인가 二律背反의 인느

집이 없지 않았고 戰後 特別히 狂人이 적지 않은 數字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가령 文學에 있어서 反撥하는 精神과 같이 一般人이 있어서 는 窒息할 듯한 抑制生活의 反撥이 곧 狂症으로 變貌하지 않는다고 보 이어 그들 生活의 一面을 볼 수 있었다.

그곳의 一生理學者 「파브로프」는 「프로이드」의 說이 自己學說과 類似하다고 해서 「프로이드」와의 面會를 熱心히 希望했지만 一蹴되어 버린 事實이 있다는데 이 女醫는 「프로이드」의 學說을 全의 反對하고 있으면서도 「파브로프」는 偉大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女醫가 들지 않았나 하고 머리가 가웃웃거리러 지기도 하였다.

또 한가지는 「모스코바」에서 가까운 距離에 「루호비취」라는 農業地區가 있는데 이 地區는 그다지 넓지도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문인지 管理部라는 것이 크게 버티고 앉아 무슨部 무슨部에 幹部가 二三四名에 從業員은 一二七名 人件費가 年間五〇萬「루블」이 支出되고 있다. 이들은 每日 册床에 버티고 앉아 電話전란 하고 있어 生産增強을 號令하고 있는데 生産責任制나 給을 하려고 되고 그래서 自然生産面은 粗雜低價를 免할 수 없다는 것이 實情이다. 이것은 農村生活에서 빛어진 이야기

그다음은 食堂을 利用하는 사람은 될 수 없으면 맛있는 飲食을 먹기 爲해서인데 그리고 慾心을 부린다면 값이 싼 것을 바란다.

그런데 列車食堂의 例를 보면 또

폭도들은 그들의 행동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민중속에 펼쳐져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중들은 그들로부터 밀고, 할 경우에 암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단될 것이라는 위협에 떨고 있는 것이다.

軍部는 폭도들을 색출하고 처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외에 유일한 방법은 전국민을 군부가 통치하므로서 폭도들을 처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전쟁의 전략적인 목적에서 볼 때 이러한 방법으로는 실패하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戰爭의 戰略的인目的是 폭도들을 소탕하는 전쟁에 국면이 적극적으로 참전하도록 국민 의 지지를 양상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전쟁에 있어서는 파괴한 교양이나 건물 또는 소각된 차량 등의 수효를 세거나 하는 戰果의 측정방법이나 기타의, 정규전쟁에서 전과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전쟁의 과정은 폭도들의 활동을 분쇄하고 민중을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용함을 분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전쟁에 있어서는 전과를 확인하는 척도로서 적선전에 대한 민중의 혐오적의 패배의 노를, 계절라의 포위, 적병의 귀순 및 군사행동을 위하여 민중이 제공한 전술정보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금까지 말한 것은 폭도들 소탕하는 전쟁의 주요구면인 것이다. 그것은 민중의 신념 및

하는 演劇을 한다.

그런데 이 演劇이 二名이라도 立候補자가 있으면 選擇의 自由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蘇聯은 選舉權이 있는 것이 아니라 投票權만 있고 아니 投票의 義務만 있다.

이 缺陷을 指摘하면 蘇聯側은 資本主義國家의 金權의 買收 變態 등을 들어나와 公正한 民主的 選舉가 아니라고 우기며 자기들이 不正이 없으니 民主的이라고 한다.

그러나 金權云云하나 民主的나라에서는 여러 出馬者中 選擇과 棄權의 自由가 있는 것이다. 蘇聯과 같이 이 미 決定된 候補者가 돈을 쓴다는가 響應할 愚者는 없을 것이다. 不正이 없을 것은 當然한 일인데 그것이 民主的이라면可笑로운 일이며 蘇聯에 萬者 選擇의 自由가 있다면 不正選舉가 天下 一品일 것은 그들의 買收着 實例는 經濟官僚의 通弊가 되어 있고 「후르시호프」가 農業指導者에게 狹雜을 詰難하는데 全力을 기울이고 있는 事實로 알 수 있다.

### ◇三月的黨中委總會

社會主義나라의 農業問題는 極端의 末世紀風景이다. 蘇聯은 近四十年 繼續되고 있는 頭痛거리이다.

社會主義體制을 무너뜨리지 않고 農業生産의 뒤면이던 것을 克服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후르시호프」의 苦悶이 여기 있다.

美國을 따라가자는 것이 目標이나 그 結果는 變換적 「후르시호프」는 러시아가 같이 되어나서 地方農業指導者의 不正을 摘發하지만 그것은 馬耳東風格 一九六一年의 穀物의 目標量인

무나 非良心的이다.

「마시엔크」라는 어느驛의 食堂係  
長은 部下에게 嚴格하기 작이 없  
다. 그런데 「서어비스」에는 熱心이  
라서 二級料理도 一級을 받은 중  
은 材料는 小賣商人에게 橫流시킨  
다. 旅客은 不平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한곳뿐 아니고 다른 驛  
「리브프」에서도 그렇다. 材料는 橫  
流시키고 檢査官이 나타나 適當의  
賄物로 씩씩한다. 손님이 醉하면 定  
量을 적게하고 비싼 돈을 받는다.

때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  
정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분야에 걸친 각종 시책이 군사력에 못  
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는 손  
수하게 정치적인 문제도 없으며 그렇  
다고 전회 군사적인 문제만도 없는 것  
이다.

정치 및 군사를 막론하고 모든 시  
책의 전략적인 목적은 민중들로 하여  
금 폭도소탕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  
무하는 것이다. 폭도를 소탕하는 정  
치적 및 군사적 조치의 전략들은 동  
일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정치 및 군사의 합동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모든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폭도를 민중으로부터 격리시  
키고 민중과의 유대를 분쇄하며 보급  
원을 고갈시키고 항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기는 용이하지만 실행  
하기는 매우 곤란한 것이다. 폭도를  
민중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물  
류하고 정확한 전술정보가 있어야 하

「우크라이나」의 商業省은 列車 食堂  
에서 「윗카」의 販賣를 禁하고 있으  
나 「윗카」나 「크나」等 簡單하게 마  
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從業員이 密賣하고 있다  
는 것.  
그런데 量은 적고 값은 굉장한 高  
價다.

料理값은 公定이니까 그 量이 적  
다. 이런 일이 許多하다는 것은 「구  
프크」紙에 실린 記事中 庶民의 소  
리에서 들은 話題의 하나다.  
(金 史 泉)

더 그것이 있으므로서 폭도를 색출할  
수 있는 것이다. 폭도들에 대한 효과  
적인 군사행동을 함에는 정확하고 신  
속한 전술정보가 절대적으로 불가결  
의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  
거니와 전술적인 문제에는 민중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민  
중들은 폭도들의 활동을 정부에 고발  
하므로써 비로소 폭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왜그러나 하  
면 게릴라의 특성은 정규적인 정보수  
색을 의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정보에 항상 민중에게만 알려지  
고 또 민중의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  
는 것이다. 그리고 민중은 그들의 가  
족이나 마을이 폭도들에 의한 납치,  
고문, 및 암살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  
하여야만 비로소 폭도들의 활동을 정  
부에 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폭도소탕관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충만한 추리력, 직업적인 지식 및 기  
민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 지휘관은 민중을 보호하여야 하

며 동시에 민중속에 침투하고 있는 폭  
도들을 소탕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한 민중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들 정부  
의 정치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  
황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  
에는 전술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리  
암미암아 전략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  
는 수도 있다. 민중속에 공포나 적의  
를 일으키는 전술적인 성공이 폭도를  
소탕하는 전제에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전략적인 목적을 위한 정  
부의 몇년만에 걸친 시책이나 위전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수도 있는 것  
이다.

美國은 왜 베트남에서 싸우는가?  
最近 美國의 大統領이 이를 해명하였  
다. 그는 말하기를 베트남을 원조하  
는 목적은 베트남으로 하여금 가능하  
한 조속히 완전 자주독립국가로서 發  
展케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  
이다. 그는 또 美國이 베트남을 원조  
한다는 것은 원조를 통하여 그들에게  
美國式 生活樣式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  
며 美國의 軍事政策은 그들 국가로 하  
여 民主主義의 인개로의 전차를 밟  
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방해를 극복  
하고 發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이야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美**

國은 이와같은 國家政策에 따  
라서 자유베트남을 돕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유월남에서  
美空軍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  
하고저 그곳을 다녀왔다.  
자유월남에는 소규모의 美空軍의 教  
官 및 訓練部隊가 근무하고 있다. 그  
들의 임무는 자유월남군의 훈련을 원

九十四億루드에 八十四億루드 肉類一  
八八〇톤에 八八〇톤 牛乳 七八〇톤  
에 六二五〇톤의 生産이 있었을 뿐이  
니 計畫의 六·七%에 不過, 그래서  
지난 三月黨中委總會는 이의 缺陷을  
指摘하여 是正하기 爲해 召集한 것이  
다.

「푸르시초프」가 이總會에서 提案  
한 것이 傑作이다. 生産優秀者는 官  
吏로 登用하고 階級差가 如實(農學者  
가 實生活와 遊離된 研究를 한다)고 大  
怒, 二一例를 들면,  
「하리코프」의 獸醫研究所의 「제란  
스키」는 「勞動力에 影響하는 말의  
運動과 速力에 關한 生理學的 研究」  
라는 博士論文을 썼는데 이 研究에  
依하면 말의 勞動力을 規定하는 速力  
은 速力의 길이와 回數에 依한 것이  
明白한데 그 結論으로서 말의 勞動力  
이 된다고 하여 博士號를 받았는데 그  
것이 무슨 利益을 農業에 가져왔는가  
알 수 없으니 여기 國費를 쓸 必要가  
없다고 「후」는 主張했다.

그 밖에도 發惡의 料彈을 했지만 蘇  
聯官僚의 狹雜은 날로甚해지고 農民  
만 골탕먹거리인 것이다.  
한곳에서 「후」가 肥沃한 土地에 왜  
牧草를 심었는가 管理人에게 묻자  
「穀物이면 安價로 國家에 調達해야  
되지만 牧草는 調達하지 않아도 되  
니까 훨씬 經濟的이다.」  
라고 對答했다. 이 야기인데 이 管理  
人이 저승差使가 된 것은 두말할 餘地  
도 없다.

穀物과 飼料의 増産에 熱中하는 것  
은 黨의 立場으로 當然하다. 한 것이  
나 一般農民이나 管理人側으로 볼 때

조하는 것이다. 자유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全美軍要員의 수효는 그곳 自由越南에서 휴면시키고 있는 인원의 배 분지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의 美軍教官들은 현재 자유월남 군의 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월남의 육군 및 공군은 끊임없이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월남 군은空地合同作戰기구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공중지원의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배우고 화력, 정찰, 수송 및 통신수단의 효과적인 사용방법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자유월남의 공군은 페이다 및 통신수단의 사용에 의한 공군의 통제를 배우고 있다.

現代裝備와 이러한 기술의 활용으로 그들의 전력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 있어서는 무기의 비중보다는 우수한 지도력 및 통솔기구의 비중이 훨씬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美軍은 폭도소탕전에 있어서의 美軍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소 연구소 및 실험소들을 설치한 것이다.

자유월남에 주둔하는 소규모의 美空軍部隊들은 자유월남군에게 폭도소탕전에 공군력을 활용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자유월남군의 전력은 현저하게 향상되고 있으며 많은 이와같은 美空軍部隊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部隊를 조직하고 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최근에 후르리다주에 있는 이글린空軍基地에 특수 공군 전투 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이 센터는 G·프리트드 준장이 지휘하며 폭도소탕전에 대비

하는 기술을 훈련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지난 20年間에 걸쳐 한국, 비올린, 제이차데전 및 자유월남에서 美軍이 쌓은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전력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곳에서는 공중근무자를 훈련시키에 있어서 이미 쌓은 경험을 살려서 도미, 탈출 및 생존수단을 가르칠 것이며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특수 전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나간 몇 년 동안 발전시켜온 기술을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美軍은 他軍 및 聯合國軍隊와의 協同에 의한空地合同作戰의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것이다.

특수 공군 전투 센터에는 그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항공기가 공급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중의 하나는 전력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 개념, 기술, 기술 및 장비들을 연구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난날 美軍은 새롭게 요구되는 전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수-산업 기술에 의존해 왔던 것 이다. 그러나 폭도소탕전에 있어서의 전력은 기술적인 산물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전쟁에 있어서는 정찰, 항법, 통신 등의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며 장비도 알맞게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하여졌으며 조만간 새로운 전력 이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급 지휘관이 풍부한 추력력과 직접적인 지식 및 활용하고 기민한 판단력을 갖추므로써 방법 및 병력을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특수 공군 전투 센터의 지휘관들은 폭도소탕전에 있어서의 계통계를 이론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닥쳐 다룰 것이다. 그들 지휘관은 당면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월남에 있어서의 폭도소탕전 문제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 있어서는 민중 자체가 전쟁의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전쟁은 第二次世界大戰 이후 지구상의 어디에선가 항상 계속되어 왔던 것이며 얼마전 후르시프 또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민중해방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임의의 일부인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운동을 처음부터 조중한다는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수에 침투하여 지배하기 위해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또는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영에서 타진영으로 옮겨진다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결과와 민중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의 진술의 성공을 공산주의에 대한 민중의 지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월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의 성공은 테로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용인한다면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폭력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것이다. 폭력에 의한 지배를 용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는 牧草를 심는 것이 經濟的이고 有利한 事實인 것을 지적하라.

國家의 利益과 個人的 利益關係가 一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蘇聯農業의 極히 矛盾된 一面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重要な 點이기도 하다. 個人農業이 社會主義農業으로 되고 農業이 官僚에 依해서 指導되고 干涉이 甚하면 이런 矛盾이 생기는 것은 當然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獨裁政治下에서 비롯되는 農業의 宿命이라고 하는 것이 正確한 말 이 되겠다.

「후르시프」는 이 矛盾을 解決하는 것은 避하고 어디까지나 위에서 強壓의 干涉과 干涉으로서 줄기차게 矛盾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無理이다.

그러나 牧草를 심지 못하게 政府에서 그 播種品目的 選定에 干涉하고 栽培方法 調達事務까지 監督하니 農民은 울며겨자 먹기 격이 되고 있다.

「후」는 各共和國에 農業 調達省을 新設해서 各各 現地에다가 監督指導官을 常時駐在시키기로 한 것이다.

昨年「후」는 農業省을 改組하여 國家 調達委員會를 新設해두고 이번에는 다시 兩者를 合併시킨 듯한 農業 調達省을 新設했으니 朝令暮改의 格에 이르러 「후」가 그야말로 焦燥의 도가니에 빠져서 이리도 저리도 못한 程度로 또 다른 構想을 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蘇聯의 農業이 이런 手 저런 手를 써서 어디까지나 目標量의 完遂를 피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내어준 美國의 水準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후」自身도 疑心하고 있다. (金史泉)



# 그後の生活

한국일보 白炯寅 記者의 경우



얼마전 美國에서 發射된 바 있는  
텔스타인공의성은 지금까지 唄림  
의 교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大  
陸間의 텔레비전放送을 生放送이  
로 가능케 하고있다. 그러나 아무  
리 중계手段이 發達되고 生放送이  
實現된다 할지라도 亦是 戰爭이

나 天災地變 또는 每日의 事件現  
象을 精確하게 客觀的으로 報道  
하기 위한 카메라의 렌즈는 앞으  
로도 변함없이 生命의 危險을 무  
릅쓰는 카메라맨의 모험심과 투  
철한 報道意識을 요구할 것이다.  
獨逸光學界의 權威者「애른스  
트·아트」가 만들어낸 光學유리를  
材料로 하여 一八九〇年「파루·루  
도후」가 萬能렌즈를 만들어낸 이  
후 오늘날까지 歪曲이나 虛偽를  
모르는 스트레이트한 傳達者로서  
수많은 카메라맨들이 兩次大戰,  
스페인內亂, 韓國戰爭, 인도지나  
戰爭等 여러차례에 걸친 戰役을  
通하여 우리들에게 戰爭의 殘忍  
性이나 不幸의 심각함을 리알하

게 보도하여 주었거니와 개중에는  
「라이프」誌等을 통하여 아직도  
우리네 기억에 새로운, 一九五四  
年「디엔 비엔 푸」戰鬪에서 촬영  
하다 지뢰를 밟고 순직한 美國의  
有名한 戰爭寫眞作家가 있는가 하  
면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서 暴風  
雪을 무릅쓰고 大關領의 스키 大  
會를 촬영코 歸社도중 순직한 서  
을新聞의 故朴贊甲記者等 人間社  
會의 喜怒哀樂을 카메라로서 추  
구하며 最後를 마친 카메라맨은  
그수를 헤아릴수 없이 많은 것  
이다.

現在 韓國日報의 카메라맨으로  
서 活躍中인 白炯寅氏도 空軍에  
서 轉役後 民國日報, 思想界社等  
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지난  
四·一九當時에는 데모대 先頭에  
서 깃발같은 총탄을 무릅쓰고 촬영  
한 氏의 作品이 國內新聞에는  
勿論「라이프」誌等 海外誌에도 실려  
義를 追求하는 한국 젊은이의 패  
기 넘치는 일을 世界萬邦에 宣揚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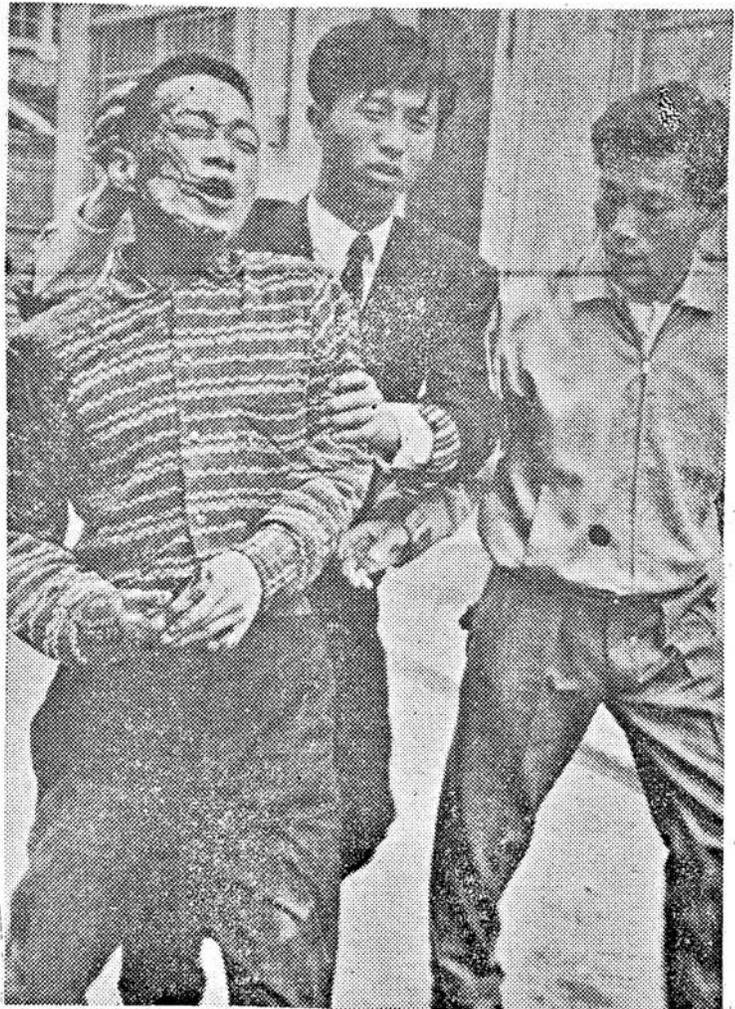
다음의 글은 白氏의 지난날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軍國主義 日本이 所謂「大東亞  
共榮圈」의 建設을 부르짖으며 大  
陸에서 侵略의 銃우리를 마구 휘  
두르던 一九四〇年代 初期 철부  
지少年이었던 나는 日本人 中學校  
校에를 다니며 廣大無變한 大陸을  
背景으로 마음껏 부른 가수를 안

고 하늘을 동경하였다. 學校의 글  
라이더部員이었던 나는 밤을 꼬  
박새워 글라이더를 만들면서 장  
차 조종사가 될것을 꿈꾸었던 것  
이다.

그러던중 日本의 敗戰으로 父母  
님을 따라 韓國 西北端의 故鄉新  
義州로 歸鄉했던 것이다. 그곳 新  
義州 工業高等學校 機械科에서 學  
業을 계속하던 나는 親知의 권유  
로 그當時만 하여도 蘇聯軍의 봉  
쇄가 허술하던 三八線을 越境, 서  
울에 와서 서울 工業高等學校에 入  
學하였다. 그러나 單身 越南하였  
던 나에게서는 學業의 계속이 여의  
치않았으며 하는 수 없이 學業을  
中斷하고 故鄉에 계신 父母님을  
찾아 新義州로 돌아가는 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故鄉으로 돌아간 나는 갑작 놀  
라지 않을 수 없었다. 殘惡한 共  
産主義 테로가 나를 기다리고 있  
었던 것이다. 그때 이미 以北全境  
방방곡곡에 물생튼없는 共產黨의  
치밀한 細胞組織이 펼쳐 있었으며  
赤色徒黨에 依한 만행이 도처에서  
善良한 同胞의 生命財產을 위협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공포의 틈  
바구니에서 나만이 例外일수는 없  
었으며 더구나 서울에서 돌아온  
나를 가만 돌리가 없었다. 집에  
돌아가기가 무섭게 나는 蘇聯特務  
隊에 依하여 체포되어 新義州 刑  
務所에 감금되었던 것이다. 그곳



4月19日 景武臺앞에서 銃彈으로 負傷당한 中學生을 부족하여 데리고 가는 大學生 <라이프誌 1960年 5月 23日 國際版에 掲載>

에서 一 個月餘의 모진 학대 끝에 석방된 나는 共產主義者들에 對한 불타는 증오심을 억누르고 그들에 對한 후일의 투쟁을 다짐하면서 自由를 찾아 또다시 三八線을 넘었다. 그러나 이번의 월경은 전번처럼 용이하지는 않았다. 北韓全域에서 共產主義者들의 만행이 날이갈수록 잔혹하여져 감에

따라 情은 故鄉을 등지고 自由를 찾아 南韓으로 脫出하는 北韓同胞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이에 당황한 共產徒黨들은 그들의 三八線 봉쇄를 한층 強化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自由를 찾아 南韓으로 脫出하는 同胞의 行列은 끊이지 않았으며 개중에는 저들의 총부리에 회

생된 수요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에 到着하여 當時 金浦飛行場에 駐屯中이던 陸軍航空司令部에서 新兵을 募集함을 알고 中學時節부터 창공을 동경하던 나는 共產主義者들에 대한 積極的인 鬭爭의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며 兵料 三期로 入隊하였다. 그때가 一九四九年 二月이었다. 그러나 當

時의 保有航空機 現況은 빈약하기 그지 없었으며 기성조종사의 에세로이 조종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그 當時의 事情으로는 매우 곤란하였고, 一九四九年 十月에 空軍이 陸軍으로부터 獨立하면서부터는 中學時節의 夢을 만는 경험을 土臺로 나는 空軍本部 情報局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本格的인 사진기술을 배우고 연마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의 사진기술자로서의 出發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았던 民族의 悲劇, 六·二五의 韓國動亂이 北韓同胞의 血汗위에 建設된 野慾的인 武力에 依하여 挑發되었으며 中과 북적으로 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던 我軍部隊들은 苦戰에 苦戰을 거듭하면서 戰線을 再整備하고 洛東江방어선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一九五〇年九月, 國軍과 UN軍에 依한 仁川上陸作戰을 정점으로 戰勢가 逆轉되자 그 當時 내가 所屬되었던 空軍의 情報隊는 北進하는 我軍과 함께 일면으로는 敵情報를 수집하고 일면으로는 敵의 動向과 散發의 情報을 展開하면서 西部戰線으로 進出, 新義州를 目標로 평양까지 진격하였던 것이며 그동안의 활발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나의 사진기술은 연마되었던 것이다.

그후 現在의 休戰線을 중심으로 韓國戰線이 교착되면서 나는 當時

大邱에 있던 空軍本部 政訓監室에 배속되었으며 이곳에서 그때까지는 주로 정보자료수집을 위한

사진만을 제작하던 나로서 처음으로 報道活動을 위한 사진을 제작하게 되었거 사진기자로서의 혼



련을 쌓게 된 것이다. 그후 一九五四年五月、五年三個月의 空軍生活를 마치고 上士로서 滿期轉役하였다.

처음 轉役하여서는 獨自的인 企業을 目的으로 軍隊經驗을 거울삼아 사진재료상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小規模의 資本밖에 갖지 못하였던 나로서는 도저히 大規模 資本主와의 경쟁을 하면서 企業으로서의 財산을 맞출수가 없었고 주위의 권고도 있고 하여 一九五六年十一月 民國日報에 入社, 처음으로 사진기자로서의 職業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후 思想界社를 거쳐 지금은 韓國日報 사진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X X X

韓國言論界의 一線 사진기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白記者는 軍隊生活의 추억을 묻는 記者에게 「가장 쓰라렸던 記憶은 六·二五當時 共產軍 YAK-九機가 機銃掃射하는 것을 岬안히 보면서도 무기가 없어 束手無策으로 고통이 오르는 울분만을 억제하던 일이지요. 이제는 그런일이 다시 되풀이될수 없겠지요.」 하고는 그當時를 회상하는 듯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잇는다.

↑四月十九日 서울大學대도隊가 東大門警署앞을 通過할 때 경찰관과 충돌하는 光景 (라이프誌 一九六〇年五月二十三日國際版에 掲載)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戰亂中 韓國空軍宗務자들이 처음으로 百回出擊記錄을 세우던 때지요. 정말 그때는 전공군장병이 나타나 할 것 없이 기뻐한 순간이지요.」

앞으로 空軍에서 服務를 마치고 轉役하는 후배에게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는 질문에 겸손하던 白記者는 찾아간 記者의 強請(?)에 못이겨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글쎄요, 보편적으로 보면 軍에서 轉役하는 사람들이 自己所持特技의 有無나 이의 社會適性如否를 莫論하고 都市에만 集中하는 傾向이 있군요. 長期服務를 마치고 轉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요즘은 年金도 적지않고 하니 농촌으로 가서 生活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더구나 그것은 농어촌 진흥이라는 혁명정부시책에도 부합되고 정부 보조도 받을수 있으니 個人自身과 國家에 利롭고 一舉兩得이 아닐까요?」

설사 都市에서 生活한다 하더라도 自己는 市民社會의 初年兵임을銘心하고 軍隊生活를 통해서 터득한 寶貴한 책임관념을 그대로 살린다면 무난하리라 믿습시다.」

軍에서 轉役後 一九五八年三月 白炯寅氏는 同鄉인 崔恩生女史(現二十七才)와 結婚하여 지금은 슬하에 四才, 二才의 두女兒를 두고 있으며 서울特別市龍山區元曉路三街一七六番地에 居住하고 있다.

# 나를 움직인 책들



- 1. 權 寧 大
- 2. 閔 丙 大
- 3. 宋 大 淳

## 나를 救해준

### 「짜라투스트라」

#### 權 寧 大

☆ 서울대文理大教授

피가 되어 내 몸속을 흐르고 있는  
 思想이 있고 人生觀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어느 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것이며 어느 한 권의 책에서 얻  
 어들은 것도 아닐 것이다.

가장多情多感한 二〇세전후를 의  
 국에서 지냈던 탓으로 自然科學을 전  
 공한답시면서 실은 宗教와 哲學과 文  
 學에 관한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었으  
 며 이들 많은 책에서 얼마간씩이나마  
 주어들은 것이 내 一生을 지배하는  
 줄거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  
 다.

불행히도 피난나간새 그나마 가지  
 고 있던 책들을 몽땅 잃어버리고서는  
 다시 장만하지 못하고 있는 터라 접  
 었을 시절의 나의 심금을 울렸던 책  
 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마음아  
 프게 생각하며 그중 한가지만 적어보  
 기로 하겠다.

그보다 먼저 나의 교육적 배경을 약  
 간 말하여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귀  
 중한 중학시절을 公立학교에서 추억  
 에 남는 일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무  
 의미하게 지낸 반발도 있고하여 고등  
 학교는 그 당시 집단을 건는 자유주  
 의 교육을 표방하는 데를 택하였던 까

답에 갑자기 怒濤와도 같이 밀려드는  
 신기한 사상과 지식을 받아들일 노라  
 고 매일같이 발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으며 지내다 본즉 때로는 消化不良  
 症에 걸려 「피터」의 「파우스트」를 읽  
 고도 「이따위 쓸데없는 글을 쓰는 爲  
 사람이 어대 있답」하고 「笑에 불어는  
 따위의 試鍊期를 거쳐서 비로소 榮養  
 을 섭취할 수 있는 思考力을 얻게 되  
 었다.

누구나가 그렇듯이 나 역시 生에 대  
 한 문제로 많은 苦悶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으리. 그러므로 해서 敎育에도 나  
 갔고 無敎會主義者의 실교도 틀어 보  
 았고 「트라투스트라」修道院에까지 찾아  
 가는 안절부절하는 지극히 위험한 시  
 기에 읽은 책중에 「니체」의 「짜라투  
 스트라」가 있었다.

그는 「人間이란 動物과 超人사이에  
 연결된 하나의 빛을, 深淵위에 걸려  
 있는 하나의 빛을, 뛰어넘기도 위태  
 롭고 타고 가기도 위태로워라, 뒤  
 돌아보기도 위태롭고, 멀면서 그대로  
 있기도 위태로워라」고 경고를 하고 있  
 어서 「人間이란 超越하여야 할 어떤 것  
 이다. 고대들은 그리하기 위하여 무  
 었을 하였는가」고 격려를 하고 있다.

「니체」자신으로 말하면 「人間的인  
 너무나도 人間的인」것에서 보이기 시  
 작한 그의 사상을 더욱 공고히 표현  
 한 것이 「짜라투스트라」이며 「超人」  
 과 「權力」에 대한 그후의 한층 더 圓  
 熟한 작품도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에게  
 는 그의 超人思想보다는 「짜라투스  
 트라」속에 흐르고 있는 生에 대한 절  
 대적인 긍정의 사상이 몹시 호봉하게  
 느껴졌으며 그 당시의 나의 오뇌를 씻  
 어주는 듯이 가슴깊이 찌르르 통하는

것을 感知하였고 詩人 正宗白鳥의 「사람은 죽어 버리면 그 뿐이다」라고 한 말과도 어울리어 후련한 心境으로 구원당한 것만은 사실이였다.

그 당시의 고등학교 학생들간에는 과거에 생애 대한 價值判斷을 잘못하고 虛無主義에서 그치지도 못하고 一路自殺로 돌진한 藤村이라는 학생의 행동을 몹시 동경하고 찬양하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때인지라 생애 대한 斷念의 一순간에 이루어지는 수가 往往 있다는 것도 「차라투스트라」에게 구박받은 것도 그다지 용이한 일은 아닌 때이었다.

「너희들은 벌레로부터 인간에 까지 떨어 왔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들중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벌레로 남아 있느니라. 그 옛날 너희들은 원숭이였느니라. 지금도 역시 인간은 어떤 원숭이보다도 더욱 원숭이니라」라고大喝一聲할때 우리人間중에는 과연 超人으로 구원될 者가 몇이나 있을지! 답답하기만하다.

「나는 일찌기 가장 위대하다는 인간과 가장 왜소한 인간을 모두 벗겨 보았노라.

그들은 서로 너무나 닮았으며 가장 위대하다는 인간도 너무나 인간다운 것이었다. 가장 위대한 인간도 너무나 왜소하다.」 「아아 구원질! 구원질! 구원질!」

이렇게 「차라투스트라」는 말하고 싶하고 몸서리치고 있다.

원숭이의 말을 아저 벗지 못한 인간들! 그리고도 위대하다고 뽐내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그들 때문에 「차라투스트라」는 구원질을 하고 있다. 물론 나에게는 그가 말하는 「超人」

이나 神이 문제 아니다. 벌레의 子孫이 원숭이에 까지 進化되는 것만도 끔찍한 일인데 사람에게 까지 되었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羽化登仙시켜야만 속이 난 원인이 제대로 사람이 상에 태어난 바에야 제대로 사람이 실이나 하면 그만이지 주체념계 위인이 되고 싶어서 허위적거리고 안까님을 쓰는 피라선이가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생을 유지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支離難에라도 빠져 죽느냐 심각한 岐路에서 헤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東海바다 白石場에서 울며 방계와 작난하던 詩人 石川啄木과도 같은 울음을 울어도 보았던 것이다.

당장이 세상에서의 생의 眞義도 찾지 못한 주체에 어찌 당혹하게 저 세상에서의 永生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 舊約의 威嚴도 新約의 博愛도 佛典의 慈悲도 통할 리 없었다. 모두가 나에게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바를 구멍이었다. 너무나 훌륭한 때문으로만 들어 가려던 것이 잘못이었다.

우연히 「차라투스트라」라는 싸리작문으로 넘쳐하여 본 것이 신작으로 통하는 것을 알게 되어 도리어 어리둥절한 판이었다.

스승에게서 「고민속에 神이 있느니라」고 배웠기에 고민 그 자체를 해결하려느니 보나 고민을 통하여 神을 찾으려고 도리어 사서 고민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도 있었다. 이것이 구원을 받으려고 敎會에 다니며 얻은 소득이었다.

뱀이 목구멍으로 들어갔을 때는 눈을 딱 감고 뱀의 허리동아리를 꼭 물

어 풀으라고 「차라투스트라」는 웨치고 있다. 오비를 根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고집과 뱀꼬리를 부풀고 잡아나누쳐 보았댔자 뱀의 몸통아리가 무사히 빠져 나울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뱀을 이로 물어 끊는다든 것 역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다급한 지경에 놓여 있을때 「차라투스트라」가 한 고비 넘겨준 것은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이 인생에 넘어야 할 고개는 결코 한들이 아닐 것이다. 인생을 비로소 맛보려는 청년시절에 지나치게 심각한 고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행한 일일 것이다.

### 쇼와 톨스토이의 작품들

#### 閔丙台

☆ 서울대문리대 大教授

人間의 一生에 가장 影響을 끼친다고 할가 또는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書籍이라고 하면 역시 感受性에 민한 學生時節에 읽은 冊이 아닐가 생각된다. 나이를 먹는 데 따라 새로운 書籍이 繼續刊行되고 있으나 이것은 大概가 한치나, 두치의 成長을 말하느니 蓄積의 意義에서 그 價値가 評價되는 것 같다. 어떠한 學者는 現代 많은 冊이 「汗牛充棟」의 形容 그대로

版되는 것은 이렇다 할 決定的으로 좋은 冊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쓸데없는 冊이 많다는 말로서 解釋하면 그만일 것이며, 實은 모든 科學이나 文學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獨創이란 있을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自己 一生에 큰 感銘을 주는 書籍이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角度에서 본다면 著書의 眞價는 요새 흔히 新聞에 보도되는 소위 「베스트셀러」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저어도 二十年 또는 數百年을 두고 評價되는 것이 아닐가도 생각된다.



다른 學者들도 그렇다고는 斷定할 수 없겠으나, 나는 나의 專門 書籍보다도 文學의 書籍에서 더 많은 感銘을 받았다. 文學家란 現實 把握에 있어 더욱 明細하고 時代의 展望에 있어 더욱 闊달하고 또 人間으로서의 어떠한 方向을 알려주는 데 있어 歷史家나 社會科學者보다도 더욱 뛰어난 것이 아닐가 한다. 이러한 點에서 나는 英國의 「버나드 쇼우」와 露西亞의 「톨스토이」의 作品을 잊을 수는 없다. 나는 「쇼우」의 많은 著作中 限定된 것을 읽었으나, 「人間과 超人」 및 「알 수 없다」는 小品은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諷刺적이고 惡罵에 가까운 말

두로 이사한 저자란을 잡아내리는 論法은 著者自身을 包含하는 모든人間을 對象으로 하는 것도 같다. 佛蘭西의 「발작」의 小說 「프란콜의 나뭇배」에 단 모든人間과도 恰似한 社會人들에 대하여 그들의 罪過를 告白하도록 強要하는 威壓을 주는 것이라고 文學家가 아닌 나로서 생각해 보기도 했다. 「소우」의 小品에서 記憶되는 句節은 어떠한 老船夫 앞에 나타난 人物이 도둑으로 誤認되어 「네가 도둑이지?」 「아니, 나는全然 다른 사람이오, 착각이겠지요.」 「무월 그래, 네가 틀림없어.」 (임은 저 너무 오래기 때문에 對話는 原文에서 記憶되는 대로 썼으나 內容만은 틀림없다고 自信한다.) 勿論 辱을 보는 사람은 普通市民이라면 市民일 만큼, 도둑은 아니다. 그러나 케고 보면 도둑이 아니라 是를 確證는 없다. 혼자서 깨달을 수가 없는 人間과 人間의 社會에서 우리가 止揚할 바의 問題가 무엇일까. 「소우」의 辱說은 우리에게 亦是 중대한 警鐘이 아닐 수 없다.

「소우」에 의하여 辱을 얻어먹는 老人 「롤스토티」도 역시 안타가운 人間이다. 마음의 平和를 喪失하는 「戰爭과 平和」는 「復活」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己의 저저는 責任을 轉회하는 精神의 苦痛을 한몸에 지니는 초조한 「네프루드」로, 이것은 다시 自己自身을 塞村 아스타포보 驛舍의 屍體로 變하게 했다. 「롤스토티」의 訃報를 읽은 「소우」는 自己 妻에게 兒孩를 열 셋이나 낳게 하고 이제 와서는 妻를 버리고 行路에서 죽었다 하여, 世生과 단하는 親부지 老人이라고 罵詈訕다. 살기 어려운 人間社會를 비록 비위에 맞지 않으나 어떻게든 「辱」을 받

로 살아서라도」 살아 보겠다는 「소우」와, 人道主義에서 점점 失望하여 孤獨으로 돌아가려는 「롤스토티」의 心情은 비록 對照의 일 것이나, 이것은 삶을 營爲하는 人間으로서 다 같이 없어서는 안 될 太陽과 月光에도 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내가 專政했든 政治學 關係에서 記述의 인 것 보다는 亦是 幅이 넓은 書籍이 印象의 이었다. 「지레미 벤담」의 「道德과 立法의 原理에 관한 序論」과 「토마스 힐 그린」의 「政治義務에 관한 原理」는 이미 言及한 「소우」와 「롤스토티」의 對照하고 같이 서로 理論이 相馳됨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 社會問題의 解決에 대하여 진지한 學者의 良心을 뚜렷히 披露으로써 깊은 感銘을 가지게 한다. 「벤담」이 「最大多數人의 最大幸福」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그린」이 全體社會生活를 통한 人格의 完成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들의 時代의 理想을 追월하여 人間의 目的의 專制學問의 目的을 다시 한번 反省케 한다는 點에 있어 共通된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平易하면서도 美麗한 文章으로 學生時代의 나를 啓發해 준 「마크레」의 論文集과 「제임스·브라이스」의 「近代 民主主義」를 들기로 한다. 前者는 歷史的 論文으로서 不正確였을지는 모르나 그의 批判과 비유는 어떠한 敎訓의 效果가 있는 것으로서 생각된다. 「維持하라」는 語句는 特別은 歷史가 證明한다면 改革해라 하 印象의 이었다. 그와 같은 流인 「즈와이그」의 歷史에 관한 評論集도 記憶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한 토막을 紹介해 보기로 한다. 西班牙 太守로 부터 「켈포니아」州의 半部를 拂下 말은

爲人이 그후 「켈프렌스」크 周邊에 金鑛이 發見되자 自己 土地에다 不法으로 建築하는 數萬의 移住民을 相對로 訴訟을 진다. 십사리 끝날리 萬無하다. 너무도 큰 額의 財産인저라 數億에 達하는 訴訟狀에 부칠 印紙代를 마련할 도리가 없다. 落魄한 나머지 美國 大法院 入口의 階에서 屍體로 化한 主人公. 有無相通을 自身에게 壓縮하는 人生觀을 가지는 者에게는 諷刺의 妙가 무엇보다도 必要하지 않을가. 「제임스·브라이스」의 「近代 民主主義」는 一種의 敎材의 古典인 만큼 더 말할 必要가 없는 것 같다. 다만 冊이 너무 커서 때때로 오래 읽은 記憶이 난다. 多數決이니, 政黨이니 하는 問題가 나타날 때 언제나 實마리의 役割을 해주는 만큼 고마운 冊이라 하겠다. 나에게 感銘의 인 冊을 紹介하다 門外漢의 文學 評論같은 文句를 쓰게 되어 自羞하여 마지 않는다.

偉大한 敎訓  
「李舜臣 全書」  
宋 大 淳

☆ 大韓商工會議所會長

自古로 英雄傳도 많고 다루어 英雄豪傑을 다루만 들어내는 野史라는 것이 있어서 靑雲의 꿈을 품게 하는 것이 東西古今을 通하여 一致된 傾向인

듯하다. 저 「롤트」크 英雄傳이나 偉人傳記는 予구나 少年期에 한번은 읽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一生을 左右할 만큼 커다란 感銘과 影響力을 준다 고 하겠다. 最近 視聽覺敎育이 아무리 發達하였다 하여도 讀書를 통한 人生觀의 形成을 無視할 수 없다는 點을 忠武公의 愛國至誠과 커다란 度量은 鬼神을 울리는 神妙한 戰術, 안으로는 孝子요 밖으로는 忠臣이요, 아 래사람에게는 마치 아버지요, 不義에 對하여는 兇한 줄 모르는 義氣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全書를 그대로 읽어나갈 때 스스로 古今을 通하여 이러한 名將名政治家로 忠武公에 比肩할 만한 偉人이 드물 것이라는 確信을 가졌었고 이러한 옛날의 感激은 遷都以後數



年에 巨하여 發表된 月灘 朴鍾和先生의 「壬辰倭亂」이란 創作을 通하여 다시금 지난날을 되새겨 보았다.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 자신이 깊은 忠武公 研究者가 아닌만큼 많은 知識을 갖지 못하고 斷片的인 知識에 그치는 것을 못내 부끄러이 생각하는 바이나 워낙 그 全書 自體가 어려워져서 深奧한데까지를 더듬하지 못한 것은 讀者도 허물하지 말기를 바란다.

事實與否를 確證할 길이 없었으나 日本의 所謂 明治時代의 有名한 日本海戰의 勝將 東郷平八郎이 海軍의 名門인 英國에 갔을때 英國人이 「넌은 提督의 偉大함을 높이 讚揚하는 말을 듣고 東郷은 우리 東洋에도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분이 있다하여 李忠武公의 史蹟을仔細히 說明하여 英國人들이 모두 놀라고 感嘆하여 한때 忠武公 研究會를 英國 海軍에 일어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참으로 痛快한 마음 禁치 못하였다.

李忠武公 全書中 아직도 잊혀져야 할 事를 뿐만 아니라 나의 人生을 通하여 가지가지의 일들이 다쳐올 때에 忠武公이 하신 말씀이나 逸話가 문득 생자나고 또한 그것이 거울이 되어준 일이 許多하다 하였으니 이제 생자나는 몇 가지만 적어 보고자 한다.

勿論 다 아는 事實인 것이나 세상 스러히 紹介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들어봐도 恒常 새롭고 뜻있는 逸話요 또한 우리 民族으로서 萬邦에 자랑할 만한 史實이라는 點과 人生의 修養이라는 면에서도 限없는 敎訓을 주는 材料에서이다.

忠武公이 일찌기 全羅道の 末端 微

戰이라고 할 수 있는 鉢浦萬戶라는 벼슬에 있을 때의 일이다. 當時의 上官인 某郡守가 官衙에 있는 梧桐나무 한 그루가 하루 좋은 故로 이것을 베어 올리라고 命을 내렸다. 그러나 忠武公은 正色을 하고 이것은 나라의 物件이요 私私로 베는 것이 못된다고 주장하니 그는 無顏을 당하였으므로 끝내 忠武公을 敬遠避하였. 그 職을 그만두게 하였을. 公의 사립을 端的으로 알 수 있는 좋은 逸話거니와 나라와 百姓의 일이라면 身命을 堵한 公의 忠誠心은 不義에 屈하지 않고 굳은 志操을 堅持하는 이러한 性品과 氣概야 말로 이제 萬古에 鑑이 되지 않음이라!

壬辰倭亂當時 이 나라朝廷은 黨派 싸움이 熾烈하여 日本에 갔다는 正副使臣의 情勢報告가 各各 다른 黨派라 하여 서로 判異한 意見을 내다가 恰에 情勢를 그릇 判斷하여 安易한 생각에 잠들은 儒臣들은 日本의 侵略이 없을 것이라는 公論으로 돌아가 無防備狀態에 있을 때 오히려 忠武公만은 治績이 놀라울 뿐 아니라 水軍의 育成, 戰艦의 建造에 힘쓰고 저 有名한 鐵甲船인 巨擘의 構想도 이 때부터 되었다고 하니 出將入相 그대로그 先見之明과 百姓을 다스리는 솜씨가 後世에 感嘆을 자아내게 한은 實로 當然하다 하겠다.

壬辰亂이 터져자 바다의 守護神 李忠武公은 倭兵의 무리를 바다에서 무질러 全羅道一帶을 주를잡았고 倭軍의 輸送과 糧道를 遮斷하여 그 補給路를 威脅하니 陸戰에 勝將長驅하던 倭軍도 바다에서만은 忠武公의 勇名에 놀리고 肝膽이 서늘하였으며 싸울

때마다 大勝을 거듭하여 일찌기 海戰 史上 類例없는 全勝將軍이 되셨다. 그러나 李鎰이라는 이가 公의 提議를 無視한 結果로 戰敗하였을 때 그 허물을 벗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讒訴를 하니 公은 마침내 削奪官職이 되어 獄中の 몸이 되셨고 이러한 公의 不在를 틈탄 倭敵은 새로운 水軍統制使元均을 大敗시키니 防備없는 바다가 되어 朝廷은 懵懵하고 다시 公을 불러 이른바 白衣從軍케 하였다.

지난날의 統制使가 한낱 兵卒로 戰場에 나갈 때 普通人間이라던 그 心懷가 어떠하였으랴. 그러나 公은 虛心坦懷한 百姓으로서 出帥하였을 때 三道水軍統制使가 되어 大敗한 水軍을 點呼한 때 軍士 百二十名이요 戰船 十二隻이라. 公은 慨然히 舟을 들어 狀啓를 올리되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微臣不死, 則敵不敢得我矣」라고 하였으니 그 氣概와 自信 참으로 사람이 아니요, 神이라 하겠다.

戰勢는 去益好戰하여 우리나라와 明의 聯合軍은 陸地에서 크게 倭軍을 무찌르고 戰意가 꺾인 倭軍은 敗走하게 되었고 또한 저의 나라 總頭目인 豊臣秀吉이 急死함에 즈음하여 回軍할 것을 企圖하고 明의 水軍都督에게 厚한 뇌물을 바치고 退路遮斷을 돕고 無事히 돌아가기를 圖策한새 公은 그 機微를 알고 明將을 說得 威嚴으로 누러이저 원수를 그대로 불러 모으는 수 있다고 出戰하니 저 有名한 驚梁戰鬪요, 大捷으로 끝냈을 무렵 公은 明都督을 救援하고 손수 북을 울릴 때 兇彈은 公을 죽음에 이르게 하니 明都督은 船上에서 세 번이나 쏘아져 슬퍼하였고 朝野가 모두 巨星가심을 痛嘆

하였으며 公이 죽음에 臨하시어도 自己의 戰死를 알며 兵士를 놀라게 하지 말라 당부하였으니 듣는 이로 하여금 웃것을 여미게 한다.

忠武公 史蹟이나 逸話의 가지가지들 들을 때 어찌 敢히 凡人이 이를 따를 수 있을 것이랴마는 우리 世代도 그 어느 世代보다도 險難하고 피로운 時代를 當한지라 壬辰亂當時의 困難을 몸으로 겪는 듯 하였다.

그 中에도 六·二五事變當時 우리 疆土위에서 同族相殘과 國際戰의 樣相을 의우고 熾烈한 戰鬪가 벌어졌을 때 나는 忠武公의 愛國愛族하면 忠誠心과 여러가지 敎訓이 되게 되었다. 壬辰亂當時 全羅道民이 離散을 거듭하여 農事를 全廢하고 쫓겨다니며 畝주립에 허덕이고 敵의 弄奸에도 넘어가는 등 許多한 曲折이 생겼을 때 忠武公은 強硬한 懲治論을 一笑에 부치고 百姓을 다스림에 仁慈와 厚德으로 하니 어렵지 않아 百姓은 將軍 麾下에 모이고 幸州川城의 勇戰과 百姓이 渾然一體로 敵兵을 무찌른 事實은 數百年을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는 百姓을 宜撫하는 鐵則이요, 民族團結의 捷徑이었으니 事變을 當한 우리에게 일찌기 커다란 敎訓을 내리신 것으로 생자지 알겠는가. 나는 避難當時의 우리의 모습과 壬辰亂時의 景에 對比하여 民族의 運命이 百尺竿頭에서 幾何을 깨닫고 忠武公 精神의 發揮과 精神을 따르는 愛國精神의 實踐을 날마다 생자지 알 수 없다.

忠武公 全書가 나에게 끼친 影響을 생자할 때 忠武公이 大成할 수 있는 기틀이 充分하고 그 實力이 大端하였지

△77P로 계속

# 軍縮을爲한現實的인길 (下)

— 제네바會議의 軍事的背景 —



## 2. U-2 型機의 重要性

한때 미국 U-2 형 비행기의 소련 영공 침범으로 인하여 당시 성숙되었던 핵공격을 모색하기 위한 동서 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다시금 긴장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제 그 U-2 형기의 중요성에 대하여論하려고 한다. 一九五九년에 미국 민주당 국방위원회는 국방문제에 關한 詳細한 研究를 발표하고 미국 通常兵力의 증강과 核打撃力의 병력 및 耐破壞性 무기의 增大를 위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안한 군사예산(四三〇억불)에 七〇억불을 추가(一六%)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六一一年一月 正권에 등장하자마자 군사예산 三〇억불 증가를 인정하고 그해중에 또 다시 四〇억불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五九년에 민주당이 요구한 군비확장 계획은 실행되었다.

오늘날 미국의 계획중에는 六五년까지 固體燃料의 『미닛트맨』형 ICBM 八〇〇기를 지하방호 기지에 배치한다는 一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핵무장 강화정책은 소위 핵전쟁에서는 攻撃을 加하는 側이 決定的으로 유리하다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은 『恐怖의 균형은 不安定하다』고 한 이론과 밀접하게 結付되고 있다. 오늘날 소련은 미국에 대하여 기습 핵공격을 감행케 할 의도와 능력 두가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소련에 대하여 대폭적인 核優位性을 保持하고 있다는點이 이것은 오늘날 위상론 당국 자신이 발표하고 있다. 오히려 미루어보아 核戰爭에 있어서 攻擊側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이론에 若干의 진리가 있다고 치면 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소련이 아니고 미국이다.

미국의 총합 核戰力은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도 소련보다 훨씬 강대하지만

## P·M·S 불라켓트

소련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매우 위험하다는 중대한 要因이 소련의 대세안 존재하고 있다. 그 要因이라는 것은 소련 核基地의 위치가 음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U-2 형기가 비행한 주목적의 하나는 소련 核基地의 위치를 探索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위상론 당국은 U-2 형기의 정찰비행에서 명가할만한 수의 실전용 미사일 기지는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아이젠하워』 때통령이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B-47 폭격기의 現役機數 삭감을 시작한 것은 이 情報에 依해서였다고 한다.

소련 『푸르시호프』는 물론 미국의 정찰비행이 六〇년봄 U-2 형기가 격추된 이전부터 수년간에 걸쳐 계속 되어 왔음을 알고 있었다. 예상하건대 소련 군사령부는 미국의 정찰비행에 대비하여 기지의 분산과 음폐에 주력하여 왔다. 소련 當局者로 하여금 가장 당황하게 한 것은 『아이젠하워』 때통령이 이와 같은 정찰 비행을 미국의 안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正當化한 데 있었음이 틀림 없다.

미국의 安全은 미국의 成功的인 奇襲 따라서 핵공격을 소련 미사일 조직에 加함으로써 보장될 것이다. 이것은 또 미국이 소련 核基地의 位置에 對하여 充分한 情報를 入手하였을 때 비로소 保證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군사 목적 우선 제 1격』을 가하는 能力을 갖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六〇년 후반으로부터 六一년초에 걸쳐 소련군 사령부는 비상하게 우월한 美國의 核戰力을 보고 소련의 最小限 沮止力 戰略이 저당한가 어떤가에 대하여 疑問을 품기 始作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건대 소련은 自國이 保有하고 있는 核基地의 지리적 음폐성이 급후 西方側의 航空機 및 인공위성에 依한 정

찰 또는 스파이 및 반역자의 행위에 의하여 상실되지 않을가 하는疑問을 가지고 恐怖를 느끼게 되었으며 소련군 당국자 亦是 미국이 이와같은 方法으로 소련 核基地에 成功의 功績을 加할 能力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恐怖感을 느꼈을 것이다.

미국의 이와같은 공격은 예컨대 一億이라는 막대한 인명의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다는 미국 민간 군사 評論가의 주장,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대손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계준비를 調整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론에 대하여 소련이 眞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 것만은 확실하다.

### 3. 『아이크』가 指摘한 美國內 事情

그런것보다도 소련정부가 특히 念慮한 것은 워싱턴 當局, 政策決定 機關의 信賴性에 대한 不安으로 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不安은 솔직하고도 正고적인 『아이젠하워』의 다음과 같은 離任연설의 한 구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이젠하워』는 2년 전에서 『방대한 군사 시설과 거대한 군사산업이 결합되었고 이 결합은 미국 역사상 새로운 경험이라고 지적하고 그 전체적인 영향은 경제, 정치 그리고 정신면까지도 — 모 — 는 도시, 주, 그리고 연방 사무소에 波及되고 있다. ∴ 정부 기관에서 우리들은 군사산업 複合體로부터 좀더 못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 리들은 이상과 같은 『아이크』의 勇氣있는 發言의 완전한 意味는 『케네디』 대통령이 六一年 가을 『공산주의에 對한 전면전적 全面승리를 鼓吹하는 者』 — 모 — 는 문제를 미국식 風流로 解決하라고 要求하는 者에 대하여 精力의 인 반대운동을 展開하였을 때 더욱 明白히 되었다.

소련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極右 구호와 超愛國主義者의 잠재 영향력을 過大 評價하고 있을 지도 모르며 『케네디』 『아이크』 양 대통령 두 분 다 極右와 싸울 필요를 感得하였다는 사실은 同時에 소련의 군사 계획자들이 미국의 極右주의자들의 존재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선다면 六一年 가을의 당초한 소련정책의 전환배후에 있는 동기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納得되는 이유는 소련 핵기지의 안전성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불안과 장래 核優位를 利用하여 소련의 미사일 조지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려는 시도 를 하지 않는 구물이 미국의 政見을 장악하지 않았는가 하는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眞인 NATO의 군사정책이 현재 그대로 진척된다면 서독이 자국의 핵무기를 보존하고 그 권 리권을 장악하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念慮이다. 또한 一九六〇년 一〇 개국 군축위 회의에서 미국의 군축문제 를 진심으로 上程하지는 안에 대하여 거부하였다고 소련에 반영된 사실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一九六〇년 一월 소련은 만일 서방측이 군축을 계속 沮止한다면 대규모적인 군비 확장을 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항하였다.

以上 말한 것이 소련이 念慮하는 點이라고 한다면 一九六一年 봄에 핵실험 을 중지하는 데 關한 美英 公동계안에 대하여 소련이 拒否한 것은 간단한 군사적 理由에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美英提案를 상세하게 검토 하던 國際警察組織의 設置乃至는 運用이 적어도 一部의 소련 미사일 기지를 폭로하는 데 필요하다고 상상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眞인 서방측이 대기권 내 핵실험만을 감시할 것에 만족한다면 더욱 小規模의 偵查 조직으로 可能 할 것이며 소련 군사 당국자도 기지 폭로의 위험을 면하는 것으로 納得하고 核實驗 中止 協定이 조인되었을 것이다. 소련이 偵查를 집내고 거부하는 것은 소련으로서 는 미영에 대하여 偵查를 加할만한 아무것도 없는 데 反對하여 自國에 음해 해 놓은 기지가 폭로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란 장차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 4. 五〇메가톤의 警告

소련이 一九六一年 九월에 핵실험을 再開한 것도 이와같은 부류의 동기에 서 오고 있다. 최대 五〇메가톤의 핵탄두 실험과 그와 동시에 발표된 射程 약 二,〇〇〇키로의 ICBM 七基의 대량양실험 성공은 미국에 대한 소련 미사일 精度 및 核彈頭의 威力를 強調한 것이었고 또한 소련의 실전용 배치 미 사일이 阻止力으로서의 價値가 있다는 소련이 自信을 재확립함에 極히 効果 的인 方法이 었다. 이와 같은 소련의 踏實驗이 미국에 대한 소련의 實戰用核 사일 戰力의 相對的 劣勢를 어느 程度 縮少시킨 것은 確實하다. 그것은 동 서간의 均衡을 安定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均衡에 對하여 말하자면 소련 핵실험의 再開와 五〇메가톤 폭탄의 폭발은 『케네디』 대통령의 極右에 대한 反對運動을 더욱 強化시키는 役割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五〇메가톤의 폭발 이 소련과의 대결 즉 예방전쟁을 요구하는 極右派의 머리를 뜨겁게 만든 것은 疑心할 바 없지만 同時에 소련 미사일이 極少數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報復攻擊에 依하여 美國에 파멸적인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한수 없다고 하는 미국의 一般 인식이 더 한층 激고 되었다는 것이다.

### 5. 先制 攻擊論者의 機先을 制壓

최근 미당국자가 미국이 소련보다 핵전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占하고 있 다고 熱烈히 強調하고 있는 事實이나 또 美國이 소련의 第二擊 能力에 匹敵 하는 第二擊 능력을 가진다고 主張하는 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或時나 미국의 방전성의 입장을 치우치는 契機를 마련해 주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眞인 은 尙ほ 正反對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련에 대한 예방 핵전쟁이 數千萬의 達하는 美國民을 犧牲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다. 美國人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소련의 非人道的 行爲에 의하여 危機가 發生하였을 경우 본국의 餘波가 全美國을 휩쓸고 그 압력으로 미국정

부가 소련에 대하여 核攻撃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危險한 壓力은 소련이 군사목표제 一적 능력을 가진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사실상 壓力을 그 능력을 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사용할런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오는 그것이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미국은 機先을 制壓하여 소련을 공격해야 된다는 強力한 議論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美國 정부는 이 위기를 淸명하고 소련은 지금까지 한번도 効果의 인 군사목표 우선 공격 능력 가진 바 없으므로 소련에 先制 攻撃을 敢行할 理由는 強다 効果의 除去去하였으므로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에 대한 核優位를 強調하고 군사적 잠재적 先제공격본자의 機先을 制壓하였다. 同時에 『케네디』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운동시에 큰 기반으로 많은 主張 그리고 민주당의 現行 軍備擴張 計畫을 擁護하는 수많은 주장까지도 반대하였다. 예컨대 이 數年間에 『ICBM 미닛맨』 800기를 장비하는 계획에 正當한 군사적 的의를 발전해 내기 어렵다. 『미닛맨』 800기의 裝備은 그 性能으로 보아 소련 도시를 一〇個以上 破壞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 소련이 미국의 『미사일』 기지와 폭격기지에 전면적인 攻撃을 敢行할 能力이나 意圖를 가지고 있다고 現在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소련이 순수한 보복적인 핵전략을 채용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이것은 注目할 만 한 일이다.

그러나 소련의 경제개발과 서방측과의 경제경쟁에 있어서 유익한 산업 기술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방측과의 경제경쟁에 의하여 최대의 군사적 위험 즉 소련이 지금 당장에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는가는 불만으로 인하여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소련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 지도자가 만일에 더 빠른 시기에 그들이 군사목표 우선 공격 戰略의 가능성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作戰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明確하게 표시 하였더라면 서방측의 素朴한 不安 特別히 五六年의 항가리 暴動에 대한 소련의 비인도적 행위나, 五七년 『스푸트나크』 발사로 소련이 기술적 승리를 진은 직후에 야기된 서방측의 不安은 대부분 緩和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푸르지코프』는 六〇年 一月에 行한 演說에서 이것을 明白히 하고 奇襲 핵공격에 의하여 大國의 핵전략을 진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강력한 보복 공격은 항상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분석이 군사학계 진성성 있는 것 이상 고한다 면 제네바 軍축회의 에서의 軍축 문제 토의 진전의 전망은 어떤 것일까?

양진영 모두가 엄중한 판타사찰하에서의 전면적인 완전 軍축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는 공의성명에 의해서 완전한 言質을 주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필요한 軍縮措置와 査察의 諸樣相을 포함한 諸般措置의 部分적이고도 詳細한 여러가지 問題가 全部 토의 된다는 것은 期待하기 어렵다

軍縮을 위한 諸般措置가 必要로 하는 基本的 諸條件의 일부에 대하여 만일 그것이 군사적 이유에서 美소 양국 정부로 하여금 수락할만한 것이라면 그 輪廓이 莫然한 것이기는 하지만 反映될 것이다.

### 七. 軍縮을 위한 길

上述한 바와 같이 萬一 軍縮이 實現된다고 하면 通常 軍縮과 核軍備의 軍縮이 並行하여 진척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明白하다.

소련에 地上軍이 우월하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서방측의 不安은 軍축의 一단계에서 소련 地上軍의 병력 수준을 一九五四年 英佛露書에 示唆된 바와 같은 낮은 水準 一美, 소, 中共의 兵力을 各各 一〇〇萬 乃至 一五〇萬 以內로 한다. 一까지 대폭으로 삭감하므로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英, 獨, 佛國으로부터 NATO 地上軍에 對견된 兵力을 考慮할 때 소련圈의 對상군은 지상기승공격으로 구라파를 침략하는 能力은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 다음 雙方의 핵무기의 수 그 폭발력 그리고 운반수단의 多樣性은 대단히 大한 것이므로 小規模의 핵군비 조치로서는 심리적 意義는 크다고 하겠지만 對정적인 군사적 의의는 가진 수 없다. 따라서 삭감한다면 대규모적인 것 즉 사실상 大國의 핵군비 체계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程度로 大한 것 이라야 한다. 特別히 단순한 최초의 措置로서 그리고 또 현실적인 군사적 考慮까지 合致하는 措置로서는 兩大國이 그 핵병력을 純粹한 報復만을 위한 낮은 水準까지 削減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一 국가의 核彈頭가 달린 ICBM 一〇〇基以下 一 이것도 亦是 一억 명 정도를 死殺시킬 수 있는 무서운 武力이고 가능하면 ICBM을 二〇基 또는 그 이하까지 삭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삭감은 진정한 頭腦를 가진 政府에 의하여 핵무기가 공격 또는 협박의 무기로 사용되는 가능성을 즉시로 방지할 것이다. 勿論 無責任한 구물이 損害를 헤아리지 않고 핵무기를 사용함에에는 防止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軍축이후의 단계에서 핵무기가 완전한 파괴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히 없 어진다. 偶發戰爭 또는 無責任 戰爭의 危險이 恒常實行한다는 것은 大規模 또는 或種의 急速한 軍축 조치를 실행하는 理由이다.

美 소 兩國이 현재의 전략적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以上 말한 것 같은 대 규도의 최초의 조치를 실시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에 관하여 詳細한 檢討를 해야만 한다.

주요한 문제의 하나는 핵운반 조직의 결단적인 삭감인데 이것은 국제적 檢證에서 실제적인 파괴로서 실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전반적 사찰조직의 진 실을 어떻게 구체화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고려만을 念頭에 둔다면 내생각으로서도 양진영 쌍방이 受話할 수 있는 手續이 檢出되며,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 한편 비 군사적인 考慮를 포함하면 문제는 더욱 곤난하게 된다. 왜냐하면 비군사적인 考

感大國의 국방정책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明白하며 이것은 또한 大國의 군사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不可避한 것이다.

例컨대 미국은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방대한 量에 正當한 군사적 理由를 두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핵군축의 絶對적인 條件에 관하여 군사적 요소만이 지배적으로 論議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미국에서의 군축 障害는 要컨대 作戰上의 軍事的 考慮에 根據를 두는 것 보다는 根本的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감정적 考慮에 根據를 두고 있는 現實이

## 내가 사랑하는 生活

中領 李 勗

△空本·本部司令△

아직 初心者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감히 남시에 참론을 펼치기란 좀 썩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벌써 내게서 배버릴 수 없는 취미고 보면 남시광이 아니라 해서 한 마디 못하란 법도 없을 것이다. 한 주일의 근무에 시달리다가 주말이 오면 그 전부를 남시터에서 소일하는 습성이 생활화되었다고나 할가.

당초 내가 남시에 취미를 들인것은 姜太公도 양 무는 天下를 남으려고 하는 거창한 포부에서가 아니다. 그저 단조로웠던 사생활들이 탐탁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좀 탈피해야 겠다는 데서였다. 주말이면 집구석에서 소일하기 일수요 어찌다 마음이 내키면 도심가의 행렬수에 파묻히기도 하다가 결과 없는 유흥에 시간을 낭비해 버리기 십상이니 말이다. 이제 남

시대를 잡은지도 수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쌓은 마음속의 靜에 얼마간의 이익을 갖았다고 보니 이제 버릴 때야 버릴수 없는 데크레이션이 돼버렸다. 다방, 당구장, 골프, 정마등의 오락에도 제대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남시의 묘미에 따를



수 없다. 이른 새벽 미명의 세계를 단단한 도구와 가쁜한 차림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셔 가며 산보살아 남시터까지 걸어 간다. 아직 잠에 취한 湖水는 마냥 깨끗하고 조용하지만 하고인 마간 수면을 응시하다가 첫번째 남시들을 반월을 그리며 던져보는 패잡일

점차 농후 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당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 경제 그리고 감정의 정치적 壓力을 어떻게 克服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決斷性있는 軍縮에 관한 여러가지 措置가 經濟全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방문제에 깊이 관계하고 있는 특수한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다.

마우 입질을 하는 남시대의 촉감. 번쩍켜 올릴라치면 무척한 놀이 하늘로 치솟으며 배의 뒷부분이 유난히 빛나고... 소위 남시꾼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묘미를 모르리라. 마거운 햇살을 받으며 수면에 눈을 정착해 두면 지난 한 주일의 아귀 다름이나 사소한 감정에 이끌려 자신을 잃어버려 든 일감으로 다칠 걱정 등등. 이루어 헤아릴수 없는 감성들이 말끔히 씻겨 버린다. 마냥 행복감에 도취되기 마련이다. 아마 이 기분에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 즐기는지 모르겠다. 생활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환경이고 보면 조용한곳에 정착하여 잠시나마 진실된 자기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다. 다 음의 일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긴장된 분위기마저 해소시켜준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유석의 전부를 남시터와 湖心에 파묻는 습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굳어지기 바란다면 과연 이는 부정적인 것일까? 남시를 물에 드리우고 앉았는 것이라면 어느덧 하루 해는 서산에 기울고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엔 희심의 웃음이 떠오른다

미소 兩國 정부가 준수한 보부능력을 保有하는 狀態로 移行하고 過渡期間을 만들기 爲한 具體적이고 도자세한 정치적 현실성 있는 경제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해야 하는 바 그것은 유익한 措置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의문에서 결단성있는 最初의 군축조치에 合意를 얻기 위해서 客觀的인 軍事的 根據를 찾아 내는데 있어서 不可能하지 않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合意된 軍縮政策을 具體化하려고 할 때에 있어서 社會的인 支持가 據頭되지 않는다면 그 實施를 阻害하려는 군축 반대 구물이 개인하여 올 것이다. 『케네디』대통령이 一九六一年 九월 유엔 총회에서 말한바와 같이 군축의 대목표는 군축을 反對하는 議論의 本質을 明確하게 인식하고 이 議論과 솔직하게 對決한 경우에 비로소 달성될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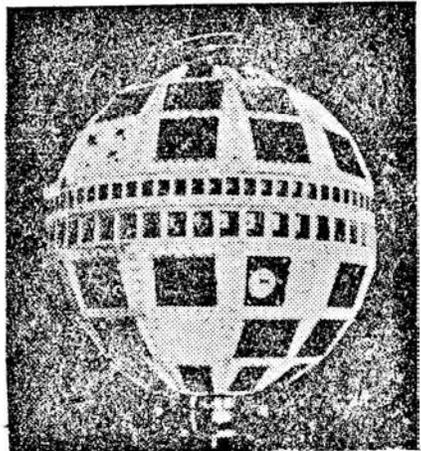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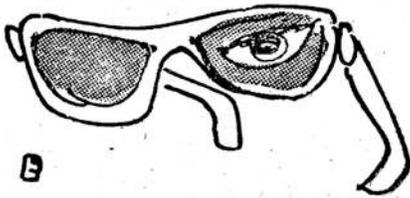
(김복준譯)

現今에 있어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의 急速인 發達은 實로 놀랄만한 것이며 各種의 새로운 「매스·미디어」(Mass media)를 登場시키고 있으나 특히 注目할만한 것으로서 「텔레비전」(Television)의 出現인 것이다. 이의 顯著한 發達이 여러모로 現代人의 社會生活에 많은 影響을 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察하고 있는 사실이다.

## 텔레비전과 텔스타 通信衛星

金 基 漸

〈空軍中領·空本公報課長〉



텔스타 通信 위성

**텔레비전**은 가장 새로이 出現한 「매스·미디어」인 것이며, TV가 그 實用을 보게된 것은 二十餘年을 經過한데 不過하다. 이것의 世界最初의 正式放送이 開始된 것은 一九三九年이나 世界第二次大戰後에 비로소 눈부신 發展을 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最近五(七)年間에 걸친 TV의 發展은 注目할만큼 活氣를 띤 것이며 一九五〇년에 이 正規放送이 實施된 나라로서는 美國, 英國, 佛國, 그리고 소聯 등의 四個國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一九五五年에 이르러 三〇餘個國으로 進了하며 一九六〇年度에 이르러서 急進的으로 그 수효가 增加되어 今日에는 七〇餘國의 視聽이 이루어져 韓國에도 一九五六年度 最初로 「텔레비전」(H.L.K.Z)이 開始된 바 있으나 그後 얼마안되어 灰燼되어 中斷되었

다가 純全히 韓國의 技術로서 昨年 聖誕節을 期해 試驗放送을 實施코 一九六二年 初부터는 本格的으로 定規放送을 하게 되었음은 늦은 感이 없지 않으나 TV 視聽國의 一員으로 登場하게 되었음은 기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七月 十日 美國은 電波史上 最初의 TV 中繼人工衛星 「텔스타」(Telstar)號를 宇宙軌道에 進入시키는 데 成功함으로써 TV 送受信技術上的 一大革命을 가져다 주었으며 近間이 中繼衛星에 依한 TV 電信電話의 中繼가 成功裡에 그 實을 着着 건우므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紀元을 裝飾하고 있는 이데 「매스·미디어」으로서의 TV에 關係 考察함이 無意味하지 아니함을 切感하여 몇가지에 關係 論述코저 한다. 이러한 TV의 急速인 發達은 그 미치는 影響力이 「라디오」의 七倍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미디어」이고 보던 지금까지 人類生活에 多方面으로 至大한 影響을 주어 앞을 否定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더욱 加速度로 그 科學的 進展이 豫測키 困難치 않은 現今에 있어서의 텔레비전의 發達은 그 發展과 아울러 어떠한 特質의인 影響力을 가진 「매스·미디어」로서 다루어 질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TV의 發展過程과 特質 그리고 미치는 影響에 對해 略述코저 한다.

(一) 「텔레비전」의 發達  
TV의 最初의 正式放送을 開始한 것은 英國이며, 一九三四年 以來

BBC에 의해 實驗放送이 繼續되어 오다 一九三七年에 FMI方式을 正式로 採用하여 世界에서 第一인지 正式放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전」도 亦是 一朝一夕에 出現을 본 것은 아니며 그 歷史를 簡略히 記해 보면 TV發明의 技術의 基礎인 「세레늄」金屬에 光線을 비추 電氣를 發生케 하는 原理가 一八七三年 英國人 메이氏에 의해 發見되었고 一八八〇년에는 走査線原理를 佛國人 「루브란」氏가 發見 또한 一八八四年에는 獨逸의 「니프코우」氏에 의해 「니프코우」圓板의 發明으로 最初로 走査裝置를 보아 發達에 큰 意義를 갖는 「말코니」無線電信의 發明이 加해져서 獨國人 「부라운」氏에 의한 「부라운」管과 「드 포레」氏에 의한 三種真空管의 發明을 보게 되어 技術의 大進展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一九二四年에는 英國人 「제아드」와 美國의 「켄진스」는 「니프코우」式 走査圓板을 使用하여 처음으로 「텔레비전」實驗이 成功하였다. 一九二五年에 英國 런던에서 「Radio shadowgraphs」라고 稱하는 TV의 첫 公開實驗을 하고 一九二八年에는 短波에 의해 實驗放送을 하였으며 一九三二年에는 BBC가 「베아드」 텔레비전 會社에 指命하여 公開實驗放送을 하여 一九三七年에는 FMI方式에 依한 正式放送을 開始하였으며 同年에 있었던 「쇼-지」王의 戴冠式을 맞아 世界最初의 「텔레비전」放送의 凱歌를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二次大戰勃發로 全世界의 中斷되었다가 一九四六年以後 再開의 運命을 지닌 것이다.

한편 美國에서는 一九二八年에 「벨」研究所에서 實驗放送을 하여 一九三〇년에 이르러 NBC가 實用的인 첫 實驗放送을 開始하여 一九三一年에는 別세 五個局이 試驗放送을 하게 되었다. 一九三九年 四月三〇日에는 드디어 正式放送을 하게 되었으며, 同日 「뉴-요」에서 開催된 世界博覽會 開會式 實況放送을 함으로써 第二次世界大戰으로 말미암아 亦是 打擊을 받았으나 一九四四年에 이르러 다시금 活氣를 띠어 大戰終結과 아울러 飛躍의 發展을 거두어 一九五七年度에는 벌써 美國家庭의 八二%인 約四、〇〇〇萬臺가 가까운 受像機가 普及되었다.

그리고 注目할만한 것은 天然色 텔레비전의 發達이며, 이의 特許를 얻은 것은 TCA의 「트윈」이며 一九二八年의 일이다. 그런데 이 칼라 TV의 實用的인 發展은 一九四〇年이고 이것 亦是 二次大戰勃發로 말미암아 發展이 阻害되었으나 積極의 企業化는 戰後인 一九四七年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텔레비전」의 發達에 對하여 많은 科學者들의 研究와 功勳이 있었으나 主導의 役割을 한 것은 亦是 美英兩國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지난번 美國에서의 「텔스타」, TV 中繼衛星의 宇宙進入 成功은 또 하나의 電波史上의 一大革命이 아닐 수 없음을 特記할만하며 나중에 論及키로 한다.

### (11) 「텔레비전」의 特質

이러한 急速의 發展을 보게된 T

V는 그 무엇보다도 TV獨自의 特質을 지닌 「메스·메디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야 할 것은 이다.

即 이것은 電波에 依해 映像과 音響 그리고 同時의 傳達를 할 수 있는 「메스·메디아」이기 에 人間의 視覺과 聽覺을 同時의 傳達로 性質의 것으로 이루어 보아 時間的 短縮性과 空間的 制約을 克服하여 傳達할 수 있다는 點의 特質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瞬間적으로 遠距離를 連結하는 電波는 速報性 同時性 그리고 空間的으로는 同所性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特히 映畫와 다른 點은 「반은側」이 映畫에 있어서는 特定한 場所(劇場 등)와 特殊한 條件 아래서만 볼 수 있으나 TV는 이와 달리 一般性이 지니지는 것이고, TV映畫에 一般性의 것 과 比較 적으로 해서 觀衆者의 反應의 깊이가 저어지는 것을 들 수가 있으며 記錄性에 缺陷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라디오」以上으로 現實性이 強하고 迫眞性이 豐富한 것으로 說得力이 大端한 것을 말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한 意識의 集中 強하고 情緒의 感情의 面이 또한 強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TV와 라디오 어느 程度의 缺點을 지니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겠으나 그대로 完全에 가까운 「메스·커뮤니케이션」의 媒體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텔레비전」의 特質로 보아 現代人の 大衆生活에 미치는 影響이 決코 적은 것이 아님을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이點 「이리온」(Irrion)氏는 「Public opinion and propaganda」에서 「텔레비전은 美國人生活에 革命的인 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娛樂의 價値에 兼해서 教育과 宣傳이 가장 有效한 媒體가 될 것이다」라고 論及하고 있음을 보아 大衆傳達의 偉大한 手段이라고 하는 所以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다.

### (12) 「텔레비전의」 影響

「텔레비전」이 各種 「메스·메디아」中에서도 가장 比重이 漸次 무거워져 가고 있는 것은 世界共通的인 傾向인 것 같다.

美國에서는 TV가 選舉戰에 큰 影響을 가진 바 있어 一九六〇年 十一月 大統領 選舉戰에서 「케네디」와 「니슨」간의 텔레비전 公開討論은 너무나有名했었으며 美國에서 이미 一九五二年的 選舉에 有權者가 立候補者를 좋아 하게 된 動機가 「텔레비전」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新聞이 三三% 「라디오」가 五%의 比率로 나타났다. 日本에서도 「텔레비전」依存度가 五八年五月 選舉時 四·五%인 것이 六〇年度에는 二〇·七%로 急激한 增加率을 보였으며 英國에서도 五九年度 選舉가 「텔레비전」選舉였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닌상 竊히.

이러므로써 近者에 와서는 美國에서는 「텔레포리티스」(Tele politics)라는 用語까지 使用되게끔 되었음은 興味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텔레비전」이 「犯罪」에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다든가 「텔레비전」出現으로 말미암아 어린 兒童들의 工夫를 게을리 하고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問題가 「텔레비전」의 發展과 더불어 提起되어 오고 있다는 事實도 잊

어서는 아니 되었으며 더욱이 美英兩國에 있어서 「텔레비존」이 여러모로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은 前述한바 特質로 보아 쉽게 想像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텔레비존」의 發達이 어떠한 影響을 주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現在 段階로서는 이러한 諸問題의 正確한 解答은 容易한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活潑한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美國에서도 「텔레비존」은 熱狂의 發展 段階에 있으며 急速의 變化의 過程에 있기 때문에 至今으로 서의 將來에 關해서 正確히 豫測코 그 影響에 對해 正確한 評價를 내릴 수 있는 段階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존」이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인 多方面에 걸쳐 많은 影響力을 미치고 있다는 事實은 누구나 否定치 못할 것이다.

「텔레비존」의 影響에 關해 論及함에 있어 視聽者의 傾向에 對해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美國이나 英國에서의 調査研究의 結果를 基準해서 視聽者의 傾向을 分析檢討한 것을 본다면 比較的 低收入層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事實은 일핏 보면 受像機가 高價임에 그 所有者도 多額所得者層에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와는 反對로 美國의 경우에는 低額所得者나 中級程度의 所得者라는 點은 充分히 考慮의 餘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比較的 低額所得者가 大端한 受像機의 購入者일 뿐만 아니라 極히 熱心한 視聽者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結果를 보면 「텔레비존」의 視聽

者가 「라디오」聽取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社會的, 經濟的 地位가 下降함에 따라 增대하는 傾向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텔레비존」이 比較的 年齡이 젊은 層 사람들에게 吸引되고 있는 것이 유달리 나타나고 있고 특히 十歲未滿의 兒童들에게 많은 關心이 끼여지고 있다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다.

또한 가지 注目한 點은 「텔레비존」의 視聽의 傾向은 女性이 많다는 것이다. 一九四九年 CBS 報告에서는 너무나 對照的인 比率로서 男性側이 많았으나 二後 調査結果에 依하면 漸次로 女性側의 視聽者가 急進의 勢로 增大해 가는 傾向을 보면 男性側을 凌駕한 氣勢인 것과 「텔레비존」의 夜間에 있어 壓倒的인 人氣를 갖고 있음도 指摘할 수 있다.

그리고 美國에서 各種의 調査研究 結果, 程度의 差는 있을 망정 「텔레비존」으로 말미암아 家族의 成員을 보다 더욱 家庭에 集中시키고 그 連帶性을 強化한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으며 이것은 家族의 行動을 基本的인 點에 있어 變化시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므로써 「라디오」와 其他 「매스·미디어」에 對하여 어느 程度의 重大한 影響을 주고 있다는 事實도 看過해서는 안 되겠다.

#### (四) 텔스타 通信衛星과 TV

##### TV

「텔레비존」의 發展研究에 主導的 役割을 하는 것은 美英兩國이었음은 既述한 바와 같거니와 美國은 지난 七

月十日 「텔스타」(Thor-Delta) 通信衛星을 宇宙軌道에 進入시키는 데 成功함으로써 世界電波史上 또 하나의 大 革命을 가져왔다.

美國은 이번 「텔스타」號 發射成功에 앞서 여러가지 宇宙開拓의 人類平和 利用을 爲한 科學的 技術研究에 全力을 다해 오고 있거니와 특히 一九六〇年八月十二日 美國의 國立航空宇宙局(NASA)이 처음 發射한 通信中繼衛星「에코」一號의 科學的 業績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 하겠으며 지난 五月中에 「텔스타」의 發射 豫定이었던 것이 바로 七月十日 成功의 實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텔스타」號의 宇宙軌道 進入 成功은 「텔레비존」受像技術上에 劃期的인 功獻을 마친 것은 물론 美國의 電信電話會社(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가 오래 前부터 計畫中이던 TV의 大陸橫斷中繼實現은 그間 實施해 오던 「마이크로」(波) (直線波)를 利用하지 않고서는 長距離 送受信은 不可能했던 電波能力을 一躍 百億倍로 擴大活用해 보는 데 成功한 것이다.

이리므로써 이번 「텔스타」通信中繼衛星은 人工衛星을 中繼所로 하는 電波中繼網樹立을 세워 앞날의 TV와 電送寫眞「라디오」電信電話等의 送受信을 더욱 敏速正確하게 傳達해 주는 길을 마련했다고 보겠다.

그런데 이번 「텔스타」號는 한 科學小說家의 「아이디어」(Ideas)에 依한 創案된 TV의 宇宙中繼方式이 美國의 AT T에서 採擇되자 百萬弗이 所要되어 NASA의 손을 빌어 「쏘아」델타」(Thor-Delta) 三段階 로케트

로 쏘아 올린 것이다. 美國의 「텔」電 話研究所에서 製作된 「텔스타」號는 地球와의 最高距離約 四,八〇〇KM 最低約 九六〇KM 높이에서 旋回시키는데 成功한 것이다.

地球 一旋回所要時間은 一時間五六分이며, 그 壽命은 約二年으로 推算하고 있고 直徑八六·四CM 重量五六·七kg 一五、〇〇〇個의 附屬品을 실은 同衛星은 橢圓形이고 表面에는 太陽光線을 電力化하는 五六、〇〇〇個 太陽電池로 覆여 쌓여 있다.

이번 「텔스타」號發射成功까지에 消費된 總額은 六百萬弗이었다고 傳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宇宙를 利用하는 巨大한 民間電信事業으로 完全한 「네트워크」(Net work)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어도 五億弗의 巨額이 所要될 것이라고 推算되고 있음은 注目할 만하다.

그리고 「텔스타」衛星에 依한 中繼로서 最初의 「텔레비존」受像의 成功은 勿論이거니와 非公式 電話中繼도 成功의 이었으며, 「텔스타」衛星을 利用한 大陸間中繼는 이미 美英佛等 國際的인 交涉이 進行되었으나 單一個로서는 實驗的 TV中繼에 그친다고 보겠으며, 앞으로 繼續的인 技術發展이 있다면 全世界의 中繼가 이루어질 것은 쉬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한편 最初의 人工衛星에서 「달」로 케트, 金星로 케트, 有人人工衛星等으로 언제나 政治的인 宣傳道具나 戰爭武器로서 唯我獨尊의인 허풍을 世上에 떨쳐 놓는 데만 血眼이 되어 온 聯合國은 今까지의 結果로서는 通信衛星 間은 實用衛星의 發展과 開發의 無

# 民主主義 原理 세미나

—民主主義社會의 使命—



김 나 봉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푸로테타리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뿐이며 「푸로테타리아」 독재는 불가결(不可缺)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자는 오직 민주주의 사회만이 푸로테타리아 해방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의 사회임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른바 「푸로테타리아」 독재 및 그것의 잠정적(暫定的) 하나의 과정(過程)이라고 하는 인민민주주의(人民主義)라는 것의 정체는 바로 공산당의 독재인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것은 각국에 있어서 인민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거나 인민이 그 책임을 강제(強制)할 수 없는 자립자존적(自立自存的) 단체로서 내부적으로는 각부독재(各部獨裁)의 정당(政黨)이다. 그런데 이나 소련 이외의 각국 공산당은 궁극적으로 소련공산당 정치국 지배 밑에 있는 것이며 공산당은 국제적 조직으로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서 유일의 조국은 소련인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후르시코프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에다 절대무유(絕對無謬)의 존재이며 유일한 진리와 정의의 보지자(保持者)이다. 공산당의 이러한 실제(實體)에 눈물을 흘려보면 공산당의 독재란 자방적으로서는 각위성국(各衛星國) 공산당 지도자의 독재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련 공산당의 정치국 또는 그 지배자인 후르시코프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푸로테타리아」 독재라는 말은 원래 모순된 말이다. 독재라는 것은 극소수자(極少數者)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니 푸로테타리아의 경우 에 있어서는 자치(自治)밖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치라고라도 그들이 말하는 「푸로테타리아」 독재의 실제(實體)를 볼 것 같으면 극소수의 독선적(獨斷)인자(狂信者)에 의한 푸로테타리아에 의하여 아니 보다 넓은 의미의 인민대중의 대하여 강제되는 독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된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틀림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푸로테타리아」 독재로서 과연 푸로테타리아는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 체제의 실지로 실사 푸로테타리아의 생활정도도 다소 향상되었다고 치더라도 — 현실은 모두가 이와 반대지만 — 현실의 자유가 박탈(剝奪)되고서 해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해방이라고 한다면 사회에 유익이 있거나 감옥소에 들어가 있어도 다만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기 때문에 해방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어딘가 다른 점이 있겠는가?

인간의 참된 해방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고서 비로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인간은 인생의 목적인 도덕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사회형태(社會形態)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부정(不正)과 불만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부정도 불만이나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공공연하게 이것을 표현하며 사회 다수인들을 설득(說得)하여 그것의 제거나 개선 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唯一)의 사회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확실 히 아직도 불만족하고 불완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개선할 능력은 기본적 자유권(自由權)이 보장되는 데서 일반 민중들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해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활용(活用)하여 자기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자유를 향유(享有)하고 있는 자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轉嫁)할 수는 없다. 즉 자기 책임의 원죄(原罪)에 서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아무리 「현명(賢明)이나」 총명(聰明)을 자부하는 사람들의 집단(集團)이라도 「선(善)이나」 정의(正義)의 목적은 허용될 수 없다. 장차 저들만이 사회정의(社會正義)나 선(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독단(獨斷)하고 이것을 폭력(暴力)이나 구박(酷罰)으로써 사회에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반역행위(反逆行爲)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선(善)이나 정의(正義)는 결국에 가서 정치 자유의 수단으로서 즉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다수(多數)의 의지(意志)이다. 그런 까닭에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적 정나 선을 즉차적(遂次的)으로 실현하고 있지 않는 한 존속(存續)될 수 없는 사회인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이상 다수의 의지의 실현을 저지(阻止)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저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 사회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되풀이 해서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적 행동(行動)을 포함하는 기본적 자유권의 확립(確立)으로서 각인(各人)을 저마다 자유와 책임의 주체로 해서 그 구성원(構成員)

사이에 근본적으로 정의판치를 확립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기구(政治機構)는 사회 전체의 도덕의지(道德意志)를 실현하는 정의의 기구로 된 것이다. 만약 사회의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정의라고 생각한다면(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 다수의 의지에 따라서 사회질서나 생산력 유지라고 하는 사회총기본적인 필요의 조응(照應)하여 경제적 평등의 구제책(救濟策)을 규정(規定)해 가면서 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보다 의식적으로 점차 접근하러는 운동을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권을 보지(保持)하여 민주주의 사회로서 머물러 있는 한 차차로 그러나 확실하게 무계급사회(無階級社會)로 전진하는 『명백한 숙명(宿命)』을 지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만약 어떤 소수자가 오직 독단적으로 정의라고 믿는(狂信)하는 경제적 평등을 일대 실행하려고 한다면 국민에게서 일체의 기본적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여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독재정치 방법의 의하지 않고는 이것을 실현할 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대중은 이미 단순한 노예적(奴隸的) 존재의 지나지 않는다. 자유가 없는 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노예인애는 들림없는 것이다.

個人主義

개인주의의 의의는 이것을 두 개의 측면(側面)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는 사생활상(私生活上)의 윤리(倫理)로서의 개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생활상(公生活上)의 또는 정치적 지배의 윤리로서의 개인주의이다. 전자(前者)를 가명(假名) 개인주의라고 부르다면 후자(後者)는 정치적 개인주의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인적(人的) 개인주의의 근본의의는 개인의 인적은 고유(固有)하면서 절대가치를 갖기 때문의 고정성(成長) 및 완성(完成)은 절대부적(絕對)으로 취급될 뿐이다. 다른 어느 것에도 이것을 단절(斷絶) 수단이 없으며(隸屬) 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윤리적 요청(要請)에 있다. 인적이 절대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완성과 이 것을 표현하는 도덕생활과는 개인에게 고유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또한 개인의 개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행사(行使)는 타인의 이와 똑같은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阻害)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사고(思考)의 배후(背後)에는 물론 각인은 각자의 복지(福祉)나 그 달성 방법의 가장 적당한 판단자 다시 말하면 각자는 각자의 자유이며, 책임 있는 도덕적 의지의 주체(主體)라고 하는 신념(信念)이 포함되었다. 개인주의는 각자의 인격완성에 지상가치(至上價值)를 두고 이 가치 실현을 위해서 타인과 똑같은 자유의 행사(行使)와 양립(兩立)하는 한 각 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용인(容認)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 그것은 자유주의와 연결된다. 그러나 개인주의

와 자유주의는 같은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입각(立脚)한 그 하나의 분파(分派)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적어도 다음 두 개의 가정(假定) 위에 성립된다. 하나는 모든 개성이 자의(自利) 소질(素質) 또는 개성에 필수(必需) 있는 자유유게(自由)를 받을 수 있도록 방임(放任)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나 개인 상호간의 자유로운 경쟁(競爭)에 전체의 발전이나 공익(公益)이 증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유주의의 입장에서서는 사익(私益)의 이기적(利己的) 추구(追求)까지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공익(公益)의 증진(增進)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또한 역사적으로 실현(實現)하였던 가정(假定)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권력과는 대립관계(對立關係)가 권력이 증대하면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삭감된다(削減)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창의(創意)에 의해서 행동하는 활동분야를 최대한으로 보류(保留)하기 위해서 국가(國家) 정부(政府) 권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그 통제(統制)나 간섭을 필수(必需)하는 대로 배척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주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지금 이들 가정(假定)의 진위(眞僞)를 여겨서 타인(打診)할 자들은 없지만 자유주의가 국가 권력의 감축(減縮)을 요구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명백히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반드시 사회

주의와 대립하지 않는다. 개인주의의 본질은 각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만약 국가 권력의 증대가 이 목적에 보다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국가 권력의 증대를 환영하면 된다. 그것이 반대할 아무 이유도 없다. 오늘날 서방 국가의 일부 사회민주주의는 모두가 전체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를 기초(基調)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인적(人的) 개인주의는 요컨대 개인

의 무한가치관(無限價値觀)의 하나의 국면(局面)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생활상(私生活上)의 윤리로서 이것과 정반대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복지(福祉)를 무시하는 구속(拘束) 없는 자의(自意)를 의미하는 이기주의(利己主義)가 있다.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회인의 세계관(世界觀)이라고 한다면 이기주의는 금수적(禽獸的) 자연의 세계관이다. 진정한 개인주의는 인격가치의 평등을 근본요건(根本要件)으로 하는 것인데 이기주의는 다른 인격가치를 무시하고 이것을 일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만 수단화 하는 것, 즉 불평등을 근본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기주의는 민주주의 정신의 부정(否定)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민주주의의 신조(信條)의 일부분율(部分)을 구성하는 것이 못된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왕왕 이기주의라고 하여 배척되었다. 개인주의를 가지고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그릇되고 허위(虛僞)의 찬 개인주의이다. 전체주의(專制主義)가

성(盛)하였던 시대에는 전체주의자들은 열심히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설교(說敎)를 거미에서 방울처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비판의 일부는 진정한 개인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無知)에서 온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민주주의의 적이 민주주의를 불신(不信)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의(故意)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것을 이기주의자들이 개인주의의 명목하에 자기의 이기주의를 침투시킨 것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 개인주의는 그 본질이 이루는 자타평등(自他平等)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자기와 동등한 다른 인격권(人格權)을 무시할 때 금세 이기주의로 전락(轉落)한다. 이기주의자들은 잔혹한 주주의적 개인주의의 미명(美名) 아래 자기의 탐욕(貪欲)이나 잔인성(殘忍性)을 만족시켜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개인주의의 정신은 오히려 보편적인 이기주의의 정신에 불과한 것 같은 그릇된 인상을 주는 계기(契機)를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저들은 무지(無知) 또는 고의(故意)로 이 사실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은 것이다. 우리들은 진정한 개인주의와 그릇된 개인주의——이기주의를 명확히 식별(識別)하지 않으면 안 된다.

民主主義의 國家觀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개인주의는 개인과 사회 또는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의, 민주주의의 이론(理論)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사회관(社會觀)이며 국가관(國家觀)이다.

이 이론의 요점은 사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조화의 총화(總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 또는 국가는 오직 그 구성각원(構成各員)의 복지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회나 국가는 일정한 방법으로 조직되는 개인에 의해서 구성된다. 따라서 그것은 그 구성 각 개인과 개인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완전히 분석하여 환원(還元)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분석한 뒤에는 계량(計量)할 만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리하여 사회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에 대한 기관도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을 떠나서 그 자체로서 목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국가나 그 밖의 집단의 의지라던가 목적이라던가 세론(世論)이라는 말은 요컨대 언어(言語)의 생략적(省略的) 표현에 불과하다. 어떠한 인간의 집단에 있어서도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의 의지, 목적, 정신, 의전 따위는 그것을 묶어 보르면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실 또는 그 과반수(過半數)의 의지이며 목적이고 정신이고 의전인데 불과하다. 그렇다만 사회 또는 국가 등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저의

도 목적달성에 지향(指向)되는 한 존재할 수 있는 유일의 목적인 전체인(全個人)의 목적달성에 필연적으로 향해서 지향(指向)된다. 그리하여 사회 또는 국가는 그 구성원의 복지 실현 이외에는 아무 목적도 갖지 않고 오직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要約)하면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있으나 개인은 국가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있다고 할 때 그것은 현재 및 장래의 개인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어느 일정시(一定時)의 현재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말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국가관은 오직 대개인의 무한가치관의 국가의 성질 및 기능에 대한 자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한가치관에 의하면 개인은 독립된 무한대(無限大)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또는 국가의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 이상으로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절대 목적을 이루며 다른 어떠한 목적의 단순한 수단적 지위에도 그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국가의 목적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목적 이외의 것 또는 이상의 것이라면 개인은 국가목적에의 수단으로서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의 역문(理)으로서 가치는 역(逆轉)이다.

국가 또는 그 기관은 오직 개인 또는 그 총화(總和)인 국민의 복지 때문에 있는 모든 정당한 정치권력

의 원천(源泉)은 개인에게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입법자(立法者) 및 행정하는 사람은 자유로히 선택하며 또한 파면시킬 수 있는 각 개인의 권리는 고유한 것으로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은은하는 민주주의의 정치원칙은 서상(叙上)의 개인주의적 국가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민주주의의 국가관은 자명(自明)의 진리이며 상식문제도 생각된다. 모름지기 그것은 하나의 가정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총화(總和)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가정의 부지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복지의 총화로서 가정은 구성원의 이러한 공동복지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과 하등의 다른 점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적은 사회에 있어서 진리라면 三千萬의 국가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진리가 아니라서는 안 된다. 사회규모(規模)의 크고 작음이 하등 이결(規模)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주의적 국가관에 대하여 지나간 반세기(半世紀) 동안 증대한 도전(挑戰)이 일어났다. 즉 전체주의의 국가관이 그것이다.

전체주의의 국가관의 의하면 전체(사회), 국가, 민족 등 전체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자신에 독자적(獨自)의 가치를 갖는 하나의 유기적(有機的) 생명체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체는 그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목적이 아니며(利害)와 달리 이것들에 우

의(優位)하는 독자의 목적이나 이해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전체는 그 구성원의 목적에 대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구성원이야말로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자 개인은 본래 그 자신에 독립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봉사(奉仕)하고 전체에 통합되며 전체 가운데서 그 역할(役割)을 다하는 것으로서 비로소 그 가치가 부여(賦與)되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는 하등고유한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의 활약(活躍)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개인이 그 자신에게 장전 독립의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개인의 무한가치관을 정면(正面)으로 부터 부정(否定)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 기초원리(基調原理)에서 나타나는 인간간의 자유, 평등 및 개인주의의 세계관도 당연히 부인(否認)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은 국가를 절대화(絕對化)하여 개인의 중요성을 극소화(極小化)해서 이것을 국가에 아주 연속시키는 데 있다. 추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홍모(紅毛)와 같이 경시(輕視)되어 개인의 생명이나 권리는 그 안전이 보장될진 없으나 억압되어 개인은 국가의 단순한 수단으로 지나쳐 압당되고 하는 주장(主張)을 사실성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尊重)성이 아주 없기 때문이다.

### 내가 사랑하는 생활

少尉 白完基

空軍第三救助大隊

첫째로 나는 計畫性 있는 생활을 사랑한다. 차분히 예정된 計畫에 정성을 다하는 생활은 그 계획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귀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計畫이 반드시實現되거나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願望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 計畫實現을 위한 努力하는 過程中에서 나의 알뜰한 精誠과 眞實性을 總動員시켜 나에게 精神의 統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代價와 結果를 바라는 計畫은 마음

이러한 가정은 개인 권리의 신성(神聖)이나 인격의 존엄(尊嚴) 관념(觀念)이 필연적으로 마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말하더라도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基調)인(基調理念)이 되는 개인의 무한가치관이 아주 결핍(缺如)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와의 다른 점은 이러한 관념(觀念)이나 가정의 유무(有無)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푸로레타리아의 두 계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국가도 전체주의 국가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것은 이와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국가 권력이 절대적으로 강

의 자유狀態를 좀더 計畫의 奴隸를 만들고 맘기 때문이다. 여기서 結果(Result)보다는 過程(Process)에 充實한 생활이 약속처럼 못한다는 生理에 맞은 생활이다. 다음에는 余裕 余韻이 있는 생활이다. 여기저기의 餘裕란 物質의 精神의 餘裕를 다 포함하여야 하겠지만 特히나 精神의 焦燥하지 않는 마음의 餘裕를 만들고 싶다. 來日 原子彈이 떨어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餘裕나 餘裕가 있다고 해서 부지런하지 않거나 나태해 질 理由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自身을 지나치게 들어내지 않는 餘韻과 餘白이 있는 생활이 마음에 든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수록 보지 않는 魅力와 潜在力을 풍

대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나 권리가 극도로 경시(輕視)되고 이것을 존중하는 개인 존엄 관념이 송두리째 결핍되어 내적 존엄 관념이 송두리 송두리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진술(前逃)한 바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공산주의는 독자적인 탐구의적 제압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서 말한 전체주의 국가관은 모랄에서 파시스트의 이베리(伊太利) 나치스의 독일(獨逸) 군(軍閥)의 일본(日本)에 특유(特有)한 교리(敎理)였다. 다음이 이들 교리(敎理)를 신봉(信奉)하고 실천하고 강제하였던 세력은 오늘날에는 해소(解消)되어 버린 것이다.

기는 香氣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大自然的 攝理와 大凡에 벗어나지 않는 경건한 생활이다. 아무리 科學文明이 發達하여 宇宙旅行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할 자라도 자연에는 科學으로서도 저히 분할할 수 없는 영원 무궁의 神秘의 世界가 있다. 또 우리의 社會生活를 規制하는 社會規範에는 道德, 福儀, 宗教, 法律 등이 있지 만 여전히 人間을 조이게 하는 氣分을 주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大凡한 생활을 들고 싶다. 大凡한 生活는 潤氣와 積極性 自由自在의 맛이 內包되어 있다. 여기서 自然 大凡 餘裕 計畫 등이 綜合調和된 生活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상으로서 잔존(殘存)할 수 있으며 만약에 또한 진리라고 말한다면 다시 세력을 얻지 않으리라고 말한 자 없을 것이다. 우리들 민주주의자들은 나치스적 전체주의의 국가관이 과연 진리냐 아니냐를 확인(確認)해 둘 책임이 있다. 우리들은 개인 무한가치관의 연역(演繹)에 불과한 개인주의의 국가관이 진리(眞理)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려고 그대가 이것에 반대하는 전체주의 국가관이 그릇된 것이라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역(逆)도 또한 진(眞)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전체주의 국가관이 그릇된 것이라는 저극적 증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生活經濟 A·B·C ⑤



貨幣理論을 中心으로

崔 虎 鎮

〈經濟學博士〉

貨幣은 우리의 經濟生活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現代經濟社會에 있어서 貨幣는 人體에 비하면 血液과 같고 또 기계에 비하면 潤滑유와 같은 功用을 한다. 만일 우리의 人體에서 血液이 없어진다면 人體의 기능은 곧 정지 될 것이며 또 기계에 潤滑유가 없어진다면 기계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될뿐만 아니라 가령 그 기계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극히 우둔하고 무리하게 움직여 그 기능은 곧 파괴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經濟生活에 있어서도 貨幣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生活은 극히 불편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는 經濟社會를 파탄에 몰아넣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六月十日에 시행된 貨幣改革의 結果로서도 말미암아 충분히 인식되었을 것이다. 貨幣改革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貨幣理論의 基本問題인 貨幣의 뜻과 그 기능 및 貨幣의 형태와 近代의 貨幣制度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앞서 본바와는 商品의 價格은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이므로 그것은 商品價의 사정에서나 아니라 화폐의 사정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화폐는 그것을 발생적으로 교환할 때 교환경제가 성립하고 그것이 발전하는 조건이며 또한 교환의 발전 및 生産물의 交換과 더불어 성립 발달한 것이다. 그리고 화폐의 본래적 기능은 商品교환에 있어서 商品의 측정·표현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교환수단이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生産물이 원칙적으로 商品이며, 生産者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사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生産물과 生産물과의 직접 교환시대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서로 각각 자기에게 원하는 生産물을 생산하는 소유하며 또 그 교환을 회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각각 교환을 원하는 분량이 일치할 때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환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매우

곤란하였다. 여기에서 生産이 발전함에 따라 교환의 필요가 증대하고 生産물의 商品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 각자는 우선 자기의 生産물을 투히 다른 사람이 즐기어 받을 수 있는 특정 종류의 商品과 교환할 다 음에 이와같이 하여 얻은 商品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자기에게 원하는 生産물을 얻으리 하였다. 따라서 특정 종류의 商品이 교환수단으로서 특정 기능을 다하는 직접 교환은 변하여 간접 교환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이와같은 교환은 모든 生産물에 걸쳐 전면화하게 되자 이와 같은 商品은 다만 약한 종류의 生産物간의 특수한 교환수단이 될뿐 아니라 모든 商品사이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교환수단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수 商品이 일반적 교환수단으로 되자 모든 商品은 우선 이러한 일반적 교환수단인 商品과 교환됨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일반적 교환수단인 商品은 또 모든 商品까지가 그것에 의하여 측정·표현되는 척도로 되었다. 따라서 모든 商品은 특수 商品에 의하여 각각의 가치가 측정되며 그 특수 商品의 각각의 분량으로써 존재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곧 이른바 가격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화폐를 발생적으로 보면 특수 商品이 교환수단으로 되고 모든 商品은 우선 이와같은 특수 商品과 교환되며 그것과 패배로 비교하게 되자 교환수단인 商品의 가치의 척도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환이 행하여지려면 우선 교환될 商品 상호의 가치 비율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비율이 정하여진 후에 비로소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교환될 商品은 각각 구체적으로서는 상동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비율은 商品 상호간에 직접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 商品의 가치가 그것에 공통된 일정한 商品으로 측정·표현되어 간접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일정한 商品은 그 商品의 가치척도가 된다. 이러한 가치척도는 교환이 모든 生産물 상호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행하게 되고 따라서 교환수단으로 하여금 일반적 교환수단이 될것을 필요로 하게 되자 모든 商品상호간의 가치 비율이 결정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商品이 그것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각각 가치를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척도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일반적 가치척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교환수단인 기능은 일반적 가치척도인 기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종류의 商品이 교환수단 그리고 가치척도가 되었었다. 즉 獸皮, 家畜, 貝類, 소금 등이 이와같은 기능을 다 하였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生産 유통대 및 운반에 편리한 것은 물론 분량적으로서는 서로 다르다 할 지라도 성질상으로는 서로 같으며 또 보존에 견디고 분류 결합에 의하여 변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금속중에서도 금과 은이 이와같은 등질성, 가분성, 보존성 그리고 운반성 등에 있어서

다른 상품보다 탁월하다. 이상과 같은 기능이 점차로 글은에 귀속되고 드디어 그것에 의하여 專有됨에 따라 화폐가 성립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치에도 및 교환수단인 것이 특수 상품에 전유됨에 의해 화폐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일반적으로 가치척도인 동시에 일반적 교환수단 특수상품이다. 이러한 교환의 발생, 발전 및 생산물의 교환경제의 성립과 그 발전의 조건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보아 화폐는 경제사회의 일정한 기구중의 제 성립 및 존재의 근거를 갖는 것이다. 즉 화폐는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다.

화폐가 상품가치의 일반적 가치척도인 이상 그것은 상품 즉 그 자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독일의 저명한 학자 크니이스(Knies)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 양적인 대소를 측정하고 확정하면 비 측정불과 같은 성질을 소유하는 물체만이 측정의 要件, 측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자연법적 필연성이다.』 예를 들어 보면 진이는 그 자체 질이를 갖는 측정의 요구에 의하여 그리고 면적은 면적의 의하여서만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여 평량하기 위하여는 그 자체 가치를 갖는 상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와 같이 화폐가 그 자신 상품이 더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상품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화폐는 이 말한 바와 같이 일

반적 가치척도로서 모든 상품의 가치를 측정,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든 상품의 가치와 상응한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가치의 보유자다. 이전에 있어서 화폐는 다른 일반 상품과 다른 특수 상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이 성립하는 것은 경제사회의 역사적 기구의 결과이며 화폐인 상품 가령 금과 은의 자연적 성질 그리고 효용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화폐를 금은과 같은 특수한 재화 그리고 효용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2

다음에는 화폐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① 지금까지 보아온 화폐의 본질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화폐의 첫째 기능은 모든 상품의 가치척도이다. 즉 모든 상품의 가치가 화폐에 의하여 측정되며, 이러한 가치의 화폐분량을 측정도, 가치로서 표시되는 것이다. 그러하여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화폐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분량의 화폐가 단위로 정하여진다. 이것을 이른바 貨幣의 本位라고 한다. 화폐 본위 내지 가치의 단위는 처음에는 금속의 분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종의 명칭이었으나 점차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상품가치는 화폐를 가지고서도 비 교환하게 되었다. 여기서 화폐의 가치척도로서의 기능과 가치의 단위로서의 기능은 서로 관련하지만 또 서로 다르다. 전자는 여러가지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것을 가격으로서 표현하는

데 대하여 후자는 이러한 가격 즉 화폐분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자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척도인 기능은 추상적이므로 항상 가격단위로서의 기능만이 보이며 그것이 증명명으로부터 떨어져 단적 화폐명으로서 되자 여기에 화폐의 고유가치를 무시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

② 화폐의 둘째 기능은 일반적으로 환수단인 점에 있다. 발생적으로 보면 가치척도의 기능은 교환수단인 기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보면 후자는 전자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와 같은 기능의 결과로 말미암아 상품과 상품의 직접 교환은 간접교환이 되고 화폐가 그 매개수단인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교환수단인 기능을 한 화폐는 새로운 소유자에 있어서도 다시 상품교환의 수단인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화폐는 商品流通을 매개하면서 購買者로부터 販賣者에게 옮겨 가며 인적까지의 流通界에 남아 있게 되고 消費界에 들어가서 일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은 조마간 소비계에 들어가게 되는 일반상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消費財·生産財에 대하여 交換 또는 流通財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交換行爲는 파는 행위와 즉 두 가지의 행위로 된다. 그리고 매매에 있어서 상품의 종류 및 분량의 대하와 교환의 당사자 간에 직접합의를 하지 않고도 환돈이 동일한 장소

및 시간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 결과 경제법위는 확대되어 간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需給이 맞지 않게 된다.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반드시 상품일 필요는 없으나 그것이 현실에 있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정한 사회에는 상품교환을 위하여 일만명의 화폐가 필요할까? 그것은 일핏 보면 그 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내에 지폐되는 모든 가격의 總和와 같이 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하면 동일 단위량의 화폐는 일정기간내에 단지 일회만이 아니고 몇회든지 여러 종류의 상품과 교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내에 있어서의 유통화폐의 총액은 처음 교환에 들어간 화폐보다 훨씬 많게 된다.

여기에서 일정기간내에 화폐가 상품과 교환되는 평균도수를 화폐의 流通速度라고 한다면 일정한 사회에서 상품유통 때문에 필요되는 화폐액은 지폐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총액을 화폐의 유통속도로써 제한 값과 같게 될 것이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용제도에 의한 현금의 절약은 무시하였다는 점이다.

③ 셋째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작용할 때에는 반드시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판매와 구매의 각각에 대하여는 모두 상품과 화폐의授受가 동시에 행하여진다. 그런데 교환이 발전함에 따라서 판매자가 상품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그 대가인 화폐액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때에는 상품과 화폐의 수주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판매자 및 구매자는 채권자 및 채무자로서 대립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대한 인도는 화폐는 상품과 환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립한 매매관계의 기인한 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관계 이외의 원인으로 부터 일어나는 단순한 대차관계에 있어서도 화폐가 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명백하다.

### 내가 사랑하는 생활

中尉 趙 基 鉉  
▲空本·醫務監室▼

신문을 매일 정독하는 일이란 매우 귀중한 일이다. 그러나 읽고 난 신문은 그저 버리기만 내감할 뿐 성미로는 더욱 귀중한 일이다. 그때 나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인물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을 스크랩하는 버릇이 생겼다. 처음에는 대단치 않았지만 그것도 몇해가 지나는 동안 이제는 상당한 분량이 되었다. 그중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이 인

적으로 우선 가치의 척도로서 상품 가치의 추경하며 이점을 가격으로 표현하고 또 화폐의 본위로써 채무의 액을 측정한다. 이러한 화폐가 지불에 제공되는 것은 그것의 일반적 교환수단으로서 어떠한 상품에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지불관계를 규정하고 화폐로써 법률상의 지불수단으로 하여 남세, 증여 등 가치의 일방적이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함에 그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물사 진첩이다. 당초에는 앨범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고 사진도 암전하게 매일같이 정성 들여 붙였지만 날이 가는 동안 요령 없게도 사진이 사라져 버렸다. (?) 이 생겨 며칠을 물아 불허는 것이 시간상으로나 사진의 배열상으로나 꽤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이 신용관계를 유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용증권이다. 신용증권 중 어떤 것은 지불할 화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화폐와 같이 유통된다. 수표·어음같은 것은 그것의 주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신용화폐이다. 신용화폐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화폐가 아니라 대용물에 불과하다.

혹점이 있어 이 인물스�크랩을 펴 쳐보면 여간 재미 있지가 않다. 민원 기자들의 『후렛위의 눈』이 잠은 이들 뉴스의 주인공들의 표정들은 그때 그때의 정황에 따라 다르다. 다르다. 人物에 따라 다르다. 로즈·셴시키는 부분도 다르다. 그것은 유명한 人物인수록 더하다. 그런데 스크랩을 들춰내다 아쉬운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물 사진들은 외국인의 그것에 비해 너무 표정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 동질한 사진 그것도 부처님의 증명 사진같은 것을 몇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데는 딱 질색이다.

하기는 가끔 말성이 되고 하는 유체파, 여우들의 파인본(?) 표정보다는 아직 나을런지도 모르기는 하지만

가치척도 및 교환수단의 기능인 일반적 가치척도 및 교환수단의 기능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화폐는 이상 두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고 또는 일정한 재화와 다른 쪽이 될 수 있는 일반 재화와 다른 것이다. 따라서 화폐야말로 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형태인 것이다.

⑥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화폐가資本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폐의 기능도 그것의 일반적 가치척도 및 교환수단의 기능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에 있어서는 화폐가 생산수단 및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또 이와 같이 하여 생산된 상품은 판매되어 이윤과 희불어 화폐의 형태로 다시 회수되는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⑤ 이상에서 본 화폐의 모든 기능은 어느 일 국가 내에 있어서의 기능이지만 상품이 발달하고 교환거래가 국제적으로 되면 화폐는 국제적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으로 국제무역의 차이를 청산하고 또 사회의 부를 국제적으로 이윤하는 데 사용된다. 즉 세계시장에 있어서 화폐는 자 국가에 있어서의 특수한 형태를 벗어 버리고 다만 상품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폐의 기능은 말한 것도 없이 화폐가 일반적인 가치척도로서의 상품이며 또 일반적인 교환수단인 때 이인하는 것이다.

# 共産主義的 平和와 平和共存



## 平和共存

공산주의의 씨미나

李 東 賢

(1)

一九四九年 四月, 공산주의자들은 파리와 프라그에서 平和愛護世界會議를 개최하고 일체의 침략행위와 전쟁선전, 신전쟁도발의 음모등을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다시 一九五〇년 三月의 스투홀에서 동회의 상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① 원자무기의 금지 ② 그를 위한 국제판리 ③ 최초의 원자무기를 사용하는 정부를 전법자로 처벌할 것등 三항목으로 된 평화서명운동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시 六·二五의 전쟁도발로 세계의 규탄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평화에 호정신을 세워하기 위하여 一九五〇년 十一月에는 런던에서 제2차 평화운동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세계평화운동측구하는 대UN 메세지를 발표하였다. 이듬해 三月 소베트 최고회의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평화의호년」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쟁선전은 그것을 어떤 형식

으로 하든간에 평화의 사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쟁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가지각색으로 소위 「평화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평화운동, 평화당, 평화회의, 평화행진등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평화의 해 존제하는 평화의 사도요 평화의 광신자들이 아닐 수 없다.

(2)

이렇듯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네들은 소위 국제 평화세력이라 하여 평화의 옹호자임을 선전한다.

소련이 침략주의자라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서 사실적으로나 명확하게 증명된 바와 같다(전호참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피해적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주의자라고 의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를 공산화

하기 위해서다. 평화를 옹호하면서 어떻게 세계의 공산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평화에 대한 공산주의적 해석을 파악함으로써 가늠해진다.

공산주의자들의 해석으로는 평화는 문자 그대로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해방」이란 말이 「自由」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공산화」를 의미하는 말인 파 같이 「평화」란 다름 아닌 「공산주의」의 세계정부를 의미한다.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공산국이 벌어진다고 있는 것은 부당한 투쟁이 벌여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자본가와 자본가의 투쟁·상충이 단감없이 계속되고 있으니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표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야말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고 이러한 위협은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가 저상에 실현된다야 살아야 하게 되고 평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의지는 리틀 파악하고 보면 앞서 지적한 일련의 평화운동이 기실 인류사회의 진정한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의 공산화를 위한 운동의 일환임이 명백한 것이다.

그들의 선전문에서 「평화」라는 두 글자를 모두 「共産化」란 말로 대치해서 파악하면 리틀이 없는 것이다. 六·二五의 한국전쟁 도발도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전쟁도발 문평화의 유린의 아니라 진정한 평화

(공산화)를 위한 일련의 무력적 시도에 불과하게 된다.

소련전차가 부다페스트市를 휩쓸고 「自由」를 전유하는 시련을 학살한 것도 中共軍의 대부대가 티베트를 식권함으로써 긴장상태가 촉발되고 세계의 여론이 들끓어도 그것은 침략이 아니된다. 「공산당」의 세계정부를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3)

一九五二年 스탈린은 마렌코프의 입을 빌려 「소련」은 자본주의와 평화적인 공존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소련은 그의(공산주의) 이 메오르기나 그의(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의 도를 가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후르시호프는 집권이래 국제정장을 완화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라 하고 이른바 談合에 의한 문제의 해결을 부르짖으며 심지어는 「우리를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병변을 해소시키는 것을 우리들의 일정한 의무로 생각한다」고까지 선언하고 있다. 배제를 극구 주장하고 있다.

후르시호프는 一九五九年 이러한 주장을 실천이나 하려는 듯이 「켈프 데이비드」로 아. 켈러와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 말끝마다 평화론내세우고는 아이크와의 공중, 플루니케에까지 「모든 국제문제가 힘의 행사에 의해서 아니라 협상을 통한 평화적 수단에서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보았다. 「는 말을 삼일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일찌기 폐년의 투쟁 원리로 되어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전대로 양립하여 존재할 수가 없다...이 두세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언젠가는 그 어느 한편에서 장승행진곡을 드높이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쟁 불가피론은 또 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끔케 한다.

그러나 사실은, 청반대다. 그들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잊은 것도 아니고 세계정복의 야망을 버린 것도 아니다.

이것은 八개국이나 되는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면의 국제정세 및 그들의 평화문제들을 토의하고 참석자들의 관점을 일치시켰다고 하는 八十一개국 공산정상회담 선언문의 일절을 인용해 보면 더욱 명백할 것이다. 『社會制度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평화공존이나 또는 파피적 전쟁이나 하는 문제가 오늘 여기 가로 놓여 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노선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諸國間の 평화공존은 결코 수정주의자들이 하고 있듯이 제국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평화공존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국가간의 제국주의의 一形態다.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평화공존은 결코 사회주의 사상과 부르조아 사상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적화를 위한 그들의 투쟁야욕이 평화의 가변을

쓰고 도사리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침략의 야욕에 가득찬 적화정체를 평화의 이름으로 도장하려고 하는가?

그들의 노리는 것은 진상상태를 완화함으로써 對공산진영에의 경제심을 약화시켜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의 불화를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스탈린은 일찌기 그의 저서속에 서 두개의 상이한 질서를 가진 세계의 관계를 논하여 「자본주의 국가간의 모순은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간의 모순보다 크다. 그리고 자본주의 제국이 쉽게 결합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재에 있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 시장경제권에서 경쟁상태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희망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모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가들은 소련과의 전쟁이 자기들 내부간의 싸움보다 자본주의의 명멸에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련과의 전쟁이 어떤 강국들의 집단이 다른 집단을 압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주의자들은 소련의 침략의도를 내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서도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침략의도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그들의 침략행위가 계속해

서 자유진영에 의해 할 수 없이 반아들이 질 것이라고 자기류의 해석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一九五〇년 한국전쟁 이후에 표시된 자유세계의 단결과 힘의 반발로 완전히 오류임이 발견되고 사태는 그가 전망한 정반대로 一轉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스탈린은 평화공존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자본주의 세계를 평화의 환상속에 도루시킴으로써 전쟁을 회피하고 그동안에 시간을 얻어 소련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자본주의와의 최후적인 일대결전에 대비하려 하였다.

이것이 후르시초프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핵무기 등 중무기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쟁도발이 공산주의를 포함한 전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마다론 국면에서로서 사태를 유도해 갔고, 이러한 새로운 사태의 발전은 소련으로 하여금 이 마다론 골목에서의 出口를 평화공존정책의 강화에서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평화공존 —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평화를 유달리 사랑해서 주장된 것도 아니고 세계현명의 부표를 포기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자본주의 진영에 굴복해서 문제된 것도 아니다.

후르시초프의 말대로 「우리(공산주의)가 맘스-데인주의를 포기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바다의 새우가 휘파람을 부는 세상 이럴망정 이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생의 부탁

영국의 부작집 아틀한 사람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三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는 파피에서 유배되어 학자에게 열심히 어학을 배웠다. 그런데 원래 머리가 둔하고 재주가 없는 위인인지라 아무리 가르쳐도 도루지 진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이터는 동안에 약속한 三년이 지나던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선생을 찾아가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그동안 선생을 많이 접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불문학자로 행세를 하게 되었으니 까 선생님의 은혜가 배산갈습니다. 돌아가면 무엇보다도 먼저 선생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께서서는 무엇을 요구 하시니까?」 하고 자기집이 부자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였다. 선생은 쓴웃음을 짓더니, 「대우 고맙네.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 부탁이 주겠나?」 하고 다짐해 물었다. 「사양 말고 말씀하십시오. 아무리 이러한 일이라도 꼭 하겠읍니다.」 「그렇다면 말하지.」 하고 말을 꺼낸 선생의 부탁이 관 다름과 같은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고향에 가거든 프랑스에 와서 내에게 불어(佛語)를 배웠잖. 말은 아예 입밖내 내지 말아주게. 그게 무엇보다도 나를 돕는 일인데.」

# 포도 이야기

〈科學〉



李鍾珍

☆農博·서울大教授

여름철에는 여러가지 果實(果實)이 많이나와 果樹(果樹)들은 지난봄의 結實(結實)을 맺으려고 한다.

이러한 果實(果實)로 만든 果實酒(果實酒)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자.

果實(果實)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대로서로 먹는 것만을 連想(連想)할 것이다. 그러나 世界(世界)中 第一(第一)의 果實(果實)이 아니라 第一(第一)의 果實(果實)이 아니다. 그러나 世界(世界)中 第一(第一)의 果實(果實)이 아니라 第一(第一)의 果實(果實)이 아니다. 그러나 世界(世界)中 第一(第一)의 果實(果實)이 아니라 第一(第一)의 果實(果實)이 아니다.

포도(葡萄)의 原料(原料)로서 適當(適當)한 것은 없다. 술(酒)을 담그는 法(法)으로 보면 다른 포도(葡萄)는 單醱(單醱)酒(酒)에 속한다. 포도(葡萄)주에 포도(葡萄)의 自然(自然)의 成分(成分)이 있는 醱母(醱母)란 繁殖(繁殖)시키고 머우(머우)기만 하면 포도(葡萄)中(中)의 糖分(糖分)은 生化學(生化學)의 變化(變化)를 이르게 하여 알콜(알콜)을 주(주) 술(술)이 된다. 머우(머우)기 포도(葡萄)는 果汁(果汁)을 얻기가 쉽고, 酸(酸)이 있어서 比較(比較)의 有害(有害)菌(菌)으로 侵犯(侵犯)되지 않는다. 特別(特別) 未關(未關)의 人類(人類)가 술(酒)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들기가 쉬운 原料(原料)는 따로 없었던 것이다. 술(酒)은 飲食物(飲食物)과 달라서 醉(醉)한

다는 이상한 作用(作用)을 가져오기 때문에 未關(未關)인들은 이것을 神(神)이 마시는 것으로서 所重(所重)히 했다. 祭祀(祭祀)날에는 男女(男女)老少(老少)할 것없이 한독에 담겨 놓은 술(酒)을 마시고 이상한 興奮(興奮)에 빠져서 神(神)과 相通(相通)하는 어떠한 氣分(氣分)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술(酒)을 만들 原料(原料)로서 포도(葡萄)는 未關(未關)인에게는 大端(大端)히 所重(所重)했던 것이다. 人類(人類)는 中央(中央)아세아에서 發生(發生)해서 漸次(漸次) 地球(地球)상에 퍼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初期(初期)의 人類(人類)中(中)에서 歐羅巴(歐羅巴)로 向(向)한 種族(種族)들이 移動(移動)하여 포도(葡萄)알(알)을 發見(發見)하고 포도(葡萄)酒(酒)을 처음으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小亞細亞(小亞細亞) 地方(地方)이 포도(葡萄)의 原産地(原産地)라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포도(葡萄)의 栽培(栽培)와 포도(葡萄)酒(酒)의 釀造(釀造)는 埃及(埃及)에서부터 希臘(希臘)으로 다시 로마, 이어서 佛蘭西(佛蘭西), 獨逸(獨逸), 西班牙(西班牙), 葡萄牙(葡萄牙) 등 主로 歐洲(歐洲)에서 開花(開花)된 셈이다. 또 史記(史記)에 의하면 포도(葡萄)가 亞細亞(亞細亞) 特別(特別)히 中國(中國)에 들어온 것은 歷史(歷史)가 比較(比較)의 앞으로 西漢(西漢)의 武帝(武帝)라고 하며 西部(西部) 地域(地域)부터 들어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韓國(韓國)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 훨씬 後(後)일 것이다. 그

란데 現在(現在) 栽培(栽培)되고 있는 포도(葡萄)의 原産地(原産地)는 두 곳이 있다. 即(即) 舊大陸(舊大陸)의 小亞細亞(小亞細亞) 地方(地方)과 新大陸(新大陸)인 美洲(美洲)의 大西洋(大西洋) 沿岸(沿岸) 濕地(濕地)帶(帶)이다. 小亞細亞(小亞細亞)에 起源(起源)을 가진 포도(葡萄)는 學名(學名)을 Vitis vinifera라고 부르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歐洲(歐洲)로 向(向)하여 移動(移動)한 種族(種族)에 의해서 發見(發見)되었고 포도(葡萄)酒(酒)의 貴重(貴重)한 原料(原料)로 쓰였던 것이다. 지금도 포도(葡萄)酒(酒)의 原料(原料)는 主로(主로) 이 系統(系統)의 비니페라系(系) 포도(葡萄)이며 歐羅巴(歐羅巴)에서 포도(葡萄)酒(酒)을 포도(葡萄)로서 發展(發展)했기 때문에 歐洲(歐洲)系(系) 포도(葡萄)라고도 한다. 또한 나의 新大陸(新大陸)을 原産地(原産地)로 하는 포도(葡萄)는 아메리카大陸(大陸)의 發見(發見)移住(移住)가 始作(始作)된 때까지 아메리카大陸(大陸)의 大西洋(大西洋) 沿岸(沿岸) 濕地(濕地)帶(帶)에 野生(野生)하고 있었던 것이다. 學名(學名)을 Vitis labrusca라고 하며 그밖에 여러가지 系統(系統)의 것이 있다. 歐洲(歐洲)系(系) 포도(葡萄)와 같이 單一(單一)한 系統(系統)의 것은 아니다. 歐羅巴(歐羅巴) 傳統(傳統)을 자랑하는 포도(葡萄)酒(酒) 釀造(釀造)業者(業者)들은 美國(美國)系(系)의 포도(葡萄)를 쓰지 않는다. 또한 歐洲(歐洲)系(系) 포도(葡萄)와 美國(美國)系(系)의 포도(葡萄)를 比較(比較)해 본다면, 포도(葡萄)酒(酒) 原料(原料)로서는 斷然(斷然)히 歐洲(歐洲)系(系) 포도(葡萄)가 좋다.

즉 포도(葡萄)는 香氣(香氣)가 높고 맛이 좋다. 이 이야기는 우리 韓國(韓國)에서 포도(葡萄)酒(酒) 生産(生産)을 계획할 때에도 대단히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의 一般(一般)常識(常識)으로 는 포도(葡萄)酒(酒)는 「맛있고 달콤한 술」로 되어 있다. 歐洲(歐洲) 文化(文化) 史(史)에서 必需(必需)品(品)이었던 포도(葡萄)는 이렇게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포도(葡萄)에다 알코올(알코올) 砂糖(砂糖), 色素(色素) 같은 것을 붙여서 量(量)을 늘리고 模造(模造)한 甘味(甘味) 포도(葡萄)酒(酒)만이 포도(葡萄)酒(酒)로서 認識(認識)되고 있다.

佛蘭西(佛蘭西)의 代表(代表)의 포도(葡萄)酒(酒) 産地(産地)는 볼도(볼도)시이고 北美(北美) 魏爾(魏爾) 포니아州(州)는 北美(北美) 포도(葡萄) 生産(生産)의 約(約) 九割(九割)을 獨占(獨占)하고 있고 栽培(栽培) 포도(葡萄)는 歐洲(歐洲)系(系) 포도(葡萄)라고 한다. 佛蘭西(佛蘭西)의 볼도(볼도)시, 魏爾(魏爾) 포니아州(州)의 푸레스노(푸레스노)시와 우리나라의 氣溫(氣溫), 降雨(降雨)量(量)을 比較(比較)해보면 韓國(韓國)에서는 여름에 가물고 겨울에 大體(大體)적으로 따뜻한 해에는 포도(葡萄)도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해에는 잘 되지 않고 볼도(볼도)시나, 푸레스노(푸레스노)시는 겨울 氣溫(氣溫)도 攝氏(攝氏) 五度(五度) 이상인 데다가 四月(四月)부터 十月(十月)까지는 大略(大略) 攝氏(攝氏) 一五度(一五度) 이상 二八度(二八度)를 上下(上下)하고 있고 降雨(降雨)量(量)도 볼도(볼도)시에는 年中(年中) 量(量) 通(通)해서 約(約) 五〇mm(五〇mm)부터 九〇mm(九〇mm)까지, 푸레스노(푸레스노)시는 十二月(十二月)부터 三月(三月)까지는 五〇mm(五〇mm) 정도였다가 四月(四月)부터 十一月(十一月) 사이는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氣象(氣象)의 條件(條件)이 우리나라의 포도(葡萄) 栽培(栽培)를 힘들게 만들 고 머우(머우)기 優良(優良) 種(種)의 포도(葡萄) 栽培(栽培)가 불가능한 最大(最大)의 原因(原因)이다. 포도(葡萄) 酒(酒)을 담그려면 歐洲(歐洲)系(系) 포도(葡萄)를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系統(系統)의 포도(葡萄)는 歐亞(歐亞)의 夏乾(夏乾) 地帶(地帶)에서 재배되는 포도(葡萄)이므로 夏節(夏節)에 비가 많이 오면 病(病) 害(害)를 입고 收穫(收穫)이 激減(激減)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主로(主로) 多溫(多溫) 性(性)에도 低抗(低抗)性(性)이 強(強)하고 耐病(耐病) 害(害) 性(性)도 強(強)한 美國(美國)系(系) 포도(葡萄)와 이 系統(系統)과 歐洲(歐洲)系(系) 포도(葡萄)의 間(間) 生(生) 種(種)에 依存(依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포도(葡萄) 生産(生産)은 地理(地理) 條件(條件)이 比較(比較)의 좋은 곳으로서 極限(極限)의 고만 것이다. 이러한 理(理) 由(由)로서 우리나라의 포도(葡萄)酒(酒)의 品質(品質)은 低下(低下)되기 쉽다. 이 問題(問題)는 앞으로 栽培(栽培) 釀造(釀造) 技術(技術)을 業者(業者)들이 發展(發展)

시키고, 病虫害豫防의 新藥의 普及 抗生物質과 原子力의 園藝方面에의 進出等으로 酒의 自體의 品質 向上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人類가 처음으로 만든 술은 포도 酒 같은 單酸醇酒였고, 歐洲로 移動하는 種族이 途中發見한 포도술 만드는데 貴重材料로서 使用했기 때문에 歐洲 各處에서 歐洲文化의 發展 에 아울러 포도酒도 發展해 왔다. 따라서 포도酒는 大端히 오랜 歷史 를 가지고 있으나 포도酒에 關聯 된 神話는 相當히 많다.

埃及神話에서는 主神 오시리스가 포도 栽培와 포도酒釀造法을 가르쳐 주었고, 希臘神話에서는 디오니 소스神이, 小亞細亞 地方을 旅行하 며서 釀造法을 배워가서 돌아와서 民間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또 헤브라이 민족의 傳承 을 써놓았다고도 解釋할 수 있는 舊 約聖書에서는 그 創世記에다가 「노 아가 포도酒에 醉해서 天幕속에서 잤다」라는 말이 있다. 史蹟을 더듬어 보면 古代文明이 한참이었던 埃及, 希臘, 羅馬, 바비론 같은 곳에 포도나 포도酒에 對한 彫刻壁畫等 이 많이 있고 포도酒用 술잔 같은 美術工藝品이 있다. 羅馬에는 希臘을 거쳐서 포도酒釀造技術이 드 러났고, 羅馬가 大羅馬帝國이 野望 에 불타서 版圖를 歐羅巴에다가 擴大함에 따라서 포도栽培, 포도酒釀 造도 擴大해 갔다.

크리스트敎와 포도酒外의 關係를 보면 예수께서 포도酒는 나의 피니라 한 것으로서도 明白한 바와 같이 참말로 密接하고 크리스트敎가

全歐洲에 널리 퍼지는 歷史는 포도 酒가 發展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中世紀의 포도酒의 繁榮은 크리스 트敎僧院, 王侯貴族의 保護育成의 덕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이러한 歷史과정은 거쳐 포도酒는 佛蘭西 라는 最適地를 發見하고 이곳에 분 도, 불간디, 샴파뉴 등의 銘釀地 를 만들고, 다시 獨逸에서는 라인, 뮈셀地方을 포도酒의 名產地로서 開花시킨 것이다. 南歐羅巴의 스페 인에서는 세리노酒, 폴도갈에서 는 포트와인이라는 각각 特殊한 釀造 法에 의한 포도酒가 발달되었다.

다시 時代가 흘러서 西洋各國의 植民地獲得競争이 始作되고, 아프리카大陸, 오스트라리아, 아메리카大陸 같은 곳에 西洋사람들이移住 하는 데 따라서 이러한 植民地에서 도 포도栽培가 始作되어 포도酒釀 造를 하게 되었다. 北阿말제리아, 南 아프리카聯邦, 오스트라리아, 카나다, 北米켄리포니아州, 中南美諸 國 같은 곳에서 現在 大的으로 포도酒生産이 되고 있는 것도 植民地 時代부터 始作된 것이다. 포도酒에 는 어떠한 作用이 있는가?

포도酒 以外의 술에서는 分類하고 하는 것은 그다지 重要한 問題 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도酒에 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歐羅巴의 거의 全土에 퍼져서, 그나라 그나 라의 風土라는가 民族性같은 微妙 한 差異中에서 오랜 歲月을 거쳐서 위진 술이기에 때문에 製造法에서나 香味나 成分에서나, 大端히 型態가 다른 포도酒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化學的 成分을 爲主로

해서 分類하여 보기로 한다. 色장에 따라서 赤포도酒(Red wine)와 白포도酒(White wine)로 나 누어진다. 前者는 赤色 또는 黑色 의 포도정질에 들어있는 色素를 술 液中으로 옮겨 놓아내서 붉은 빛을 띠우게 한 것이고 白포도酒는 主로 綠色포도의 果汁을 釀酵시킨 것이 더 옅은 黃色을 띠운다. 이 두 포도 酒는 釀造法에 있어 重要한 差가 있고 그것 때문에 赤포도酒에서는 붉은 色素 以外에 탄닌이 果皮로 부 터 녹아나와서 옅은 맛이 있는 것 이 特色이다. 白포도酒에서는 탄닌 이 果皮에서 녹아나오지 않기 때 문에 옅은 맛은 전혀 없다. 이와 같 은 特色이 重要한 것이지만, 方法 에 따라서도 明白히 들린 점 이 나타난다. 即 白포도酒에 알맞는 料理는 魚貝類等 淡泊한 醃漬의 고 기가 좋고 赤포도酒에서는 붉은 살 이, 獨逸의 옛말에도 「진술에는 쇠 고기, 붉은 술에는 붉은 고기」라는 말이 있다. 또 마시는 順序도 白포도酒를 마시고 다음에 赤포도酒를 마신다. 이것을 거꾸로 한다면 赤포도 酒의 옅은 맛 때문에 허가 疲勞 하고 포도酒의 微妙한 香氣를 맛볼 수가 없다.

다음에 糖分의 量에 따라서 생포도 酒와 甘味포도酒로 나누어진다. 即 英語에서 말하는 드라이·와인 과 스위트·와인이다. 一般의 포도 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와인, 即 糖分이 거의 없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가 없는 포도酒를 말한다. 即 드라이·와인은 포도果汁의 糖 分이 거의 完全히 釀酵하여 알콜로 化한 것이고 比重도 〇·九九〇乃 至 一·〇〇〇附近의 糖分이 많 다. 그러나 남아있는 糖分은 赤포도酒와 白포도酒에서는 같은 드라이·와인 이라도 多少의 差가 있다. 赤포도 酒에서는 남아있는 糖分 〇·三乃 以下지마는, 白포도酒에서는 二乃 至 三%의 糖分이 남아있고, 若干 달콤한 것도 드라이·와인으로서 取 扱된다. 드라이·와인은 普通, 食 事때에 마시게 되는 것이니까, 데 불·와인이라고 부를 때가 많고, 이 와 反對로 「스윗·와인」은 食事의 前後, 特別 食후에 마실 때가 많으 니까, 「디사이트·와인」이라고 부 르 때도 있다. 위에 이야기한 것 처 럼 포도酒는 主로 드라이·와인 即 데불·와인이다. 스위트·와인은 要 則 糖分이 一〇%前後의 단맛이 나는 포도酒이지만 그 製造法은 濃度의 果汁의 釀酵途中에 高 알콜濃도의 부란제이를 섞어서 釀 酵을停止시킨 것, 혹은 드라이· 와인에다가 뒤에 濃縮果汁을 섞은 것 등 가지각색이다.

새마음 새돈으로

복된 살림 누려 보자

南美洲에 있는 世界 最大의

# 이구아스瀑布

하 리 바 트

一五四二년에 피자로가 페루에서 죽은지 一년후 알바·D·바카라는 스페인의 탐험가가 소수의 호위병을 데리고 오늘날 부라질과 알젠틴 그리고 파라과이 세나라의 국경을 흐르고 있는 파다나강(江)을 따라 탐험여행을 하였는데 그는 이제까지 이처럼 아름다운 장관을 본 일이 없었다. 강은 아름다운 꽃밭속을 누비며 흐르고 강(蘭)이 나무까지 사이로 이어져서 때를 자랑하고 밤에는 표범이 물음을 퍼뜨리고 강기슭을 어슬렁거렸다.

그날 강의 유난히 깊고 조용히 흐르는 곳에 이르자 얼마 안떨어진 천방(前方)에서 무시무시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두터우면서도 배를 타고 모퉁이를 돌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고 그 앞

리를 내면서 멀리 보고 있었다. 탐험대원(探險隊員)들은 배가 못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재빨리 노를 저어 강기슭으로 올라간 다음 안개 자욱한 곳속을 내리다 볼 수 있는 데까지 철척철척한 바위 위를 엉금엉금 기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날은 발견사상(發見史上) 기록이던 되어야 할 날이었다. 더구나 바카와 그 부하들은 그날 백인(白人)들이 이제까지 보아온 어떤 폭포보다도 큰 폭포——이구아스폭포——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百四十年동안 스나리아가 라 푸포는 一六七八년까지 발견되지 못하였다. 이 폭포는 그장대(壯大)함에 있어서 다른 폭포의 추종(追從)을 불허(不許)하였다. 지난번 나이가 라 푸포 이야기에서 대충 어떠한 점에 대해서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강이(驚異的)인 경치를 보고자한다면 페루에서 남아메리카의 서해안(西海岸)을 남항(南航)하여 케리향(西)에 상륙해서 거기서 다시 기차로 안페스산맥을 횡단(橫斷)하여 다음에 배편으로 파다나강(江)을 뱃길로 쫓아 올라라가자 알은 편안 된다. 강기슭에 상륙하는 것은 발음이 된다. 동근달이 하늘의 걸려있는 발길을 말하고 밀림(密林)속(소로)小路를 十

六키로쯤 가다가 말에서 내려 안내인의 인도를 받으며 도보(徒步)로 절벽을 따라 내려간다. 다시 바위위에 생긴 좁은 길을 더듬어 내려오면 폭음이 들려 온다. 이 소리는 앞으로 나갈 수

목 점점 더 커지며 이내 폭이 몇키로 좁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심연(深淵) 옆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분명히 이 구아스폭포 옆에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경이 처음에는 진실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흡사히 거인(巨人)들의 몸나를 들여다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끊임없이 들려오는 폭음은 바람과 안개를 타고 겨우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

막대한 양(量)의 물이 경쾌한 지평선 저쪽에서 흘러와서 발밑의 거대한 골짜기로 떨어진다. 이 강은 부라질의 조용한 삼림(森林)속을 이리저리 흘러 이 높은 언덕바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 고원(高原)의 강은 얼마 후에는 저지(低地)의 파라나강 큰 물결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안고나 있어 이 도제(道程)에서 하나의 크라이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이구아스 폭포 안 것이다. 이 폭포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의 수고(巔高)한 아름다움은 다른 어떠한 강도 따를 수 없는 세계의 경(驚異)가 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마도 이것을 본 사람은 인제까지 지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구아스의 폭포는 이러한 영광을 다하기 위하여 저지하고도 당당히 다하(落下)하여 부처처럼 흐르고 있다. 이 폭포는 그 급류(急流)를 완전히 수중(手中)에 넣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리 곤지지도 않거나 미친듯이 설치지도 않은 채 조용히 개개 줄줄이릴 수 있는 물줄기로 갈라져 내려가다가 낙하(落下)할 장소에 이르러 일시에 힘찬 평평을 받은 것처럼 기리

六千미터의 단애(斷崖)를 따라 장대한 폭포가 되어 환희(歡喜)의 부르짖음을 울리면서 밀의 연못속으로 뛰어 내리는 것이다.

원시적(原始的) 돌판을 정박중에 찾아온 우리들은 달빛이 어린 이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져 경탄하며 나이가 라 폭포를 보았을 때 느낀 감흥을 다시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구아스는 나이가라보다 폭이 두배나 넓으며 사방에서 떨어지는 수심(水深)은 十八미터나 된다. 우기(雨季)에는 수량(水量)이 더 불지만 우리들이 찾아온 때는 홍수(洪水期)가 조금 지난 뒤였으나 다른 계절에는 수량이 훨씬 줄어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구아스 폭포는 남아메리카의 경(驚異)인 나이가라보다 百三十六년 전이고 남아메리카의 빅토리아보다 三百四十三년 전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폭포 가운데서 가장 알려져 있지 않다. 드·바카가 이 폭포를 발견한 이래 약 二百年 동안은 인근에의 인도소(傳道所)를 설치한 제스티트(派)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구라파에 전해졌었는데 一七四〇년경 제스티트파 사람들이 추방되고 인도소를 불태워 없앤 다음부터는 이 세계의 경이 존재는 아주 망각(忘却)되어 버렸으며 다시금 문명의 햇빛을 받은 것은 겨우 二十세기 초엽(初葉)에 들어서서 부터이다.

달빛 것드린 한밤중에 도착한 우리들은 다음날 인디언의 안내인——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드·바카를 안내하였던 사람들의 자손이다——의 안내로 폭포의 탐험(探險)진출 때

달빛 것드린 한밤중에 도착한 우리들은 다음날 인디언의 안내인——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드·바카를 안내하였던 사람들의 자손이다——의 안내로 폭포의 탐험(探險)진출 때

다. 우리들은 폭포의 언저리와 벽이 접해있는 곳에 서서 그 천에 스며있는 물결자가 '가루간다·떨·디아부르' (약간의 목구멍이라는 뜻)라고 이름지은 근원(源泉)을 내려다 본다. 큰 강물이 부서져 떨어지는 광경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또한 커다란 매력이기도 하다. 울려 퍼지는 소리는 나이가 가라 폭포가 무색할 정도로 크다. 그러나 이 폭포는 중년쯤 되는 때 서충중 바위를 내리치고 다시 三十三히터쯤 되는 두개의 폭포——그것은 나이가 가라 보다 十五미터 가량 앞다——로 나누어진다.

안내인은 폭포 밑바닥 좌우에 바다물처럼 점재(點在)해 있는 석에 보트를 타고 가 볼 것을 우리들에게 열심히 권한다. 모든 것을 피내려 보내려는 강물가에 엉성한 통나무배를 타고 폭포 언뿔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부지나 미친놈의 수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안내인은 몇번이고 가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말한다.

우리들은 제각기 노를 손에 잡고 폭포위 百미터 남짓한 곳을 물결기를 향해서 물진한다. 그 동안 자기들의 팔힘이 급류(急流)에 지지 않을 빌면서, 그것은 흥분의 특안으로 화한 한 필사(必死)의 싸움이다. 위태롭게 도 바위에 부딪칠 때도 하고 피내려오는 통나무 토막에 부딪칠 경우도 있다. 우리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 노를 짓는다. 어떻게든지 저 최초의 섬에 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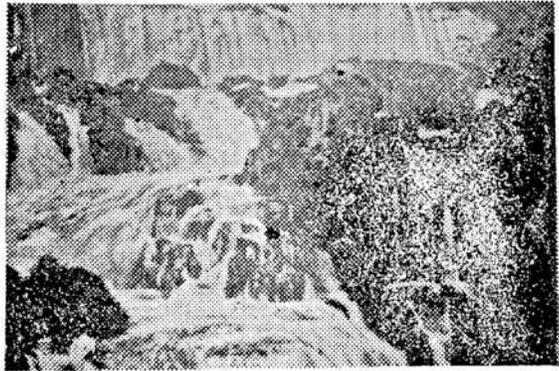
로 뛰어들라 했다. 야생(野生)의 물우리가 좀처럼 찾아오는 일 없는 사람의 모습과 보고 허둥지둥 수풀속에서 날아가 버린다. 인디안은 이 밀림(密林)으로 뒤덮인 심은 큰 배들의 절호(絶好)의 서식처(棲息處)라고 주의를 환기한다. 우리들은 어느 한 마리의 방문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리들은 섬에서 섬으로 건너가 거의 폭포의 중앙부에 다달았다. 거기서 는 양쪽 기슭까지 각각 한마일——나이가 가라와 같은 폭——이 된다. 눈앞에는 사암 그림자 하나도 없었다. 우리들은 그 옛날 드·바카가 본 그대로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들이 상으로 두려움을 느꼈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 우리들도 또한 완전하얗도(壓倒)된 채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이 구아스를 대충적으로 말하자면 나이가 가라와 같이 마제형(馬蹄形)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폭포는 나이가 가라처럼 막대한 수량(水量)이 두갈래로 집중해서 낙하(落下)하는 것이 아니고 몇백갈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폭포 밑바닥에 점재(點在)하는 작은 섬들 때문에 몇가닥으로 갈라진 이들 급류는 중턱까지 낙하하다가 바위에 부딪쳐 다시 한데로 모인다.

몇가닥으로 쪼개진 급류는 제각기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있는데 그 음색(音色)은 저마다 달라서 높고 혹은 낮아 백뢰(百雷)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저미늘과도 같이 가냘픈 메로리로 들리는 것도 있

다. 그러나 이것들은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일대 교향악(交響樂)이 되고 관현악(管弦樂)이 되고 일대 합창단이 되어 유사(有史)이래 끊임없이 같은 음악율이 넘고 넘은 들판의 울려 코—라스를 이루고 있다. 우리들은 이 구아스의 폭포가 아직



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 전에 방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젠틴과 부라질 두나라는 이 삼림지대(森林地帶)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력(電力)의 필요상 발전소라면가 댐이나 동력선(動力線)을 건설코자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기에는 안개와 이끼로 뒤덮인 거목(巨木)이 번무(繁茂)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서서 달빛의 빛나는 물줄기를 보고 있는 이유에는 나이가 가라에서 본 것 같은 값싼 호멸의 날어서고 표범은 사살되고 아름다운 날개를 지닌 날짐승들은 달아나 버려 장엄한 느낌은 아주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구아스의 폭포가 아무리 근대화(近代化) 되더라도 우리들이 처음으로 달빛 아래서 본 것처럼 그대로의 광휘로움과 자유분방한 거대한 폭포의 모습을 그럴 수는 있을 것이다.

(譯者註——一九五三年, 가을 어느 신문사 투파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앞젠틴의 수도(首都)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나홀만큼씩 이 구아스행의 비행기가 다니며 비행시간 七시간으로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으며 비행장 근처에는 현대적인 구영(國營) 호텔도 건설되어 폭포 낙하구(落下口)에 있는 매소의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중에 있는데 부라질쪽 도 또한 구영공원으로 지정하고 百六十실(室)이나 되는 현대적인 호텔을 건설중이라고 하니 오늘날은 하리바론이 가을 때 보기도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사건은 이 구아스 폭포

# 권인 과 명

趙、豐、衍

## 앞

으로 이 세상에서 전쟁의 우려가 티끌만큼도 없었음을 때론 군대는 필요할 것인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류와 인류와의 전쟁이 없어도, 자연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교통사고와의 전쟁, 그리고 무질서와의 전쟁은 영구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훈련 받고 세련된 집단은 항상 조직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재앙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 훈련받고 세련된 집단, 이것이 군대다. 그때까지는 군이라는 명칭이 잘릴지 모르며 개념도 달라질지 모르나, 어쨌든 항상 무장되어 있는 힘에는 지금과 다름이 없으리라.

군대의 특징은 『제복을 입은 사나이들』에 있다. (원대에는 여군이 있으니, 사나이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제복을 가드린다고 단정히 할 수 없으나, 때가 상관호령에 따라 평소와 같은 동작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유사시(전시)에는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같이 보여도 그것은 통일된 작전에 쫓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결코 산발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군대의 미(美)는 집단행동에 있는 것이며, 통제된 행동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통제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유를 몹시 사랑하며, 개성을 존중하는 나머지 집단행위의 미란 통제된 미이기 때문에 싫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스런의 스포츠에 든다. 소련뿐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의 스포츠에선 「메스」 게임이 일동하게 발달되었는데, 이야말로 통제된 스포츠이기 때문에, 개성을 살리는 스포츠에 비하여 인

공적이며, 위압적이라고 한다. 인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되나, 소련의 「메스 게임」의 성리(性理)가 곧 집단 행위 전체를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자유롭고 개성이 자기 뚜렷한 세계에야말로 그 자유와 개성을 누리기 위해 통제된 부분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는 부정부주의와 다르다. 자유와 개성을 보존하는 통제된 집단이 정부이다.

대개 이상과 같은 논리에서 나는 「군대발전론」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다. 그런데 군대를 구성하는 분자는 말한 것도 없이 자개의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은 군대라는 집단 조직의 한 구성 분자일뿐, 개성은 없느냐 하면 그럴 수가 없다. 강한 군대는 강한 개성을 지닌 분자들의 구성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이치란 재미있는 것이다.

한대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무기는 물론 화력이다. 그렇지만 화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군인의 사기라 할 것이다. 화력으로 대결하는 전투의 시간은 해무기로 전쟁하는 시대에는 점점 단축된다.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일순에 전투의 승패가 결정될는지 모른다. 이 무시무시한 전투를 안 일게 하는 것이 군대다. 현대의 군대는 공격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방위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수동적(受動的)으로만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스스로 최의 공격을 맞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장비를 보유해야 된다. 강한 장비에는 군인들의 사기가 보다 위력을 지닌 무기가 더

그사기는 자개 군인의 개성에 의존한다.

구 개성이 평민과 다를 때가 많다. 그 까닭은 역시 「제복을 입은 사나이」라는 틀속에 한발은 도상들의 높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는 호들갑하고, 장직하고, 어느 때는 눈물겹고 무르다. 여기에 군인의 멋이 깃들이는 법이다. 흔히 군인은 목숨을 초개 같이 아는 듯이 여기기 쉬우나 아무렇게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개죽음도 좋다 면야 그것은 필경 번거송이가 아니면 장파일 것이다. 군인의 생명관은 첫째 남을 위해 죽는 것이요, 둘째 보람있게 죽는 것이다. 죽음이란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고, 죽는 마당이 이처럼 화려한 데서, 철학이 안나온다면 거짓말이다.

유모터스한 점에서 평민의 군인을 따르기가 어렵다. 그것은 군인이 상인(商人)처럼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一八七〇년으로부터 一년 남짓 벌어진 독불(獨佛) 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비스탐 후작은 황제 뒤르른를 一 세로부터 적전에서 용감히 싸운 어느 병사에게 철십자훈장 제1급(鐵十字勳章第一級)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

다. 이 때 그는 훈장 받는 병사를 좀 불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서, 『만약 비가 돈에 구할 때라면 너는 십자훈장보다도 一백 달라 돈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후장은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이옵니까?』  
하는 병사의 질문에, 비스탐은 대답하였다.

『병에 있는 표창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끝없는 三달타라 가량의 값은 될 것이네.』  
그러니까 병사가 말했다.

『그러하면 九十七 달타라와, 훈장을 주셨으면 합니다.』  
비스탐은 이 병사의 재치에 놀라 웃으면서 양쪽을 다 주었다고 한다.

이 일화(逸話)는 육심 탐고 기저(機智) 있는 병사의 장난감아 보이나 능구렁이가 다 된 정치가 비스탐 후작의 정솔한 가치 판단을 일격으로 후려쳐 버리거나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그 상사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는. 참에서 후세의 남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곧 군인의 멋의 한 단편(斷片)이라고 볼 수 없을까.

제 1차 대전의 유명한 독일의 장군 「한스 폰 예제라」 백작은 어느 때 김소한 평복을 입고 기차를 탔다. 그러고는 씨-거(葉煙草)를 맛있게 피우고 있었다.

때마침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정복한 중위에게는 장군이 피우는 씨-거의 냄새가 별로 좋게 안 여겨진 모양이다.

앞에 앉은 이가 유명한 장군인 줄 전혀 모르는 중위는 드디어 참지 못하여 자기 담배갑에서 씨-거 하나를 꺼내 주면서

『여보시오 이 담배를 피워 보시오……당신의 그 담배는 도저히 훌륭한 사회에서는 차마 못 피울 거

란 말도.』

장군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중위가 준 씨-거를 한개 받아서 자기 포켓에 넣어 버렸다. 그러면서 자기 담배는 연방 피우고 있었다.

『여보당신 내가 준 담배를 피우라니까.』

하고 중위는 성내어 외쳤다.  
그러니까 장군이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 훌륭한 사회에 갈 때까지 아껴 피우겠소.』  
이 얘기에 중위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더 운치가 있다. 장군이 혼자만 알고 있었고 영리한 밝혀 저지는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본인인 중위에게는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드디어 장군의 입에서 이 말이 피지었다. 중위가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을 것인데 틀림이 없다.

『디글라스·베야르』 장군의 본국의 승환이 되어 일본군의 군사령부 제일호텔을 떠나게 되었다. 장군의 시종하던 부하들이 도일해서 전승한 때 장군은 호텔 문을 지키는 젊은 파수병의 눈에 눈물이 피인 것을 보았다. 장군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신문기와와 카페

라멘이 물려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파수병 보았더냐.』

『1년 5개월째 봅니다.』

『고향에 누가 계시나.』

『어머니가 한분 계시니다.』

『앞으로도 근무에 충실하라.』

『왜.』

드디어 그 젊은 파수병의 눈물은 뺨으로 점점 흘러내렸다.

군을 떠나는 최고의 군인이 그의 본거지인 사령부를 떠날 때 말을 전낸 것은 이 신병(新兵)인 파수병 하나뿐이다.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쓰

려지던 「오장원」에 가을 바람이 불었다더니만 이도 또한 그보다 못지 않은 서늘한 자취를 남겨주었다. 「백

아미 원수와 파수병」— 패퇴하는 장군엔 미할 말이 없다는 말이 이 일화의 것들이다.

군인의 멋이야기를 늘어놓자면 시간 있는대로 얼마든지 늘어놓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군인의 멋에는 한가지 특징이 있음을 일파 두고 나는 덧붙여야겠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복입은 사나」라는 전제(前提)에서만 그 멋은 사는 것이다. 그가 만약 제복을 벗어난다면 군인일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엄격한 규율아래 통제된 음

직인 속에서 인생의 한 단편(斷片)을 보여주는 탄력성이 그 멋을 살리고, 우리를 감명깊게 하는 것이다. 그러

니까 우라는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 언제나 「근부」울 떠나 상상하지는 않는다.

# 꿈과 현실

秋 菊 姬

◇ 梨大 教授

예

로부터 軍人의 美德은 勇氣에 萬難을 무릅쓰고 敵을 擊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一 必然歷史를 통하여 우리의 意識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말하자면 傳統的 觀念이 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軍人이라고 하면 먼저 용감무쌍한 勇氣를 생 각하게 되지 않는가 한다.

이러한 傳統的 觀念을 떠나서 事理로 따져본다고 해도 勇氣는 軍人의 第一美德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他國을 侵略하려는 目的을 주로 하여 두어진 軍人이진 他國의 侵犯을 막으려는 目的을 다지말해서 國防의 目的으로 두어진 軍人이진 間에 戰爭 혹은 戰爭狀態를豫想하고 이에 對備하여 두어진 것이 軍人이나만큼 軍人은 恒常 敵과의 對戰이 있을 것을豫想하고 平素에 늘 心身을 訓練해야 할 것이므로 勇氣는 軍人의 美德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라 勇氣와 아울러 軍人에게 必要한 것은 現實에 恒常 關心을 가지고 現實을 綿密하게 研究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무엇보다도 明白하다. 兵書에는 敵을 알고 나를 알면 百戰必勝이라 하였거니와 敵의 客觀의 條件과 心理의 條件 및 精神의 能力을 잘 把握하여야만 敵을 擊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軍人은 恒常 冷酷한 客觀의 現實에 留意하여 敏感해야 할 것이 要請된다.

그러나 여기서 도리켜 생각해보면 軍人은 결코 戰爭하는 機械가 아니라. 그도 하나의 Humanity를 가진人間이다. 文化가 高度로 發達됨에 따라 職業이 分化되며 이 分化는 더욱 細分되어 가는 傾向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자가 가지는 職業에 熟達하여 職業人으로서의 有能性을 지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有能한 職業人도人間이니 만큼 自由롭고 健全한 人間性을 阻害하지 않도록 職業陶冶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自由롭고 健全한 人間性에는 勇氣뿐만 아니라 優雅와 寬容도 속하여 있으며 現實에 留意하는 것뿐 아니라 한편 想像를 지닌 九萬里씩 한숨에 날 수 있는 所謂 北海의 大鵬새도 생각할만한 想像의 世界를 달릴만한 마음의 餘裕도 또한 다를아닌 人間性에 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事理가 이러하기 때문에 아마 「軍人과 꿈이란 題目이 나에게 주어질 듯도 싶다.

우리가 使用하는 말에는 그相當한 部分의 複雜한 暗示性(Allusion)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꿈」이라는 말이야말로 極히 複雜한 內容을 가지고 있는 상상이다. 心理學者 특히 無意識의 研究를 契機로 하여 나타난 所謂 「無意識學者의 「꿈」에 對한 說明과 解釋을 구하여 여기에서 言及할 必要도 없거니와 一般의 「꿈」에 對한 여러가지 科學的 說明은 여기에서 問題삼을 必要가 없다. 다만 꿈에 對한 본來的 뜻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첫째로 睡眠中에 마음에 일어나는 心像或은 觀念의 連續 또는 그것들의 對象이 며칠새로 이리저리 心像 或은 觀念들이 일어나는 睡眠狀態일 것이다. 이와 같이 꿈은 覺醒時에 일어나는 것

이 아니고 자고 있는 중에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니만큼 客觀的 現實이 아니고 主觀的이며 따라서 非現實的이다. 꿈의 이러한 非現實的 性格에서 꿈은 또한 想像이니 空想이니 理想 특히 達하기 어려운 理想은 達할 수 없는 空想的인 目的을 지니는 現實性이 적거나 또는 아주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되된다. 꿈이 본래 非現實的 架空的인 것이라는 점에서 浪漫(yama-no)이란 말과도 通하게 된다. 「로맨스」란 말은 暗示性이 많은 말이지만 本題目에 關聯되는 의미만을 추려본다면 一, 英雄에 關한 詩 및 傳說或은 說話 二, 一般의 冒険談, 驚歎한단한 武勇行爲 特히 純情的인 戀愛事件 등 傳記譚 或은 空想小說 三, 戀愛事件 등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軍人과 꿈」이라는 이름의 題目은 「軍人과 로맨스」라고 고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客觀的인 現實을 떠나서 살 수 없으므로 現實에 對한 知識은 우리의 生活에 絕對必要한 것이 아닐 수 없겠다. 敵의 情勢를 살피며 內便의 情勢를 把握하는 同時에 客觀世界的 法則에 準據하여 滅敵의 戰略을 세워야만 할 軍人에게 있어서 어찌 客觀的 現實의 重要性이 輕視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人間의 客觀的 論理나 客觀世界的 法則에만 따라 生活한다면 우리의 生活은 그 얼마나 狹窄하고 單調롭고 直線的이고 깊이와 餘裕 없는 매마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人間의 生活은 결코 말하는 機械的 作業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客觀的 論理와 法則에만 의

대인人間에게는自由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自由를 지닌人間에게만 있을수 있는信仰生活와藝術도 또한 있을수 없다. 信仰은客觀的知識이 끊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逆說의이기는 하지마는客觀的論理와法則에支配되면서自由의境地에서自由로이構成하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信仰과藝術은人間이客觀的現實에만執着하는 동안에는 있을수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信仰과藝術은軍人에게는한날「타부우」일까? 그렇지수는없다는 것은 전전한常識에對하여明白한것이 아니겠는가? 信仰의問題는이들의題目으로 이루어 보아여기서 더「맞춰」할 필요가 없겠다. 그까닭은信仰은꿈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藝術은客觀的論理와客觀世界的法則에만拘碍되지않고 또한自由構想到에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意味에서藝術은꿈을 품고 이루어지는 것이며이意味에 있어서非現實性을胚胎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軍人과꿈이란題目은軍人과藝術의인生活」이라고 고쳐 놓을수도 있을것 같다. 이렇게 보아온다면軍人은單純히戰爭上的機械가 아니고 하나의人間以上軍人에도다시말해서軍人의生活에도藝術性이 있어야 할것을 그누가否認할수 있겠는가? 우선實際的事實을들어軍人生活의藝術性을證言해 보기로 하자 여러種類의軍歌와軍人의吹奏樂은音樂藝術임에틀림 없으며軍歌와軍隊의吹奏樂團

의演奏는音樂이라는藝術의 힘으로軍人의心身을訓練或은 단련시키는데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軍人들이隊列을지어律動的인行進을하며或은「쇼」를一般人에게 보여줄때의아름다움... 이러한 훌륭한演技는觀衆을모아놓고演技를 자랑하려는데그目的이 있는 것은 결코아니다. 이러한藝術性은律動的演技를通하여그演技를演하는軍人自身의心身을自然스러운方法으로 더욱 단련시키려는데그主되는目的이 있을상싶다. 또한士官學校學生의正



裝을 비롯하여軍人의正裝이란저모자앞이마에 깎을 같은 것을 품은 것이라든지는 모두藝術性을利用하여嚴肅한氣分을 도우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律動的演技란저衣裝을裝飾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實戰에直接效果가 있는 것은 아닐게다. 實戰만을標準으로하고생각해본다면 이런것들은一種의奢侈인지는모른다 따라서現實的利益에對하여非實利的인 것인지는지모를일이다. 그러나 이러한非實利的인 것같이 보이는 것이軍人生活에 얼마나優雅를

삼어주며新鮮한生氣를 도우어 주는 것이겠는가?  
亦是軍人生活에도浪漫과꿈이 있어야 한다. 꿈이 없이는建設의인來日을期約할수 없기 때문에.....事實上꿈과낭만의藝術性에依하여軍人의生活은 기를지며 폭과깊이를가질것이아닌가? 그리하여딱딱하고도單調로움을 깨뜨린 참으로自由로운構想的世界에참여하게되는 것이 아닐까?  
(끝)

◇ 奉仕精神

루이. 파스피로는 프랑스 국민이 자량으로 삼고있는 세계적 과학자로 우유의 소독법 공수병의 면역법 酵母菌의 발견등 인류는 그의 발명, 발전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의 학자였다.  
만약 그가 자기의 발명, 발전의 특허권을 갖고만 있다면 아마도 그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대부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욕심이 없고 담담한 그는 드디어 한개의 특허권도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평 생정빈생활을 간수하여 말하되「나는 돈을 벌기 위하여 연구도 아니한다. 학문을 위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임무는 세계의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것뿐이다.」라고 말하였다.

# 우리 部隊의 姊妹部落을

## 말한다 <1>

空軍 大邱基地의 姊妹部落이라고 하면 육동부락이라는걸 경북도민은 거의 알 정도로 되어 있다.

### 航空本廠편



## 이상촌 건설의 꿈을 안고.....

### 육동부락의 實態

육동은 大邱에서 東南쪽으로 약 백리, 경산까지 육십리 떨어진 산골로서 육동부락의 산군과 「울릉도」라고 불리우며 四方이 山으로 둘러싸인 해발 六二七m의 두벚골이다. 육동은 行政上大禾一、二, 加尺, 龍川一、二, 龍田, 扶日等 七個洞으로 되어 있으며 총 三二九호에 인구가 二〇七四名, 이중 大學출입자는 단 한명밖에 없으며 文化施設이라고는 全然 없고, 신문은 겨우 국민학교와 동정집 등 五부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나마 제때에 들어오지 않아 五·一六 군사혁명 소식도 약 一주일 후에야 알았다는 곳이기도 하다.

육동부락의 概略的인 略史를 들추어 보면, 현 육동은 수백년전 現在의 先祖들이 피난으로 이곳에 入住하여 六個部落으로 形成하였으므로 地名을 육동이라 稱하였다는 것이고, 四二四七年에 조선종국 부령에 의하여 慶山郡에 합병되었으므로 龍城面이라 面名을 定하였다는 것이다.

이곳 古蹟으로 盤龍寺는 新羅 中葉에 創建한 大刹이었는데 수차의 火災로 타버리고 五十餘年前 再建된 大雄殿만 남아 있다.

다음으로 産業의 現況을 보면 주로

農業이고 特別한 副業은 별로 없으며 農耕地는 畝 二六一정보, 田 一二一정보이고 여기에서 生産되는 수확量으로는 現在人口의 食糧에도 不足한 程度의 餘어은 實情이다.

### 결연식

지난 二月十日 공군대구기지와 姊妹結緣時에는 李元雨 公報部長官, 慶北知事를 비롯하여 内外實賓多數와 航空本廠長 및 K-12 部隊 指揮官과 洞民 약 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이날 공군대구기지에서 열린 것은, 첫째, 리이키, 구루마, 가 2대, 트란지스타, 라디오 1대, 이발기구 2조, 농촌문고 약 四〇〇권, 패자 七두, 이의에도 약품, 세멘트, 학용품 등 공군장병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들을 전달하였으므로 군의 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환자 진료를 하였으며 夜間에는 映畫上映等 多彩로운 무로로써 이날을 즐겼으며 한편 동민들은 농악을 울리는 등 율리가 생기기에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이라고 들 하였다.

이날 式典에서 航空本廠長 吳占石 准將은 앞으로 힘차라는데까지 도와 줄 것을 約束하였으며 부락대표 朴宇鉉氏는 공군장병의 정성이 담긴 선물에 보답하기 위하여 동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농촌제전에 더욱 분투하겠다고 답사를 하였다.

결연식을 마친 이튿날 대구 시내와 인근 산신에는 大書特筆로 공군대구기지와 육동부락의 자매결연 기사가 報道되므로써 자기관의 자매결연에 박차를 가하였다.

### 支援事項 및 再建相

#### 一, 무로진료(移動病院)

공군대구기지는 결연이후 우선의 지원선이 없어 환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결정하고 매월 군의관 三, 四명과 간호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평균향 약 三〇〇명의 환자를 치료하여 주는 데 계속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학교에 약장과 약품을 비치하고 치료하여 주므로서 커다란 성과를 견우고 있다. 처음 診療所에 나갔던 軍醫官말에 依하면 榮養 섭취도 제대로 못한데 勞動난이 甚치한 인 그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老, 弱, 病, 傷 그리고 어릴 때부터 質보다 量으로 자라는 탓인지 胃腸炎이 優位를 차지하였고 外傷으로 인한 骨髓炎患者를 比較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그중에는 患部에 藥을 바른 환자가 있는가 하면 나서 뼈까지 양치질을 모르고 살아온 노파도 있었다고 한다. 벌써 六차에 걸친 현저 진료 및 의학계몽으로 동민들의 위생관념이 전에 비해 훨씬 달라졌다는 군의관의 애기다.

#### 二, 映畫의 班

한편 월一回 순회 필름 및 뉴스 필름을 가져가 아간에 영화상영을 하여 주고 있다. 이때는 동민 거의가 모여 영화의 밤을 즐긴다. 처음 영화를 하였을 때 이 들 중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라 보지 못하겠다고 천천히 하라든 그들도 이젠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담뱃를 가지고 농촌발전회 또는 화  
 회를 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있다.

### 三, 넘어진 산길

용성면 소재지에서 육동에 이르는  
 산비탈길은 추워서 겨우 올라갈 정도  
 의 牛車길이었다는데 지난三月十日  
 부터十日만에 걸쳐, 다이나마이트동  
 을 사용하여 확장공사를 하므로써 차  
 량이 안전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결연식을 하던날 某인사는 차에서  
 내리 그 현로를 걸어서 산정까지 올  
 라간 사실로 미루어 어느정도 인가 점  
 작이 같 것이다.

공군장병들의 흘리는 땀에 호응한  
 洞民들도 連日 艱한 산길을 補修하므  
 로써 평탄한 도로가 되었다.

### 四, 저수지 공사

扶日, 加尺의 저수지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겠음 주선하여 주므로써 今年과  
 같은 旱魃에도 육동은 一〇〇% 모내  
 기를 하였는 것이다.

空軍大邱基地에서 各處에 양수 작  
 업을 協助한바 있지만 姉妹村에는 양  
 수작업 등은 하여주지 않아도 일체  
 旱魃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 五, 이륙할 엠프론에 풍차

지난 六월부터 엠프가설을 위한 현  
 지답사를 하고 엠프제작 스피카구  
 입을 하여 지난 八月十日에 우선제  
 一차로 一〇〇호에 공사를 완료하여  
 이미 방송하고 있으며 八月말까지는  
 三二七호에 전부 공사를 끝낼 豫定으  
 로 진행중이다.

이번 공사는 七항로보안단장이 직  
 접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였으며 엠프  
 구조는 마이크, 라디오, 전축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능이 우  
 수하다고 한다.

방송은 아침, 낮, 저녁, 방송으로  
 하루 약 一〇시간씩 하고 있는데 아  
 침에는 새벽 五시부터 재전의 노래 소  
 리가 메아리처럼 들리들과 잠꾸러기  
 꼬마들도 잠에서 깨어 청소를 실시하  
 고 음악에 맞추어 재전제조를 한다.  
 앞서 K-2에서는 재전의 노래 재  
 전제조를 농촌재전에 도움이 될 레  
 코드판을 구입하여 자매촌에 보낸바  
 있다.

낮에는 주로 대구방송국의 직장을  
 아를 즐기고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앉  
 아 호젓한 음악소리가 외출일 시달린  
 몸을 풀어 준다하고 하며 어두웠던 外  
 界소식을 들을수 있어 무엇보다도 기쁘  
 다고 하였다.

앞으로 육동부락에 한집도 빠짐없  
 이 스피카를 가설할 계획이며 이 공  
 사가 끝나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마이크를 통하여 공지사향 제공요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되며 농촌계몽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스피카를 달지 않은 동리 사  
 람들은 조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방  
 송되고 있는 동민들은 공군장병의 기  
 술을 감탄하고 신기한감다. 그들의 기  
 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엠프에 밧테리를 使用  
 하고 있는데 八月말까지 풍차를 가설  
 하여 엠프에 쓰는 전력은 충당될 수  
 있겠끔 계획하여 공사를 추진중이다.  
 六, 창고 전립 및 소비조합  
 창고 시설이 없어 면소재지까지 약

90%의 산길에 소와 사람의 힘으로  
 하루 몇 추목을 운반하는 實情이므로  
 國庫보조를 인출수 있게끔 주선하였  
 으며 모든 技術的 支援를 하여 약 六  
 十명의 창고와 十四명의 소비조합창  
 고가 八月末경에 준공될 豫定으로 공  
 사가 진행중이다.

창고가 完成되면 모든것을 여기에  
 저장하게 되므로 莫大한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조합에서는 모든 生活必需品를 원  
 가로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주는 등 공공부리를 위해 이바지할 것  
 이다.

### 相互訪問

K-2에서는 각 부대 지휘관이 수  
 시로, 정훈관이 정기적으로 월 一 회  
 자매촌을 방문하여 제공 및 애로진

의사항을 청취하여 가능한한 해결해  
 주고 있다. 또한 자매부락에서도 대표  
 들이 수시로 부대를 방문하며 지난 五  
 月一日에는 자매부락 婦人 약 五十  
 名이, 十八日에는 용강국민학교 학생  
 六五名과 학부형등 一,二名이 기저  
 전학을 한바 있다.

공군대구기지에서 자매부락 육동  
 을 위한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각 부  
 대 지휘관을 자문위원으로 정훈관을  
 운영위원으로 결정하여 활발한 응적  
 임을 보이고 있으며 육동부락에서도 간  
 부 및 청년회원들이 솔선함은 물론은  
 洞民이 한동치가 되어 理想농촌 建設  
 의 꿈을 안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볼때 머지않아 꿈이 現實化 될것을 확  
 신하며 육동과 K-2의 자매관계가  
 全國的으로 모범 자매촌이 아닐까 생  
 각한다. (航空本廠 政訓관실 提供)



隨

筆

# 가을 하늘의

## 抒情

### 高延基

★女苑社主幹



가을은 하늘에서부터 그季節의作業을 시작한다. 立秋지나 處暑무렵, 아무리 暴陽이 내려 쪼이고, 殘暑가 最後의 發惡을 한다해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 알 수 있다. 아아, 가을이 온다는 것을.....

어느새 하늘은 새衣裝을 마련하고 쪽빛보다도 진한 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이다. 한點, 하얀 구름의 무늬는 오히려 도렷하여 입김으로 불어 저쪽 산모퉁이로 밀어 보내고 있다.

어느새 하늘은 내가 선 땅덩이 위에 서 한발자욱 더 높이가 솟아차고 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을 反射하는 것을

처럼 平面的이던 하늘이 어느새 圓型의 仁慈스러운 모습이 되어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새 하늘은 細工의 손으로 뛰고 뛰고 구슬처럼 맑아 있다. 티끌 하나 없이 맑은 하늘, 여름한철의 모진 雷雨와 번갯불로 하여 이 맑은 하늘이 이루어졌구나.

이와같은 하늘을 보고 가을이 움을 알듯, 무릇 가을의 抒情도 하늘에서 비롯된다. 내가 느낀 가을의 抒情의 대부분은 하늘에 어떤 抒情. 이제 아무런 귀뚜라미 소리를 벗살아 내가 느낀 가을하늘의 抒情의 年代記를 들추어 볼까나.

내 記憶에 남는 가장 어렸을 때의 하늘의 意識은 食母 동에 映혀서 본 조 가을의 밤하늘이었다. 금빛 모래를 뿌려 놓은 듯 銀河水가 흘러있고 반달이 유난히 높고 걸려 있었다. 食母의 등에서 달만 지켜보고 있던 나는 그 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發見했다.

『왜 달이 나만 따라와?』하는 물음에 食母는 『아가가가 이빠서 따라오지』라고 시치미를 떼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이 대답을 듣고 좋아라 하고 달이 얼마나 큰가 고사리같은 손을 들고 견주어 보았다. 한쪽눈을 저곳이 감고 견주어 보았을 내 엄지손가락의 손톱만 하다고 생각했다.

小學校에 들어간 뒤 작년부터 기시절의 가을하늘에 대한 追憶은 고추잠자리를 쫓던 비짜루풀으로 본 하늘이

었다.

는 두렁길과 못가에서 용잠자리와 만잠자리를 쫓아 다니노라 여름방학을 보내고 나면 九月 學期가 들어선다. 이만때가 되면 신작로 배기터에 고추잠자리의 大編隊가 나타나 董心을 충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제 자기 대빛자루나 싸리빗자루를 들고 나가 고추잠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잡은 고추잠자리는 꼬리를 반쯤 찢르고 大코킹이를 끼워서 날려보았다. 그때 야만 그 고추잠자리가 장가들을 들수 있다고 들었다. 장가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童顏의 少年들의 눈은 大코킹이를 낀 잠자리의 行方을 손을 흔들면서 지켜보고 서서 하늘에서 쫓던 가을의 抒情을 맛보는 것이었다.

『아 저 하늘 좀봐, 참 푸르지!』그때 가을이건 뒤!』

中學校에 들어간 뒤 느낀 가을하늘은 庭球코트에서 본 가을 하늘이었다. 하얀 運動靴를 짚고 동여 매고 라켓 트를 높이 쳐들어 하얀 공을 쏘는 다. 이때 뽕하고 輕快한 가을하늘에 메아리치는 소리, 그 메아리를 쫓아 고개를 들면 둥근 가을하늘에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것이었다. 이때 본 가을하늘이 안저다 준 호호한 充足感은 지금도 머릿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차츰 長成하여 여드름 투성의 얼굴에 理解지도 못하는 哲學書를 耽讀하던 時節의 가을하늘은 늘 뒷동산의 바위 그늘위에 머물러, 感傷과 思索의 겨울이 되어 주었다. 孤獨을 즐기는

少年에게 가을은 더욱 孤獨해지는 季節, 하늘만이 唯一한 이웃이요, 벗이었다. 이 하늘에, 未來의 愛人の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人生이란? 사랑이란? 文學이란? 하는 難問題의 解決을 要求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問題들은 마치 가을하늘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우면서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풀릴 듯 풀릴 듯 하면서 풀리지 않는 永遠한 수수께끼로 돌아 가고 마는 것이었다.

六·二五, 戰場에서 느낀 가을하늘은 救援의 하늘이었다. 敗殘兵을 소탕하면서 北進하면 우리 部隊는 x x 高地에서 頑強한 敵의 抵抗을 받아 完全히 孤立되고 말았다. 一個大隊의 火力으로는 敵陣을 突破할 수가 없었다, 死力을 다한 敵은 차츰 그 包圍圈을 壓縮시키고 있었다. 우리의 運命은 時間問題였다. 우리는 無電機를 들고 한 사코 「모스키토」(美軍偵察機)를 불렀다. 空中支援을 받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스키토」를 부른 지 二〇分後에 드디어 偵察機가 나타나. 施回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支援要請을 받고 세이버, 잭트가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十分後였다. 이때 銀翼에서 락 가을하늘의 푸름이어, 나는 이 하늘앞에 들꽃화를 바치고 合掌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近年에 와서 차츰 가을하늘의 抒情을 잊고 살아온 것 같다. 市井의 忙亂을 거정하고 納稅告知書의 마감날자에 神經을 써야 하는 마음에는 가을하늘도 비칠餘白이 없었지만,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그러면 차이 韓國의 가을 하늘을 어찌  
가으쓰해지도록 자랑하고 그 아름다  
움을 再認識하는 機會가 생겼다.

그것은 재작년 미국의 저명한 연극  
작가 '필·버' 女史를 모셨을 때였다.  
때는 十一月, 가을이 무르익을 때로 무  
르익은 晩秋였다. 女史를 모신 主催側  
인 우리는 혹시 날씨가 사나워 저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었다. 그런데 고  
답게도 하늘은 連日 맑고 푸르며 快  
晴의 連續,

女史를 모시고 慶州 佛國寺를 들렸  
을 때, 女史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新羅古都의 하늘을 感嘆해 마지 않는  
것이였다. 나는 대답,

『옛날에 女子의 마음은 못 믿어도  
韓國의 가을 하늘은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대꾸했더니, 女史이 比喩가 몹  
시 재미있다고 破顔하며 다시 한번 가  
을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였다. 王陵  
순에는 갈매가 하얀 손길흔들고 있  
었다.

이 가을 하늘을 나는 무엇으로도 바  
꿀 수가 없다. 가을 하늘 아래 가을이  
더물고 그 하늘에 季節의 惝惝은 서리  
느니, 가을 하늘은 내 마음의 故鄉  
이다.

이 故鄉을 잊은지 오랜 내 마음속  
엔 濁流가 휘돌고, 하늘에의 鄉愁를  
이기지 못한다.

少年時節의 꿈은 飛行士 마음껏 하  
늘을 누비고 해매는 바람은 이제는 잠  
자리의 꿈에 서나 이루어볼까.

담 배

異河潤

★작가



우리 말에선 술과 담배를 먹는다고  
해왔고, 그것이 習慣化하는 처음 過  
程을 배운다고 한다. 배운다는 말은  
제법 그것이 어렵고 장한 일처럼 느  
껴지기도 하거나, 마신다거나 피운  
다는 말이 있으면서도 먹는다는 말을  
써 온 것은 무슨 까닭일까, 술만이 아  
니라 물을 비롯한 모든 液體의 飲料를  
먹는나로써 왔다. 日語가 들어오고 英  
語를 배우게 되자 마신다 피운다를 먹  
는다는 區別하여 使用하게 된 것만  
은 事實이지만, 그 日語에도 담배를  
피운다고만 하는게 아니라 보통 마신  
다고 쓰고, 英語에서도 아편은 먹는  
다는 말을 쓰는 것으로 미루어 먹는다  
는 우리말의 妙味를 찾아볼 수도 있  
지 않은가 생각한다.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서 담배의 優劣을 맛으로  
區別하는 것을 보면 입과 혀와 關係  
가 깊은 것만은 事實이며, 吸煙보다 喫  
煙이 더 親熟한 것도 氣體를 마신다느

니보다는 먹는다는데 實感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담배가 들  
어온 이래 연기로 피워서 먹기만 했으  
나 歐美에는 씹는 담배와, 씹을 때  
는 담배가 있다. 나폴레옹은 옷과 몸  
에 담배 연기가 배는 것을 꺼리어 8년  
새를 담은 담배를 愛用하였다는 逸話  
는 너무나 有名하다.  
『담배』는 勿論 外來品이요 外來語  
에 틀림없다. 東萊나 蔚山의 「담배구」  
타령을 引用하지 않아도, 담배구가 담  
배가 된 것이 더 이전은 日語의 「다바  
코」와 通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勿論 담배의 原產地는 美大  
陸이어서 지금도 버지니아產이 第一로  
 꼽히는 것은 說明할 나위도 없다. 日  
語의 「타바코」는 스페인 Tabaco에서  
오는 것으로 밝혀졌거니와 英語의 Toba  
cco나 프랑스語의 Tabac나 다 大同  
小異한 것이어서 原產地에 살던 본토  
배기의 말에서 받아들였을 것이 틀림  
없다.

니코틴이 人體에 害를 끼치고도 하고  
또 中毒性이 있다고도 하여 한때 愛  
煙家를 괴롭힌 일도 있었으나 그 무  
比의 魅力는 全人類를 사로잡고 아  
반았으니 우리는 앞에 展開된 普及  
狀況은 너무나 이것을 證明하고도 남  
음이 있다.  
우리 나라의 風土도 이 植物의 栽培  
에 알맞아서 相當히 優良한 品質의 葉  
草를 生産하고 있는 것은 多幸한 일  
이라 하겠다. 나도 담배가 專賣로 되  
기 以前에 農家에서 이것을 栽培하여  
팔리는 것을 본 幼年時節을 回想할 수  
있거니와, 先代들이 愛玩하던 長竹의

雅趣, 風流와 實用的 價値에 再三 嘆  
服을 아끼지 않는 者이다. 門前沃土  
에서 담스럼게 자란 들을 파 말린 葉  
草에 알맞추 加味한 들을 長竹에 말  
아담아 幽閑히 紫煙을 풍기던 것이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卷煙의 製造는 煙草專賣 以前의 東  
亞 煙草株式會社가 擔當하였던 것으로  
記憶하거나와 내가 社會에 나올 때까  
저 담배와 因緣이 別로 없었지만 토  
끼표니 산호표니 칼표니 朝日이나 하  
는 따위의 捲煙(卷煙) 이름들 아직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 兩切卷煙에는 중  
이 雙부리(물부리)가 열개씩 들어 있  
었고 또 재미 있는 그림 카이드가 끼  
어 있어서 더욱 잊혀지지 않는다. 제  
물 종이 雙부리가 달린 卷煙은 한 갑  
이 스무개의 兩切은 열개의가 그때의  
常識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때는 刻草(?)에  
人氣가 있어서 日語인 줄도 모르고 쓴  
것이 유감이지 하였지만 「기새미」가  
그중 口味에 맞는 모양이었다. 나도  
방학이 되어 歸省할 때면 의회회 鍾路  
東床塵 앞에서 當場에 작두로 쓸어  
주는 刻草를 할아버님께 선물로 사  
가고는 하였다. 그 시절엔 담배밭지  
도 몇몇은 개 밭이 있었나. 기새미 이  
야기를 하거나 「쇠털기새미」생각이  
난다. 요것은 日本人이 만든 刻草로서  
마치 소릴잡은 때서 은 말이거나와 고  
늘을亦是 倭式 品방패에 담아 한 두  
모금 팔고는 북쪽 터는 것이 제격인데  
破格으로 長竹통에도 間或 담겨지는  
것이였다. 같은 품방패이면서 우리  
나라의 그것은 담배대의 길이가 짧  
을뿐, 대롱에는 다름이 없었다. 歐美  
人이 愛用하는 브라이어의 파이프는

船員들의 專用物처럼 되어 그 이름도 마도로스·파이프르로 널리 알려졌거나 와와蘭語의 Matrosos 가 日本에 訛轉된 것을 그대로 우리 나라에서도 쓰고 있다.

파이프에 使用되는 刻草와 卷煙草에 못지않게 葉卷草의 人氣도 無視할 수 없으니 이 葉卷草 시가아(Organ)에서 卷煙草 시가레트(Organette)란 말이 생긴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이 시가레트의 처음 이름은 케이피·시가아라하여 글자 그대로 종이에 담배를 말아먹게 된 데서 由來함은 勿論이다. 一八三二年埃及—土耳其戰에서 그 奇談의 실마리를 잡게 된다. 埃及軍의 砲兵將校에 지독한 愛煙家가 있었는데 한 번은 土耳其의 大砲彈으로 擊斃한 喫煙道具가 날아가 버리자 直席에서 大砲의 導火用 火藥을 싸는 종이를 利用한 데서 부터 始作된 것이라고 傳해온다.

그리고 보편 戰爭과 담배와는 自古로 매우 因緣이 깊은 것이어서 一線將兵의 唯一한 慰勞劑인 同時에 士氣를 振揚시키는 데 큰 役割을 擔當해온 實話는 許多하다. 우리 나라 軍歌에도 「花郎 담배 연기 속에……」란 有名한 句節이 있거니와 이것을 東西古今의 共通된 「戰爭과 담배」의 關係가 緊密한 것을 나타낸 한 좋은 例라고 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짧은 글을 草하면서 도입에는 「배양」을 계속해 물고 있다. 亦是 이 植物이 풍기는 香氣와 타오르는 紫煙은 우리를 저마다의 別다른 世界로 이끌어 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일찌기 나폴레옹이 指摘한바 프랑스의 社交界 女性이 아닐지라도 담배

연기와 그 냄새를 無條件으로 歡迎한 女性은 드물 것이다. 옷에 배고, 재가 흩어지고, 火災의 危險이 없지도 않은 담배—그것은 또 많지 않은 生活費의 侵蝕으로 看做될 憂慮도 있어서 가끔 斷煙할 어리석은 생각도 가져보지만 心身의 變化가 있을지 마다, 思索에 잠길 때, 原稿을 草할 때, 그리고 일에 熱中할 때, 멀리 길을 떠날 때 담배없이 우리는 果然 무엇과 眞情으로 벗날 수 있을 것인가!

種類도 가지가지 이룰도, 가지가지 이루어지고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담배는 天下에 彌滿하였다. 나는

### 花草 이야기

일어 버린 꼬마  
仙入掌에 부쳐서

### 李軒求

★ 評論家



二年前 어느 가을날 내 職場을 찾아 온 卒業生이 조그마한 草盆 하나를 들고 왔다. 仙人掌의 一種으로 가느다란 줄기 위에 해바라기 씨만큼한 새파란 잎(일베와도 같은)들이 달려 있었다. 普

昨夏의 歐洲旅行에서 가는 곳마다 사서 피운 담배의 이름을 적어본 일이 있거니와, 普通 煙의 定數도 여러 가지 있어서 普通 煙개비 아니던 스무개비인데 西獨에는 일두개비뿐, 白耳義에는 스물다섯개비뿐의 卷煙이 있는 것은 그 理由는 莫論하고 재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一九六二年八月）

通 仙人掌이란 異常한 畸形이 아닌 正그릇을 程度로 크거나 굵은 것 같은 것들을 聯想하기 쉽지만 이것은 아주 커엽고 손안에 들고 다녀도 싶지 않을 정도로 妙하게 생겼다. 大體로 花草栽培라는 데 別趣味를 갖고 있는 내가 가꾸는 더군다나 奇花瑤草를 몰아서 가꾸는 더군다나 嗜好도 없지는 아니다. 이 地上에 생을 타고난 萬物들이 그대로 繁殖하는 것으로 足하게 생각하는 至極히 밋없는 나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三〇年前 日本서 學校를 마치고 돌아와 서울거리를 걸으면서 비 무저울이기는 하나 뜻과는 집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꽃없는 서울」이라는 新年號紙에 隨筆을 쓸 정도로 花草에 關心을 가진 나였다. 그 후, 더욱 解放後에는 거렁거리에 花草가 氾濫하고도 花草를 기르는 許多한 專門의 趣味人도 부쩍 늘어서 나같은 純真的히 어떤데 기일 資格도 없이 되었다. 여

다가 조그마한 花안의 생겨서 봄철이던 꽃씨와 球根을 심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천을 놓치지기도 하고 또 잘 나지도 않아서 얼마안한 庭園에 空地가 생긴 程度이다. 그럴때마다 나의 怠慢과 無爲를 혼자 탓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미 늦어지곤 하는 것이다.

이런 程度의 無誠意이기 때문에 花壇이나 庭園이란 것이, 제대로 꾸며질 道理가 없다. 열집 K先生은 熱心히 잔디밭을 가꾸고 花草들이 벌어들라 갈을 타리를 잠만하는가 하면 洞洞里的 R先生宅에는 서울서도 자랑할 만 같은 薔薇園을 갖고 있다(이 薔薇栽培는 多幸히 R先生이 아지라) 夫人의 숨씨로 가꾸어지긴 하지만, 내집 마당처럼 내버려지고 쓸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來年은 생각끝에 學校 다니는 아이들에게 다섯집쯤씩 배어주

어 二〇坪의 庭園을 空想해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今年은 그대로 藥을 다시 찾아서 百合 泥송이와 芍藥 한 그루를 사다가 심어보았다. 그랬더니 百合은 세송이가 말라 시들어 버렸고 芍藥은 三期의 「티·비」患者처럼 弱 脈을 추지 못하고 半은 말아들이고 고 半은 겨우 푸른빛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多幸히 百合 花 한송이가 피어났다. 온 幸한 이 香氣로 振動하고 밤에 窓을 열고 누우면 스며드는 이 香氣에 恍惚忽地境이다. 들에 핀 한 떨기 百合花가 아니라 花안에 騎驅하게 핀 百合花이긴 하지만 實로 「솔로몬」의 榮華를 등집치는 香味를 풍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은 나에게도 百合은 淸純하고 豊盛한 慈悲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다. 菊花를 아껴주는 古人 蓮花를 사랑하

는 先賢들의 心情은 내 알바 아니므로 나는 暫時이 香氣에 心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R先生夫人이 보내준 薇薔(베리나?)한 그루가 奇異하게도 鐵紅色으로 되었다가는 지고 또 다시 피어나곤 하는 것이다. 나의 매마른 生活 周邊에 이러한 꽃들을 玩賞할 수 있다는 것이 몹시 悚懼할 程度로 感謝하기도 한다. 고작해야 「고송화」나 鳳仙花나 나팔꽃이나 해바라기등 韓國의 固有한 生命力도 繁殖力도 더불어 強한 그러한 花草나 기르는 格이 가장 내 身分에 알맞는 것이리라. 事實은 그런 온한 꽃들도 내 周邊에 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로 自足하는 것이 小人の 道아니면 君子의 道이기도 할 것이리라.

나는 至今 生命力이 強하고 繁殖力이 強한 韓國在來의 花草들 이들을 돌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生命과 繁殖에 있어서 奇蹟의 으로 살아가는 한 적은 生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그 仙人掌인 것이다. 겨울이면 仙人掌은 溫室이거나 特殊한 데서 잘 길러야 過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그런데 내가 신을 받은 이 仙人掌도 그러한 保護없이 찬 겨울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過冬 對策이 없었다. 생가뜰에 제장안에 갇수이 비켜놓고 낮이면 日光이 그 속으로 빛일 정도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때로 얼지 않고 이 작은 生命은 扶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今年二月 어느날 等閑所致로 이 盆을 南쪽 窓가에 놓았다가 있어 버리고 그냥 退勤했

었다. 그랬더니 그날밤 相當히 氣溫이 내려갔다. 이를날 아침 出勤해 가지고 于先 冷寒속에 放棄된 이 작은 生命을 發見하자 「아차!」하고 悲鳴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 얼른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수을알같이 파랗는 그 잎과리는 소보로같이 있어서 멀어져 盆위에 쌓여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盆 아래 간직해온 時間속에서 情이 불은 한 存在에 對하여 罪責과 같은 痛感을 느끼는 것이었다. 애처롭기도 하고 아깝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多幸으로 完全히 이 물의 육체는 끊어지지 않고 다시 그 야리야리한 가지에 生氣가 돌기 始作했다. 얼마나 多幸한 일이나. 生命力! 그 무서운 추위를 참고 견디어 다시 蘇生하는 이 작은 存在의 強毅한 그 어떤 意欲마저 나는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는 中 다시 여름 放學이 되어서 約 三週日만에 戰場으로 도라와 내방을 찾아들어 窓이란 窓門이란 문을 모조리 열여놓고 그것도 未盡해서 물을 퍼다가 방내의에 휘부리곤 했다. 그리고 다시 방안을 두루 살피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 작은 存在인 仙人掌이 또 죽는 듯이 있는 것이다. 一週日에 한번 程度, 물을 주면 그만이라는 이 巫마 仙人掌이긴 하지만 三週日이나 密閉된 盆내는 그 숨가쁨속에 잔해있던 이 微生物은 고만 저저서 나 자빠진 것이다. 그 때서운 추위도 견디어 내던 이 生物이 南方의 그 무서운 더위일 수록 부쩍 부쩍 잘아 날 수 있는 仙人掌이지만 水分의 枯渴과 濁熱의 密

室에서 는 견디어 내지 못한 것이다. 于先 나는 물을 떠다가 盆안에 드는 작은 盆위에 넘치도록 가득히 따라놓았다. 실컷 마시고 되살아나라! 이런 생각속에는 죽어 있는 가지만 물이라도 먹여서 보내줘! 하는 그런 正反對의 心理作用도 있었던 것이다. 多幸히 다음날 조급은 生氣가 돌더니 사흘부터는 半의 生命은 全치된 모양이다. 실오리같은 가지가 팽팽해지고 열매같은 잎과리가 매끄러운 翡翠色을 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 意外의 事實이 突發했다. 하루 오늘 아침 使童이 나와서 房掃除를 하다가 이진다 말라 비를 어졌다고 迷斷하고는 송두리채 그 巫마 仙人掌을 쓰레기통에 내버린 것이다. 기구하게 못한 主人을 만나 이 巫마 仙人掌은 나와 完全히 訣別하고야 만 것이다. 風土와 地質과 氣溫을 달리한 異邦植物이란 이렇게 제대로의 自然스러운 成長과 發育을 하기가 매우 힘든다는 것을 切實히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다. 實로 우리가 異邦에 가서 本格的인 生命을 누리기가 그 얼마나 힘든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보다도 아무렇게 굴러도 그 生命을 온전히 持續할 수 있는 地域을 그 오래인 習性 風土 人情이 無意識속에서도 脈脈히 흘러 傳承되는 그곳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며 나는 다치이나나의 거칠고 어수선 하면서도 제대로 푸르려가든 내가 사는 江土위에 한가닥 甚한 愛着을 마음으로 새겨보는 것이다.

一九六二·八·一七日

△47P에서 계속▽

단 一個 武官으로서 北쪽의 邊方으로 또는 南海의 一隅로 轉轉하면서 微官末職에도 安心立命하였다는 事實은 自己의 길을 감에 있어서 焦燥하지 말고 堅固한 努力이 必要한 뿐만 아니라 사람을 對할 때 必한 平탄이 不滿意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나의 人生에 不滅의 指針이 되었다고 하겠다.

흔히 大器는 晩成이라 하지만 흔히 大器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出世에 汲汲하고 焦燥하여 賣名이나 志操를 팔 때 그 사람은 大成에 이르지 못하거나 世俗의 人 出世를 해보아도 그것이 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人生에 큰 教訓이 될 것이 分明하다. 美國의 名將 「아이젠하워」大統領이 少領 十八年을 지냈다고 하니 그 忍耐과 努力 그리고 本分을 다하는 특 久力이야말로 大成의 源泉이라고 보지 않겠는가, 나는 나대로 忠武公稱神이 무엇이나 하면 愛國愛族하는 것私를 버리고 공을 좇는 것 自己本分을 所信대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되 그 죽음이 땅을 아는 것으로 把握確信하고 凡人의 生涯이 아니라 信條로 삼고 實行에 옮기도록 努力한 것이나 끝내 미치지 못할 것임은 實로 忠武公이 萬若에 비견바 없는 聖雄인 까닭에 오직 우릴 어 보고 教訓으로 삼을 뿐이기 때문이니 젊은이들에게도 敢히 勸해 보고 싶은 心情이 울어나올 뿐이다. 正義는 天則에 依하여 必勝하고 公傷과 謀略은 自殺掘穴之行爲이며 公私의 分明은 立身之礎石임을 알아야 한다.

# 생쥐와人間

— 固着된 方法을 버리고

果敢한 改革을 —

林 煥 燮

★ 空軍 中尉 · 十一戰飛軍부



「미취칸」大學의 「마이어」(N. R. F. Meyer) 教授는 생쥐의 신경중樞에 관한 심리학적 실험을 통하여 人間の 문제의 意味深長한 示唆을 주고 있다.

쥐는 우선 兩(臺) 위에 세워지고 臺의 左右 兩便에 있는 두개의 門中의 하나로 右側으로 跳練을 받았다. 만일 쥐가 右側으로 跳어내리면 門이 닫혀 있어서 쥐는 右側을 跳고 右側에 跳어진다. 反對로 左側으로 跳어내리면, 門이 열리고 거기에는 鏡子에 비칠 것이 있다. 쥐가 이 反應에 充分히 익숙되었을 때 이번에는 狀況을

變化시켰다. 쥐가 右側을 求하면 左側이 아니라 右側으로 跳어야 하게 なる 것이다. 그러나 쥐는 새로운 狀況을 몰라서 跳 때마다 그것이 右側을 求하는 것이니, 食物을 求하게 되는 것이니, 모르게 되어 結局 跳는 것이 段階에서 跳주려도 跳지 않았다 고 「마이어」교수는 말한다.

다음에는 突然한 強風을 일으키거나 電氣刺戟을 주어 쥐를 強制로 跳게 하여 보았다. 이때의 反應을 「마이어」교수는 이렇게 記述하고 있다.

『動物은 解決치 못한 問題나 狀況에 反應하도록 解決을 當하면 어떤 特定의 反應에 固定한다. 즉, 쥐는 다만 左側門으로 跳어 내린 것이다.』 쥐들은 結果에는 無關心하고 그것을 계속한다. 即, 反應이 固着된 것이고, 이러한 固着이 나타나면 그 狀況에 適合한 反應을 배울 수 없게 된다.

이번에는 右側門을 開放하여 飲食物을 잘 보이게 하고 쥐를 그 쪽으로 떠

밀어 보았으나 쥐는 굳이 左側으로 跳기를 繼續했고 實驗者가 無理하게 選擇을 強要하자 쥐는 發作을 일으켜, 미친듯이 돌아 다니며 발음을 傷하고 狂暴하게 날뛰다가 結局 昏睡狀態에 빠졌다. 이 狀態에서 쥐는 右側을 拒否하고 아무런 것에도 關心을 가지 지 않는다. 이런 쥐는 公갈이 졸릴 수도 있고, 뒷다리를 쥐고 公중에 들 수도 있다. 즉 쥐는 神經挫折이 된 것이다.

쥐를 神經挫折으로 이끈 것은 쥐의 問題가 「解決不可能」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實驗의 意味하는 바는 「많은 人間問題의 解決不能의 事態에서 온다는 것이다.」 「생쥐나 「人間」이 아니라 界限까지 있는 대개 같은 反應의 段階를 보인다고 假定할 수 있다. 첫째로 어떤 一定한 問題에 直面하면 一定한 選擇을 習慣적으로 하도록 訓練된다. 둘째로 狀況이 變化하여 選擇이 豫期한 結果를 가져오지 않는 것을 알고 크게 衝擊을 받는다. 셋째로 그 衝擊, 不安, 挫折을 거듭하는 동안 그들은 最初의 選擇을 固執하여 結果의 如何에는 不拘하고 그 固着된 選擇을 繼續한다. 넷째로 우물하게 되어 아무런 行動도 하지 않게 된다. 다섯째 外部의 強制로 選擇을 強要當하면 다시 最初의 反應을 되풀이한다. 그리고 結局에는 設使 目標에 目標物이 있고, 方法을 바꾸면 目標을 取할 수 있을 때라도 失敗 때문에 미쳐 버리고 만다.

이러한 假定은 純全한 과정일까? 不幸히도 이것은 空想家의 論理만은 아닌 것 같다. 以上の 類型은 個人, 家

庭, 社會에서의 人間關係나 集團의 關係, 國家와 國家間的 關係에서 수 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男便의 缺點을 고치려고 한 夫人의 잔소리 夫便의 缺點을 더욱 惡化시키고 그에 比例해서 夫人의 잔소리도 더욱 甚해져서 결국 두사람의 神經破綻을 일으켜서 그들의 人生이 傷處를 입는 경우가 있다.

「政權의 維持」라는 目標物을 爲해서 憲法을 몇 차례 뜯어 고치고 「牛意」 「馬意」까지를 動員시켜 「民意」를 假裝하고 「완장部隊」나 「三人組」나 「무더기票」나, 「음메미식」 「피아노식」 開票나, 後世의 傳說이 될만한 不正한 方法을 되풀이 하다가 義로운 學生들의 抗拒에 統彈을 퍼부던 自由黨末期의 獨裁는 바로 「생쥐」의 實驗에서 보는 固着反應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政權의 維持가 이미 不可能한 狀況에서 獨裁와 「政治的 詐欺」라는 非民主的 反應樣式에 固着되어서 결국은 民族앞에 千秋의 罪人이 되어야 할 破局을 自招한 셈이다.

그 외에도 勞資의 關係, 軍縮을 에 위선 強大國家間的 會談等, 反應樣式的 固着에서 오는 人間關係의 悲劇을 例舉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固着反應의 根本的인 理由는 무엇인 까?

## 二

社會의 發展을 가로막고 온갖 破綻의 原因이 되는 反應樣式的 固着이라는 現象은 社會學者들에 依하면 所謂 制度的 遲鈍(Institutional lag)이라는 概念으로 說明된다. 「制度」란 말은 社



# 채송아

朴南秀

세상에 가장 작은 꽃나무가  
평별 죄는 正午에 꽃을 피었다.

아침 이슬에 눈을 여는 꽃이다

저녁 무렵에 밤을 향해 피는 꽃이야 많지만

이 조그만 채송아가

명주필의 매끄러운 살결에

물먹은 빨강, 물먹은 노랑, 아직 마르지 않은 빛갈로

조그만 형상을 달고 있다.

햇볕 아래가 아니면 타지 않는 生命을 燃燒하기 위하여

陽地에 불을 달은 靑春이여

조그만 조그만 채송아여

會學에서는 『集團의 行動의 어떤 組織된 類型으로서 特定한 文化的 基礎의 部分으로 認定된 것』이다.

人間은 不可避하게 自己의 精力과 活動을 多少間 그들이 所屬하고 있는 社會的 集團을 通하여 一定한 行動의 類型으로 組織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社會的 制度의 存在는 公大多數의 사람이 그러한 行動類型을 받아 들인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른 말로 하면 社會的 制度는 그 社會的 集團에 所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對하여 一定한 行動類型에 따라 行動하도록 어느 程度의 強制性을 가지며 사람들은 그 類型에서 離脫된 行動(Deviant action)을 함으로써 오는 不安感을 避하기爲하여 대체로 社會的 制度에 同調(Conform)하게 된다.

그리고 制度에 있어서의 特有한 事實은 사람이 한번 거기에 習慣이 되면 그들은 自己들의 制度만이 무엇일 할 때에 있어서의 正當하고 適切한 唯一의 方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制度를 攻擊하는 것은 곧 自然法, 理性, 그리고 神의 意志를 攻擊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結果로 社會制度는 緩慢하게 變化하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그 存在의 必要가 없어진 훨씬 뒤에까지 存在하게 되는 일이다. 때로는 그 存在가 有害하고 危險한 것이어도 不拘하고 남아 있기 도 하다. 이러한 남아 버진 制度의 習慣이나 形式의 存續은 社會學者에 依하여 制度的 遲鈍 또는 文化的 遲鈍(Cultural lag)이라고 불리워진다. 이 制度的 遲鈍은 바로 社會의 發展을 가로막는 重要한 障礙가 되고, 때

로는 重大한 社會的 悲劇을 惹起하는 原因이 된다.

韓國 民主主義의 가장 큰 障壁은 바로 남아파진 封建意識의 殘滓와 事大主義의 癡風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農村에 가보면 數千年來의 先祖로부터의 遺傳된 營農方法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가? 過去 政府의 政策과 行政은 果然 正確한 統計資料에 立脚한 科學的인 計畫과 實踐이 뒷받침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軍內에서는 作戰, 教育, 軍需, 人事運營, 兵力管理, 行政事務 그리고 人間關係에 있어 舊態毅然한 方法을 되풀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改革과 새로운 實踐의 企圖되어야 할 分野는 없는가? 이러한 質問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면서 過去의 남은 反應樣式에의 固着에서 벗어나 「뉴-아이디어」의 啓發에 힘써야 할 것이다.

三

社會學者 「머튼」(Merton, R.K.)에 依하면 人間의 社會制度에 反應하는 樣式 卽 適應의 型態는 다섯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制度의 方法에 完全히 同調하는 것(Conformity), 둘째로 그 制度本來의 文化的 目標에는 同調하면서도 그 方法을 改革하려고 하는 것(Innovation), 셋째로 그 制度本來의 文化的 目標은 어찌됐건 制度의 正統, 卽 形式만을 固守하는 것(Ritualism), 넷째로 그 社會의 文化的 目標나 制度의 方法을 다같이 消極的으로 迴避하는 것(Retreatism), 다섯째로 文化的 目標나 制度의 方法을 認定하면서도 그 制度를 拒否하여

내가 사랑하는 생활

중위 박 만 업

☆ 十一戰飛

토요일 오전, 여름 소나기가 기세 좋게 쏟아 내리고 있다. 확달아 오는 팔주로는 아직도 더운 훈건이 열 덩이다.



보통 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리기 마련이지만 이곳 팔주로 위에서는 아래서부터 시작한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손을 길게 내쉬며 「나」에게로 돌아온다. 빈틈을 내서는 알피는 항공기 정비, 금속성이 귀를 찌르고 배기소리가 코를 찌시노라니 피로하는 온몸을

엄습한다. 푸른 하늘을 바로본다, 비 개인 후의 北漢山과 白雲臺는 또 冠岳山은 유난히 잠들듯 가까울다. 산은 나를 부른다. 쉬어 가라고 이야기 하 자고.....  
어느덧 오후가 되면 나는 이미 산 중턱을 오르고 있다. 가까운 길을 몇 마지만 걸어도 짜증이 나고 힘이 드 는데 웬일일까? 산을 오르고 골짜기를 타고 능선위에 서면, 힘은 저절로 솟아난다. 강증난 목을 개울물에 사 슬며시 씻으면 오추겨본다. 목통을 타고 내려간 물은 온천수에 차릿한 흥분까지를 느끼게 한다. 숲을 헤치고 이끼진 바위를 여울을 건너 가는 사이에 어느덧 山頂은 가까워 온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다. 카메라. 三萬分의 地圖. 콤팩스. 野營을 위한 작은 배낭. 그 속에 몇개의 식량. 이것이면 나의 週末은 大自然속에서 安樂할수가 있다. 大自然은 弱한 心靈의 어머니

이고 孤獨한 者의 安慮處이다.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은 太古적인 야기 自然의 서사시, 바람, 새소리, 벌레소리, 시냇물소리가 바로 교향곡이다. 生活이 랍시카고, 타고난 성격에 배웠다는 靑포리만한 知識. 그것을 武器라고 휘둘르고 싶면, 나를, 自然은 기여코 번거 벗기고 만다. 나는 善하고 仁慈할 수 있게 된다. 「에덴」의 人祖처럼, 山은 征服하는 것이라고 남들은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저 오르려는 것이다. 오르는 것만이 그 珍味다. 軍務에 時間을 얻기만 좀처럼 힘들다. 그런 때도 휴가고 주말이면 주머니와 相識을 한다. 이것은 내 습관이 되고 말았다. 계획이란 일년에 한두번. 그 외는 다치는대로 떠난다. 좀 무 리를 해서라도! 여행, 단사, 등산, 이를 집한 남한의 명승고적의 탐방. 이것은 어느덧 나의 가장 사랑하는 生活의 一部가 된 것이다.

反抗하는 것(예를 들어 李成桂의 李朝創業) 혹은 文化的 目標와 制度의 方法을 排擊하여 反亂을 이끄는 것(예를 들어 佛蘭西革命—Rebellion)의 다섯가지 型態다. 이것을 圖表로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文化的 目標 및 制度化된 方法에 對한 以上의 다섯가지 適應의 樣式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取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過去의 舊態依然한 方法을 條件反射的으로 되풀이만 하고 있을 수 없다. 革命政府는 必야호로 形式主義와 無事主義를 排擊하고 再建과

適應의 型態	文化的 目標	制度化된 方法
1. 同	+	+
2. 改	+	-
3. 形	-	+
4. 式	-	-
5. 退	-	+
反	+	+
亂	-	-

改革에 힘찬 巨步를 내건고 있다. 우리에게는 「解決不可能」한 것처럼 보이는 難題들이 주어졌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過去의 方式에만 固着한 것이 아니라 果敢한 改革을 거듭하여 끊임없는 發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人間은 發展하는 다르다. 人間은 새로운 狀況에 適應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生産하는 創造的인 知力을 가지고 이러한 現實을 打開해 나가갈 수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뉴-아이디어」의 啓發, 冒險과 實驗의 精神. 이것이 또한 眞正한 「뉴-프론티어」의 精神인 것이다.

# 나의 初年兵時節

후라이보이

郭圭錫



## 누

구나初年兵時節에는軍樂隊에 분주다망하였지만, 나도 역시軍樂隊에 入隊하여 初年兵時節부터 除隊할 때까지 軍樂演奏出動과 對外的인일로 他部隊의 初年兵과는 달리 분주다망했다. 軍樂隊에 入隊하니 나와 空軍政訓音樂隊 時節의 동료들이 벌써 高級下士官으로 服務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副隊長의 位置에도 앉아 있어서 마음 든든하기는 했었지만 한편 계급의 차이가 심

해 옛 友情이 깨여지거나, 양을까 걱정도 들었다. 아무리 親友지만 軍隊는 어디까지나 階級이 말한 다. 물론 私의 으로는 옛 친구이지 만 公의 으로는 일개 新入隊員이라 內務生活 부터가 달랐다. 처음에는 言語쓰기 부터가 어색하였다. 個人對個人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서로 막말까지 하고 지내왔지만 隊員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上級者에 對한 敬語를 써왔다. 이것이 나의 初年兵時節

의 한가지 고통이기도 했다. 특히 軍樂隊는 軍紀가 嚴했다.

원래 기술, 하사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워낙 樂器에는 素質이 없고 聲樂을 專攻한 탓으로 나에게서는 一定한 포지션도 없었고 英語會話와 말수변이 좋다는 理由로 演奏會에 司會를 맡아 보라 했다. 入隊하기 前에도 政訓音樂隊時節에 司會를 본 경험이 있어 軍樂演奏出動 때마다 司會를 담당 하였

우리 軍樂隊에서는 軍樂을 많이 演奏하였지만 主로 듣기 어려운 크라식 音樂演奏도 많이 하여 좋아 하는 將兵들도 있었지만 個中에는 하품만 하고 앉아 있는 將兵도 눈에 띄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爲해 司會中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많이 섞어가며, 即興의 인코메디도 하였다. 事實 現在의 나의 位置로 이때부터 쌓기 시작한 것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演奏를 하니 音樂을 演奏하는 우리 隊員이나 듣는 將兵들도 지루한 줄모르고 똑같이 호응을 하며 즐거운 演奏會를 갖게 되었다. 이런 후부터는 空軍에 피물이 나타나다고 기뻐들 하며 空軍에서 郭下士라면 모르는 將兵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내 自身이 있지만 事實이 그러했고, 이후부터는 各部隊를 巡廻演奏出動數가 잦아져 몹시도 분주히 出動命令을 받았다. 내가 軍樂隊에 入隊할 當時 隊員中에는 輕音樂을 흥취로 演奏하는 Jazz Band도 있었지만 隊長任이 어찌나 輕音樂을 무시하는지 對外的인 활동은 못하고 隊內에서 모여 취미 정도로 演

# 칸나와 호박꽃

글·그림 金榮注

플알장독대 옆에 피어있는 칸나가 八月의 太陽아래 불게타고 있다. 탐스럽고 붉은 「칸나」!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노라면 집이 삼킬듯한 그 情熱에 心醉할 수 있어 三伏더위에 지쳐버린 내 마음은 어느듯 머나먼 山과 바다로 달리고 있다.

진정 필필이 떠나보고 싶은 心懷가 새로워진다.

傲慢스럽고 孤高함이 意志로 뭉쳐진듯 沈黙하고 있는 믿음직한 山!

번덕스러운 작난푸러기 처럼 넘실거리는 波濤이 랑마다 푸른 傳說과 꿈이 깃들여 있는 情熱과 浪漫의 바다! 사람으로 하여금 誘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生理를 지닌듯, 山과 바다는 神秘로움이 있다.

더위를 잊게 해줄 山과 바다로 가지 못하는 것을 恨嘆하기에 앞서 허구한 날을 책상 머리에 얹아 畫筆과 싸워야 할 心界가 果然 幸福인가 조차 나는 알지 못한다. 허지만 놀술이 가는 人生이 어든 저 「칸나」 모양 초구치는 情熱과 慾望을 조용히 불태워 버리기에 는 여름이란 이름의 季節이 너무나 무덤고진다.

人間の 頭腦가 創作하면 文明의 利器를 讚美하고 있는 동안 奧妙하고도 神秘로운 大自然的 攝理는 人生에게 얼마나 많은 變貌를 가져다 주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宇宙의 眞理를 孕胎한 母體가 自然이기에 人間은 自然에서 배우고 또 利用할 줄 알아야 할 것인 지언정 拒逆할 수 없는 宿命을 지니고 있기에 人生의 喜悲哀樂도 하늘이 주는 모양인 가보다.

여름이 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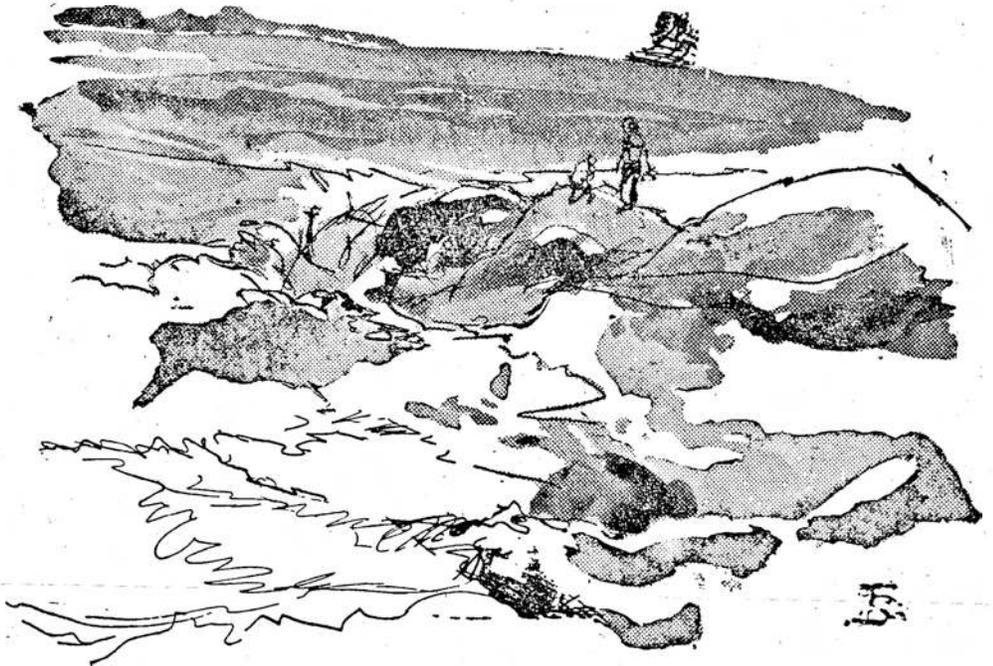
싸리문을 살며시 열고 純薄한 시골 少女의 潑刺한 얼굴이 수줍은듯 微笑하며, 물동이를 이고 울타리를 돌아간다. 울타리에는 간밤의 이슬을 담부 먹음고 병뚜이 웃는 노오란 호박 꽃들이 아침 햇빛에 눈부시게 탐스럽다. 少女는 꽃송이를 어루만져 보는듯 하더니 이내 虛空을 凝視하고 있었다. 이 일만나 韓國의이며, 情緒어린 아름다운 風情이겠는가?

「칸나」와 호박꽃, 마치 人生의 映照처럼 對照되는 點이 없지도 않다.

奏하는 것을 들었다.

내 自身도 손수 音樂을 전공하였지만 레디오나 레코드에서 들려오는 제즈 音樂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輕快한 리듬은 우리 軍隊生活을 하는 將兵들에게 들려주면 얼마나 큰 慰安이 될까하고 輕音樂을 증오하는 隊長에게 軍隊에서 正式로 對外的으로 제즈 音樂을 演奏한 것을 間接的이나마 그의 해보았다. 그러나 그다지 신중한 對答을 얻지 못하던 中우리 空軍參謀任들과 美空軍顧問官들과의 宴會席上의 輕音樂樂團을 보내달라는 要請을 받고 이때부터 正式으로 「제즈 밴드」를 조직하여 演奏을 하여 대 환영을 받아 隊長任도 몹시 滿足했던 모양이다. 그 후로는 一四人組 그랜 밀러 스타일의 수빙 밴드가 활개 치기 시작하여 各基地의 演奏活動에 나갔고 나그마네저점 司會 그리고 Jazz song까지 부르는 初年兵이 되었다. 그 中第一우리 제즈 밴드를 가장 환영해주던 분들이 발간 마후라의 일선 조종사들이었다. 우리는 실사 없이 演奏活動을 했다. 심지어는有史以來 처음으로 國會議事堂에서 國會議員들 앞에서까지 스윙음악을 演奏하였다.

물론 軍隊演奏도 하였지만 二部부로는 오래히 제즈 밴드의 演奏을 하여 가는 곳마다 많은 환영을 받았다. 특히 三軍 軍隊演奏會때에는 우리 空軍에서는 재미있는 司會의 제즈 音樂으로 他軍軍隊보다 이채로운 푸르그람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쓰다 보니 軍隊隊장만 불러놓은 것 같은데 그 反面 나에게서는 어려운 問題가 많았다. 언제나 새로운 曲을 演奏하기 위해서는 新曲樂譜가 必要했다. 이럴때마다 찾아간 곳이 美八軍軍隊의 Special service section 이었다. 時間있는대로 찾아가 그들과 친분을 맺고 새로운 樂譜를 敎하



기에 努力했고, 하다못해 市中에서 求할 수 없는 必要한 樂器부속까지 얻어오고 쓰다 남은 쟁기까지 얻어와 部隊에서는 서양까지 라는 別名까지 얻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슴깊이 사투진 일은 장승 戰鬪飛行團의 演奏會 때의 일이다.

서로가 오래간만에 만나 우리를 반겨하던 조종사 ○명이 우리가 士兵慰安演奏會當時 惡氣流關係로 손질을 하여 그 뉴스를 듣고 차마 소리가 나지 않아 演奏를 中止하던 일이 記憶에 남는다. 大邱에서 어느 비오는 날 사랑하는 大邱아가씨와 우산을 받고 가다 憲兵에게 끌려간 일도 있어 스타일을 완전히 푸진 일도 있었고 軍風紀強調週間때 계급장을 띠기로 했었다는 理由로 영창에 二十四時間 구류당한 일도 있었다. 郭下士 얼굴이 넓은 탓인지 영창에서도 先任入倉者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아 호강하고 나왔다. 이것은 나의 初年兵時節이기도 하다. 初年兵時節에는 우리 部隊에서는 年齡이 많은 편이라 동료들이나 先任者로부터 대우도 받았지만 團體氣合에는 용서할 여지없이 호된 氣合도 많이 받았다. 이것이 軍隊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 또 내가 第一기였던 일은 三階級特進을 하여 까다로운 營門을 自由로 出入할 수 있게 되면 때였다. 여하튼 이와 같이 初年兵時節부터 除隊할 무렵까지 滿四個年 동안에 演奏 出動은 天文學的인 數字이고 그 동안에 수집한 新曲樂譜만도 五百曲을 넘었다. 軍樂隊에 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이 것밖에 안 되지만 나의 자랑이기도 하다. 除隊한 지 七個年이 훌쩍 지나 지금도 空軍을 만나면 나의 집안 식구를 만난 것같이 반갑고 우리 집안에서만 空軍出身이 세명이나 된다. 나 후라이보이 에게는 언제나 空軍과 같이 호홉하며, 生活를 하고 있으며 내一生에 잊혀지지 않은 곳이 바로 大韓民國 空軍이다.

『남의 농담이나 접점은 즐거움을 무시무시하고 까닭모를 抑壓이란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사랑의 根底에 憎惡를, 優雅가운데 惡意를, 子女로서의 愛情가운데 近親相姦을, 寬大한 行爲 가운데 非行을, 각각 夾추어 내 보이거리는 게다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抑壓된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은 正當한 人間의 遺傳이다』고 했을때, 心理學의 門外漢에게는 프로이드가 人類思想上 가장 興趣를 깨뜨린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드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自己自身에 對한 생각이 進적으로 달라지게 된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1950년에 44살로서 最初의 主著인 <꿈의 解釋>을 내고 거기에 心理學에 있어서 그의 基本的인 觀察과 概念의 거의 全部를 들어 내었다.

이 보다 初期의 著述인 <히스테리의 研究>에서 이미 그는 『性的不安이 神經症 및 精神神經病의 病原因에 必須의 要素이다』고 밝혔던 것인데 이것은 精神分析理論의 基礎의 하나이다. 그후 수년간 그 抵抗, 推移, 幼兒期性慾, 불유쾌한 記憶과 幼想과의 關係, 防衛機制 및 抑壓등의 概念을 만들어 냈다. 그는 精神病學과 精神分析學을 區別하고, 精神分析은 神經的, 精神의 疾病을 治하는 治療이라고 定義했다. 그는 個人의 治療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適應되지 않는 個人

이 생기는 것을 現代 世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錯亂의 징후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커다란 功績중의 하나는 無意識의 發見이다. 사람의 마음을 氷山에 비기면서, 그 九分의 八은 물속에 들어 있다고, 即 意識의 殆半은 無意識속에 잠겨져 있다고 그는 보고있다.

그 덜혀진 表面아래에 個人이 남에게 뿐만 아니라 自己自身에게도 알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있는 動機, 感情, 意志가 있다. 그의 心理學에 있어서는 無意識이 最高의 存在이고, 意識作用은 副次的인 地位에 끌어 내려져 있다. 프로이드는 個人의 精神活動을 세계의 단계로 分解하는데, 그것은 이드(ID)— 쾌락 動機에 따라서 求하는 무의식적 精神에네르지의 源泉, 本能的 衝動—와 自我(Ego)와 超我(Super-ego)이다. 그중에서 가장 重要な 것이 이드』로 『이드의 영역은 우리의 個性 가운데서 어둡고 가까히 가기가 어려운 部分으로서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소한 知識은 꿈의 研究와 神經症의 징후의 形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다』고 말한다. 『이드』는 『動物的인 과거에 뿌리 박고 있는 原始的, 本能과 衝動的 중심이고, 본래가 動物的이고 性的이다. 그리고 그것은 無意識의 이다. 『이드』는 『유전적으로 물려 받은 것 體質속에 固定된 것 一切를 包含한다.』 또 盲目的이며 無慈悲하고, 그 唯一의 目的은 欲望과 快樂의 充足에 있다. 토마스·만의 말처럼 『그것은 아무런 價値도 善惡도, 道德도 아는 바가 없다.』 새로 태어난 幼兒는 『이드』의 體現이다. 그 아이가 生長하는데 따라서 차츰 『이드』에서 『自我』가 發展한다. 순전히 쾌락원

칙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고, 『自我』는 現實原則에 따라서 支配된다. 『自我』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外界를 느끼고 있으며, 『이드』의 無法스러운 傾向은 사회의 法則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自我』는 『이드』의 터무니 없는 要求와 外界의 제어와의 사이에 있는 調整자이다. 그런 까닭에 『自我』는 『이드』의 충동의 檢閲자로서의 所任을 맡아하며, 現實의 상황에 適應 시키고 衝動을 피하는 것 혹은 自我保存이라는 것도 모두 이러한 역할 如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自我』와 『이드』와의 갈등속에서 個人의 성격에 重大한 影響을 끼치는 신경증이 발전되는 것이다. 끝으로 精神活動過程의 第三의 要素인 『超我』가 있다. 이것은 크게 定義해 보면 良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이드』와 『自我』와 『超我』가 調整되고 있을때 個人은 正常的이며, 행복하다. 그러나 만일 『自我』가 『이드』에게 이 法則을 깨뜨리는 것을 許諾한다면 『超我』는 苦悶, 罪惡感, 그 밖의 良心의 發見을 보게된다. 『이드』의 모든 충동은 그가 말하는 리비도(Libido)라는 精神의 에네르지의 形을 取해서 발전하는데 一切의 人間의 文化的 業績 即 예술, 법률, 종교 등등은 이 Libido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이 見解에 따

지그문트·프로이드

### 꿈의 解釋

Sigmund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르면 『꿈은 억압된 願望의 變形된 達成』이며 『항상 內的 갈등의 產物』이며, 『睡眠의 保護者』이기도 하다. 꿈의 世界는 無意識 『이드』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으며, 『自我』와 『超我』의 監視를 벗어나기 위해 夢魘하지 않은 상징으로 表現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에겐데 사람의 이름을 잊어 버린다는 것은 그 이름의 사람을 좋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는지 모르며, 또 車시간표의 혼돈으로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면 그것은 원래가 그 기차를 타기를 원치 않은 것을 뜻한다.

집의 入口의 열쇠를 잊었거나, 집에다 두고 온 男便의 경우 가정에서 不幸하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錯誤를 연구함으로써 精神分析學者는 無意識의 迷路속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1939년 9월에 口頭癌으로 죽은 프로이드에 대해 어떤 學者는 評하기를 『과거 60년의 變化와 발전은 하등 프로이드의 업적, 또는 影響을 經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無意識의 영역을 열어 놓았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도달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그의 着想과 概念의 大多數는 그 後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후계자들에 의해 修正되었지만, 그들이 정신병학을 위한 神約을 썼다면 프로이드는 舊約을 썼던 것이다. 그의 업적은 基本으로 남을 것이다』고 했다.

(오 범 수)

## 〈세계를 움직인 책들 ⑨〉

「相對性理論은 그 著者에 의해서 數學的 言語로 提示되었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그 以外는 다른 어떤 用語로써도 現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理論을 通俗語로 번역해 보려는 어떠한 試圖속에도 반드시 몇 가지의 推測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베에트벤의 第五交響樂을 支票포문만 가지고서 解釋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조오저·W·그레이는 말했으나, 아인슈타인의 宇宙의 特色의 一部만은 暗示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數世紀에 걸쳐서 공교히 확립되었던 생각을 完全히 뒤집어 놓을 만한 幻想의 世界이고, 「凡人이 消化하기에는 消化할 수 없는 概念을 우리들은 받아들여야만 要求된다. 即 空間은 구부러져 있다. 二點간의 最短距離는 直線이 아니다. 宇宙는 有限하면서도 限界가 없다. 平行線은 굽기야는 마주친다. 光線은 휘어져 있다. 時間은 相對的이고 모든 場所에서 一定하게 測定되지 않는다. 長이의 測定値는 速度에 따라서 變化한다.

宇宙는 球狀이 아니고 圓筒形이다. 運動하는 物體는 크기는 줄어들지만 質量은 增加한다. 누구나 다 아는 넓이, 길이, 높이라는 세계의 次元이외에 第四次元——時間——이 덧붙여진다. 아인슈타인 革命은 〈運動하는 物體의 電氣力學에 關하여〉라고 하는 三十面의 論文이 독일의 한 雜誌 〈物理學年報〉에 발표되었던 1905년에 始作되었다. 그의 나이 26歲때의 일이다. 이 論文에서 從前의 時間과 空間에 對한 概念, 物質과 에베르트의 概念에 대한 挑戰狀이라

고 할 特殊相對性 理論을 公表하였던 것이다. 理論의 基礎는 두개의 根本的인 假定에 세워져 있다.

첫째는 「모든 運動은 相對的이다」라고, 하는 〈相對性原理〉이다. 그 原理의 周知된 實例은 움직이고 있는 배 또는 列車이다. 窓을 어둡게한 열차의 승객은 조금도 動요가 없으며, 速度感이나 方向感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도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運動을 相對的으로——即 다른 物體와 關聯해서——만 認識할 수 있다. 크게 말하면 比較的 對象이 될만한 天體가 없으면, 地球의 운동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빛의 速度는 光源의 運動과는 無關係하다」는 것이다. 每秒 三〇萬킬로미터의 光速은 宇宙의 어느 곳에서도 場所, 時間, 方向과는 相關없이 항상 一定하다. 이를테면 빛은 달리고 있는 열차 內에서는 列車바깥에서와 똑 같은 速度로 달리고 있다. 어떠한 힘도 빛을 빠르게 할 수 없고 느리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더우기 電子가 그것과 거의 近似值를 나타내고 있으나, 어떠한 것이라도 빛의 速度를 초과할 수 없다. 實際로 빛은 全自然界에서 唯一의 一定不變의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아인슈타인의 概念가운데서 가장 理解하기 힘들고 傳統的인 信條

에 對해 가장 큰 動요를 끼쳤던 것은 아마도 時間의 相對性일 것이다. 한 사람의 관측자에 의해서 相異한 場所에서 同時에 일어나고 있는 두 現象은 第一의 관측자에 對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다른 관측자에게는 同時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人間이 光速以上の 速度에 도달할 수 있다면 相對性理論에 의해서 人間은 그 과거를 도로 찾을 수 있으며, 그의 탄생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運動하는 遊星은 모두 제각기 時間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速度가 빨라지면 時間은 느껴질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物理的對象이 세계의 次元을 갖고 있다는 思想에 젖어 있지만, 時間도 역시 空間의 次元이며, 空間은 時間의 次元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주장한다. 時間과 空間은 相互依存하며, 항상 變化和 運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時間을 第四의 次元으로 하는 四次元의 宇宙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物體의 길이나 質量도 速度에 따라 다르게 된다. 光速의 五分之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길이 千피트의 기차는 그 속의 승객에게는 千피트 그대로지만 정지하고 있는 觀者가 이 열차의 통과를 주시하는 경우 六百피트로 줄었을 것이다. 一미터의 막대기를 每秒 26萬킬로미터의 速度로

날으게 한다면 그 막대기는 50센치미터로 줄어들고 말 것이다.

地基의 自轉은 그 圓周를 約 8센치미터나 감소시키는 巨擘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또 質量도 變化한다. 速度의 증가에 따라서 物質의 質量은 커진다. 光速의 85%로 까지 빠르게 한 物質粒子

는 정지하고있을때의 二倍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실험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原子에베르트의 발견에 크게 공헌했다. 그가 제기한  $E=mc^2$  이라는 이 公式는 世界史를 區分짓는 역할까지 했다. 그 意味는 에베르트는 質量 X 光速 X 光速과 같다는 것이다. 만일 半磅의 物質中의 에베르트를 全部 利用할 수 있다면 TNT 七百萬톤에 해당하는 에베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리하여 原子時代는 幕을 올린 것이다. 그는 특수 相對性理論을 發展시켜 後年에 重力場이란 概念을 導入하여 一般相對性原理를 수립하고 天體의 諸現象을 풀어나갔다. 그러나 버트란드·러셀의 말처럼 「아인슈타인이 무엇이든 놀라운 일을 성취 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는 아인이 극히 드물다.」 아인슈타인의 宇宙論을 完全히 理解하는 사람이 全 世界에 十二名밖에 있지 않다고도 말해질 정도이다. 그런데로 그가 發展시킨 理論은 革命的인 것이며, 그의 業績은 바디슈·호프만이 結論하고 있다 「모든 時代를 通해서 眞實로 偉大한 科學者들 사이에다 그를 자리잡게 하며, 곧 뉴턴 및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자리에 앉혀 놓을만한 不滅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20世紀의 物理學은 어디를 보더라도 天才 아인슈타인의 저울수 없는 刻印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알버트·아인슈타인 著

## 相對性理論

뉴른베르그裁判

Judgment at Nurnberg

이 영화를 만든 크레이머 감독은 관객에게 생각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연출가이다. 《뉴른베르그의 재판》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제시에 의거하고 있다.



一九四八年, 나치의 발상지인 뉴른베르그에서 열린 독일 전쟁범죄인 재판에서는 제1량이나 제벨스등 A급 전범자가 재판되었지만 이 영화는 이같은 A급 재판이 끝나고 B급 전범자를 재판하는 데 관련된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4명의 피고를 재판하는 이 영화는 A급을 재판하는 것보다 다른 의미로서 여타가지의의(意義)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의 주역은 재판장인 《헤이웃드》 재판장이 되어 있다. 재판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란 거의 없다. 이 재판을 끌고 가고 할인미국의 시골로 돌아온 《다닐·헤이웃드》는 그 재판의 회상기를 썼는데 이 책이 당장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비·만》이 TV 드라마로 만들어져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 여기에 착안한 《크레이머》가 《아비·만》에게 영화 각본을 의뢰하였다. TV전 영화 이 것이 연극인 이상 최순이가

해져 있음은 물론이다.

영화의 웨스트 셀은 스태프·트레시가 분장한 헤이웃드 판사가 뉴른베르그 비행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8개월 동안의 재판을 마치고 판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비행장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는 셀이 타스트가 된다. 즉, 헤이웃드판사가 뉴른베르그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후에 판결을 내린다——이것을 기록적인 수법으로 묘사한 것으로 영사시간은 3시간 14분이 걸리나 평론가들은 조금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흥미와 감동으로 끝까지 볼 수가 있었다는 평이다.

헤이웃드판사의 트레시는 조금

도 분장(扮裝)을 하지 않았다. 주름살로 구겨진 트레시의 연기는 어디 서나 훌륭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더욱 빛을 낸다. 정녕 그가 아니고는 헤이웃드라는 판사역을 그처럼 멋있게 해 낼 배우는 없을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평범한 시골 재판소의 판사인 다니엘·헤이웃드——상처받고 돌아온 비생 판을 하는 단·헤이웃드——정치지 알력에도 걸코 구렁줄 모르고「재판은 정의」라는 신념을 관철하는 재판관 《헤이웃드》 뉴른베르그의 독일인도 미국의 산물까지의 미국인도 사람으로서 다름바 없다고 생각하는 헤이웃드——교수형이 된 독일의 어느 장군의 아내로서 귀족 출신의 아름다운 미망인에 존경과 애정을 느끼며 유럽의 전후의 잔존(殘照)과 여은餘韻에 약한 에메리카인 《헤이웃드》——동등 이러한 헤이웃드판사의 성격과 심경과 생활과 신념이 보통 연출 그대로 연기하는 트레시의 의해서 남김없이 정확하게 부각된다. 이 헤이웃드연은 매우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신념의 인격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가 그대로 충분히 표현력을 가진 연기가 아니고서는 실패하기 쉽다. 더우기 법정장면은 판사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 자의 역할이므로 보지 못할

한 연기는 없다. 점사와 변호인 그리고 피고의 연기 장소이다. 감독은 이 3자를 크로스, 앞으로 워는 사이에 트레시의 구겨진 심각한 얼굴을 크로스·엠포 해 주므로서 법정은 연극한 분위기로 보여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 법정의 주인공은 재판장이며 재판은 재판장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긍정케 하는 트레시의 마스크의 위대함을 여지없이 보여 주며 위엄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여타가지 형식의 법부에 비해서도 오히려 엄숙한 재판장의 마스크가 더 위엄을 보여 주는 데 낫다는 점을 보여 주기도 한다.

변호사역으로 멕시미리안·셀을 등장시켰다. 그는 탁월한 재스 추어와 격렬한 변론을 전개하여 판재의 시선 을 모은다. 헤이웃드는 평범한 시골 출신의 노골(老骨) 판사인데, 비하여 로부프 변호사는 세계적인 법률학자 야년의 재자이며 젊은 수재 변호사로 등장한다. 실제의 로부프 변호사는 경력이 많은 장년의 대가(大家)였다고 알려져 있다. 로옌스·오리베와 후랑크·지나트라가 이 로부프 변호사역을 지원했으나 30세의 「앤서」 청년배우 셀을 선택한 것은 부로듀서로서의 크레이머의 탁월한 눈치를 증명했다 할 것이다.

피고의 한 사람이 되어 있는 은사야 님을 무죄로 하기 위하여 열변을 토하는 젊은 법학사 로부프——변호사로서 일가재능을 날려 보려는 청년 변호사 로부프——피고는 물론이든 검찰관을 젊은이로 몰리치고자 열변을 토하는 젊은 로부프——자신을 옹고 품어 주는 자가 있는 은사야 님

의 심경이 이해 안되는 로루프는 그 러나 케르만 혼에 불과하고 있다.

이 영화는 상영시간 一九四분중 三〇분이 법정선이다. 그러면서도 이 법정선은 영화의상의 선을 보여 준다. 완전히 웨이웃드 재판장이 되어 버린 트레시, 완전히 로루프 변호사가 되어 버린 셸은 그의 평생의 연가력, 장래의 연가력까지 미미히 로루프에 쏟아 붓는 것처럼 정렬적인 심자미를 발휘하여 적렬하게 검찰관을 대어준다. 그의 열변은 정말 그가 은사야니를 구출하려는 양 넘치는 기백을 폭발하여 하나의 장관이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편으로는 물음끼 없은듯 조용한 어조로서 사람의 가슴을 파고든다. 이 에르쿠손은 셸의 단정하면서도 마스크의 비련이 기묘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평자들은 말하고 있다.

법정선은 카메라 앵글을 특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로루프를 중심으로 파노라마하게 회전시켜 미고석, 재판장석, 로루프, 검찰관을 돌아서는 다시 로루프로 돌아와서 셸로 향하도록 영웅으로 만들어 보인다. 이 것으로써 셸의 마스크는 앞, 뒤, 옆 할 것없이 의 리모로 나타나는데 모두가 성공하고 있다.

나치의 사법상 야당은 버인드·랑 카스타이다. 그는 세심한 분장으로 등장한다. 그는 미고석에 앉아서 저의 말이 없다. 그는 능동자, 다분인이다. 말이 없던 연기 효과를 요구하고 있다. 몽고메리·크리프는 나치의 의해서 단종(斷種)수술을 강요당한 정신 약자로 등장한다. 그는 침착성을 잃

은 제스처로서 정신 박약자를 리얼리티하게 성공한다. 검찰관의 로은은 리차드·위드마크이다. 그는 검찰관으로서 정치적 압력으로 최후까지 분투하지만 보람을 얻지 못하는 연한을 끝까지 멋있게 해낸다.

야닝의 세명의 전쟁범죄자는 모두가 특이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 누가 보아도 변질자로 보이면서 영화가 크라이마스의 자로워지면 효과를 발휘한다. 나치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목을 주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일 것이다.

마헤네·디이트릿트가 높은 미망인으로 등장한다. 주목할 하나 없는 그의 분장은 오히려 괴물처럼 보이는 것이니 크레에마(감독)가 구라파의 귀족을 현대의 괴물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하나의 의실이 있기도 한다.

문제는 이 영화가 뉴른베르그 재판을 어떻게 결론짓는가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는 저음에 말한 그대로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결론은 내릴 망정 전 인류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우연(偶然)은 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 줄거리  
끝으로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차 대전후 뉴른베르그에서 독일 전범의 재판이 개시되고 있었다. 이 미나치의 수뇌부 재판은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도 희박해졌지만 이번의 재판은 나치의 참혹한 법률학자를 재판하는 것으로 걸보기에는 흥미없는 재판이었으나 내용은 광선적인 1급 전범의 구경까지 재판 보다는 깊은 의

의와 문제가 잠겨있는 재판이었다. 미국 메인주의 시골에서 오랜동안 판사직에 있던 다니엘·헤이웃드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 미고 4명은 모두가 나치정권의 재판관이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제적으로 알려진 법률학자 에른스트·야닝은 사법상이었다.

검사 로은대령은 헛물터에 영한 하여 법률을 개혁하므로써 국민을 공포속에 집어넣어 학대한 책임을 준벌히 규탄한다. 이에 대항하여 야닝을 존경하는 그의 제자 독일인인 로루프는 격렬히 반박하여 그에게 죄가 있다면 전 독일국민이 죄인이 될 것이니 야닝의 사법상의 않은 것은 나치 정권의 횡포한 법률을 가로막아 국민을 그 횡포에서 다스라도 구하자는 뜻에서였다고 주장한다.

우생법(優生法)의 회생이 되어 단종을 당한 피타아손은 검찰관측의 증인으로 등장하나 로루프의 반대심문에 의해서 유전적인 정신박약자로 전부되고 문제의 우생법도 나치 독부의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채용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 유대인으로 부터 호감을 사다는 이유로 처형된 이

뢰네·호프만도 검찰관측의 증인으로 등장되었으나 검찰관이 제시한 로수용소의 기록을 보자 도리회 판증되고 말았다. 당시, 미국파 소련은 이미 냉전의 징조가 보여져 독일인

의 심층을 총계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관으로부터 재판의 판결에 압력이 가해져 왔다. 웨이웃드판사는 감연히 법과정의 수호하기 위하여, 의외로 생각될 만큼 준엄한 판결이 1949년 7월 14일 하오에 내려졌다. 단

지한사람,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야닝만이 헤이웃드를 재판관으로서 태도를 격찬하는 것이다. (一九六一年度 作品)

### ◇ 재주도 곳에 따라

魯나라에 베로신을 잘 짜는 사람이 있었다. 또 그의 아내는 冠에 소용되는 흰 비단을 잘 짜는 여자였다. 어느때이 내외는 南方越나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나섰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네들이 그곳에 가면 반드시 가난할 것이오.」 「이쨌서 그렇소?」

「베로 만든 실은 밭에 실는 것이요. 그런데 월나라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오. 비단 冠은 머리에 쓰는 것이니 월나라 사람들은 맨머리로 다니오. 그러므로 그곳에는 그러한 재주도 소용이 없지 않겠소?」

# 까짚것 이즘

## 의 病弊와 그 解消策

— 人間改造論에 부쳐서 —

軍內懸賞論文  
入選佳作

少領 金 秉 老

★ 教材版

오랜歲月을 두고 이 나라를 統治하여 온 所謂 兩班들의 行悖는 終當이 羊 같이 柔順한 百姓들의 「일」에 굴지 굴지 이 일록을 지어 놓았다. 兩班들이 아니라 時勢의 趨移에 따라 거침 없이 밀려다치는 外勢의 弄奸, 또한 弱하다. 弱한 이 民族을 屈辱의 구렁더렁으로 陷入시키고 말았다.

판정은 말과라도 李朝五百年史를 芻蕘하고 가까이 倭治三十有餘年間의 情況을 回顧할 때에 오늘날과 같은 形象으로 結果한 이 民族性的의 所從來를 充分히 納得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무거운 물밑의 물이 돌의 重壓으로 因해서 아주 畸形的인 成長을 하듯이 外勢와 兩班에게 눌린 民族의 天性도 漸次 비틀어지고 구부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民族性的의 自然스러운 成長을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이 무거운 重壓에서 풀려야 했는 것이다.

叙上한 觀點에서 본다면 八·一五의 解放은 宜當이 民族性的의 發育에 一大 轉換機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實相은 그런 當爲性과는 無關한 事態만이 展開되는 가운데 十六年이란 貴重한 時間이 흐르고 말았다. 當初에 이렇다할 訓練도 準備도 없는 이 民族에게 주어진 解放이란 珍貴한 贈物은 混亂과 더불어 어서로 들고, 할키고, 저미고하는 싸움의 契機가 되었고 舶來의 輕薄한 風潮와 頹廢한 思潮가 侵蝕하는 機緣이 되었다. 저마다 指導者요, 나와 나면 政黨인대, 나라꼴이 될 터이 없고, 남의 것을 부딪치고 승내 내노라 황세 길을 걷을 하니 무엇이든 배겨날 道理가 있었겠는가? 痛嘆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못처럼 돌의 重壓에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맑은 공기과 자애로운 태양빛을 吸收해서 남과 같이 自然스럽게 자랄 姿勢를 가취하지 醜態가 醜態이 아닐까.

政府樹立으로 若干 精神을 들리려는 階梯에는 六·二五가 더졌고, 赤匪와

의 戰運三年은 戰爭外의 모든 일이 停滯되지 않을 수 없었던 時期였다. 休戰後 四·一九까지의 六年有餘는 自由黨의 妄發로 잃어진 時間이었고, 民主黨의 執政一年은 自由黨의 前轍에 無能을 합쳐서 밝은 속맥 같고 危險千萬한 時期였다.

이렇듯 이 民族은 등에 업혀서 못살게 짓누르는 壓力에서 벗어났음에도 自然스럽고 生생하게 자랄 수 있는 民族固有의 哲學을 形成하기는커녕 如前히 混沌과 錯綜과 暗黑속을 奔流하면서 十六年의 時間을 虛費하고 말았다. 勿論 微微하게나마 구석 구석 民族의 正氣가 꿈틀거리고, 특히 六·二五를 通하여 가득한 뜻들이 示顯되지 않은 배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權力과 金力 앞에서 용을 쓰지 못했다.

革命政府가 「人間改造」를 企圖할 때 모두 共感하고 同調한 것은 그것이 「참」이었기 때문이었다. 입때까지 구석에서 그늘에서만 浮沈하던 「참」이 눈부신 脚光을 받고 그 모습을 멋있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正鵠을 얻은 判斷이나 施策이 그때로 歡迎되는 世上을 우리는 비로소 만난 셈이었다.

「人間改造」는 果然 緊急한 이 民族의 至上課題이다. 革命이 이제 第三段階에 突入하였고 經濟開發五個年計畫이 活潑히 그 實踐課程에 들어가고 있지 만 우리는 길으로 들어난 成果에만 滿足하기 전에 아직도 孝基里이름이 云謂되어야 하는 우리의 內的 動向을 直視하여야 할 줄 안다. 孝基里이름이 尙存하는 이 民族의 病的인 性格의 紐帶가 아니라 斷定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民族의 底流을 이루고 있던 해묵은 毒素과 그렇게 短時日內에 解消될 수는 없다. 個人이 營爲하는 여러운 일의 結果가 國家的으로 損失이 될지라도 自己 個人에게만 裨益한다면 서슴참고 斷行할 사람이 우리의 周邊에서 根絶된 것은 아니며, 天災를 當했지만 當局의 救護의 손길 이 펼쳐지니 奇貨로

스스로回復할 思念에서 멀어지는 事例가 嚴存하는 現實에서 「人間改造」란 課題는 尙今도 우리에게 어떤 距離感을 주고 있는 것 같다. 筆者는 이 問題의 解決을 이 民族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카짓것」이란 觀念과 그것이 內包한 毒素을 解消하는 데서 연이 불까 한다.

「카짓것!」이란 말은 우리가 日常가 별개 그리고 아무런 責任感도 느끼지 않고 쓰는 말이지만, 이 말은 確實히 이 民族性의 病的인 部面을 概括總稱하는 것 같다.

放任과, 回避와, 適當主義와, 無聊와, 無事는 어긋난 處地에서 허덕이든 民族에게 있을 수 있는 第二天性이면서 우리는 이의 表現을 카짓것이란 말로 해 왔다.

「카짓것 내버려둬!」

放任이다.

「카짓것 안 할테야!」

回避이다.

「카짓것 빌때로 되겠지!」

適當主義.

「카짓것 아무것도 없어!」

無聊.

「카짓것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

無事主義.

이렇게 例示하자면 煩勞한 地境이지만 「카짓것」이란 觀念은 우리네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우리의 精神을 支配하려 하고 있다. 可恐한 毒素가 아닐 수 없다.

「人間改造」에 못지 않게 間接侵略을 粉碎하자하는 問題가 크르즈덤되고 있지만 이 問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카짓것」의 毒素을 解消할 途에 비로소 完全히 解決된다고 본다. 「카짓것」의 毒素가 없어질 때에 우리가 이 世上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卽 이때까지 世上事를 無條件 白眼視하고, 意義 없는 것으로만 보는 눈이 「카짓것」의 毒素가 없어지면서부터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뜻이 불고 慎重하게 되고, 精力을 傾注하게 되니 틀이 있어야 侵略이 들어 올게 아닌가?

「카짓것」의 毒素의 解消는 이 民族의 自然스러운 成長과 따라서 將來할 모든 幸福을 爲해 必然코 이뤄져야 할 問題라고 생각해서 本論에 이 問題를 論하기로 한다.

「카짓것」의 毒素을 解消시키는 方案을 使命感과 自制力 두가지로 論해 본다.

### 1. 使命 感

먼저 한 가지의 例를 들겠다.

노아大洪水 때의 이야기이다. 방주에 있던 노아가 밖의 消息이 하도 窮禁해 서 가둠은 날짐승 중에서 가마귀란 놈을 밖으로 날려 보냈다. 勿論 밖의 消息을 가져오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가마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洪水에 죽어서 떠다니는 썩은 屍體들을 涉獵하기에 바쁜 가마귀는 主人인 노아의 目的 的인 나 자신에 使命 따위는 가망이 없고 말았다. 오늘날은 이 屍體 내일은 저 屍體로 轉轉하면서 썩은 맛에만 陶醉되어 있었다. 노아는 기다려다 못해 가마귀를 斷念하고 이번엔 비둘기를 보냈다.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었던 저 큰 골짜기였다. 그리고 칠일 후에 다시 보냈을 때 지체 없이 잠남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어 돌아왔다. 노아는 물이 들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다. 이 例話에서 取할 것은 勿論 가마귀와 비둘기의 使命感의 差異이다. 常識적으로 우리는 가마귀를 醜하고, 썩은 것을 좋아하고, 好戰의 이고, 떠들기 좋아 하는 날짐승으로 생각하고, 비둘기는 정결코, 슬기롭고, 責任感이 旺盛하고, 平和를 象徴하는 動物로 看做하지만 그런 그들의 天性이나 外樣을 생각키 전에 우리는 두 動物의 이 例話에서 取한 使命感을 檢討해야 할 줄 안다. 가마귀는 寔情한 것만 같은 방주에서 놓이는 瞬間부터 벌써 使命 따위에서 는 멀리 떠나 있었다. 自由롭게 屍體를 轉轉하는 生活以上을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달랐다. 使命感에서 始終한 비둘기의 行動은 가마귀의 그것과는 전혀 種類가 달랐다.

人間의 生活도 크게 봐서 이런 두가지 類型으로 判別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썩은 고기를 즐기는 類型? 우리네 周邊에 얼마든지 많다. 革命政府에서 그토록 耐乏生活를 強調하지만 아직도 밤이 帳幕이 내리기만 하면 그늘을 防牌삼아서 못하는 것이 없다. 歡樂街마다 술이 넘치고, 頹廢한 노래와 倫落女들의 嬌聲이 不協和音을 이루는 가운데 밤이 깊어간다. 뒤떨어진 배를 안고 유물스러운 얼굴로 가마귀모양 밤의 거리에 君臨하는 肉塊들이 그곳에서 무슨 術數를 꾸미는지 不問可知이다.

얼마前 不正警官들이 罷免을 알리는 新聞報道가 있었다. 四·一九 때 五·一六 때에 不正을 行한者의 向路를 똑똑히 보여 주었는데도 率先해서 不正을 막아야 할 警官들이 아직 이 模樣인가 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民族의良心을 여누르고 있는 이 不正의 貪心은 어느 歲月에나 자취를 감출런지... 그러나 우리의 周邊에는 決코 썩은 고기의 追從者만이 棲息하는 게 아니라 事實에서 우리는 落望해서는 못 쓴다. 비둘기처럼 使命感에 불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

決코 못난 祖上이 되저 않기 爲하여서 썩은 고기의 誘惑을 奮然히 뿌리치고 三旬九食의 困境을 克服하면서 燥志를 지쳐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連綿히 흐르는 이 文明의 承傳 繼承者가 되기 爲해서 얼마든지 可能한 悅樂의 生活를 본체 알고 꾸준히 研究에 沒頭한 사람도 있다. 모름지기 現下 우리가 享有하고 있는 文明은 이런 사람들의 피눈물나는 努力의 結晶인 줄로 알며 이들에게 依해서 文化의 흐름이 우리네 世代를 通過한 자국이 남게 되리라 斷信한다.

# 少女像

高銀



1

네 이름을 잊어 버렸구나.

나는 하여서 웃는다.

한 다발의 봉선화 꽃을 보아도,

꽃물드린 손톱에

내 속이 부끄러웠던 것 같...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당장에는 쓸쓸하고 無味하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民族과 距離를 超越해서 共鳴하고 同調하는 者가 있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참 일대 저 아프리카의 장글속에서 또 는 뉴욕의 繁華를 極한 都心地에서 우리에게 共鳴하고 同調하는 者가 있다고 믿어서 틀림 없으리라.

얼마前 世界를 沸騰시킨 뉴스의 主人公 그렌中領의 十回나 延期되었는 友情 七號가 地球의 軌道를 向해 發射되는 瞬間 美國市民은 驚가든 女人네는 驚가에 ぞ구리고 앉아 合掌祈禱를 올리고 男子들은 貞을 謹하고 모자를 벗고 肅然히 머리를 숙였는가 하던 集會所에 있던 男女들은 모두 動作을 멈추고 눈물이 글썽히 고인 눈으로 서로를 한참서 쳐다보았다는 新聞報道를 읽었다. 美國市民뿐만 아니라 世界의 어떤 地方에서든 이 瞬間만은 肅然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왜가? 使命을 遂行키 爲해 生命을 賭하고 決然히 宇宙飛行을 떠나는 人間그런의 崇高한 精神에 感服되어서이다. 이것은 누가 시킨다고 한 일이 아니요. 人間心情的의 自然發露요「崇高한 精神」에 對한 赤裸裸한 人間姿勢이다. 때문에 無窮한 값어치를 內包한다. 우리들이 모두 知悉하다 싶어서는 나라 大統領이나 偉人의 飛行機를 타고 旅行을 한다고 무릎 꿇고 合掌祈禱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 萬若 있었다면 그것은 強要에서였을 것이다.

祖國과 自由世界의 榮譽을 어깨에 지고 宇宙開拓의 先行者로서 生命을 賭한 壯途였기에 汗을 흘려왔던 힘이 流露된 것이다. 아마 그 壯嚴을 極한 瞬間에는 그렌中領自身도 比할데 없는 悲壯한 心境이 되었으리라 推測된다. 거짓되던 되고 말면 말고 한번 해보자! 식의 適當한 생각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成就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適當히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周邊에 궁그른 한 물의 물도 길가의 한 포기 풀도 決코 適當히로 바 넘겨져서 안된다. 그렌中領의 境遇처럼 使命이란 게 어마어마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적은 使命도 있을 수 있다. 「적은 일에 忠誠하라」 말이 있지만 적은 使命을 遂치 못하는 사람이 보다는 使命을 遂한다는 結果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周邊을 세심스리히 再檢討하고 詳察해서 아무리 僅少한 일이라도 適當히나 거짓으로 解決하는 일없도록 해야겠다.

以上으로 使命의 崇高함을 概括한 셈이지만 그럼 그토록 崇高한 우리네 使命을 如何히 發見하고 또 實踐하느냐의 問題를 이제부터 簡略히 論해야겠다. 또 例를 하나 들자,

다섯살짜리 晚得獨子를 재워놓고 옆에서 新聞을 뒤적여든 老境의 아버지가 新聞을 밑어놓고 자는 아들의 얼굴을 지켜 보고 있었다. 하도 귀여워져서였다. 한참 잠란지다 잠든 아인이자 얼굴엔 憂鬱이름 그리고 코인저리에는 질펀히 코가 나와 번져 있었다. 그때도 아버지는 깨물고 싶도록 귀엽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애가 변형 일어나 앉지 않는가? 기적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

오늘 배 몸의 울음에 물들었구나.

이다지도 새로운 열들의 겨울 속이었을까.

나는 아쉽고, 비는 밋고 바람이 분다.

배 귀밑의 숨털들이 떨리는 것

내 모른다. 나는 떠나야 하고

너의 아지랑이와 같이 우는 부끄러움,

나는 모르고 떠나야 한다.

2

나는 돌아와서 있다.

이제 떠나지 않고

저 저녁 구름을 바라보고

땀새들이 잘 때 잠이 든다.

너는 어디로 가서 홀로 말하느냐,

내 몸은 재채기에 잠을 깨이고

호르는 이름, 호르는 이름,

어둠 속에서 너와 나의 숨이 닿느냐.

이름 들어 안았다. 아이는 부산히 눈을 부본다 꿈에서 놀란 모양이라 여기고 아버지는 安堵의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어느새 아들과 툭을 치고 싶도록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서 따끔한 눈물 뜨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왜 있는지 아니?」

意外라는 뜻 아버지를 반히 지켜보는 아들이 생각났다는 듯이 하는 對答.

「플라구!」

아버지도 아들의 意外의 答辯에 놀랐다. 그리고 또 한번 물고 싶었다.

「그럼, 코는 왜 있지?」

「플라구!」

이번엔 아들은 대답이렇게 答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불쑥하는 答이 神奇해서 아들의 코를 문득 살폈다. 물론 누린 코가 드나고 있더라는 이야기이다.

하찮은 寓話의 한 토막이지만 여기서는 다섯살짜리의 愛嬌로 웃어만 넘길 수가 없다. 얼핏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使命을 바르게 깨닫기란 그리 容易하지가 못하다.

눈이 보기 爲해 있어야 지 單只 드기 위해 있다면 어긋난 判斷일 것이요, 코도 냄새를 맡기 위 있어야 지 코 풀기 위해 있다고 認識하면 빛나간 判斷인 것이다. 우리는 늘 知性人임을 自處하고, 옳은 判斷에서 行動한다고 自負하지만 自身 使命을 그릇 判斷하는 수도 있다. 萬若 코를 풀기 위해 있다면 判斷으로 코의 使命을 그릇 認識하고 콧구멍을 막아 두었다가 풀 때만 연다면 그 사람은 냄새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使命에다 準用해 본다면 그 可恐한 結果에 毛骨이 悚然해질 것이다. 색은 屍體를

쫓는 일이 眞正한 使命인 줄 알고 그를 爲해 努力한다면 逆流에 舟行하는 것으로 勞心만 했지 無功일 것이며 그 보나도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惡의 陷阱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은 색은 고기를 그 것이든 알면서 쫓는 사람보다 더 不幸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좀 지나친 表現인지 모르지만 筆者는 사람을 自己를 不斷히 穿鑿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아무리 赤裸裸한 自身을 把持했다고 自負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을 다시 한번 훑어볼 때 想像外로 크나한 秘密이 두터운 베일을 쓰고 묻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는 格이다. 또 오늘까지 해맑은 마음이 밤 사이에 구름이 아니 건다고 壯談할 수도 없다. 不斷히 澈底하여 自我를 爲해 判斷할 것이며 自我를 爲해 把握해야

지 自身의 使命을 認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身體構造를 가만히 살피면 아무래도 뭔가 해야겠끔 생겼지 가만히 있게 되어지는 양은 것 같을 때, 무엇을 해야지를 모르고 盲目으로 움직이고 색은 고기를 涉獵한다면 痛嘆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 無盡한 寶庫처럼 깨기만 하면 얼마든지 知慧가 湧出하는 頭腦情熱이 팔다리는 心臟等 일할 準備는 늘 가쳐져 있는

때 果然 무었을 할꼬?

을게 使命을 自覺해야 한다. 그러기 爲한 方法은 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 上述했지만 不斷히 自身을 穿鑿하면서 環境과 立地條件은 勿論 從橫으로의 史的 考察까지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眞을 發見한다. 使命을 發見한다.

다음, 이렇게 해서 一段 使命이 決定되면 모든 機會와 與件이 이 使命을 遂하는 데 動員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勿論, 우리가 살을 營爲하는데 起伏이 없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胃가 健全할 적에 어떤 飲食이든 잘 消化해서 完全無缺한 排泄物을 내듯이, 우리의 生活도 健全히 營爲하므로써 모든 機會를 捕捉消化해아 한다고 본다.

은갖 機會가 使命을 爲해 바쳐지는 生活! 여기는 틀이 없다. 틀이 없는 生活에 「까짓것」의 毒素은 寄食치 못한다.

우리는 現在 軍人이란 身分에 있지만 自身の 무릇한 使命感만 있다면 아무 리고되고 至難한 環境이라도 수월히 넘을 수가 있을 것이며 自身에게 有益하고, 國家에 裨益할 수 있는 兵營生活이 되리라고 본다. 人間으로 태어난 使命을 遂하는 한 過程으로서의 軍人生活에 倦怠도 幻滅도 介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까짓것」다음 달은 除隊할때! 로 適當히 消日은 안된다. 嚴然한 人格으로서의 個體가 上官이 무서워서만 일한다는 건 더 없을 羞恥가 아닌가?

## 2. 自 制 力

우선 例話 하나를 들고 本論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美國의 어떤 大學境內에 우거진 숲이 있었다. 이 숲속에 많은 다람쥐가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나 學生들이 던져주곤 한 菓子나 부엌에 맛이 붙어서 다람쥐들은 그만 自活을 爲한 努力을 拋棄하게 되었다. 나무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혀도 그것을 따먹기보다 學生들이 던져주는 菓子를 기다렸다. 不勞所得에 맛을 붙인 셈이었다. 學生들에게 권은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돈도 돈이었지만 방향에도 當番이 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何如間 다람쥐들은 學生들의 품에 안겨서 제당지 알케 卑屈한 愛嬌를 떨게 되었다.

주저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眞否에 對해선 確固한 自信이 없지만 自制(Salcontrol)를 論하는 데 좋은 例話가 될 것같이 들었다.

다람쥐 뿐만 아니라 우리네 人間들도 不勞所得 即 功자는 무언히 받힌다. 特別히 우리 民族은 그러하다는 뜻에서 公利이면은 양껏 몰도 먹는다. 俗談까지 있지만 이 이야기의 樞要가 거슬린 사람도 품음히 생각하면 自身의 어느 한 구석에 그런 觀念이 있음을 否認치 못하리라 생각된다. 民族으로 따지더라도 우리 民族만이 더하다는 尺度는 아무데도 없는 것이다.

世上에 誘惑이 많지만 公利의 배려 以上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도 적으리라. 우리네 周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家畜이나 새끼스團의 野獸 따위도 따지고 보면 公利의 배려 때문에 自制力을 잃고 그 生活手段을 송두리째 사 팔리게 된 것을 맞은 阿諛꾼들이다. 소나 말 그리고 사자나 범 같은 동물이 들직한 것들이 공짜에 걸들어서 天賦의 野性에서 떠나 유물스럽게 人間의 掌中에서 弄奸當하는 것을 볼 때에 대견할도 신기한 점도 모두 사라진다.

사람도 한가지이다. 自己를 自己가 統制하지 못하고, 崑山草모양 바람의 方向 따라 흔들리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만것은 말고 舊政權下에서 알랑거리던 官僚輩들의 所行만을 보드래도 이 民族의 根性에 阿諛하는 本性이 저잡이 깃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고령제도 自己의 속아져를 속속들이 남에게 바칠 수 있을까 싶게 그네들은 上典에게 屈身阿諛했다. 바치다 모자라면 거짓말로라도 上典의 補裨를 하려들면 그네들이 阿諛은 世界舞臺에 내놓아서 조금도 損色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勿論 이들의 末路가 어 디로 歸着되었나. 知悉의 事實이요 그네들의 人格은 睡棄한 것이 되고 말았 지만 그러나 이런 譬들의 事實만으로 앞으로 이런 問題가 拔本塞源되었는가 는 疑問의 餘地가 없다고 본다.

四·一九와 五·一六 두차례의 革命이 그렇게도 民族正氣를 다짐했는데도 아직 우리의 周邊에는 自己를 파는 자가 있다. 自己의 一切를 남의 手中에 넘기는 사람이 있던 말이다. 卑近한 例로서 우리를 出退勤者들이 退勤時에 過當히 주고받는 마걸리 티링에 그만 미혹되어서 自制를 잃고 늦은 밤거리를 醉態로 醜態를 부리는 일이 곧 그 一種이다. 하루의 스캐를 늦은 마걸리루 념으로 나치다는 事實이 벌써 自己를 誘惑자에게 판 것이요, 대포 한잔이 수십잔이 되어서 곧드레가 되는 것도 媚女보다 못한 醜한 行動이다. 自己를 술에다 팔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媚女는 賤視한 줄 알지만 그보다 몇 갑절이나 더 醜한 自制力을 잃은 人間 即 自己를 파는 人間은 賤視한 줄 모른다. 아니 도리혀 自己를 팔아 榮達? 한 人間을 羨望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言語道斷은 예다 쓰라고 단든 말이다.

勿論 媚女도 醜하다. 허나 그녀들은 肉體는 判明정 自己(精神)는 팔지 않을 수가 있다. 肉體보다도 自身은 송두리째의 自己를 指稱하는 것으로 더 重하지 않겠는가?

自制란 힘이다. 그러나 自制 없이 제구실은 못한다. 動物이건. 人間이건. 따라서 우리는 自己를 自己가 조종하기 爲해 心血을 傾注해야 한다. 自制는 말의 뜻대로 自身만이 할 수 있다. 使命에 符合되지 않는 일은 自制하는 것이 當然할 것이다.

革命은 이제 第三段階에 突入했다. 既述했지만 革命後 짧은 時日에 成就한 業績은 實로 莫重하다 하겠다. 허나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많고 또 그것은 지 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들 人間의 힘을 가다리기 때문에 焦眉의 急先務는 人間의 올바른 姿勢인 것이다. 이것 없이 어떤 일도 제대로 成就될 수 없겠기에 本論에서는 까짓것 이름의 弊弊를 論하고 또 그 毒素의 解毒策을 提示해서 人間改造의 氣運에 經濟開發 五個年計畫을 成功裡에 遂行하여 이 나라의 百年大計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當面課題라면 우리는 使命感에 불타고 自己統制에 熱을 내어 틀 없이 짜여진 生活로 自己의 任務를 完遂하는 길만이 「참」이요, 共鳴 받을 길이며 當面課題에 副應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 린드버그의 成功



—航空發達史 ⑥—

K·나 이 트

一九二七年 여름은 세계항공사상 위대한 전환기(轉換期)의 하나가 되었다. 울티상(賞) 비행의 성과가 역사적인 페이저를 장식하였으며 대서양 단신 횡단(單身橫斷)의 성공은 미국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찰스·린드버그가 밤 하늘을 타고 파리에 내렸을 때만큼 미국사람들을 광적인 환희(歡喜)로 들끓게 한 적은 없었다.

키가 크고 서늘한 이 젊은이가 캐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뉴욕으로 날라왔을 때 출판비료를 거의 끌 내고 있던 다른 참가자들은 그의 존재를 아주 잊었을 정도였다. 그는 육군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다음 항공편 수송에 종사한 일이 있었으며 낙하산장하(降下)를 몇 차례 한 경험도 있었다고 하나 격정가(激情家)로서 아무 리 보아도 충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숙한 비행사들만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문체에 몰입하고 있었으며 린드버그 자신도 사교성(社交性)이 없는 사람이었다. 신문은 과묵(寡默)하다는 말 이외에 그를 형용할 적당한 말을 찾아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해 봄二月, 三월, 四월은 이 경쟁에 승리를 거두는 데 알맞은 때라고 들 전망하였다. 북극비행(北極飛行)을 해치었으며 조직적인 재능이 풍부한 바드 중령은 특제(特製)의 컷카삼발기(三發機)에 최신식 실비를 만재(滿載)하고 조종사 두사람 정비사 한 사람 거기다 자기 자신도 항공사로서 탑승(搭乘)한다고 하는 성공에 의심할 여지없는 계획을 세웠다. 경력이 풍부한 해군비행사 노일·데이비스와

H·S·우스터도 미국연대(美國聯隊)라고 이름지은 다발(多發) 키스톤형(型) 복엽기(複葉機)의 완성은 눈앞에 두고 대기하고 있었다. 워크도 새로운 비행기로 다시 한번 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쿠라렌스·첸바렌은 강인(強毅)한 배랑카기(機)를 가지고 벨트·아고스타와 공동 시험비행에서 제공(製空) 五十一시간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단발(單發)인 「스피리트」호브·셴트루이스나 린드버그는 이와같은 화려한 친군만대(千軍萬馬)의 명비행사들과 그들의 기(愛機) 앞에서 극히 희미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라이트 형제가 초기의 많은 곤란과 싸워서 드디어 그것들을 극복한 것과 같은 불요불굴의 정신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돈은 없어도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마음과 꾸준히 세부(細部)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열성으로써 한눈도 팔지 않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전심(專心)하고 있었다. 거의 매일같은 셴트루이스-시카고 사이의 우편수송으로 그는 저울천의 악천후(惡天候)에도 지리낌 없이 비행하여 불시착(不時着)이나 중증 일이나는 기계고장을 아무스럼없이 암계 생각하고 있었다. 혼자서 캄캄한 밤하늘을 날때도 많았는데 그러한 때는 냉정하게 잠도 없이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고는 하였는데 비행사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는 그에 있어 흡사히 최초의 글라이더를 건조(建造)하기까지의 라이트 형제의 오랜 세월의 준비시대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결행(決行)할 것을 굳게 결

심한 다음 번복성 없는 셴트루이스의 실업가들이나 은행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비행을 위한 원조를 부탁하였던 것인데 그의 생각하는 거나 계산이 상당히 간결(簡潔)하고 요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린드버그를 신뢰하여 一萬五千불을 꾸어주었을뿐 아니라 그의 계획을 대하여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계획목적에 가장 적당한 것은 단발기(單發機)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드는 비행기를 샌디에고의 라이안 항공기회사에다 한대를 주문하였다. 도중에 착륙하는 것 같은 것이 아주 불가능한 장거리 도양 횡단 비행(渡洋橫斷飛行)에서 전방시계(前方視界)를 희생하며라도 필장(必)히 큰 연료탱크를 조종석 전방에 장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라이트제(製) 성형(星型)엔진이 三, 六〇〇마일 거리를 비행중에 소비할 개소린의 양(量)을 면밀히 계산하여 사전(事前)에 엔진의 적정(適正)한 소비량을 결정(計定)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시하고 있던 무신기나 분도기(分度機) 안락장비(安樂裝備)같은 부수품에 관해서는 아주 생각조차 안하였다.

비행기가 라이안사의 설계기사(設計技師) 도날드·홀의 열성적인 협력 아래 만들어지고 있는 사이에 린드버그는 그 당시 얻을 수 있는 온갖 자료나 문헌(文獻)을 찾아 항법(航法)을 충실히 공부하였다. 그가 만든 대서양 횡단 대권공로(大圈空路)의 흥미를 가진 근처 해군항공기지 장교들은 부정기(不定期)항공의 조종사였

던이 청년을 초청해서 아직 실제로 비행은 하지 않았지만 독창적인 비행 계획을 설명하는 강연회를 가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동해안(東海岸)에 있었던 몇 조(組)의 경쟁자들의 출발이 되지 않았음을 알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린드버그의 출발이 그들보다 늦어진 가능성이 다분히 많았다. 그러나 잘 실행되리라고 생각하면 모든 계획은 그 뒤연달은 사고나 동료들끼리의 불화(不和)로 중단되기 시작하였다. 버지니아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던 아메리칸·리존호(號)는 추락되어 데이비스와 우스터는 한몫 죽었다. 바드브의 윗카기도 첫번째 시험비행에서 대파(大破)하여 바드브중령도 팔이 붙어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후로이드·베비트는 바드브의 보조조종사였는데 이 사고로 무선기사(無線技師)와 더불어 중상(重傷)을 입었다. 쉥크의 비행기는 폭발사고로 없어졌다. 콜럼비아호로 나를 예정이었던 체발렌과 찰스·레바인은 보조조종사와 항공사를 물색하다가 뜻이 맞지를 알아 헤어졌다.

뒤늦게 경쟁에 참가한 노련한 불란서의 사투루·난제셀과 후란쏘아·코리두사람이 조종하는 백조(白鳥)기는 뉴욕을 향해서 파리를 출발하여 구라파대륙을 벗어난 직후에 소식이 없어진채 그후 드디어 영천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린드버그가 케리포니아에서 쉐트루이스에 들림으로써 더욱 단 신기록을 수립하기까지 대체로 비행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바드브가 조종하는 콜럼비아호 뿐이었다. 더구나 대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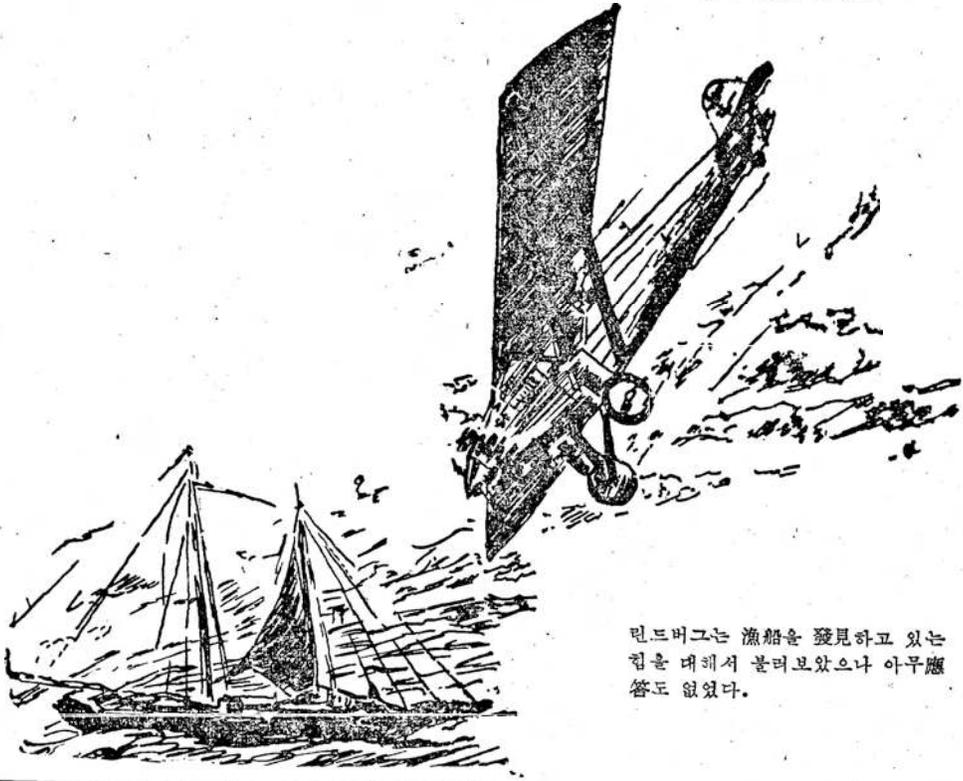
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서 언제 개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린드버그는 카티스 비행장 격납고(格納庫)속에 애기(愛機)를 집어넣고 한번만 단시간 나른 다음 나침반(羅重盤)을 검사하고 손수 마이크·엔진회사의 도움으로 발동기의 마지막 분해소제(分解掃除)를 하였다. 그는 주위사람들과 거의 말을 거는 일이 없었는데 그의 신상(身上)을 생자해서의 무모(無謀)한 비행을 중지하도록 설득(說得)한 사람도 있었다.

드디어 미국 관상대(觀象臺)의 제임스·킹볼박사로 부터 대서양의 천후가 호전(好轉)되었다고 전해지고五月二十일 아침부터 겨우 안개가 개이기 시작하였다.

린드버그는 이 기회에 영원(念願)의 비행을 결행할 결의를 굳게 하였다. 연료를 만재(滿載)하고 한숨도 자지 않은채 「스피리트·오브·셴트루이스」에 탑승한 린드버그는 물에 찬 비행장을 용감·출발하여 먼동이 틀 무렵 가랑비 나리는 속을 사라져 갔다. 훌륭한 선견지명(先見之明)과 기술을 에다 행운도 도와서 그가 정비한 엔진의 컨디션은 三十三시간에 걸친 비행중 순조로웠고 비행계획대로 비행을 계속하였다. 이륙(離陸)한지 十二시간만에 미주대륙의 최후의 직접 뉴펀드랜드 섬의 셴트존 상공을 통과하여 그야말로 예정대로의 코스스로 구라파에 기수(機首)를 돌렸다.

북대서양은 최악(最惡)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산페미 같은 구름과 짙은 안개 때문에 비행기는 높은 고도(高度)로 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밤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다고 그는 후일 솔



린드버그는 漁船을 發見하고 있는 힘을 때워서 볼머보았으나 아무應答도 없었다.

회(述懷)하고 있다.

수마(睡魔)와 싸우면서 이따금씩 수  
통물로 입을 적시며 조름이 오는 것을  
피하고 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

十八시간 후에는 대서양 한복판에 도  
달하여 짙은 안개속에서 맹목비행(盲目  
飛行)을 계속하였다. 二十八시간을  
경과하였을 무렵 그는 어선(漁船)한  
척을 발견하고 그 상공을 저공으로 비  
행하면서 「아일트랜드는 어느 방향이  
나.」고 물었으나 응답(應答)이 없었  
다. 三十二시간이 경과한 후 그는 영  
불해협(英佛海峽)을 횡단하여 드디어  
불란서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구라파 대륙을 보았  
던 것이다. 앞으로 한시간이면 파리  
에 도착한다고 해서 나머지 연료를 염  
려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는 섣드릿  
치 용지를 펼쳤다. 이 지루하고 피로  
한 비행중 최초의 식사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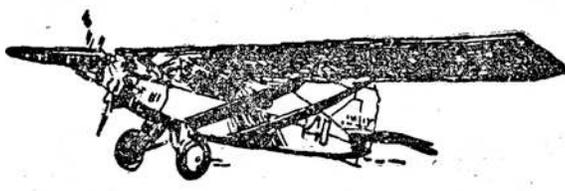
파라핀 포장지(包裝紙)를 조종석 창  
문으로 버릴려고 하다가 그는 「섣드릿  
치 포장지가 나의 최초의 불란서에 대  
한 접촉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자  
그것을 조종석 한쪽구석에 떨어뜨려  
서 끼어 놓았던 것이다.

탐조동(探照燈)의 도음을 받아 불지  
에 공항(空港)에 착륙한 순간 이제까  
지의 모든 심정이 날라가 버릴 만할 열  
광적인 환영의 환영였다. 그의 도착  
을 온이 파지케 기다리고 있던 군중  
(群衆)들은 열광(熱狂)해서 그와 비행  
기 주위로 쇄도(殺到)하였다. 그들은  
감격한 나머지 비행기를 부술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파리 착륙  
의 뉴우스를 들었을 때의 기쁨은 파  
이트형제의 최초의 비행과는 아주 다

른 것이었다. 일반 시민에서부터 고  
급 항공전문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  
은 이 무명청년이 제국대로 완전하게  
이끈 난한 비행을 해치우는데 대하여 그  
저를 알 뿐이었다.

이렇게 린드버그가 성공한 다음 용  
장(勇壯)한 대양 횡단 비행이 몇번이고  
행해졌으나 그때 처음의 감격과 흥분



첼렌린이 愛用한 비강카製の 콜럼비아機

을 불러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난제  
셀과 코리의 희생(犠牲)을 마지막으  
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는 이미 그와 같  
은 참사(慘事)는 자취를 간추었다.  
첼렌린의 비행계획은 드디어 레비  
안이 콜럼비아호의 보조조종사가 될  
것에 동의하고 겨우 집안싸움이 끝  
났다.

그러나 첼렌린은 단독으로 횡단 비  
행을 해서 성공을 거두어 독일 땅 아  
이레스벤의 발에 착륙하여 二주일 전  
에 린드버그가 수립한 비행기록 보다  
三〇〇마일이나 더 비행한 기록을 남  
겼다.

한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에 많은 차질을 일으켰던  
바드드의 아메리카호에 의한 비행이  
감행되었다. 바드도와 아고스트 두사  
람이 조종하고 보조조종사인 빈트·바  
루엔과 무선기사(無線技師) 조지·노  
빌이 탑승한 아메리카호는 대서양 상  
에서 최악(最惡)의 천후(天候)에 부  
딛쳤는데 그것은 육지상공에 들어서  
서도 계속되었다. 이 악천후는 파리  
를 완전히 몰바다로 만들었을뿐 아  
니라이웃의 여타라라도 대부분을 몰바  
다로 만들었던 것이다.

탐승원들은 안전한 착륙장소를 찾  
아 호우(豪雨)속을 일마안남은 연로  
를 걱정하면서 헤메였으며 비상치  
않은 소리를 내고 있는 三대의 엔진에 신  
경을 쓰면서 비행하고 있었는데 드디  
어 바루엔은 비행기를 안내미 같은 파  
도가 넘실거리는데 바다와 성공적으  
로 착수(着水)시켜 탐승원 비사람은  
고무보트를 타고 놀란다 해안의 다  
달았다.

그 때는 일반의 관심이 구라파에 집  
중된 형편이었기 때문에 육군의 헛카  
기(機)가 六월二十八일에 캐리포니아  
주륙(州) 오스랜드에서 하와이까지 무  
작륙 비행을 하였으나 바드가 대서양  
횡단 비행중이기도 하여 전혀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하와이의  
의 해양 횡단거리(海洋橫斷距離)는 린  
드버그나 바드드 또는 첼렌린의 양상

라 때 평양상의 하나의 적은 지점을 찾  
아 낸다는 것은 구라파 대륙을 찾아내  
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항법(航法)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二주일후 민간 조종사인 에네스트·  
스미스는 항공사인 에모리·부른베와  
더버러 소형 단엽기(小型單葉機) 트  
라발호를 띄워 같은 비행을 하였으나  
도착하였을 때는 해안(海岸)에 있었  
던 몇그루 나무 너머로 잔잔히 착륙  
할만한 연로밖에는 남기지 못하였다.

대평양 횡단 비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인애플 왕이라고 불리우는 큰 부호  
(富豪) 제인스·들은 캐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의 비행경쟁에 一五,〇〇〇  
불과 一〇,〇〇〇불의 두개 상금을 제  
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비행은 두  
중에 실이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무  
착륙 횡단 비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현상경기(懸賞競技)에 十六명의  
응모자(應募者)가 있었으며 아홉사람  
의 남자와 한사람의 여교사(女教師)  
가 여기에 참가하여 생명명을 잃었다.

참가비행들 가운데는 기술적으로  
미숙한 사람도 있었으며 필수장비(必需  
裝備)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  
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황해  
서 참가예정자들 가운데서 여덟사람  
을 출발금지시켰다. 이 경쟁은 八  
월十六일의 일제의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경기였다.

이런기는 이룩하자마자 축전지(蓄電  
池)고장으로 되돌아 왔다. 二번기는  
이륙할때 이미 대파(大波)되고 三번  
기는 짐을 너무 실었기 때문에 이륙  
을 하지 못하였다.

결구 四대만이 출발하고 금문포(金  
門)에 도착하였다. 이 비행은 구라파

門橋를 넘어서서 넓은 안개 속을 사라져 갔다. 아트·고벨과 윌리엄·테이비스가 탄 우라트크호와 마린센과 폴·슈루터 대위(大尉)의 아로호 두 대만이 무사히 하와이에 도착하여 상공을 획득하였다. 다른 두대는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오래동안 수색(搜索)이 계속되었으나 파편(破片)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실은 아로호도 자칫 잘못하였으면 행방불명이 될 뻔 하였다. 전선은 항법에는 아직 배지였기 때문에 안내역으로서 슈루터 대위를 고용하였던 것이다. 이 해군대위는 비행기와 간헐한 항공관측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체(天體)나 추측으로 비행하고 육분의(六分儀)에만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추정(推定)으로서 유자가 보아야 할 색별이 되어 도 전연 유자가 보이지 않고 가도 가도 끝없는 바다뿐이었다. 연료탱크 배후(背後)의 기계 뒷편에 있는 거부장스린 좌석에서 그는 '육분의로 정오의 태양 고도를 측정할 때까지는 불렀어!'라고 전선을 향해 소리쳤다. 조종사는 서서히 내려가는 연료계(燃料計)의 바늘을 바라다 보며 '한군데를 선회(旋回)하면서 슈루터가 비행기의 위치를 측정하여 나침반에 따라 나를 수 있는 12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호이'라 비행장의 좌측하였을 때는 한산 침도의 연료가 남았을 뿐이었다.

1차항 노린 여리가지 시도(試圖)에서 몸소 체험한 가장 귀중한 것은 완전한 준비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장비나 기술과 인내심이었다. 이것이 없이는 장거리비행을 할다는 것은 상상

이나 자기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실려지는 것에 아무리 매력을 느낀다 하더라도 실로 바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와같이 구체적으로 사실이 제시(提示)되어도 일차(一着)의 영향력을 얻으려는 욕망은 비행사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다.

파란 땅면 1927년 말까지도 하나 세계거리비행을 꿈꾸는 몇몇 박자를 가진 장거리비행가 시도(試圖)되었다. 윌리엄·부룩크와 슈베르 무사람이 조종하는 스티븐슨(製) 페트로이드호(號)는 크게 떠돌지도 않고 특히 어렵다 할 선전도 없이 대서양을 날라 구라와 대륙과 아세아를 횡단해서 동경에 도착하였다. 소형기(小型機)의 태평양 횡단을 미친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의 압력(壓力)으로 태평양의 횡단비행은 단념(斷念)하였으나 그때까지 11, 2, 295마일을 날랐던 것이다. 1931년이 되자 크라이드·팜본과 휴·한돈 두사람이 같은 정도의 규모의 비행기로 이륙후(離陸後) 좌륜(車輪을 버린 채 일대에서 위성론(衛星)을 향해서 날랐다. 그리 고 북쪽으로 시베리아 연해(沿海)와 아류산 열도(列島)를 지나 아라스카를 거쳐 북극북극(北極) 한 끝에 무사히 북극지에 도달하였다.

넓고 끝없는 바다와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작은 섬 이외의 중계지(中繼地)도 없는 중부 태평양 횡단은 정확하고 완전한 항법(航海)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연안(沿岸)방송구의 무선설비도 그렇지는 불안정하여 비행기용 송신기(送信機)나 수신기(受信機)의 기능도 전혀 믿을만 한 것이 못 되었다.

그러나 넓은 비행사들에게는 다시 없는 도전(挑戰)의 해이기도 하였다. 1928년 6월 초 오스트라리아 사람 인 킹스포트·스미스와 찰스·우름 두 사람은 삼발기(三發機) 남십자성호로 서 캐리포니아주 오크랜드에서 지구 의 하측(下側)에 있는 오스트라리아의 부리스토나까지 비행하였다. 방향(方向)測定에는 항공사인 하리·라이안대위의 무선통신사로 있는 제임스·워너의 두 미국사람이 당하여 뱃수(雷雨) 많은 하늘을 계절풍(季節風)에 이끌리면서 비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동쪽 하와이와 워지군도(群島)에 들러 8일이나 걸려 천항정(全航程)을 극복하였다.

이것은 시종(始終) 무선으로 지상과 연락하면서 행한 최초의 장거리 비행으로서 후일 장거리 비행의 모범이 되어 민간항공운영에는 배움을 수 없는 오늘날의 무선통신 연락시대의 선구(先驅)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무선기에는 항공기의 발달과 보조를 맞추어 이 당시부터는 무선 발전을 거듭하였다.

1929년 11월 바드, 발렌, 해롤드·준, 아슈레의 배사함은 워드제(製) 삼발기로 남극상공(南極上空)을 비행하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단파방송(短波放送)으로 이 탐험의 성과들이며 수분후에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올 나태내고 있다. 그 구조에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후 차차 알미 합금(合金)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지주(支柱)나 철색(鐵索)을 둘러친 부엽기(複葉機) 대신에 두꺼운 날개를 단엽기(單葉機)가 판을 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워드제(製)에 사용된 물결형(波)의 금속 외판(外板)은 점차로 발전한 질량 평면(平面)의 저항(抵抗)이 적은 것으로 바뀌어져서 속도 증가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시대가 발달하여 설계자의 기술이 고도해집에 따라 기계구조(機體構造) 가운데서 저항이 많은 부분부터 제거하는 경향이 나타나 장치장치(降着裝置)를 기체나 날개 안쪽에 잡아넣고 이 좌륙할 때만 고집이 내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부레이크 역할을 하는 하인(下翼)이 널리 채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륜식(二輪式) 대신에 삼륜식(三輪式) 조작장치가 보급되어 이 좌륙의 조작(操作)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영미리무무체임은데다 과학적 세련을 받은 많은 비행사들은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도전하고 신구자제(先驅者)의 활주로(滑走路)는 곤란한 문제 해결에 임했다. 그들의 많은 공헌(貢獻)으로 여러 수송용 항공기는 크게 개선된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성능도 확실해졌다.

세계의 속도기록은 1923년에 알·윌리엄이 만든 시속(時速) 266마일을 비롯해서 그로부터 끊임없이 상승을 계속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924년에 보네중사(中士)가 시속 278마일, 1932년에는 제임스·R·드릿틀이 시속 294마일, 1

九三三년에 제임스·R·켈벨이 시속 三〇四마일, 一九三四年에는 볼란서의 레이몬·메루트트가 시속 三二四마일, 하워드·휴스가 一九三五년에 시속 三五二마일을 날았다. 그러나 그 후는 독일이 점차로 진출하여 一九三七년에 켈벨·분스타가 시속 三七九마일, 一九三九년에는 후릿스·켈벨이 시속 四六九마일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도시간(都市間)이나 대륙간 혹은 세계일주 같은 장거리를 고속(高速)으로 나르는 것이 후랑크·호쿠스, 로스코·타나, 하워드·휴스같은 사람들과 여류(女流) 비행사로는 무스·니콜즈, 아메리아·이아하트, 자크린·코쿠란같은 사람들이 피하는바 되어 기록은 자주자꾸 갱신(更新)되어 갔다.

세계일주 비행은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一九二二년에 윌리·포스트는 항공사로 있는 해롤드·갯티와 록키드의 단발기(單發機)인 위니·메이호로 세계일주를 八일만에 해차워 二년 후에는 포스트 혼자서 먼지방의 기록을 꼭 하루 더 단축한 기록을 세웠다. 一九三八년에 이르러 하워드·휴즈도 배사리의 탐승원과 함께 록키트쌍발기로 전항속거리(全航續距離) 一四,七九一마일을 四일 두 개 안절리 일주 비행을 하고 포스트의 기록을 대폭으로 깨트렸다.

아메리아·이아하트의사(女史)가 一九二八年 월타·순스루스와 더불어 웨루스의 트레팻씨만(灣)에서 페리항(港)까지, 또한 一九三二년의 아일랜드의 런던메리까지 단독으로 횡단 비행을 두번 실시하여 일약 유명해져

자 이내 열마후에는 파리에서 뉴욕에의 최초의 동쪽으로 도는 대서양 횡단 비행을 볼란서사람 두몬누·고스트와 모리스·베론트 두사람이 감행하여 서향(西向)의 맛바람에도 불구하고 三十七시간만에 뉴욕에 도착하였다.

이보다 앞서 헤루만·켈인 대위와 군타·폰·휴누펠트 남작(男爵) 두 독일사람은 아일랜드 태생의 보조종사 제임스·윌트모리스와 더불어 뉴욕을 향해서 다부린을 출발하였으나 무시무시한 역풍(逆風)과 안개로 피로움을 당하던 끝에 고스트가 뉴욕까지 날랐는데 걸린거와 같은 정도의 시간을 허비한 끝에 가라와 같은 구리니섬에 불시착하여 기체(機體)는 대파되었다.

한편 린드버그는 사람의 눈을 끌지 않는 실용적인 장거리 항공기를 개척하기 위해서 굉장히 견실한 연구적 비행을 항공용업이나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었다. 一九二七년에서 二八年 겨울에 걸쳐 그는 애기(愛機) 스피리트·오브·세인트루이스호로 九千마일 이상이나 날라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海)의 여러 섬들을 일주(一周)하면서 공중으로부터 이 지역을 조사하였다. 또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모로·린드버그와 같이 루키드 회사제 저인단열기(低翼單葉機)로 북쪽을 도는 동양행(東洋行) 비행을 하였다. 이들 부부는 캐나다 사람들도 살지 않는 황무지 상공을 거쳐 하드슨만(灣)을 따라 포인트·바로와 노부의 이르고 거처를 다시 캅카 연안을 남하(南下)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비행하였다. 이와같은 비행을 위시해서 북극양(北極洋)을 횡단

하여 영국으로 비행한다던가 서쪽으로 나아가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비행 따위로 그는 많은 것을 조사하여 그가 공문(顧問)으로 있던 관·아메리칸항공회사에게 굉장히 유리한 보고를 갖어 왔다. 수적(數的)이 성립된 비행사 비교적 눈에 띈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는 一九二八年 하버트·윌킨스와 칼·벤·아어루손이 행한 아라스카의 포인트·바로에서 부터 스피츠·베루제에 이르는 북극 횡단 비행이 있다.

아어루손은 조용하고도 민들없는 비행사로서 북방비행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카나다나 아라스카의 에스키모들과 섞여서 용감히 작업의 종사하고 있는 비행부대의 책임 극지(極地)의 특유한 자연의 횡포(橫暴)를 잘 알고 있었다. 윌리·포스트와 유명한 유모이 작가(作家)였던 윌·로자스 두사람이 一九三五年 八月 포인트·바로 근처에서 머무러 지을 때 극지비행가 단체의 창립위원(創立委員)의 한 사람인 유·쿠트손은 그들의 시체(屍體)를 고국으로 공수(空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미국 항공부대는 一九三九년부터 四년간 이 부대시양의 돌출부(突出部)에서 한년천수시험(寒冷天候試驗)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이들 극지비행가들의 대충적이지만 실용적인 비행에 관한 지식이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 입증(立證)되었다.

一九三〇년대와 후반(後半)은 상업항공회사가 적극적으로 로선확장(路線擴張)을 꾀한 시기였다. 선구자들이 많은 시련비행을 통해서 개척된 기계가 구입(購入) 되었으며 또한 여객의 안락성(安樂性)을 높이기 위해서

기상(機上) 위안설비나 식사의 제공을 개시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의 무선기를 탑재(搭載)하기 시작하였다. 미국본토 상공은 간선(幹線)과 지선(支線)으로 된 항공로망(航空路網)이 급격히 발달하였다. 이와같은 항공망의 확대에 대하여 판·아메리카 항공은 당시 여러 외국으로 가는 해외항공로(海外航空路)를 전문으로 해서 설립된 미국 유일의 항공회사였다. 실제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가는 즉속 자가용 무선통신이나 여객비행가추진기관·아메리카의 선구자들은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제국까지 남하(南下)하는 공로(空路)를 연장하고 그것에 반전(反轉)해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중국의 달하는 공로를 개척하였다. 一九三五년에는 웨이크, 미드웨이, 팜릿 비올빈을 거쳐 홍콩에 이르는 공로를 설정(設定)하여 마틴제(製)의 차이로·쿠릿파호가 정기 여객수송을 개시하였다.

이 미국항공회사가 남미행(南美行) 항공로로 구라파의 항공회사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볼란서나 독일은 미국의 우위성(優位性)에 도전하려고 일어섰다. 一九三八年 九月 독일군의 포랜드 침입으로 대연이 발발하였을 때 미국 항공부대에는 두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다.

一九三八年 오스카·웨스트오바가 비행기 사고로 죽은 후에 켈리·아놀드 대장이 육군항공부대의 사령관이 되고 또한 三九三 三월에 존·타워즈 중장이 해군항공부장에 취임하였다. 두사람이 다 오해동안 미군 강화를 위해서 애써 온 사람들이며 두사람이 다

가정기 여객수송을 개시하였다. 이 미국항공회사가 남미행(南美行) 항공로로 구라파의 항공회사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볼란서나 독일은 미국의 우위성(優位性)에 도전하려고 일어섰다. 一九三八年 九月 독일군의 포랜드 침입으로 대연이 발발하였을 때 미국 항공부대에는 두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다.

가정기 여객수송을 개시하였다. 이 미국항공회사가 남미행(南美行) 항공로로 구라파의 항공회사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볼란서나 독일은 미국의 우위성(優位性)에 도전하려고 일어섰다. 一九三八年 九月 독일군의 포랜드 침입으로 대연이 발발하였을 때 미국 항공부대에는 두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다.

제가 있는 인물이었다. 전에 몇몇  
를 비롯한 항공장교들은 미국의 항공  
세력은 세계열강(世界列強)의 제5위  
나 6위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평한적  
이 있는데 이와같은 지론(持論)은 그

# 선량한 사람들

〈내가 만일 일할수 없는편〉

朴 榮 濬

다지 미국국방정책에 고려되지 못하  
였다. 타워즈와 아놀드 두장군은 약  
체화(弱體化)된 공군력을 빨리 재건  
하기위해서 재삼(再三)의 회(議會)에서 강  
조한 끝에 인원 및 항공기 정비용에

1. 四 후퇴 때 대구서 피난 사리를  
하는 동안 나는 공군본부 정훈감실에  
서 발령하는 『포케트』와 『청조(靑鳥)  
다이스트』의 편지를 달아본 일이  
있다.

그때서 청훈관제의 장교는 물론 공  
군전제의 장병과 꽤 많은 직속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공군 장병은 대부분  
이 지식층이어서 군대 생활에서도 군  
대 내세를 별로 풍기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군기가 문란하다는  
뜻은 아니다. 군기를 준수하면서도 공  
군장병들은 인간적인 면세를 보다 많  
이 풍진다는 뜻이다.

당시 정훈감으로 계시던 서중령 현  
재 정훈감으로 계시는 주대령 그 당시  
정훈차감으로 계시던 김경수 교수 그  
리고 최승령 정대위등 정훈장교들도  
두가 모두 교육자적인 인간미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산을 획득하였다.  
미국은 이 약체화된 공군을 급속히  
증강하는 데 필요한 요소 즉 자원이나  
공상 심비, 기술, 노동력을 갖추고 있  
는다. 세계에서 최초로 항공기를 만

나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만큼 어떤 군인보다도 조종사  
가 정신적인 불안을 많이 느낄 것이  
기 때문이 성적이 자연 거칠지 않을  
까 생각했었다.

그리나 직접 조종사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렇게도 부드러운 군인들이 어  
디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당시 대위였던 현재의 P중령 같은  
분은 그때 벌써 수천 시간의 비행기  
육을 가지고 있었다. 적진 폭격을 몇  
차례나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일  
글을 대할 때 그리고 말소리를 들었  
을 때 나는 그에게서 조종사라 기보  
나 선배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얼마  
나 침착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랐  
다.

내가 듣기에는 조종사는 위장이 약  
해져기가 쉽다고 했다. 공기가 희박  
한 높은 공중을 날기 때문이라고 한  
다. 그래서 영양분을 너무 보다는 많  
이 섭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우  
제도 쇠약해 보이지 않았다.

다들 진장했다.

조종사의 성격이 거칠다는 말이 사  
실이 아닌 것과 같이 조종사의 전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벨트를 채우고 조종간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비행기와 한몸이 되어 다른  
잡념을 가질수 없다」고 하면 P중령  
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자기라고 하

물고 항공기술을 높은 수준에까지  
집어들린 미국시민들은 긴급사태에  
도 부응해서 다시금 열강(列強)의 수  
준에 달할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는 개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비행기  
와 생명은 같이하는 조종사는 인체나  
정신적으로 긴장되어 있다. 그 긴장  
속에서 조종사들은 자기의 성격과 자  
기의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나  
아닐까 생각한다.

P중령은 또 말했다.

「전투를 끝내고 진지로 돌아올 때 삼  
팔선만 넘어면 모든 산책이 다 고향  
만 같지요. 고향이라는 생각이 마음  
을 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모릅니  
다.

높은 상공에서 고향을 내려다 보며  
즐길수 있는 마음 그것은 조종사들로  
하여금 영원한 향수의 소유자로 만드  
는 것이 아닐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  
향을 사랑할수 있는 마음이란 인간적  
으로 인간미를 들구는 일이 아닐까 생  
각한다. 그는 마음의 서정을 가질 수  
도 있다.

P중령은 아니라 여러 조종사에게  
서 그런 말을 들었다. 비행도중 자기  
고향 하늘을 날을 때는 그냥 지나가  
지를 못한다고. 주저공 비행을 하여  
몇바퀴 선회를 하거나 비행기 날개를  
흔들며 고향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야  
만다는 것이었다.

일마나 몇진일이며 얼마나 몇진 정  
신인가?  
P중령이 그 뒤 결론을 했다. 그때  
서 나는 그의 가정 생활을 유심히 바  
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 가을과 九·二八과 나



朴 喜 柱

이제 또 九월이 온다!

九月이라면 필경 가을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가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대체 이 가을을 느끼게 될 때마다 잊혀져 가는 한 슬픈 影像이 되새겨져 온 하는 것이다.

한 兵士의 얼굴—

一九五〇年 九月二十八日—이를테면 九·二八의 收復을 나는 서울 眞陵 골짜기에서 맞았었다.

그날, 九月二十八日 새벽—

시내에는 벌써 U·N軍이 進駐했다는 이야기였지만, 이튿날, 그러니까 九月二十八日 새벽까지도 眞陵 골짜기는 赤治下였다.

연이어 산을 넘어 날아드는 砲彈이 골짜기 골짜기에 灼裂했고, 그런 수를 홀이러진 隊列의 피뢰군 敗殘兵들이 줄을 이어 退却의 行列을 짓고 있었다.

어쨌든 탓이었을 게다, 나는 연거푸 터지는 砲彈의 공포도 있고 산비

탈의 한 길가에 나가 서서, 그들 退却의 行列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저친 얼굴들이었다. 찢어진 褙투성의 軍服에 걸레

꼭처럼 너덜너덜해진 軍靴. 모자도 없는 머리는, 몇번이고 꺾

질 못해 덩수룩히 솟날리고 있었고, 그애다 앙상히 드러난 광대뼈에 꿩하

니 파여진 눈망울은, 꾸이 해골 그것이었다.

더구나 그런 얼굴이 햇빛에 그늘어 새까맣게 타 있었고, 온 얼굴에서 땀

방울이 줄줄이 솟고 있었다.

건고 있다기 보단 쫓기고 있다는 것이 울겠지만, 아뵙는 그들의 걸음걸

이는 허공을 밟는 듯 불안한 것이었고, 금새 풀색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

런 저러빠진 것이었다.

난 신기한 눈으로 그런 저친 行列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때였다.

그 대열 속에서 한 병사가 불쑥 내 앞으로 다가왔다.

『애!』

기껏 열 여섯이나 일곱 쯤 되었을 까. 불대로 같은 오른팔을 걸머져고 있었고, 그 불대 밖으로 검은 티한 피가 흥건히 드러나 있었다.

가정생활을 걱정했던 것이다. 비록 인 간적으로 탓할 때가 없는 P중령이지 동이나 하지 않을 까 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한 애처가들본일이 없을 만큼 그는 부인을 사랑했다.

『오끼나와』 같은 먼 곳을 비행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반드시 부인을 데리고 나가 의식을 한다. 부인과 의식을 할 때는 반

나마 선물을 사준

다.

그 뒤 P중령은 미 국공군 학교에 가서

도 우수한 성격으로 졸업했다

는 말을 들었다.

어떤 나 라 사람에 게도 뒤떨어

지 않았던 는 우리의 공군이 다.

누구보다 도 용감한 하늘의 용사지만 그들이 저

상에 내린 뒤에는 신랄한 군인이요, 신랄한 남편인 것이다.

『코메트』를 편지하고 있을 때였다.

『코메트』에 실리기 위하여 당시 공군의 여자장교 K중위와 L소위의 대담(對談)회를 가진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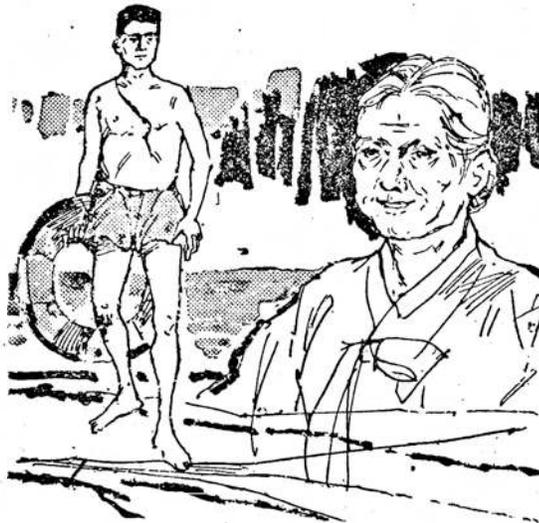
K중위는 지금 제대를 하여 한국유

일의 여류조종사로 활약하고 있지만 L소위는 조종사가 아닌 여자 장교였다.

L소위는 그 대담이 있던 뒤 얼마 안되어 급사했지만 대담회에서 그 두 여자 장교와 대담을 할 때,

『하늘을 누가 제압하느냐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점이다. 그런 만큼 여성들도 하늘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어

요.』



하늘을 하면 말을 기억한다. 무조건 동경하는 여자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날아보고 싶다는 마음

을 가진 여자

는 비효

적이지 않

을 생각해

한다.

이 두어

자 장교는 하늘에 대한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 신과 자적 존재 같았다.

현재 공군 여자 장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에게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정열을 갖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높은 공중에서 하늘과 같이 넓은 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小 說
友 情
金 利 錫

바로 얼마 전, C 마을에 우체국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본시 철로길에서 오십리나 떨어진 두메산골 벽촌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봄부터 마을 뒷산에서 형석(螢石)이란 회광석이 나기 시작하자, 갑자기 많은 광부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광석을 나르는 추력도 점점 그치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나니 자연 장사꾼도 모여들어 갖새에 한 번씩 장도 서게 되었고, 학교와 지서도 생겼고 이번엔 또 우체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체국은 동구 앞에 있던 산당을 뜬이 고친 아주 풀 뜯은 잔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보는 사람은 단 세 사람이었습니다. 즉 국장 한 분과 사무원 한 분 그리고 우편배달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편배달부는 본시 삼십년동안이나 옛장사를 해 온 강편이라는 영장이었습니다. 그 영장이 우편배달부로 전향한 것은 하도 오랫동안 가위질할 해가 머뭇사라고 목청을 들군일에 실증이 난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하여튼 그는 그만침이나 오랫동안 이 마을 저 마을로 있을 팔려 다녔으므로 누가 어디서 산다는 것은 헛하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편배달부치고서는 아주寂寞자였습니다.

그곳은 워낙 사람이 드문 산골이고 또한 우체국을 개설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물은 그리 많지가 않았읍니다. 하루에 기껏 많다는 날도 오십통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대개는 광산사무소에 가는 것이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가는 우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산사무소에 들러 우편물을 받기로 먼저 주고나서 학교와 지서에 가는 신문이나 배달해 주면 그날의 일은 끝난 것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배달부에 비하면 국장과 사무원의 일은 더욱 한가한 편이었습니다. 우체국의 한층일 있어도 천 보나 한같은 것을 하려오는 사람은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우포나 파는 것이 사무원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코맹맹이 소리나 하나 자기일 끝낸 때 단 한 자신을 갖고 있는 만큼 손거울을 꺼내 놓고 요드름 짜는 일도 그의 전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을 말아보는 국장의 일은 머무거나 한가했음

니다. 가설이래로 여태까지 저음을 하려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몸이 비대한 때문인지 회전의자에 앉아서 하품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음이 없어서야 되겠다구, 오늘은 권유를 좀 나가 봐야겠군.」

말인즉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품을 하고 앉아있을 뿐으로 그것도 역시 창설이래로 한번도 인명이 들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한가한데 우체국에 갑자기 난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이십리나 머물러가 있는 산속에서 짐승을 잡아가며 혼자 살고 있는 박편이란 포수영감이 신문물 보기가 작한 때문이었습니다.

이야말로 우체국에서 큰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박편 영감에게 매일 신문을 배달해주려면 왕복 사십리 길을 걸어야 되니—

그들은 이 문제로 긴급회의를 열고 신문을 매일 배달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우리가 국가의 우체사업의 사명을 맡은 이상, 어떠한 곤난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문은 우양 매일매일 배달해 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사무원이 일어나서 코맹맹이 소리로 국장의 말에 지지찬동을 한 후, 저기에 덧붙여 더우거나 신문은 다른 우편물과도 달라 그날 배달되지 않으면 의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것 해도 배달은 자기의 일이 아니므로 그들은 그럴 말도 태연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작 그 신문을 배달해야 하는 강편 영감으로서만—

그러나 그 장본인 강편 영감도 그 일일 별로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박편 영감이 어떤 때부터 같이 자라난 죽마지우이므로 누구의 우편물보다도 그의 것만은 꼭 배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박편 영감에게 가는 신문은 다음날부터 매일 배달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신문 하나를 배달해 주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사십리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더우거나 그 길은 몹시 사나운 산물 길이었습니다.

강편 영감은 얼마동안 그 길을 다니다 못해 하루는 박편 영감을 불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사람, 내 생각을 해서 제발 그 신문을 그만 두게나.」

그러자 박편 영감은 잠작 불라구,

「이 사람이 자네가 제발 내 생각을 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게.」

하고 오히려 그 편에서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강편 영감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

—이런 산속에서 혼자 살려니 오죽 쓸쓸하려구, 그런 사람에겐 신문이 오직 하나의 즐거움일텐데 그것마저 보지 말라니 그건 정말 내가 너무했어.」

장편 영감은 친구의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준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동안은 아무 말 없이 박편 영감에게 꼬박꼬박 신문을 배달해 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문 한부를 배달하려고 매일 매일 몇 십리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읍니다.

며칠 후에 그는 다시 박편 영감을 불잡고 사정하

다시피,

「더보게 이 사람, 친구지간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홀속할 수 있어.」

「이 사람아 그게 후사지 뭐야?」

「내가 무슨 후사를 시켜서?」

「그대 신문 한장을 배달하기 위해서 매일 사십리 길을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후사하는 게 아니구 뭐야?」

「아 그말인가 그 말이라면 난 듣지도 않겠네.」

박편 영감은 애써 상대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읍니다.

「이 사람이 그러저 말구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주게나.」

「말세 드물 필요가 없다는데 두.」

「내가 이야기 하겠다는 것은 자네에게 신문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런 산속에서 신문 두 없어야 정말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 말야, 내 신문을 모았다가 닷새만에 한번씩 배달해 줄테니 그렇게 합세나.」

하고 강편 영감은 의론조로 말하였습니다. 그러

나 박편 영감은 여전히 침부담 만부담 하다는 얼 굴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어요.」

드물 생각없이 때론 담배만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닷새가 된다면 그럼 이렇게 합세나, 사흘마다 한번씩 배달해 주기로...」

「싫어.」

「아니 사흘마다 배달해 준다는데 두 싫다는 거야?」

「아! 싫다는데.」

「자네가 그렇다면야 하는 수 없지, 그럼 이렇게 하지. 하루 건너 이를에 한번씩... 이거야 물론 자네도 싫다지 않겠지?」

「그것두 싫어.」

「뭐, 그것두 싫어?」

강편 영감은 그만기가 막혀 화 소리를 쳤읍니다.

그러나 박편 영감은 눈 하나 감작하는 일 없이,

「응, 싫어.」

여전히 그 한마디로 담배만 뽀뽀 하고 있었읍니다. 그 꼴을 보니 강편 영감은 수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말만은 순순하게,

「자네처럼 친구 사정도 몰라 뭐서야 어떻게 살겠나.」

「그건 정말 내가 할 소릴세, 자네처럼 몰인정해서야.」

「이 사람이 내가 몰인정하다구? 그때 자네 내가 신문 한장을 배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한번이나 생각해 보고서 그런 수작인가.」

「그래서 자네 내가 얼마나 목을 길게 뽀뽀 신문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이나 생각해 보고서 그런 소릴 마구 떠버리는 거야.

「물론 생각해. 생각 했기에 여태까지 그 고생을 하며 자비하게 매일 코박코박 신문을 배달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걸 이틀에 한번씩 하자는 데 두 싫다구?」

「이 사람이 자네가 그런 생각이었다면 여태까지 지키는 우정을 왜 앞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거야. 제발 그런 소린 말아!」

「그러나 자네 고집대루 신문은 매일 배달해 줘야겠다!」

「물론이지!」

「이름의 한 번 두 정할 안 되겠어?」

「물론!」

「이 녀석아 뭐가 물론이야, 녀석이! 그런 배짱이라면 나도 생각이 있어!」

장편 영감은 더 참을 수가 없이 화를 발작 했을 나다. 그러자 박편 영감은 동해진 얼굴로,

「이 사람이 그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긴, 우편 배달부를 그만하는 한이 있어 두, 빗구석엔 영을 라오지 않을 테니 네 녀석은 끝이나, 빗돼지나, 하구 살다 죽으라는 거지!」

배알듯이 말하고서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 결심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장편 영감이 배달하다 보니 남은 것은 박편 영감에게 가는 신문 한 장 뿐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눈앞에는 신문을 기다리다 못해 시르멍청 하나 앉아 있을 박편 영감의 얼굴이 자꾸만 비러졌읍니다. 장편 영감은 생각해 못해,

「이왕 배달해 주면 것이니 오늘 하루만 더 배달해 주기로 하지!」

하고 배달 다니던 그 산골길을 다시 더듬더듬 찾아 갔읍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신문을 갖고 가던 토방마루에 앉아서 기다리다 벌쭈거리 웃어주면 박편 영감이 보이지 않았읍니다. 처음엔 뒷간이라도 갔나 하고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므로 무슨 불일이라고 생긴 모양이라고 생각하

고 신문만 벌이주고 돌아 왔읍니다. 다음날 장편 영감은 어제 일이 약간 구급한 체 그 래 오늘 하루만 더 하는 그런 생각이로 그 집을 다시 찾아 갔읍니다. 그러나 박편 영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어제 배달한 신문만이 그대로 놓여 있었읍니다.

장편 영감은 급기야 가슴이 철렁 했읍니다. 이 음 두상이 사냥을 나갔다가 후시나 짐승에게 잡혔이 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번개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아침부터 박편 영감의 일이 걱정되어 배달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야불야 그의 집으로 달려 갔읍니다. 그러나 박편 영감은 그날도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렇다면 이전 필시 짐승에게 잡혀 버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어 눈물이 마구 쏟아 졌읍니다.

「그래 그때 내가 그 녀석에게 신문 배달을 못해 주겠다는 말만 꺼내지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 생각을 하면 더욱 원통해 견딜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의 집을 다시 찾아가자 박편 영감은 전날과 다를없이 토방에 걸터 앉아서 늘 웃는 그대로 웃음 벌쭈벌쭈 웃고 있었읍니다. 장편 영감은 반가운 생각 보다 화가 먼저 앞서는데로,

「이 녀석아 어딜 가면 잔다고 말이나 할게지 남을 그렇게 걱정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나 박편 영감은 여전히 벌쭈거리는 웃음으로 「자네가 안 온다기에 난 너더전 산으로 사냥을 갔었지!」

하고는 물에 잠아다 는 빗돼지를 가르켜,

「오늘은 저놈이나 쳐다 버게!」

하고 말했읍니다. 영감은 큰 놀음이었읍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지구가 됐나!」

「이 사람이 빗돼지 하날 못지겠나, 저기 있는 저게 나가저오게, 내지워 줄게!」

장편 영감은 호되게 부거운 빗돼지를 지고 내려오면서 박편 영감이 신문을 보지 않는다면 자기는 어떻게 될가 하고 생각해 봤읍니다. 그렇게 되면 철을

따라 산속에 피는 꽃도 볼 수 없으며 아름다운 빗새 소리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렇지, 산속의 꽃파 새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그러고는 박편 영감의 벌쭈거리기는 그 웃음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녀석의 웃음을 보면 공멸히 마음이 기빠지니 말아!」

박편 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싱긋 웃고 나서 그리고는 생각을 계속하

「정말 그 녀석이 신문을 안 본다면 큰일이야, 그렇게 되면 나는 밤낮 사무실 구석에서 구장의 하품 커는 꼴과 코맹맹이의 여드름 차는 꼴만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이니 그렇게 되다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 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비탈길을 내려오는 동안에 저게 진 빗돼지가 점점 더 무거워 졌읍니다. 그는 그만 화가 난 얼굴이 되어,

「그놈의 두상 어찌자고 이런 호된 빗돼지를 잡아 갖고서 남을 또 맘을 빼게 하는 거야!」

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읍니다.

구석구석  
살펴보자

북이마수  
구리는 곳

# 52 IMPORTANT MURDERS

by Roy Carroll



## 조용한殺人

로이·카로올

柳起英譯

〔承前〕 카리스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미 서른세살,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젊을 때부터 미인형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훌륭했다. 그저 훌륭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품위가 있고 침착하고 거기에 요즘은 어머니다운 따사로움이 물에 불어서 집안을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 준다. 언제나 카리스타에게는 만족스러운 아내였다. 지금도 물론 아내였다. 지금도 물론 그러하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순간에도 아니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에도 사랑스럽다.

『그래, 그렇지만 난 오늘 저녁엔 일이 있는 데— 어떻게 저?』

『오늘은 쉬지구 내일 하세요. 되도록 보이는 걸요.』

『내일로 하자. 내일에는 일이 없으니 약속할 수 있다.』 오늘 저녁에는 한 사람을 죽어야 한다.

로오라는 남편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오라는 남편이 무엇인가고 고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그 내용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럼 내일은 약속해요.』

로오라는 웃어 보았다. 그는 남편이 한번 안된다 하면 꾀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밤늦게 웃어주는 로오라는 미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아름다운 로오라— 카리스타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내가 만일 실패하면 로오라는 어떻게 되나? 가령 내가 목적인 달성했어도 체포된다면?.

그는 대령의 허먼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 여리분은 여리분의 입장에서 행동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 부기관으로서가 아니고 보통의 시민이 자기의 목적을, 개인적인 목적에서 행동한다. 결과의 책임은 여리분 자신이 지우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의 기대를 가지지 말아 주셔야 하겠습니까. 정부는 여리분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주 경찰은 여리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포 된다고 해서 로오라가 돈에 고충을 받지는 않겠지. 생활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만한 재산은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없었지만 로오라는 혼자서 의로워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인범인의 아내, 아내의 명이다.

— 여리분은 법률을 파피하게 됩니다. 살인죄는 작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는 도서관에 다녀와야겠는걸.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니 다녀와서 돌아서 한잔하자. 음악이나 들어가며.』

로오라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절에서 키스를 한다. 입술은 차갑다. 그렇다고 너무 차가울 정도는 아니다. 카리스타는 갑자기 정열을 느꼈다. 그래서 한참동안이나 아내를 포옹했다.

또 대령의 말이 머리를 엄습해 왔다.

— 여리분의 가족은 희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애국가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여리분은 개인적

으로 귀중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카리스타는 한번 더 로오라에게 키스를 하고 바쁘게 집을 나갔다. 학교운동장을 향해서. 단추도 끼지 않는 그의 옷, 코오트가 바람에 휘날리었다.

점, 그는 로오라에게 말한 그대로 도서관에 들어 갔다. 관원들과 몇사람의 학생들에게 얼굴을 보며 두기로 했다. 아리바이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있었다고 증언할 생각에서다. 조금 있다가 그는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갔다.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다.

슈이코프. 아!만의 아파아트는 거기서 세번째 퍼스점류소에 있었다. 상당히 큰편의 아파아트였다. 그러나 카리스타는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보고서에 의해서 아!만은 혼자살더라는 것, 방문해도 거의 없고 그 가 찾아가는 곳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아트는 곧 발견해냈다. 임구는 잠겨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가서 그의 방문을 노크할 수가 있었다.

대부가 없다. 어쩌면 눈치를 채리고 도망쳐 주었는가... 카리스타는 그랬으면 하는 희망을 은근히 가졌으나 그 희망은 곧 깨뜨려지고 말았다. 침대에 서 내려서 신발을 신는 소리가 안에서 들려 왔다. 스타와를 풀면서 도어에 가까이 온다. 그리고는 도어가 열렸다. 아!만은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고 도어를 활짝 열었다. 그리고는 방금, 자다가 깨 얼굴을 부비고 있다.

『아!만 코우』  
하고 카리스타는 곧 말을 걸었다.

『저는 대학의 강좌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동료입니다. 영문학을 말하고 있는 카리스타...』

『아!만은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간단한 얘기가 있는데 - 분정도 시간을 빌릴 수 있겠는지요?』  
『아!만은 갑자기 의심을 품는 모양이었다.』

『지금 바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용건이고 잠깐만에 끝나는 일입니다.』  
결국, 아!만은 싫어하면서 집을 열여 주었다. 저명한 구실도 없고 도상대가 영문학 강사라니 크게 의심할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방안은 혼자살이 그대로 난잡스럽다. 청소도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옷이랑 책이랑 원고지랑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다. 방바닥에는 종이기가 저저분하게 깔려진 그 때로이다.

카리스타가 방안에 들어서자 아!만은 통명스럽게 말했다.

『용건을 말하십시오.』

『기념재단의 기부금 모집 전인데 내가 교수단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며 맞추면서 카리스타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휴기로 사용할만한 물건은 없는가, 저 의자는 어떨까. 무겁기는 하겠으나 쓸 수도 있겠구나. 부

른즈상(像)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탁상용 전기 스탠드도 있구나. 살인은 현장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일려면 용기는 이 방안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무슨 기념재단이지요?』  
하고 아!만은 묻는다.

『드레이크 기념재단입니다.』

카리스타는 생각나는 데로 지켰다.  
아슬아슬한 모험, 드레이크 재단은 아무에게도 기부금 같은 것 받는 재단이 아니다. 만일 아!만이 이것을 안다면 일은 다 틀린다. 물론 그는 모를 것이 다. 기부금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하지? 그건 판계였다. 물론 그는 저절하기 위 해서 오히려 좋다. 그는 선뜻 손에 잡히는 데로 돈을 꺼내 줄 자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약감정을 사지 않으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 이니까. 너무 빨리 주는 것도 서둘 시간을 없게 하니 불리하다.

아!만은 포켓에 손을 넣어서 찾고 있다. 잡히는 것이 없는가 보다.  
『수표를 찾을까요.』

하고 아!만은 사람을 연다. 카리스타는 기회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다. 아!만의 머리는 총알같이 생겨먹었다. 저해서는 두풀이 대추씨처럼 좀 채 깨뜨리지 않는다는 자오가 필요하다. 용기는 부른즈 동상이 알았다. 저것이면 대추씨처럼 여물다해도 개념이 터지지 않고는 못배겨 내겠지. 카리스타는 포켓 속에서 장갑을 꺼냈다. 지문을 남겨서는 안된다.

불안 속에서 그는 노상 생각했다. 내가 과연 살인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상대가 스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잔혹하지 않은가. 그러나 실행이 저 상명령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추상적인 논의가 문제가 아니다. 빨리 실행하라! 죽어야 한다. 말살해 버려야 할 반역자!

『여기가 있구려.』  
아!만은 다른 책장 속에서 수표대장을 꺼내었다. 그는 책상위에 있는 책들을 밀쳐내고 수표용지 한장을 찢어서 책상위에 놓고는 무엇일지 미리 찾 고 있다. 펜을 찾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것을 쓰시오.』

하고 카리스타는 안 포켓에서 만년필을 꺼내 주었다. 아!만은 잠자코 받아서 쓰기 시작했다. 이처럼 서투른 글씨도 보기도 좋다. 대학교수는 교사하고 능군이다. 이 보다는 더 잘 쓸 것이다. 펜이 잘 걸린다.

카리스타의 눈은 수표에 붙어있으면서 장갑친 손은 부른즈 동상을 잡고 있다. 그리고 서서히 아!만의 머리위로 올라갔다.  
드릿드릿 글자를 쓴다기 보다는 그리고 있었던 아!만의 손은 그래도 자기 서명에 이르러자 템포가 빨라진다. 그로테스크한 말치 끝무이 많은 자체다 서명이 막 끝날뎡, 부른즈 동상이 대추씨 머리에 정봉으로 내려졌다.

일적으로 알았다. 때루찌미리는 보기와는 다르다. 카리스타는 한번 더 잤다. 대통령의 말이 영화필름의 녹음판처럼 그의 머리속을 스쳐갔다.

—여러분과 같이 교양있는 인사에게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재를 가할때 주저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흘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는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평화를…….

카리스타가 가진 브론즈 동상은 제법제로 「반역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아침이 되었으니 잠을 잔 것까지는 않다. 잠을 자지 못했다. 때문에 눈앞이

붉다. 로오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으나 카리스타는 다른 말로써 답변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벌써 이상스러운 남편의 태도에 로오라는 걱정이 대단하다. 카리스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자니까 더욱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도 그는 면도를 하고 얼굴을 가다듬었다. 눈앞은 틀어가고 얼굴은 창백하다. 그는 커피도 들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가! 하고 발견한 것은 학교에 가서였다. 만년필을 그대로 두고 오지 않았다.

九시에 는 사형대에 서야 한다. 여덟시에 회유의 면회와 회유되어 로오라

### III

#### 내가 사랑하는 생활

하사 강 무 종  
(함흥본창형정관선)



현대인의 대부분은 조용한 농촌생활보다는 동적인 도시생활을 동경한다. 그러나 나는 온갖 소음을 일으키며 질주하는 차량 포화상태에 이른 인간 속에서 노이로제, 신경쇠약 같은 高級病을 지니고 있는 도시생활보다는 아늑한 전원이 전개되는 속의 지극한 풀내의 섞여 우자울진드리는 지를내 속에서 어수룩하게 살아가는 농촌생활을 사랑한다.

그런데가 전복 J음을 고향으로든 P병장과 제대를 二十日 앞두고 나는 대화에 이르렀이 있었다. P병장은 제대를 하면 고향에 돌아가 어딘가를 모시고 아내와 더불어 훌훌이 문혀 단란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나의로의 해석을 한채 말을 진네었다.

「P병장! 누가 따분하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산답디까? 서울에 가서 취직해서 편하게 살지」

가나타였다. 아내와 남편은 살풍경한 실내에서 마주 섰다. 이번엔 한해서 인제나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던 철망이 없다. 저어쪽에 계부한 간수가 얼굴을 물리고 있다. 부부를 위해서…….

로오라는 점은 웃으로 물음 싸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주 절동 웃은 아니었다. 여원 얼굴이면서도 남편을 위해서인지 짐술 연지를 바르고 무리한 웃음을 짓고 있다.

『오호, 주지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무슨 말이랴?』

『당신에게 사실을 말하도록 권해보라 하었어요. 지금 두 눈이 안다구요.』

그리구는 전화로 연락하라 하었어요.』

로오라는 필사적이다. 말은 하지않지만 그의 눈은 하나 님께 남편이 사실을 말할기를 애원하고 있다. 카리스타는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는 희슬한 벼를 바라본다. 이 벼도 앞으로 한시간이 못돼 사라지고 만다. 온 세계의 모든 것과 더불어.

그는 또 다른 五十二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 가운데서도 몇사람은 지금 나와 같이 이 살풍경한 방에 감히어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몇사람은 이미 영원한 심연(深淵)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들어가고 말았을까? 그 가운데 누가 한사람, 그 누가 한사람 진상을 말한 자는 없을까? 주지사가 것처럼 알고 파하는 진상을! 가령 누가 임밖에 뱀다하더라도 그것이 내귀에까지 들어오겠는가?

『의 모두들 내말을 믿지 않는가.』

카리스타는 우정 소리를 크게해서 말했다.

『허지만!』

하고 로오라가 말한다.

『누구라도 당신이 살인할 사람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꼭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만 생각해요. 거기에 당신은 아!만이란 노인과는 전혀 인사도 없는 사이가 아네요.』

『아나, 잘 알고 있는 사이야.』

카리스타는 또 시선을 돌렸다.

부부는 잠잠 해졌다. 카리스타는 또 아까 그 생각

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 지기를 감히 원해 보는 것이다.

이 머리에 떠올랐다. 누가 사실을 말한 사람은 없단 말인가? 五十二명 중에서 누가, 그 누가. 한사람이라도 말한 자가 있다면 나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하든 알고 싶다. 그것을 알려줘달라!

물론, 로오라가 말했다.

『데이빗도 다이나도 당신이 법정에서 한말 하나두 믿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이 좋기는 좋으나——』

『게를 이제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六개월동안 애 어른이 되고 말았어요.』

『보고 싶구나.』

『적정 마세요. 제가 잘 키워주고 있으니까요.』

『좋아, 당신을 믿어. 당신은 믿을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증명하는 하지마는.』

간수는 저어쥬 구석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신문을 읽고 있다. 그가 신문은 활짝 펼친 것은 뜻이 있다. 부부간에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로오라를 믿고 진상을 밝히려고 싶구나... 그가 그것을 다른사람에 말하지 않고 주 지사에게 진화를 걸거나 하지 않는다면——.

카리스타는 아내에게 이 비밀을 밝히고 싶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해선 짐을 벗을 수 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오라는 애국자를 남편으로 가졌다는 자랑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로오라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고만 있다.

『로오라, 나는 사람을 죽였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내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알겠지 그 사내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나뿐이었다.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문득 발을 멈추었다. 아내의 눈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에 아내의 필사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왜 말해서는 안되는가? 나는 왜 이 가련한 나의 아내를 버리고 죽어가야 하는가? 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필사적인 아내의 애원하는 얼굴. 그 일

말——

갑자기 간수가 일어선다. 그는 가까이 다가서자 신문을 접고는 무슨 말을

을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로오라 나는 아——만을 죽였다. 그 이유는...』

카리스타는 여기서 발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간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아는 얼굴이었다. 처음 그에게 소집장을 가져왔던 공무원의 신분증을 가졌던 사나이—— 지금은 사형수 감방의 간수.

『오늘 석간인데 아내가 읽어볼만한 기사가 있구려.』

하고 간수는 신문을 카리스타 손에 쥐여 주었다. 조그마한 타이틀이 그의 시선을 잡는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리 아메리카 합중국은 최근 六개월간, 한국전쟁 이래의 국제적 위기에 놓여있었다. 다행이 이 위기는 이제 모면할 수 있었으나, 이 위기는 오늘에 와서도 진실상을 공포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또 공고하며 장래에 있어서 평화와 유지를 위하여 우리의 정책은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자부한다.」이 수수께끼 같은 발언에 대하여 기자들은 머리가 지끈거리고 화살을 던졌으나 대통령은 그 이상 설명을 회피하고 화제를 동업정책으로 바꾸어 버렸다.....

로오라는 신문지를 밀치며 남편의 손을 잡는다.

『정말, 무슨 까닭으로 그런것을 했어요.』

간수가 카리스타를 바라보고 있다. 카리스타는 여성만이 가지는 눈치 빠른 이해력으로 자기 말의 참 뜻을 알아볼것을 바라면서 명백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

△笑 語▽ 돈을 많이 가진 손님을 맞아들인 여관 주인이 그돈이 탐이 나서 손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라고 백반(白饅)을 많이 섞은 밥을 주었다.

손님이 떠난후에 주인은 마누라를 시켜서 방에 가보라고 했더니 다녀온 마누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이구 잊어버리라는 돈은 안잊어버리고 숙박로만 잊어버리고 갔어요』

# 新兵生活의 點景

글·그림 李圭植  
★下士 印刷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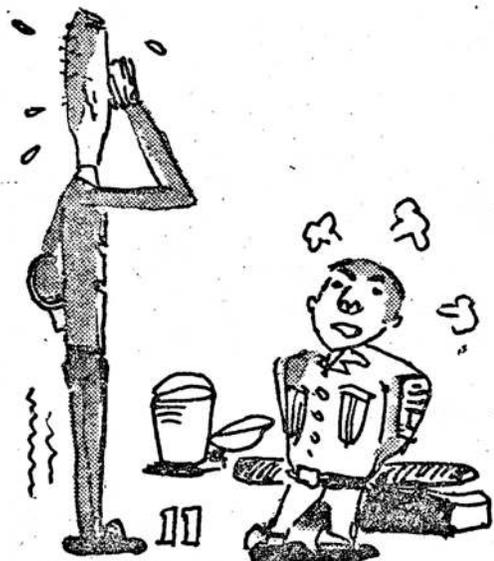


內務査閱準備로 私物函을 整理할  
량으로 먼지를 훑쳐내다가, 오래前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노트 세 卷을 發  
見했다.  
이 세 卷의 노트. 三六判짜리 規  
格的인 작은 手帖인데 노트, 내머리  
속엔 오랜 어제의 感懷가 되살아올  
라 한동안 感傷을 떨치지 못한 채  
벼운 眩氣症까지 느꼈던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大端한 秘  
密이 秘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난오  
래 동안 떨어져 있었던 多情한 親舊를

다시 만난 기쁨같은 반가움과 실례임  
의 表情으로 이 노트 세 권을 500  
쓰다 들었고 貴重한 物件을 대하듯 먼  
지를 깨끗히 털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다.  
이것은 내가 軍服을 입기 爲해서  
航校로 떠나던 날부터 始作해서 入  
隊滿一年이 되던 다음해 1월까지 지  
었던 半日記形式의 漫書手帖이었던 것  
이다. 부흥 가슴을 안고(불안한 마음  
도 섞임) 親知들의 멋진 送別을 받고  
집을 떠나던 瞬間의 내 모습이란!  
이제 이 冊의 제일 첫장에 그러진  
게 내 서문 漫書手帖의 序章. 벌써 4  
수로는 4年前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림조차도  
아닌 漫書를 잘 그린다든 자랑은 아  
니다. 잘 그리는 것 아니래도 사실 趣  
味라면 어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림  
을 좋아했다는 것 술술 必要도 없는 데  
이 動機랄까 原因은 國民學校 四學年  
때 내 작자가(冊床을 함께 한 동부의  
경상도 사투리다) 圖書인 天才의 소  
질이 있어서 담임선생이 노상 옆에서

지도하곤 했었는데 난 그저 옆자리에  
앉은 德分으로 보고 따라사 흉내내며  
그린게——그만 어찌다 道內兒童美展  
에 入選된게 本格的으로 좋아하게 된  
原因이라고 할까? 전극 친당해서 當  
選된 것이다.  
그 德澤으로 中學校에 가신 貫祿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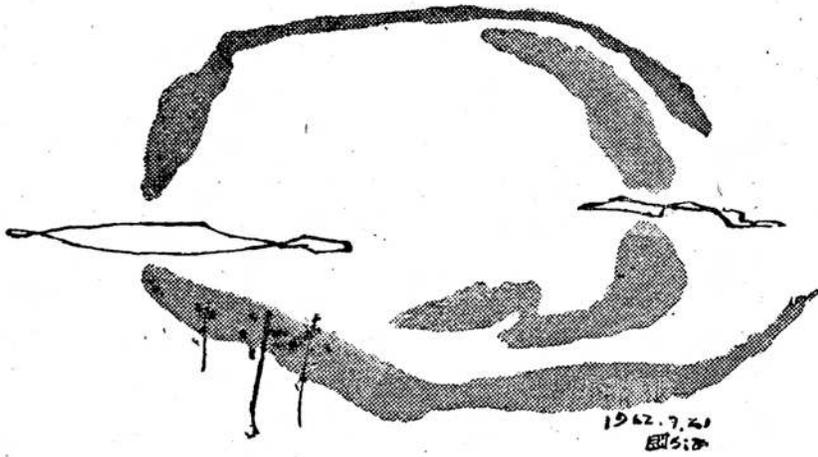
가 마음에 들어「이젠」을 걸며 고市  
외로 쫓다던진 지금 想像해도 유쾌한  
기분. 그때 그런데 三十餘點이나 고  
히 간직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게으른 탓으로 日記 쓰  
길 싫어한 내 習慣에서 入隊前日 노트  
트 네댓권을 準備한진 틈이 없을 卒



4월 12일  
오늘보고 하교 박병장에게  
기압? 받다.

자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까  
저 수많은 身上調査나 환경조사니 또  
는 個人面談에 將來希望을 「漫書家」  
니 「美術家」니 하는 對答은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내 저속한? 實  
力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  
허지만 틈만 있으면 산이 좋고 바다

兵生活에서 簡單한 生活의 記錄을 남  
기자는 忙에서 作心했는지도 모를 일  
이다.  
如何든 서투른 筆致로서 들고, 보  
고, 느낀 것, 생각한 것 등 쓰고 단 일들  
을 날짜별로 그리기 始作한 이 그림  
들을 조각조각 장마다 넘기는 동안 내



## 하늘

오렌지에서 연보라까지  
 始源으로 달리는 鄉愁가 젖은  
 눈가

잡힐듯  
 돌아서는  
 끝없는 暗示

글·그림 명장 정 해 심  
 ◇인 세 소

가슴엔 많은 느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사람을 莫論하고 생각없는 無感覺한 사람이야 있을까라는 난 유달리 느끼기도 잘하는 感激派族屬이다. 그래서인지 어릴때 氣鬱 霸氣가 적어 어른들에게 꾸지람만 들어도 절망거리고 울적거렸고 동네 애들한테서도 웃음꺼리만 되고 그저 『와아』하고 울어버리는 울음보여져 아마 지금까지도 天性이라서 어쩔수 없는가 보다.  
 허기 때문에 이 軍隊生活에 첫발을 디디서 一餘年. 깨알같은 註記에 다 千態萬型으로 그린 自畫像이 좋은紙面을 채웠고, 이 時期에 그린 한컷한컷이 軍隊生活에 가장 뚜렷한 記錄이 되고 말았다.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파스칼」의 名句는 高校時節인가 敎科書에서 읽은게 처음이지만 이 句節이 지니는 무거운 比重을 무겁게 깨우친진 부끄러운 얘기지만 入隊한 후 一年 동안이다.  
 이 思索하는 『갈대』인 내가 느낀다는 것으로 해서 生活을 營爲하는 때 얼마나 더(加)함을 가져다 주었는지 打算的이기 보담 內向的인 性格에다 어떤 意味에선 減(減)함도 함께 가져다 주었다면 난 『일마나 보람없는 生活을 한 것인가』하고 요즘도 종종 마음에는 꺼보지만 결코 넘겨보는 내생각엔 손(損)만이 아니었다고 自慰해본다.  
 참 웃은운 애기가 있다.  
 『생각해야 한다는 切實한 要求도 없이 년 될 생각해?』  
 하고 묻는 친구가 있다면,



수한 義詞。내가 그의 位置에서 감히 갖지 못했던 理性의 의심。 또 다른 것 하나.

『정말 안하면 안하지 시시하게 놀긴 싫다.』

엄마 말이 떠오른다. 고기는 씹어도 도미요, 人間은 죽어도 사내란 말을 이리식으로 투정 아닌 투정이 나오게 되는 건 무엇때문? 하고 내생각이 거기까지 支配하지만 나도 神通한 對答은 없다. 어떤 社會에서나 利己의 小數의 壓迫자들이 만든 雰圍氣 때문에 全體 雰圍氣가 좁혀지는 것, 말은 쉬워서 率先垂範이니, 上敎下愛를 부르짖지만 圓만한 안되는게 團體生活이고 또 全體를 이끌기 爲해서 本意 아닌 方法이 나오게 되고,

『바로셨! 뭐 웃으위?』 아 보이지 않나? 이 階級章이 보이지 않나 말이다. 넌 大學을 나오고 머릿속에 배운게 많지만 이 上兵님 보담은 셋(階級章) 장난간인줄 아나? 아무리 나이가 많고 배운게 많다고도 二等兵은 二等兵이얏, 뒷때문에 된 할라카노? 너도 매일 콩나물국국 뭐 재? 내가 묵은 이 콩나물은 길이가 얼마나 긴줄아나? 니 계산해봐라. 『.....』

『이...』 上兵이 자신전 무공화 타고 경부선 왔다갔다 두번해도 더 된단 말이다. 니가 묵은 건 기껏해야 여가서 수원(水原)도 못돼! 『별신간이.....암제장이 놀지 말란 말이다.』

이러면서 반 웃음속에 벌어지는 우 리들 주위의 點景. 어떤 때 길거리에서 除隊하고 나간

先輩들을 만나면 으레히 그쪽에서 그들의 軍隊生活 鄉愁病(?)에서 왕왕 곤란한 質問을 받곤 한다.

『요즘 어때?』 『뭐, 그렇지...』

『전과 같다는 뜻인가?』 『저런만...』 우선 思想이나 軍人들의 思考方式도 發展하는데... 內務生活의 向上策은 언제나 우리 班長의 論議對象이 되고, 또한 各 內務班別로 힘쓰고 있음은 再言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거기에서 만난 先輩의 對話는 境界의 生活를 想像한 過去의 얘기에서 온 질문이다. 그러기에 그의 先入感은 벌써 軍隊生活의 全面을 惡意로서 解釋했음을 辨이다.

이런 原因은 단 하나, 社會的인 動物로서 너무나 호리진 利己, 個人 또한 亞種族들이 내뿜는 毒素으로 因해 감염된 極少數人에 의한 獨存의 行動으로 말해서 되고 있었던 것이다. 말로서만 부르짖을 時代는 벌써 저났다. 革命의 主體가 軍인이요, 가장 理性이 바른 것도 眞實의 우리세대다. 新兵도 古參도 줄지만 行動의 체계가 있기 전에 스스로 自己의 位置를 確實히 파악하고 견지해야 하는 게 오늘날 科學의 文明民族이 갖는 軍人觀인 것이다.

안일과 어제의 機會的인 요령(要領)으로 兵役을 해입히려는 『가련族』이나 自己本分을 忘却하고 靚한 虛勢로서 습박시킬 때면 우린 다같이 反省해야 한다. 『要領종계 三年마쳤다』의 간판은 역시 그의 人格을 測定할 수 있는 값

산 動物.

代名詞를 烙印적하기 前에 신분 初期 反省으로 해서 左右되는 人間의 弱點을 스스로 速히 찾아내야 한다. 神이 아니니 失手도 있을테지만 失手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역시 현명한 일이다 아냐?

말이 열걸로 새긴 했지만 Y의 말마따나 軍隊生活의 九〇%가 內務生活 일인데 정말 各個人들의 새로운 覺醒이 絕對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 반 카 드

병장 백 단 길

★인쇄소

七月의 햇살이 몸부림치며 연병장의 모래알을 달구고 있다. 주변하사의 외출중 주의사항이 여러때 보다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어서 으레겠이는 의출진 행사로 부장검사가 시작되었다. 모자를 벗어 들고 그속에 주머니 새간을 모조리 꺼내 놓고 바지자락을 쳐들어 보이면 이 절차 역시 순조로히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렇지 않았다. 어젯저 짐할 때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사제단화가 곧내 말성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거 사제단화지? 잘아시고 나가!』 이 정도라면 그대로 전례에 비추어

『(이)구 벌써 취침나말이 부는군.』 차레차레 넘기던 手帖에 제일 마저 막 그린진 一週日分 配給을 받고 마구삼켜(철이 넘기지 못하)고 실사를 해서 一夜 十五回出擊의 記錄?을 남긴 어실은 自畫像, 벌써 三年前 일이다. 이젠 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누워서도 생각은 마냥 어질 向하는 것이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었다. 『자! 이제부터 의출이다.』 나는 정문을 나섰다. 그리곤 아래위를 한번 훑어보며 만족한 미소를 띄웠다. 잘 다려진 카키복 조롱에 신 「레지카」피, 먼지가 미끌어 떨어지는 단화의 끝이 자랑스러웠다. 『흥!』 이 신을 벗어 놓고 그 두박한 靚상화를 신고 나가시라고.....』

백스속에서도 행어나 밟힐까봐 온 신경을 신발에 집중시키고 오늘의 「스케들」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백스가 서울역에 왔을 때는 등에 맘이 훌러 반스대 뒤편이 축축했다. 시원한 「아이스-케이키」의 간판이 나의 발걸음을 불러들여 나는 바깥 그곳으로 향하였다. 이때 『실례합니다.』하는 글

저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푸른 「헬페트」와 푸른 바탕의 흰글자 「현병」이라고 쓰여진 완장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이내 고개를 밀어내며 단화를 보았다. 베스안에서 그렇게 조심하던 분으로 아직 먼지 하나 묻지 않았고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 현병을 보았을 때 그도 나와 같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고 있었던 모양으로 나와 단화를 번갈아 보는 것이었다. 「내 단화가 부러워서인가 보다. 아니 그보다 지을같은 단화같은 자기 얼굴이라도 비춰보고 싶어서 그랬지...」 나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딘가에 가서 도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저지은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어색한 웃음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의술중 중보사다.』 무엇인지 몰르고 있는 듯한 만만치 않은 목소리였다. 나는 태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크게 심호흡을 소리없이 하며 의술중을 꺼내 들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의술중을 풀어보며 내 단화를 힐끗보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의 손에 쥐어진 의술중을 보며 어서 달라는 듯 조조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불안은 끝내 나의 침착을 아랑곳 하지 않고 시선을 발아래 신발에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그 단화 사제조?』 그의 물음은 법정에서의 재판장이 피고를 두고 하는 질문처럼 엄숙한 반응이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없이 단화를 다시 내리다 보았다. 여전히 먼지

하나 앉지 않은 그 꼴이 정오를 막자 난 햇빛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 그의 최대의 자랑인 웃음을 발산시키고 있었지만 부대 정문을 나설 때와 같은 만족한 미소는 저미출판들도 나의 입을 스치지 않았다. 『이것이 편상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더 일찍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주변하사에게서는 의술중만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것 외에 「위반 카아드」라는 구속영장같은 「카아드」의 의술중과 함께 쥐어져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제일 먼저 주변하사의 얼굴을 생가해 보았다. 다음은 호방이 같은 내 무반장, 선임하사, 계장, 그 모든 사람들의 빈틈없는 얼굴이 나의 머리를 스쳐갔다. 「케-키」실으로 향하였던 발걸은 큰뇌의 지시없이 반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현병이 물세도 된 땅 스투었다. 『그 현병만 아니었다면...』 아니 오늘 의술만 안나왔다면... 그는 왜 되고 싶어진단? 「이놈의 단화를 왜 신고 싶어진단?」 단화의 코를 양쪽반로 번갈아가며 밟아 문질렀지만 결국 그것도 가장 후련하고 저당한 사후대책은 아니었다.

의술 귀영은 평소때 보다 두 시간이나 빨리 하였다. 의술의 성파는 의술중의 에 가지고 있는 명외의 「위반 카아드」였었다. 정문으로 들어설 때 단화의 꼴을 보았지만 이내 시선은 위병소로 향하고 아지못할 공포가 전신을 휘감아, 귀영으로 하러가는 발걸이 무겁게만 움직이고 있었다.

내 뒤를 따라와 들어오는 金上兵의 웃음에 가득찬 얼굴과 그가 신고 있는 부츠해보이는 편상화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 P 4에서 △  
關心하였으며 여러가지 衛星이 發射되었지만 宇宙科學이 實質적으로 人類福祉向上과 平和利用에 寄與함을 독촉할 수 있는 것은 이번 美國의 「텔스타」 衛星成功이 처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텔스타」 衛星製作이 民間人會社에 依해 製作되었다는 것이 特別한 점이다.

또한 이번 「텔스타」의 成功은 國際 衛星計畫의 發展이나 東西兩陣營의 懸案인 外氣圈의 平和利用問題를 刺戟한 것으로도 본다. 人工衛星發展에 있어서 自由陣營間의 技術協調는 그렇게 힘든 問題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東西間에는 아직도 相當한 帳幕이 가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소聯보다 뒤늦게 出發한 美國의 宇宙科學이나, 加速度로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이고 보면 소聯에서도 宇宙開發을 共同으로 하자든가, 外氣圈 平和利用問題等도 活潑히 다루게끔 된 바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소聯의

氣象通信 衛星의 發射도 있기는 하였지만 美國의 繼續적이고 果斷性 있는 前進는 美소間의 宇宙競爭面에서나 그 밖에 宇宙開發問題를 圍繞한 國際問題解決에 반드시 「이시시아틸」을 가져오도록 하게 될 것이 믿어진다. 곧 앞으로 이번 美國의 「텔스타」中繼通信 衛星의 發射成功으로 其實着着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汎世界的인 電波送受信이 可能性에 비추어 世界的 「메스-커뮤니케이션」이 類例없이 縮少되어 現代의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메스-미디어」로서도 登場하게 될 때에는 그 影響力이 甚大할은 勿論이러니와 앞으로의 美蘇를 비롯한 自由 共產 兩陣營間의 冷戰도 그 樣相이 두드러지게 달라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豫測할 수 있을 것이며 于先 TV界에도 그대로 反映되어 中繼 衛星의 實用化로 全世界의 「TV스크린」을 通한 各己의 宣傳場으로 만들 날도 먼지 않았다는 觀測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編 輯 後 記△

가을과 더불어 △結實的 季節△이 왔다. 산과 들에는 豐盛한 열매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노련한 농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자기의 작물에 최후의 손질을 한다. 이달의 특집 「우리의 實踐을 沮止하는 것은」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년초에 계획했던 우리들의 「계획」들을 보다 여물게 하고 알지게 하기 위한 것은 試圖이다. 「나를 움직인 책들」을 새로 連載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책△만큼 우리의 마음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부언가 가슴이 설레는 가을밤 多情多感한 우리의 감정들을 달래며 「가난한 가슴들」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배들을 움직인 책이 무엇이든 특히 그 책의 어느 구절이 그랬는가를 알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새로만든 서가에서 「나를 움직인 책」을 한번 찾아 볼 것이 어떤까. (文)



김 내각수반 공본 순시

김현철내각수반이 지난 8월 7일 박국방 장관, 김내각사무처장을 대동하고 초도순시차 공군본부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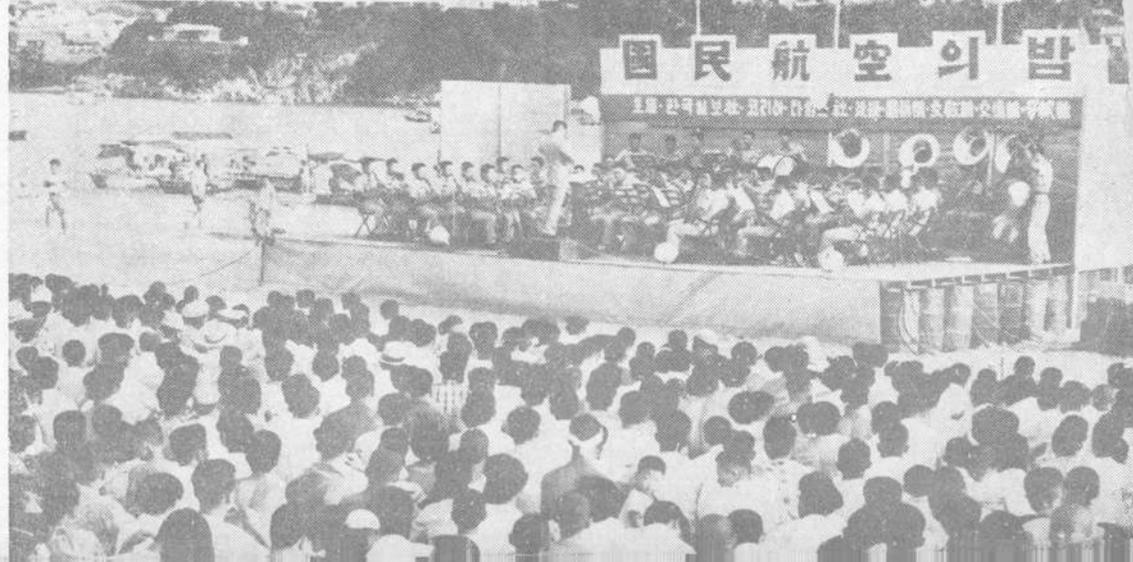
국민항공의 밤 성황

국민의 항공사상을 북돋우고 하늘로 향한 젊은이의 꿈을 한층 부풀게 하는 「국민항공의 밤」이 지난 7월 21일 한강백사장에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國民航空의 밤

주최: 한국문화보육회, 후원: 대한항공, 주최: 대한항공문화재단, 후원: 대한항공





## 군인의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출선수법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중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익히며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관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사를 가리며 단결을 굳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겸손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여는 참된 역군이 된다.